

군선교 신학

5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출 발전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 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 복음화와 인류 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 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 사역 중보기도 제목**

-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방해 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복음화를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 건설)
 3. 매년 20만 명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결실을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5.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 전도 등 10대 프로그램 실천을
 6.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7. 28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 헌신을
 8.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 등 기독교문화 창달을
 9. 모범 국민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중병과의 발전을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 청년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말

한국전쟁은 우리의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군대에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군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적 사건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전환점이 되는 군 복무 기간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을 예견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간부 중심의 인적 구조 개편과 군 복무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전은 공·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선교 현장에서의 종파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단 사이버의 침투는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집요함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한국 교회와 군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군선교 사역의 열정을 재응집할 때요 전문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군선교 사역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군선교 현장에서 군진신학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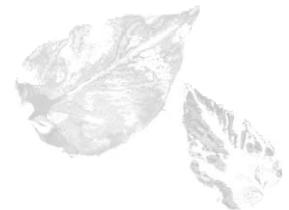
한국 교회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이라는 주제 하에 21세기 군선교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주제들로 편성되어 있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하는 군선교신학논문집 제 5권에는 특집 발제 논문, 연구위원 논문 등 주옥 같은 글들이 실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 선 희** 목사



발간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간과할 수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 제2의 도약의 때를 기다리며 출범한 비전2020운동을 통한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우리 군선교신학회에서는 제7차 논문 발표회를 갖고 군선교 부흥의 기폭제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연구된 논문집 5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후방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군종목사님들과 민간인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이 작은 논문집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입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우리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논문을 써주시기 위해 수고하신 집필자 여러분과 이 책이 햇빛을 보기까지 보이지 않게 힘써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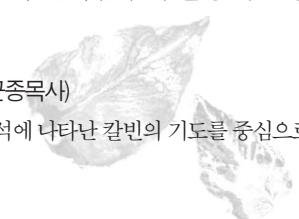
주 안에서.

200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신학회
회장 이 중 윤

Contents

- 2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4 | 머리말
- 6 | 발간사

- 9 |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이종윤 목사)
- 36 |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집단세례(김인수 교수)
- 78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강웅산 교수)
- 108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미규철 군종목사)
- 113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윤병국 군종목사)
-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
- 154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 158 |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강사문 교수)
- 189 |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홍치모 장로)
- 206 |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최석환 군종목사)
-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 -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

- 265 | 'Pontifex Maximus' 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
(이규철 군종목사)
- 286 |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考察)(박영관 목사)
- 311 |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전호진 목사)
- 332 | 군선교와 세례운동(우기식 군종목사)
- 354 |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현택 목사)



이종윤 목사

부록

- 군선교가 1(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 385
- 군선교가 2(비전2020을 이루라) / 386
- 군선교가 3(아, 비전2020이여!) / 387



I. 들어가는 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의 한국 교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금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일어난 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계(基督敎界)에 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한 각종 기념

■ 이종윤 목사

- 영국 성 앤드류스 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 대학교 수학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회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념은 단지 시간적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흥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선조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늘의 한국 교회 발전과 갱신을 위한 발판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것은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태동된 신앙을 오늘의 기독교 신앙으로 수용하여 그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부흥(부활)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2020년까지 국민의 75%를 '신자화(信者化)'하고자 하는 'Vision 2020 운동'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떠한 운동이었던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제II장에서는 먼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III장에서는 이러한 부흥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제IV장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경적 전거(典據)'가 되는 유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질적인 이스라엘 재건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M. Luther)의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VI장에서는 이상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Vision 2020 신앙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부족한 사람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개혁', 혹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개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II.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교회일치운동', '성경공부', '성령충만' 그리고 '회개운동'

지금까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신앙적 의미 및 특성을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왔습니다.¹⁾ 그러나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말(顛末)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공통된 특성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우선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을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에큐메니컬(Ecumenical)운동(교회일치운동) 차원에서 일어난 말씀을 통한 기도회, 곧 말씀 사경회(查經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경배에 의하면 1903년 겨울 스웨덴의 프란스 목사는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남감리교 선교사 화이트(Miss M. White) 여사와 함께 원산(元山)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와 성서 연구를 위해서 1주일 동안 모인 사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들과 교인이 합쳐서 연합하여 창전(窓前)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밤마다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캐나다 남감리교 선교사로 일하던 의사 하디(Dr. R. A. Hardie: 河裡泳)가 오랜 선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릇된 자신의 선교 동기에 있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순간 의사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합니다.²⁾ 그 후 1904년 봄 원산에서 삼과, 곧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연합 사경회 도중 장로교의 로브(Rev. a. F. Robb: 業亞力)와 한국인

1) 이점에 관한 연구: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신개정판(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pp. 264-281;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pp. 243-282; 김인수, 「미국 교회 대각성운동과 한국 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비교연구」, 〈2005년 제5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2005년 5월 25일 강연집, pp. 1-28; 방위량, 「그는 이렇게 믿었다」(대한기독교서회, 1961);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새생명말씀사, 2000); 홍기영,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선교학적 고찰 in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6집(2006), p. 375ff.; 홍기영, 「토착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선교와 신학」 18집(2006), pp. 12-51; 김인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성경공부의 현대적 의미」, 〈제4회 피어선 국제학술대회〉 평택대학교, 2006년 9월 4일 강연집, pp. 22-32.

2) 민경배, op. cit., p. 266.

전계은(全啓恩)이 원산 거리에서 통회 전도를 하였으며, 감리교의 정춘수(鄭春洙) 역시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³⁾

이 소식을 접한 평양의 선교사들은 하디 선교사를 초빙하여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웨일스와 인도 지방에서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평양의 선교사들은 성령 강림을 갈망하게 되었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력 11월 20일(양력 1904. 12. 26.)경 평양 야소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제 황평의 일반 교인들이 구름굴치 모혔는디 그시에 착한 사업에 경영이 회당 교회는 익익 왕성한다 헉더라⁴⁾

원산과 평양에서 시작된 선교사와 성도들의 사경회를 통한 말씀공부와 기도에 따른 성도들의 성령 충만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자, 1905년 6월 25일 서울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위원회를 조직하여 남장로교 레이놀즈(W. D. Reynolds)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국 민족교회를 창설하여, 그 이름을 ‘한국기독교회’로 하지는 것이었습니다.⁵⁾ 이에 부응하여 선교 공의회(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도 1905년 9월 15일 두 감리교 선교부와 네 장로교 선교부에서 약 15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하여 복음주의적 단일 한국 교회의 설립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후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평양의 장로교, 감리교 부흥회’에서 블레어(W. N. Blair)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더니, 그 다음 날인 주일날 밤 집회에서는 신비로

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⁶⁾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성도들은 강한 영적 힘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런던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으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고 한다.”⁷⁾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통성(通聲)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격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방위량은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영혼의 넘치는 찬양의 물결’이라고 특징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당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통회를 한 여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⁸⁾

이상 살펴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말(顛末)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와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해진 선교사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하여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각 교파의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일치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연구운동이며,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이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

3) 梁柱三, 「朝鮮南監理教會」(서울, 1926), p. 61(민경배, op. cit., 266에서 재인용).

4)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13일자(민경배, op. cit., 267에서 재인용).

5) A.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eoul: C.L.S., p. 139(민경배, op. cit., 264에서 재인용).

6) W. N. Blair, *Gold in Korea*, 3rd ed. Presbyterian Church, U.S.A., 1957, p. 63(민경배, op. cit., pp. 268에서 재인용)

7) *The Baptist Missionary Magazine*, Vol. 88, No. 2, 1908, p. 58에서 인용(민경배, op. cit., p. 268에서 재인용)

8) W. W.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M.F.*, Vol. III, May, 1907, p. 66ff.(민경배, op. cit., p. 268에서 재인용).

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아무런 신앙적 준비 없이 한순간 돌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가? 성령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전제 없이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일개 한 선교사(하지, 河裡泳)의 회개가 이처럼 많은 선교사들과 교우들의 부끄럼을 모르는 회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당대의 교회사적 배경과 성경의 증언을 살펴봄으로써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조국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한 한국 교회의 사경회

민경배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선교 방법에서 로마 가톨릭의 선교 방법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⁹⁾ 뿐만 아니라 구출라프나 토마스에 의해 이미 성경이 한국 천주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교우들에게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보고에 의하면 어느 날 한국의 천주교인이 “신, 구약 성서와 복음서를 보더니 그것이 자기 종교인들이 쓰는 책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볼 정도로, 일찍이 한국에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¹⁰⁾ 그래서 1890년대 와서 한국의 성경 보급량은 중국에서 59년에 걸쳐 보급했던 양을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보급했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¹¹⁾

9) 민경배, op. cit., p. 173.

10)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Glasgow: 1865, 36(민경배, op. cit., p. 173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 교회에 성경 보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상륜(徐相崙), 이응찬(李應贊) 두 평신도의 성경(말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873년 만주 통화현(通化縣) 고려문(高麗門)에서 존 로스(John Ross) 목사를 만난 후,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서상륜은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관을 꺾어 내어 번역한 성경을 인쇄, 출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 가을에는 심양 문광서원 간행으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 복음전서」라는 쪽 복음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¹²⁾ 그리고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 목사는 서상륜과 김진기, 이응찬, 백홍준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쪽 복음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였으며, 1884년까지 쪽 복음은 무려 1만 5천 권이 넘도록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마침내 「예수 성교 전서」라 하여, 신약성서 전부가 번역 간행되었습니다.¹³⁾

이렇게 한국에는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의 성경을 가지고 인천항에 발을 내딛기 이전부터 이미 한글로 번역된 쪽 복음과 부족하지만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선교가 수월했다고 김인수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들이 “중국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고…… 형편없는 철자와 형편없는 인쇄”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¹⁴⁾ 그래서 김인수에 의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맨 먼저

11)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Vol. 92-93, p. 242.(민경배, op. cit., p. 174에서 재인용).

12) *Historical Catalogue*, op. cit., Vol. II, No. 5984, 5985, 886. 여기에는 타이프 활자를 일본에서 얻어와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민경배, op. cit., p. 169에서 재인용).

13) *Historical Catalogue*, op. cit., Vol. II, Ser. No. 5993. 1888년에 이 「예수 성교 전서」는 6천 부 반포되었고, 쪽 복음 등의 성서는 5만여 부가 전파되었다(민경배, op. cit., p. 169. 각주 25에서 재인용).

14)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5 Nov., 1905. PHS.(김인수, op. cit., p. 164f.에서 재인용).

착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 번역 사업이고,¹⁵⁾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성경을 한국어로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한 사람은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라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더불어 그들의 어학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1887년에 1차 번역이 끝났고 바로 출판에 들어갔습니다.”¹⁶⁾ 1887년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for Translation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는 1900년 신약성경을 완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¹⁷⁾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개신교도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새롭게 번역 출판됨으로써, 한국 개신교 교우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경을 탐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 리뷰>는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성서를 그들 생활의 최심장부에 가져다 놓고 있었다.”¹⁸⁾ 그래서 민경배는 처윈(A. M. Chirgwin)을 인용하여, “한국 교회가 ‘성서의 교회’라는 말은 건줄 수 없는 자랑이요 특징이었다. 이 성서의 소중한 영접과 열의 넘치는 성서 연구야말로 한국 교회에 넘쳐흐르는 영력(靈力)의 참된 연원(淵源)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⁹⁾

15) 김인수, op. cit., p. 164.

16) 김인수, op. cit., p. 165.

17) 1887년 결성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for Translation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는 1893년 조직을 개편하고 위원도 추가하여 ‘성경번역 상임위원회(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로 이름을 바꾸었다. 구약성경은 1910년 완역되어 1911년 신·구약 성경이 완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성경이 1937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구역(舊譯)과 비교하여 ‘개역(改譯성경)’이라고 부르고, 이를 다시 개정한 것이 바로 ‘개역개정판’ 성경이다.

18) G. H. Jones, “The Growth of 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Edinburgh: 1912. Vol. I, No. 3, p. 417(민경배, op. cit., p. 174에서 재인용).

19) A. M. Chirgwin, *The Bible in World Evangelism*, London: S. C. M., 1954, p. 86(민경배, ibid.에서 재인용).

성경의 번역과 보급으로 한국 교회에 이미 복음의 밭, 곧 영적 터밭이 마련된 이후, 한국 교회는 사경회(査經會)를 통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 곧 복음의 밭이 달구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인수에 의하면 “1893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사경회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경회의 상급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기초반에서는 농한기(農閑期)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²⁰⁾ 바로 이 사경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었다고 박용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한국 교회 역사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²¹⁾ 예컨대 백낙준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1907년 1월초 평양에서 모인 사경회 기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결실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경회는 10일 간의 수업을 위하여 모였으며 그것은 이미 설정된 형태대로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저녁은 전적으로 특별부흥집회로 모였다. 이러한 저녁부흥회 중 한 집회에서 이 부흥이 시작된 것이다.”²²⁾ 클라크(Allen D. Clark)의 보고에 의하면 “사경회와 관련된 저녁집회는 남자만 1,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 있는 중양교회(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²³⁾ 박용규에 의하면 사경회를 통한 체계적인 말씀 연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도열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은 백만 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백만인 구령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²⁴⁾ 그래서 미국 선교

20) 김인수, op. cit., p. 167.

21) 박용규, op. cit., 201f; p. 660f.

22)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 370(홍기영, op. cit., p. 30에서 재인용).

23)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16), p. 132(홍기영, op. cit., p. 31에서 재인용).

24) 박용규, op. cit., p. 615.

사 언더우드라는 자신이 선교를 시작한 후 얼마 안 되어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경의 번역과 반포(頒布), 그리고 사경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이미 갈아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²⁵⁾

이상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미리 달구어 놓은 한국 교회의 말씀 번역과 반포, 그리고 말씀 공부인 사경회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연상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7-38)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에 상응하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교사들 사이에 있었던 안목과 질서를 극복하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모두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현상’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3-3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놓임을 받은 후, 저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그들(초대교회 교우들)이(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필자 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행 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29-31)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초대교회 교우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으며”(행 2:42),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의 압제로 인하여 좌절된 개신교인들이 조국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자 한 사경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 선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러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며 동시에 복음 선포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행 2:1-13)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갑자기 하디 선교사는 사경회 도중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 여자 선교사가 보고하듯이, 1907년 1월초 평양 사경회에서 많은 교우들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 어젖힌 듯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등 수많은 죄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회개운동의 원인과 전거(典據)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5)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Vol. 84-85, 1888-1889, p. 287(민경배, op. cit., p. 172에서 재인용).

IV. 말씀에 기초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에스라의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

유다 왕 요시아가 639/38년 당시 8세로 자기 부친 아몬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을 때, 열왕기하 21장 20-22절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정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²⁶⁾: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 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 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 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왕하 21:20-22).

신앙적 정황이 어떠했는지는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더 자세 히 드러납니다.²⁷⁾ 왜냐하면 요시아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와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기)”(왕하 23:4-7)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은,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

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왕하 23:10),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며”(왕하 23:11), 각종 우상, 곧 아스 다롯, 그모스, 밀곰과 같은 각종 우상을 불사르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만 든 제단과 산당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왕하 23:12-14).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벤엘 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뺏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왕하 23:15).²⁸⁾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요시아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 바 꾸어 말하면 민족적 회개운동 혹은 신앙적 정화운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 가? 그것은 바로 율법,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발견에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 통치 열여덟째 해가 되는 어느 날 왕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 성전에 보내며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와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 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도록 명함 니다(왕하 22:4-5).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 대제사장 힐기 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왕하 22:8). 그 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의 옷을 찢으며”(왕하 22:9-11)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하고, 스스로 생각하

26) 유다 왕 요시아는 639/38 - 609까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27) 요시아 종교개혁에 관하여: N. Lohfink, "The Cultic Reform of Josiah of Judah,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 M. Cross*, 1987, pp. 459-475;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1982; H. -D. Hoffmann, *Reform und Reformen*, *AThAN* 66, 1908; H. Hollenstein, "Litera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ßnahmen Josias 2 Kön. XXIII 4ff.", *VT* 27(1977), pp. 321-336; E. Würthwein,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ZThK* 73(1976), pp. 395-423.

28) 이스라엘의 역사가 군네베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보고를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던 낮게 평가하던 상관없이 요시아가 유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종교개혁을 하였다는 사실 은 그의 보고문에 나오는 지명을 통하여 밝혀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에 속했던 벤엘과 사마리아 같은 도성들도 역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Antonius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gängen bis Bar Kochba*, 문희석 역, 『이스라엘 역사』(한신학연구소 1996), p. 241.

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왕하 22:13)고 한탄합니다.²⁹⁾ 그 후 왕의 명령을 따라, 예선지자 홀다에게 발견한 율법 책에 대하여 물으니,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여호와와 말씀이 내(여호와 하나님)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왕하 22:15-16)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유다)이 나(여호와 하나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왕하 22:17)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홀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곳(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22:19-20).

그 후 요시야 왕은 새로 발견한 율법에 따라서 조상들의 신앙 전승을 회복 및 재건하는 의미에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래로)……지킨 일이 없었

29) 유다 왕 요시야가 등극하기 전,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므낫세의 장기집권 동안, 아시리아 대국은 자기 세력의 절정에 도달하여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였다. 산헤립의 후계자인 에살하돈(681-669)은 에집트로 여러 번 원정하였다. 나일 강의 삼각주에 있는 멤피스 수도를 포함한 에집트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어 아시리아 대국의 한 주로 바뀌어 버렸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22명의 봉신들의 명단 중에는 유다 왕 므낫세의 이름도 적혀 있다(이점에 관하여: ANET, pp. 290-294; TGI, 2.Aufl., 70 = Antonius H. J. Gunneweg, 문희석 역, 『이스라엘 역사』, p. 238에서 재인용).

(던)”(왕하 23:22)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왕하 23:21, 23).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왕하 23:24b),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왕하 23:24a).

이상 살펴 본 유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개축 중 발견한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한 후 단행한 종교개혁과 그의 회개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 왕의 이스라엘 종교개혁은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에서 비롯되었으며, 둘째, 말씀의 재발견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회개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셋째 회개운동은 실제로 각종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를 위한 제단과 산당을 헐고 남창이 시는 집을 헐어 버리는 구체적인 개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조상의 신앙을 전승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전개 과정, 곧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 부끄럼을 모르는 회개운동,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전승하고자 하는 100만인 구령운동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 곧 율법을 숙고함으로써 야훼 하나님에게 되돌아오는 회개운동은 BC 538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소위 이스라엘 재건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역대기 학파의 저술인 에스라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Kyros, 539-529)는 BC 538년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은 이스라엘 유랑민들에게 포로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음을 허락하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하여 온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주라는 지시

입니다(스 1:1-4, 7-11). 이러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사면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약 42,000명이 조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은 즉각 예루살렘에 비상 제단을 설치하고, 포로 기간 동안 완전히 소멸되었던 희생 제물의 제사 의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라”(스 3:1-3).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민족 외 결혼(民族外結婚) 소식을 듣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출 34:16, 이밖에 신 7:3)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본 터에 남아 있던 “……유다 사람(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느 13:23).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해석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느 13:27).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나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스 9:4-10).

이러한 에스라의 대속적 참회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회개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들을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

라”(스 10:1-3).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운동의 진행 과정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정황)	사건의 발단	회개운동	회개의 실천
아시리아로 인한 고통과 조공 바침 (제1계명을 어김)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함	요시아 왕이 옷을 찢는 회개와 더불어 이방신을 위한 제단과 산당을 헐고, 각종 우상을 불사함	율법으로 돌아가 율월절을 지킴
바벨론의 포로생활 (이방인과 결혼 금지 율법을 어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함과 이를 금하고 있는 율법을 깨달음	에스라가 옷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림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들을 내어 쫓음
청일(淸日)전쟁과 노일(露日)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 됨 ³⁰⁾ (조상숭배 및 우상숭배) (제1계명 어김)	사경회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중 선교사 및 교우가 자신의 죄를 깨달음	선교사들과 많은 교우들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	회개하고 100만 인 구령운동 전개

이와 같이 어느 민족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내(여호와와 하나님)가 다윗의

30)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반도는 청일전쟁(1894-1895)과 노일전쟁(1904.2-1905.10)의 전쟁터가 되었다.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 12:10, 이밖에 사 66:2)³¹⁾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게)”(히 4:12-13)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상응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7-38)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개혁한 16세기 마틴 루터(M. Luther)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V. 말씀의 재발견으로서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Wittenberg) 교회의 문에 게시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개혁의

31)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 알고 있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청컨대 독자들은, 내(Martin Luther)가 무(無: Nichts)로부터 갑자기 나와서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³²⁾

왜냐하면 우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무렵 중세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교회 지배권은 와해되어 서방교회는 2-3명의 병립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으며, ‘교회의 머리와 지체들의 개혁’을 위하여 콘스탄츠, 바젤, 페라라, 피렌체, 라테란 등에서 일어난 개혁 공의회들조차도 개혁에 실패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현물경제가 화폐경제체도로 대체되면서 신흥 자본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을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황청의 전제군주제적 중앙집권주의는 방만한 재정정책과 베드로 대성당 신축으로 인하여 거액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같은 민족국가가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정황으로 인하여 알프스 산 이북지역 국가들의 피해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귀족들에 의한 고위 성직 독점과 부유한 영주 주교들과 수도원의 세속화, 너무나 많은 교회 축일, 엄청나게 복잡한 교회법

32) WA 54. 186, 25-29; vgl. 179, p. 27f(Heiko A. Obermann, *Luther. Mensch zwischen Gott und Teufel*, Servin und Siedler, 1981, p. 166에서 재인용).

과 신학, 끝으로 일반 민중들의 경악스러운 미신과 성물숭배, 광신적인 종교적 신경과민, 거기에다가 노동을 기피하는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증오, 도시 지식인층들의 시민 억압과 착취 등.³³⁾ 복합적인 사회적 부패는 성경 말씀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젊은 신학자이자 기도하는 수도사 마틴 루터에게는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르게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 루터는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것이 유일한 학문적 기초이자 진리의 확실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³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진리의 표준이라는 것을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더욱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1518년과 1519년의 일들을 회고하는 자신의 자서전적 단편(1545년)에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각인하고 있었습니다(참고, 함 2:4). 다시 말해서 루터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인간의 의, 곧 인간의 선행과 공덕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전면적인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것만이 올바른 기독교의 길이기에, 나는 나의 죄에서 떠

33) 이점에 관하여: Hans Küng, *Das Christentum, Wesen und Geschichte*, 이종한 역, 분도출판사 2002, p. 657f.

34) Heiko A. Obermann, *Luther. Mensch zwischen Gott und Teufel*, Servin und Siedler, 1981, p. 159: “Denn in der Theologie ist das genauere Hören auf die Heilige Schrift die einzige wissenschaftliche Basis und damit der sichere Maßstab für Wahrheit.”

나 더 이상 그것과 아무런 관계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면 이 몸이 나의 것임을 알듯,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공로 그리고 죄 없으심과 거룩하심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으며 쇠퇴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며 교리문답서를 공부한다.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일찌언아 주실 것이다.”³⁵⁾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얻어진 이러한 신학적 인식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공로와 보상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습적인 도덕률, 혹은 양심 지향의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나(M. Luther)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러한 인식과 고백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권 아래 있을 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시 31:1)라고 기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후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보존하시는 것임을 배우고 알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³⁶⁾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사색과, 선행과 고행

을 통한 의는 항상 인간의 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의 감화로 인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하면 “율법(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양심을 비난하며, 놀라게 하는—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복음)에서나 모세(율법)에서든 그 어디서 발견하든—일체이기” 때문입니다.³⁷⁾ 그래서 오버만(Obermann)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학자는 철학이나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투쟁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그의 발전 과정을 두 단계로 축소하면 처음에는 절망적인 수도사였으나, 갑자기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자심감에 찬 개혁자가 되었다.”³⁸⁾

이렇듯 루터로 하여금 당시의 거대한 악마의 본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대항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고, 그를 개혁자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여 논리적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의 증언에 준하여 로마 교황과 가톨릭 교리를 논박하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만에 의하면 루터는 성무일과 성경 읽기와 고백적인 묵상기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증언들을 깨닫기 위한 극한의 금식과 철야기도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말씀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학문적 탐구를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35) WAT 2, no. 1351; 66, 1-7; p. 1532(Heiko A. Obermann, *Luther*, p. 161에서 재인용).
36) WAT 4, no. 4007; 73, 15, p. 24; 1538년 9월 12일(Heiko A. Obermann, *Luther*, p. 162에서 재인용).

37) WA., 39, I, 348, 25; 535, 2 : “Cum tamen revera lex sit, quod legis officio fungitur, quod terret, quod accusat conscientias, quod ingratitude, lebidines et peccata ostendit, sive sit in Evangelio, sive Mose(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율법이 그의 직분, 곧 양심을 놀라게 만들고, 고발하고, 복음으로 배은망덕과 욕망과 죄를 드러내는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Paul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 구영철, 성광문화사 1994, p. 369에서 재인용.
38) Heiko A. Obermann, *Luther*, p. 166f.

그 말씀의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³⁹⁾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탐구를 통하여 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적, 교리적 그리고 교권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그는 담대히 교회와 교황의 회개를 촉구한 운동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제에 대하여 로마 교회는 깊이 통회하는 한 방물의 눈물도 흐리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패한 로마 교회에 홀연히 등을 돌리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접촉점도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하늘과 땅을 인간이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 어떠한 인간의 이성적 사색으로나 선행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인간의 참된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⁴⁰⁾ 왜냐하면 철학은 성경의 정의: 즉 ‘하나님의 형상(창 1:27)은 영혼이다’ 라는 의미로부터 아무것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이성적 주장들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의 기반 위에서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한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는 교회의 교부들을 의미함)이 내려와 다르게 가르치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⁴¹⁾

39) Op. cit., p. 167.

40) 이점은 1536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루터의 인간론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G. Ebeling, *Lutherstudien*, Bd. 2: *Disputatio de Homine*, 2, Teile, Tübingen 1977, 1982.

41) WA 9. 46, pp. 16-2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도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 둘째, 말씀에 근거하여 당대의 죄악을 파악하게 되고, 셋째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전개 과정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복구운동의 전개 과정과 유형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Vision 2020 운동’도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조들이 사회와 교회를 갱신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온 개혁 과정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I 말씀연구를 통한 성령의 에메르겐즈(Emergenz) 현상으로 확산되어야 할 Vision2020운동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하여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운동 그리고 16세기 마틴 루터(M. Luther)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개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였던 시대적 정황은 하나같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특히 신앙적 위기(Not)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세에 의해 자국이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였으며, 경제적으로는 타국의 수탈로 인하여 삶의 환경이 심히 피폐해진 상태였고, 신앙적으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청일전쟁(1894-1895)과 노일전쟁(1904. 2 -1905. 10)의 전쟁터가 되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일본에 많은 빚을 지고 있

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였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적 자존 능력을 거의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우상숭배를 일삼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반도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정황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경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새로운 단결심을 만들어 내며, 죄로 인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에서 무력해진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억압된 삶에 다시 새 힘을 불어 넣기 때문입니다.⁴²⁾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보고 낙심되어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힘으로 고난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능히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승리의 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그러므로 Vision 2020 운동은 이제 말씀연구 운동으로 패러다임을 보

42) M. Welker, *Gottes Geist: Theologie des Heiligen Geistes*, 신준호 역, 「하나님의 영」(대한기독교서회, 1995), p. 84.

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 정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보충(Feedback) 하는 운동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 4:4, 인용 신 8:3)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지 않으면 그 세례는 단지 종교적 표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성례(Sacrament)는 단지 종교적 징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세상 끝 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마 28:20) 장병들을 불러 모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양육하고, 성령을 부어 주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군 공동체가 하나같이 단결되고 조국애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실행하시지만, 우리는 제도적 교육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장(Die Kraftwelt des Geistes)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령이 창발적으로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 온 유대와 → 사마리아와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에페르겐즈 현상이 Vision 2020 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I. 서론

금년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각 교단, 교회에서는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에 부흥의 불길이 붙기 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분주하다. 교회가 시작된 지 2천 년이 지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작고 미미

■ 김인수 교수

- 미국 맥코믹신학교(D. Min.)
-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Ph. D.)
- 한국 교회사학회 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역사신학)

한 곳에서 비롯된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일에 투신한 사명자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성장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결과이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 성장은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급속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시대마다 부흥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부흥운동이 일어나 이 운동을 통해 전도가 활성화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수세자들이 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를 초기부터 최근까지 살피고, 근래에 시도된 군선교운동을, 특히 1970년 전군신자화운동부터 최근 비전2020운동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금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운동의 성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 운동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날이 갈수록 전도는 어려워지고, 안티기독교의 악의 세력은 점점 힘을 얻어 가는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유일한 해결책은 군에서 애써 세례 준 장병들이 전역하여 사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군선교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부흥운동의역사

A.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에서는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교회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교회 성장을 세계 교회는 “근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a miracle in modern missions)”이라고들 말했다.¹⁾ ‘한국 교회의 성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필자는 그 이유를 10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²⁾ 이곳에 열거한 모든 이유들의 기저에는 부흥운동이 있었다. 이기적 혹은 무교적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일반대중들이나 애국애족의 고차원적 동기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거나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아니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경과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회관을 갖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즈음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혼란기였다. 그 해 11월, 일제는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치욕적인 늑약(勒約)을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조약에 따라 서울에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1906년 2월에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이 통감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식민화를 구체화하였다. 급기야 1910년 한일병탄을 이루고 말아 50년 조선왕조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다. 군대의 해산으로 각지에서 의병

이 일어나고, 동학 농민 혁명,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그리고 역병과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 갔다. 이런 육체적 탈진은 영적 고갈을 심화시켰고, 종교적 본능은 새로운 종교 운동의 출현을 갈망하게 하였다. 남감리교회의 무즈(Moose) 선교사는 “일반적인 불안 의식과 정신적 지주(支柱)의 결여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지향하게 하였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찾으려고 애썼다”고 썼다. 부흥운동은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사상적 혼란과 난경(難境)에서 비롯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교회적 배경은 성경공부와 기도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03년 함경남도 원산지방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스웨덴 목사 프란스(Franz)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원산의 바닷가에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감리교 선교사들과 더불어 장로교, 침례교의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 교인들도 참여하는 연합 모임으로 확대되어 일주일간 계속 되었다. 이 기도회에 남감리교회 선교사로서 강원도에서 수년 간 선교활동을 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한 하디(R. A. Hardie)가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통화 자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 운동은 매년 계속되었는데 원산지방 부흥의 소식을 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은 1906년 여름에 하디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 감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한 주간 동안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부흥회의 또 다른 원인은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회’였다. 길 장로는 1906년 가을부터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며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였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하여 얼마 후에는 300-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길 장로는 교회 당회에 정식 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 세계적인 선교잡지인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II (April 1889): 312면에 한국의 교회 성장에 대해 “한국은 오늘 현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Korea is today another miracle in modern missions)”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장로교회가 한국에서의 선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 “The Literary Work of Twenty Five Years,” *Quarto Centennial Papers*, p., 89에서 한국 선교를 “One of the greatest wonders of modern missions”라고 기록했다. 서북지방 특히 평안북도의 교세는 대단하였는데, 선천 같은 작은 도시에도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전 주민의 1/4이 기독교인이 되는 “세계선교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선교의 결과가 나왔다는 기록도 있다. 『姜信明信仰著作集』(기독교문사, 1978), 583쪽.

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pp. 206-215 참조.

한 마디로 한국의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의 자성하는 성경공부 모임과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선교사들의 “말씀공부”와 한국 지도자들의 “기도”가 서로 어우러져 이룩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실증해 보여 준 것이다.

대부흥운동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과 사회의 회개와 도덕성의 회복이다. 부흥운동은 신자 각 개인이 죄를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부흥운동의 기수들은 대개 회개를 강요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 한국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실은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기독교를 기존 신앙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를 경험치 못했다. 그러나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기독교의 진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참된 회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단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즉 축첩, 도박, 음주, 흡연, 노예 소유까지도 회개하는 경지로 나갔다. 개인의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개조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이로써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속한 사회는 격랑의 물결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둘째로 교회의 성장과 교육기관의 증가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신자들의 전도에 힘입은 교회의 부흥이었다. 1907년 한 해 동안 평양의 부흥운동 기간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해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장로교회의 성장

은 세례자 수가 12,506명에서 15,097명으로 29%가 증가하였고, 원입은 44,587명에서 59,787명으로 15,200명이 늘어 34%가 증가했다. 따라서 1906년의 교인 수 54,987명에서 1907년에는 73,844명으로 늘어 34%가 증가했다. 대부흥운동은 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감리교회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1906년에 18,107명의 교인이 1907년에는 39,613명으로 무려 118%가 증가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267.84% 성장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³⁾ 이런 결과는 외국 교회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흥운동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06년 6월 208개이던 학교가 이듬해 같은 달에는 344개로 늘어나 무려 130개 이상의 학교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늘어 1906년에 3,456명이 이듬해에는 7,50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각급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항일운동의 선두주자들이 늘어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미 3·1독립운동이 촉발되었고, 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셋째로 전도와 선교운동이다. 각성운동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진다. 각성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양한 형태의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 목회와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대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해 6월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위해 독립노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여 한국의 첫 목사들이 배출되었다. 노회는 전도부를 설립하고 노회 창립 기념으

3) H. G. Underwoo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February 1908): p. 100. H.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 285.

로 졸업생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전도인으로 파송했다. 평양여전도회에서는 1909년에 이선광(李善光)을 제주도에 보내 이기풍 목사를 도와 5년간 전도하게 하였다. 평양여전도회는 1908년에 조직을 완전히 갖추고 회원 1인이 1전씩 연보하여 그것으로 전도인을 파송하였다.

이어 1909년 시작된 '100만 명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제(金永濟)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金振瑾) 목사를 서간도에 전도목사로 파송하였다. 1909년 제2회 졸업생 최관흠(崔寬屹) 목사를 해삼위(海蔘威)에 파송하여 선교한 결과 50여 교회가 창설되어 노회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1회 졸업생 한석진 목사가 동경에 파송되어 유학생을 상대로 전도하였고, 감리교회와 현지 선교부와 협력하여 초교파적으로 선교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방화중(方華中) 목사를 파송하였다. 이러한 전도 사업에 대해 「장로교회사전취집」에 “나이 어린 조선 교회로서는 이적(異蹟)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1912년 장로회 총회가 창설되었을 때 그 기념으로 중국 산둥성에 김영훈, 박태로, 사명순 세 목사를 파송하여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다. 복음을 받은 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선교를 받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1907년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 YMCA 총무였으며 후에 세계기독교학생연맹의 의장이 된 존 모트(J. R. Mott)는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한국의 복음화가 눈앞에 와 있음을 보았고 한국이 피선교국가 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⁴⁾ 남장로교회 선교사 니스벳(A. M. Nisbet)도 한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4) J. R. Mott,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8, p. 10.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8): p. 67.

이러한 부흥운동과 교회 성장은 “과거 일백 년 동안에 세계를 통하여 신기독교(개신교)가 잘 발전되는 중 조선에서만 급속도로 발전된 일은 었던 나라에서든지 보기 드문 사실이다. 조선의 40년 간의 신기독교의 통계표는 다른 나라의 일백년 간의 그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고한다”⁵⁾라는 기록은 한국 교회 성장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부흥운동은 일제 억압이라는 민족사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난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주었다.

넷째로 인권신장운동이 일어나 인간 차별의 전통이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서열적 차별화가 이루어져 사회 계급의 서열은 파괴될 수 없고 신분의 상승은 불가능했다. 부흥운동은 이런 전통을 서서히 부수기 시작하였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으로 짓눌려 있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차별 전통이 깨어지고, 여성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 서는 일이 시작되었다. 예배당 안에도 남, 여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부흥운동 전후로 남, 여 사이의 회장이 견혔고, 여자들도 교회에서 남자들과 같이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상인계급에서는 부인에게 하대(下待)하던 습관을 버리고, 황해도 감바위교회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쓸 것과 한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차별받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된 좋은 예이다. 각지에 여학교들이 설립되면서 남자 아이들과 같이 여자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도 전통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권신장이었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같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고,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조상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당연히 노비가 되는 사회 질서에 따라 많은 노비들이 양반과

5) 로혜리, 「조선기독교교회략사」 (조선기독교교회서회, 1933), p. 51.

부잣집에서 시달림을 당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여 노비를 면천(免賤)하고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전 해에 노비를 해방시킨 사례가 있다. 언더우드가 발행한 <그리스도신문>에 의하면 평양 서촌 창마을에 살던 리씨는 예수 믿은 후에 1천 냥을 주고 산 계집종을 면천(免賤)시키고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혁명적인 일을 감행하였다. 1천 냥이 넘는 큰 재산 문서를 불 지르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는 혁신은 복음의 위력이었다.

다섯째 연합운동의 실현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후로 하여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나 되는 일에 치중하였다. 1905년 9월 이화학당 예배실에서 장로교회 4선교부, 감리교회 2선교부는 한국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를 형성하였다. 이 공의회의 목적은 단순한 친교와 협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미국 남, 북, 캐나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장로교공의회(Presbyterian Council)를 만들었다. 장로교회는 부흥운동이 태동하고 나서 2년 후인 1905년에 북감리교회와 한반도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하기로 하였고, 1907년에는 남감리교회와 북장로교회 사이에, 1908년에는 남감리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 사이에 지역분할(예양협정, Comity Arrangement)을 이루었다.

비록 처음 목적했던 한국에서 하나의 개신교회를 세우려는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성서공회, 대한성교서회, 잡지, 신문, 찬송가 발행의 합동은 이루어져 연합의 성과를 거두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출발도 평양의 선교사들이 장·감 연합으로 성경공부를 열면서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집회를 가진 데서 비롯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B. 백만 명 구령운동

백만 명 구령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끝난 지 2년 후인 190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부흥의 물결이 2, 3년 지나자 부흥의 열기가 차차 식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열성이 줄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제가 기왕에 시작하였던 한국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더니, 급기야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 병탄하여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른 사회의 불안과 모든 사람들의 좌절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때에 낙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일깨우면서 교회의 부흥운동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이 곧 “100만 명 구령운동(The Million Souls for Christ)”이었다.

이 운동은 1909년 개성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톱스(M. B. Stokes), 갬블(F. K. Gamble), 리이드(Miss W. T. Reid) 등 3인이 다시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당기기 위해 사경회와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기로 하고 한국 교인 몇 사람과 함께 산상 기도회를 개최한 데서 비롯되었다.⁶⁾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은 1909년 9월에 개최되었던 남감리교회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채택하도록 요청하여 이 표어가 채택되었다.⁷⁾ 이 연차대회가 폐회된 후 바로 열렸던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의회에 참석한 위의 3인 선교사들은 이 공의회의 전도 목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백만 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 여기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정식으로 출범

6) G. T. Brown, *Mission to Korea*, p. 78 이하 참조.

7) *The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for 1909*, p. 87. G. T. B. Davis, *Korea for Christ*, pp. 6-7.

8) 당시의 기독교 인구를 백락준 박사는 학습교인까지 불과 8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韓國改新敎史』, p. 403)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세례교인이 8천 명이었다. C. A. Clark,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 p. 171 참조.

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불과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⁹⁾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전국민을 상대로 대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이때를 기하여 마침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 강연을 하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챔맨(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일행이 내한하였다. 이들은 즉시 이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먼저 선교사들을 상대로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집회를 마치고 곧 떠났으나 일행 중 한 사람인 데이비스(G. T. B. Davis)는 한국에 남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계속하였다. 일제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한국 민족은 경상도의 한 관리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아무 도리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1910년 선천에서 모인 장로회 제4회 독노회에서 백만 명 구령운동에 적극 참여기로 의결하고, 각 교회가 10월 24일부터 1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7대리회에서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이 일을 추진하게 하였으니, 이 날은 한국이 일제에 병합된 지 꼭 20일이 지난 때였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전도를 위해 “남녀노소, 신자들과 학생, 평신도와 교역자들이 전심전력하여 이 표어의 구현에 노력한”⁹⁾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이 운동 기간 동안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이 운동을 위해 물질적으로 헌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바치는 소위 “날 연보(日捐補, Day Offering)”를 한 사실이다. 즉 헌금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열흘에 하루를 십일조하여 그들의 시

9)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p. 404.

간을 바쳐서 전도 사업에 투신한 것이다. 선교사 로즈(H. A. Rhodes)는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처음 조직할 때부터 ‘시간 연보’를 장려¹⁰⁾했다”고 기록하였다. 돈이 없어 유급 전도사를 파송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생활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내어 쪽복음서와 기독교 문서들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 운동은 신자들 간에 큰 호응을 얻게 되어 평양에서만 1천 명의 신자들이 연 2만 2천 일을 연보하였으며,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일이 연보되었다. 비록 북부지방처럼 큰 호응은 없었지만 남부지방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나 군산지방에서는 850일이, 전주에서는 3,349일이 연보되었다.¹¹⁾ 이렇게 연보된 날 수가 이 기간 동안에 10만 일이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심방받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¹²⁾

비록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양에서 일하고 있던 북장로교회의 베어드(W. Baird) 선교사는, “온 교회가 굳센 믿음과 유례 없는 열성으로 이 운동에 가담하였다. 복음을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모든 일이 다 알려지게 되면 백만 명이상의 영혼이 이번 100만 명 신자화운동이 있던 기간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¹³⁾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말과 이 100만 명이 결신하지 못했다고 해도, 100만 명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¹⁴⁾ 언젠

10) 로해리, 「조선기독교교회역사」(조선기독교교회서회, 1933), p. 53.

11) A. M.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 91. 전주지방에서 연보된 날 수를 셈하면 한 사람이 9년을 전도하는 기간과 맞먹는 기간이 된다. 어떤 목수 한 사람은 한 달을 연보하기도 했는데, 그는 전에도 자기 고향 예배당을 자기 손으로 건축한 사람이었다.

12) “The Million Movement and Its Results,” *The Korea Mission Field*(January 1911): p. 5.

13) W. M. Baird, “An Address to the Presbyterian Mission on the Million Movement,” *The Korea Mission Field*(November 1911): p. 310.

14) 남장로교회 선교사 A. M. Nisbet는 그의 책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 90에서 “6개월 사이에 50만 권이 넘는 쪽복음서가 배포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가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 올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계속해야 될 것을 확신해야 했던 것이다.

C. 진흥운동

1910년 한일병탄이 된 이후 일제는 한국을 철저히 유린하고 탄압과 수탈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기독교회를 막무가내로 탄압하여 그 씨를 말리려는 책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격분한 겨레와 교회가 혼연 일체 되어 1919년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터지게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 운동도 결국 무위(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민족과 교회가 다시 일제의 간악한 수탈정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장로교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진흥운동(振興運動: The Forward Movement)’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¹⁵⁾ 독립운동의 좌절과 일제의 교묘한 박해의 손길을 거둬서 인한 교회는 영적 힘을 비축하여 이 교회적, 민족적 암흑기를 헤쳐 나갈 방도를 복음 선교의 길에서 찾아 나섰다. 이 진흥운동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는 1934년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제1기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제2기는 1929년부터 1934년까지로 정했다. 선교사 블레어(W. N. Blair)를 위원장으로 진흥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노회에서 대표 각 3인씩을 선출하여 총 36명으로 위원을 정하였다.¹⁶⁾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진흥년(振興年)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첫해에는 기도와 개인 전도, 둘째 해에는 사경회와 단체 전도,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유년주일학교에 역점을 두고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둘째 해에 시행한 사경회는 각 교회가 연합하여 연 1-2회 도사경회(都查經會)를 개최하여 연합운동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 운동은 개인기도,

15)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第8回(1919년)會議錄」, p. 9.

16) 위의 책.

집단기도, 교회 단위의 기도로 뒷받침되었다. 이 진흥운동의 결과로 1919년에 교회 수 1,705개에 교인 수 144,062인이 1926년에는 교회 수 2,277개, 교인 수 194,498명으로 약 5만 명이 늘어났다.¹⁷⁾ 제2기가 끝난 1934년의 통계를 보면 교회 수 2,729개, 교인 총수가 298,431명으로, 처음 이 운동이 시작하던 1919년부터 선교 50주년이 되는 1934년까지 교회는 1천 개 이상 그리고 교인은 약 15만 명이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확실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¹⁸⁾

진흥운동은 1930년대 말에 닥쳐올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에 대비한 교회의 양적 그리고 영적 강화였다. 이 모든 결실은 개인과 교회가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에 매진한 결과였다.

D.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해방 후 한국 교회는 혼란과 분열이 있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근래 부흥운동은 1960년의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정한 부흥전도운동이다. 한국 교회는 개신교 첫 순교자 토머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80주년이 되는 1966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복음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초교파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주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에 의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개신교단 교회들만 참여하였던 이 운동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동참하여 범 교회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운동본부는 해외의 저명 부흥사를 초청하여 부흥집회를 갖기로 하고 중국인

17) 위의 책, 제10회(1926)와 제6회(1919년) 총계표 참조.

18) 한국 교회는 1920년에서 1925년까지 5년간 신자수가 약 30% 증가하였는데, 세례교인이 69,000명에서 89,000명으로 늘었다.

부흥사 조세광(趙世光) 목사를 초청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흥집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복음화운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¹⁹⁾

특히 이 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요소로 갈렸던 교회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면에서 좋은 성과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개신교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이 운동에 가톨릭 교회까지 동조하였고, N. C. C.가 주동이 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보수 교회들도 의심을 버리고 동참한 것은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어도, 민족복음화운동에 찬·반이 있을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E. 1970년대의 대형집회

1970년대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대형 집회들이 있었던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의 첫 대형집회는 1973년 5월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 초청 부흥성회였다. 이 대회는 특히 초교파적인 대집회로서 여기에 동참하는 교파만 해도 17개 교단이 넘었다.

이 대회는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각지에서 예비대회가 열렸는데 이 지방대회에 연인원 120만 명이 동원되었고, 결신자만도 16,703명이나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를 마치고 결신자는 일어나라고 하자 2만여 명이 일어나 첫 날부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박정희 대통령도 방문하고 성경을 선물하였으며, “정신적인 강대국을 영도

하는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약 3분간 한국민과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얻어진 결신자는 통산 3만 7천 명으로 기록되었다.²⁰⁾

다음으로 1974년 8월에 엑스포대회(성령의 제3폭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C. C. C.) 주재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예수 혁명—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대학생선교회 총재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를 위시한 국내외의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동원되었다. 이 대회는 세계 90여 개국으로부터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전도집회로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일과성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훈련을 시켜 계속해서 전도케 하는 합숙 전도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7년 8월에는 “77민족 복음화성회”가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를 계획하게 된 것은 1973년의 빌리 그레이엄대회와 1974년의 엑스포대회를 거치면서, 한국인에 의한 자주적인 대민족 부흥집회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부흥사협의회를 중심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70주년이 되는 1977년에 대회를 개최기로 하고 준비된 것이었다. 첫 날 80만 성도들이 모이는 열성을 보였고, 밤에는 30만 성도가 남아서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다.²¹⁾

1970년대의 이 같은 대규모 전도집회 결과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종교인 통계는 한국종교연구소의 집계에 의하면, 총인구 3천7백만 중 80%인 2천9백18만 명, 개신교도가 7백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되고, 그 중 장로교인이 47%인 2백 87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²²⁾ 1970년대의 대형집회는

19) 김인수, op. cit., p. 653 이하 참조.

20) 《教會聯合新報》, 1973. 6. 10.

21) 《基督公報》, 1977. 8. 20.

22) 위 신문, 1980. 6. 28.

군사정부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으나 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로는 특별한 대형 부흥운동은 없었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대회가 있어 한국 교회 성장과 이에 따른 그들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교회 정립에 매진하였다.

III. 군선 교와 집단세례

A. 세례(침례)의 정의

세례(洗禮) 혹은 침례(浸禮)라는 용어는 희랍어 ‘βαπτίζω’에 연원한다. 세례(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데서 비롯된 세례 의식은 마침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 그 질정에 이른다. 이후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기독교의 성례로 정착된다.

세례나 침례는 ‘βαπτίζω’라는 단어의 문자적 해석의 문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sprinkle)느냐,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immersing)느냐에 따라 세례와 침례가 구별된다.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회 계통의 교파들이 침례를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유아세례가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세례를 주장하는 교파들이 행하는 유아세례를 비 성서적이라는 것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유아세례를 주라는 데가 없다는 것이다. 세례는 반드시 본인이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행해져야지, 부모가 신앙을 고백한다

고 자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으로 교회개혁 시기에 재침례파(Anabaptists)가 일어났고, 그들은 이단으로 몰려 무참한 죽음과 탄압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다.²³⁾

여기서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할 생각은 없다. 세례나 침례를 막론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세례 혹은 침례는 성인인 현역 군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다. 세례를 베풀거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 교파의 교리대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세례나 침례를 막론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그것은 반드시 본인의 철저한 신앙고백을 전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거론하겠다.

B. 집단세례의 역사

1. 세계 교회사 속의 집단세례

일반적으로 세례(침례: 다음부터는 세례라 칭할 때 침례도 포함함)는 개인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자에게 베푸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보자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고 훈련시킨 뒤, 날짜를 정하여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집단세례라는 용어를 쓰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이 수천,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는 한 날 세례받는 숫자가 몇십 혹은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집단세례라는 용어가 쓰일 수도 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의 정의가 있다. ‘집단이라고 할 때 몇 명 이상을 집단으로 할 것인가’이다.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을 놓고 세

23)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3), 23장 이하 참조.

례식을 할 때는 아무도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을 집단이라고 할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승천 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나가 전도할 때 하루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행 2:41). 하루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는 분명 집단세례일 것이다. 그 외에도 비록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수천, 혹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집단세례가 초대교회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집단세례는 다음과 같다.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Clovis)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부르군디(Burgundian)국의 공주 클로틸다(Clotilda)를 아내로 맞아, 그 아내의 권유를 받아 오던 중 496년 알레마니(Alemanni)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독교로 개종을 선포하고 그 해 성탄절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는 휘하의 군인에게 세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다른 신민(臣民) 3천 명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역사에 3천 명 세례는 둘째 번이라는 기록을 남겼다.²⁴⁾ 이 기록 이외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클로비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the Great)의 기독교 공인(주후 313)에 의해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졌고, 395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의 명에 따라 로마 제국은 기독교만이 유일 합법 종교임을 선포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종교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호혜 정책에 힘입어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례자 수가 급증하였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선교는 더욱 활성화되어 종족마다 기독교로의 전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590년 로마 교황에 취임한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가 596년 수도사

24)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th, ed. (New York: Scribner, 1985), p. 150. 위의 책, p. 101, 272 참조.

오거스틴²⁵⁾을 영국 선교사로 파송하여 켄트(Kent) 왕 에테르베르트(Etherbert)의 선교 허락을 받고 켄터베리에 본부를 정하고 선교하였다. 켄트 왕의 왕후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프랑크(Franks)의 공주였기에 아내의 영향과 오거스틴의 권유로 에테르베르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모든 영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한다. 이 때 “수천 명의 신민들이 그를 따라 세례 반(盤)으로 나갔다(thousands of his subjects followed him to the baptismal font).”²⁶⁾ 이렇게 한 부족이나 왕국의 국왕이 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 신민이 집단세례를 받는 경우는 중세에 유럽 선교사에서 흔한 일이었다.

특히 슬라브족(Slaves)의 왕 블라디미르(Vladimir)가 987년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를 국교로 선포하고 모든 슬라브인들은 기독교를 믿으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²⁷⁾ 이 경우 분명히 집단세례가 있었을 것을 예견하지만 집단세례를 베풀었다는 확실한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Christendom)가 된 후부터는 성인세례는 더 이상 없어지고, 유아세례만 남게 되어 집단세례라는 자체가 사라졌다.

근래에 이르러 아시아 선교 역사에서 집단세례 사례가 있다. 1549년 로마 교회의 아시아 선교의 성자 사비에르(F. Xavier)가 인도의 남쪽 코모린(Komorin) 곳의 파라바스(Paravas) 어촌 지역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을 발견했다. 이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모슬렘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약 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²⁸⁾ 이 사건 역시 세례받는 동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5) 초기 교회의 신학자 Augustinus와 영어명으로 同名異人인.
26)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3), p. 346.
27)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p. 264.
28) S. Moffe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New York : Orbis, 2005), pp. 10-11.

2.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집단세례

a. 의주의 요단강 세례

천주교회가 한국에 전래된 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집단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첫 집단세례 기록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목사 선교사로 처음 나온 언더우드가 1897년 11월 전도를 위해 북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의주(오늘의 신의주)에서 33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었다. 언더우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곱게 빗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 다려 입고 모여 있다가 대표가 나와 언더우드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가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내한하기 이전에 의주 청년들인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등이 만주에 홍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던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과송을 받은 로스는 그들에게 자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 사례금을 후히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스가 머물고 있던 심양으로 가서 로스와 로스의 처남인 매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이 과정에서 로스는 그들에게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일에 착수하여 복음서들이 하나씩 번역되어 나왔는데, 맨 먼저 1882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한지 51쪽으로 엮어져 나왔다. 이를 ‘쪽복음서’라 불렀다.²⁹⁾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1876년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귀국하면서 쪽복음서를 다량 밀반입하여 서북지방 여러 곳을 다니며 이것들을 팔았고[賣書], 또 이것은 좋은 책이니 사서 읽어

보라고 권하며[勸書]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이 쪽복음서를 사 읽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북부 지방 전역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광범위한 씨 뿌림과 반포된 책들은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했고, 그런 방식의 효과적인 사역의 기회가 그 어느 곳보다 많아 보였다……가장 유망한 사역의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번은 주변 마을과 군(郡)들로부터 세례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들었다.³⁰⁾

언더우드는 이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문답을 하였다.³¹⁾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대부분 불합격시키고 그 중 확실한 신앙을 고백한 33명만을 합격시켰다.

만일 7명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것이 집단세례라 한다면, 언더우드가 의주에서 33인에게 세례를 주던 같은 해인 1897년 가을, 경기도 솔내에 내려가 일곱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도 포함될 수 있다.³²⁾

1907년 9월 한국 장로교회가 첫 노회를 조직하고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생 7인에게 안수식을 거행할 때 장로교회 교인 총수가 70,000명에 세례 교인수가 19,000명이었다.³³⁾ 1885년 첫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 불과 20년 만에 수세자가 20,000명 가까이 되었다고³⁴⁾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증거이다. 노회가 조직되던

30) H. A.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pp. 137-138.

31) 참고로 초창기 교회의 세례문답은 논자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p. 242를 참조.

32) 위의 책, p. 158.

33) 위의 책, p. 349.

34) Shearer, R. 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이승익 역. 「韓國教會成長史」(大韓基督教書會, 1972), p. 284 참조.

29) 김인수, op.cit., p. 112.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그 해 세례 받은 숫자만도 1906년에 12,506명에서 1907년에 15,097명으로 약 2,500명이나 늘어났다. 한 해 사이에 약 2,500명의 수세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구 수로나 교회 수로 볼 때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교회도, 목사도 몇 되지 않던 때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집단세례가 있었음을 짐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 전통에서 집단세례는 일반적인 행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예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집단세례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한다. 집단세례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훨씬 후대인 1970년대에 이르러 육군에서부터 비롯된다.

b. 전군신자화(全軍信者化)운동과 합동세례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군대생활은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환경적 목사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아야 한다”는 명언을 한 일이 있었다. 군대는 확실히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좋은 어장이다.

전군신자화운동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당시 1군 사령관이었던 한신(韓信)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 군대가 막강한 전투력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1군 산하 모든 장병들이 신앙을 갖도록 지도하라고 명령한 데서 시발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군종감실은 이 기회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군신자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전국 교회는 군복음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훈련병들이 훈련에 치져 있을 때 영혼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논산 훈련소에 1천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성서공회에서는 성서 46만 권을 당시 군종감 한준섭 대령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국제기드온협회에서는 3백만 예비군에게 성경을 전달하겠다고 국제기드온 총무 헨더슨 씨가 약속하였다. 전군신자화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원회에서는 일선 군목들에게 오토바이 보급 운동을 전개하여 1차분으로 150대를 지원하기도 했다.³⁵⁾

전군신자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소위 “합동세례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례식이 군부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합동세례식은 심지어 군목도 없는 부대에서 군종 사병이 열심히 전도하여 1972년 10월 28일 장교 17명, 하사관 56명, 사병 449명 등 500여 명이 합동으로 세례를 받는 획기적인 일도 일어났다.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는 사관후보생 1,132명, 기간장 · 사병 473명, 도합 1,605명의 합동 세례식이 1972년 11월 10일 동교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합동세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꺼번에 3,472명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육군 7528부대(군종목사 김태동 중령)에서는 1973년 10월 29일 동 부대 연병장에서 3,472명에 대한 야전 합동세례식이 거행되었다.³⁶⁾ 3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사상 드문 일임에 틀림없다. 전군신자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70년에 8만 8천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가 4년 후인 1974년에는 17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³⁷⁾

35) 〈基督公報〉, 1972. 11. 11.

36) 위의 신문, 1973. 11. 3.

37) 김인수, op. cit., p. 664.

그동안 이 운동을 위해 성서공회가 1972년 9월까지 46만 1천 권의 성서를 특별 제작하여 기증했고,³⁸⁾ 기드온협회는 매년 18~25만 권의 성서를 부대별로 직접 전달했으며, 아세아복음선교회 등에서 지휘관용 성경전서 200여 권씩을 전달했다. 기독교 신문 보급도 크게 활성화되어 매주 〈기독교공보〉 7천여 부와 〈크리스찬신문〉 2천여 부가 보급되었고, 「가정문서선교회」 20만 부 및 루터교 등에서 실시하는 통신강좌가 수만 부씩 지원되었다. 한경직 목사가 지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자 3만 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1만 부도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일선 군목들과 군중사병 등의 활동과 후방 교회와 기관, 그리고 후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 신자화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C. 집단세례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a. 기독교인 숫자의 증가

군대에서의 집단세례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수세 장병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든지 혹은 강압에 의해서든지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됨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자처하게 된다. 비록 신앙이 약해져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자신이 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단 세례를 받은 병사는 불교나 천주교회로 쉽게 가지 않는다. 누가 가자고 권면해도 자신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게 된다. 그리고 군인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기독교 장병이 확실히

38) 〈基督公報〉, 1972. 2. 23.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비록 타의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향을 주어 그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한 가닥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런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다가도 어떤 계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b. 군 사기 진작

1970년대 초 육군에서 일어났던 전군신자화운동은 당시 1군 사령관이었던 한신 장군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는 군사력은 병사들의 정신 무장에 달려 있고, 정신 무장은 무엇보다 종교적 힘이 밑바탕 되는 것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터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1종교 갖기 운동을 시도했던 것이다. 저명한 전쟁이론가인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도 “전력이란 병사들의 정신력과 군 장비의 총화”라고 얘기한 바 있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로 완벽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할 병사의 정신 상태가 이완되어 있으면 이것들은 고철에 불과하다.

수세 장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군선교의 목표처럼 확실한 국가관과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전쟁에 임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는 기독교 장병으로써 종교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보다 사생관이 확실하고 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헌신, 희생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c. 군 내의 사고 감소

군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전쟁 시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지만, 평상시에는 무엇보다 안전사고이다. 사고가 자주 터지는 부대는 그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부대의 사기가 그만큼 가라앉게 되어 모든 면에서 능률과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병사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정신력이 살아 있어 매사에 성실,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전사고를 비롯한 군부대 내의 사고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는 어떤 부대의 통계로, 세례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사고가 감소되는 사실을 볼 수 있다.³⁹⁾

세례신자 증가와 사고 감소

(단위: 명)

연도	세례자 수	사고 건수	기타
1996	2,528	112	
1997	2,478	113	
1998	4,308	74	
1999	1,943	34	6월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것같이 수세 병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2. 역기능

a. 강압에 의한 성례

필자가 1970년대 초 군목으로 활동할 때 합동세례가 한참 성행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적 위주로 합동세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혹은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수세자

들이 강제 징발되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병사들도 적지 않았다. 내무반에서 혹은 부서에서 고참들이 말단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합동세례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로 가끔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1년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있으므로 한번 세례를 받은 장병이 다시 세례를 받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말로 ‘세례 사역병’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한 장병은 세례를 받고 나서 “나, 오늘로 세 번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세례는 성례이고 성례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이 한갓 군목 실적 위주의 한 형태로 전락한 것은 개탄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집단세례를 많이, 자주 하는 군목은 유능한 군목이고 그렇지 않은 군목은 무능한 군목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가표나 진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의 성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군 생활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장병들에게 사회에서보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군목과 군중병의 전도 활동에 따라 많은 사람이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옛날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들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쌀을 선물로 주자 많은 사람들이 쌀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아 그들을 ‘쌀교인(the rice Christians)’이라 한 것처럼 명목상의 신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⁰⁾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군선교 방향이라 말할 수 없다. 한국 초기 교회 선교 시에도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현

40) 산둥성에는 논이 없어 쌀이 생산되지 않아 잡곡을 주식으로 하였기에 쌀이 귀하고 비싸서 쌀은 귀한 선물이었다.

41) 초기 선교사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엘린우드(F. F. Ellinwood)에게 써 보낸 1890년 2월 28일자 편지.

39) <軍福音化報>, 1999. 6. 30. 3면.

금 500냥(미화 33.1/8cent)을 주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돈벌이 되는 직업에 지원하는 일이 있어 개탄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⁴¹⁾ 이런 불순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세례를 베풀거나 주는 행위는 결코 기독교적일 수 없다. 일본 선교사에 대한 한 가톨릭 교회사가는 “집단 개종은 가끔 집단 배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⁴²⁾고 말한 것같이 항상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게 된다.

b. 성례의 오손(汚損)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는 어떤 경우에도 오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신자를 만들어 세례를 남발하는 것은 자제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성례(聖禮)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집행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중세 시대 교회의 수호자이며 기독교 선교의 대단한 공헌자라고 칭송 받는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는 게르만 민족을 교화시키면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검과 폭력으로 했던 것같이 “기독교 신앙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submission to the faith or death)”을 선택하도록 강제한 일이 있었다.⁴³⁾ 그러나 역사가 지난 후에 이런 형태의 전도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기독교는 강제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성례를 강요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한국 초기 교회는 세례를 주는 데 무척 엄격했다. 적어도 6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⁴⁴⁾ 준비

42) J. Jennes, *A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from It's Beginnings to the Early Meiji Era (1549-1873)* reprint(Orient Institute for Religious Research, 1973), p. 242.

43)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IV(Grand Rapid: Wm. B. Eerdmans, 1953), p. 243.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세례는 성례이기에 오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강압적으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사회에 나가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음주, 흡연, 음란, 잡기(雜技) 등의 타락한 생활을 하면 그가 받은 성례가 오손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가 취중에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성례가 오손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강압한다고 세례를 받을 병사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c. 재세례의 문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군에서 아무 신앙적 지식이나 자각 없이 세례를 받은 장병이 제대 후 사회에 나가 활동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의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작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자기는 이미 군에서 세례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에서 받은 세례는 졸병 때 고참병들이 세례받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며,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은 것이기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진실로 내 입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고 진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44) 첫째는 신구약 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해야 한다. 따라서 문맹자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 둘째는 1인 이상 전도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6개월 이상 꾸준히 출석하여 학습교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1인을 전도했다고 여겼다. 셋째 철이 있는 사람은 철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철저히 1부1처제를 강조하여 일부다처제를 척결했다. 넷째는 금주해야 하고, 다섯째는 금연해야 하며, 여섯째는 직업이 있어야 했다. 특히 남자는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아무리 부자집 아들이라도 일하며 살게 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과 십계명 제4계명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레 되는 날에 쉬라”는 말씀을 따라야 했다.

이런 경우 교회나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답은 “한번 베풀어진 성례는 다시 반복해서 베풀어서는 안 된다”이다. 이는 이미 고대 교회 도나투스(Donatus)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것이고 교회 회의가 결의한 것으로 한번 베풀어진 성례는 다시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⁵⁾ 로마제국 박해 시절 신앙을 배반한 배교자(apostacy)였던 자가 박해의 기간이 지나고 교회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와 성직자가 되고 그 성직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성례는 무효라는 주장을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가 성삼위 즉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적법(適法)하게 집행되었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다”고 정의했고 교회는 이를 수용하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비록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집행된 세례라 해도 그것은 유효한 것이기에 재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유아세례 교인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에 의해 받은 유아세례가 그에게 유효하여 후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문답을 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입교식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못내 아쉽고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그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장로교회(통합측)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세례 예비 단계인 입교문답을 하고 입교인들로 남아 있게 하고, 후에 자의에 의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

D. 바람직한 군선교 방향

1. 양적 성장

그렇다면 군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45)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윤두혁 역, 「기독교사」(생명의말씀사, 1979), p. 231 이하 참조.

우선 군선교에는 결실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세례받는 장병의 숫자가 미미하다면 그 선교는 실적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곳에 선교하였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각종 사회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전개하여 18년이 지났지만 단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실망한 회중교회는 모든 선교 사역을 중지하고 그곳에서 철수해 버리고 말았다.⁴⁶⁾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약 40년 전인 1840년에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세워 환자를 진료하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18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19년 만에야 비로소 나이 쉰네(Nai Chune)라는 여자 하나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남자 하나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1931년에 시작된 회중교회 선교 역사로부터 계산하면 29년 만에 일어난 일로 태국 선교 30년 동안 단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준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⁴⁷⁾ 그 이외에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 혹은 명맥만 유지한 지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외적(수적) 실적은 중요하다. 한국선교를 일컬어 근대 선교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수적 성장을 두고 하는 말이지, 질적 성장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선교는 우선 양이다. 양이 있고서야 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양적 성장에 우선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선교 실적이 저조하면 자연히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게 현실이다.

어떤 신앙도 갖지 않은 장병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시

46)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2nd, 홍치모, 오만규 역, 「基督教宣敎史」下(성광문화사, 1982), p. 379.

47) 위의 책.

급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들이 천주교회나 불교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일선에 나선 목회자들은 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군선교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군목들, 군중사병들, 그리고 기독교장교들의 노고로 그동안 기적같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3천 명 세례 정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3천 명 이상 세례를 준 사단 단위 신병교육대가 17개 부대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⁴⁸⁾ 논산 훈련소에서는 한 달에 2회에 걸쳐 3천 명씩 세례를 준 일도 있다.⁴⁹⁾

1997년 4월 19일 논산 육군 제2훈련소 연무대교회(한홍근 목사)에서 7,2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계 교회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유사 이래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7천 명이상이 세례를 받은 일은 아마도 처음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평가해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육군 제2훈련소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중세례운동’은 전국 1천여 진중교회를 중심으로 집단세례가 진행되는 중에 연무대교회에서만 단 2년간 13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⁵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반 사병 세례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장교 세례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6월 10일 광주 상무대에서 ROTC 장교 후보생들 700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다.⁵¹⁾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 이는 실로 대단한

48) 〈軍福音化報〉, 1998. 1. 31, 1면.

49) 위의 신문, 2006. 10. 31, 3면.

50) 위의 신문, 1998. 1. 30, 6면.

51) 위의 신문, 1992. 6. 20, 1면.

일이다. 군에서 장교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장교 1명이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 영향력은 일반 사병 10명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 또한 사병은 상급자의 강압에 의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장교나 그 후보생들은 누가 받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장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주관에 의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해 받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그가 지휘관이 되어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군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군목을 후원하고 군복음화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장교 세례에 치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에서⁵²⁾ 군에서 세례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그들이 제대한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일반 교회에서 그들을 제대로 흡수만 한다면 한국 교회의 전도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살 길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양적 성장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군에서도 사회에서도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에 매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경쟁적으로 누가 몇 명을 세례 주었느냐 하는 숫자의 마력에 끌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불법적이거나 비복음적이면 아무리 양적 성장에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외세를 끌어들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전교(傳敎)의 자유를 얻으려 했던 ‘황사영의 백서사건’

52) 통계청(2006), 2005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종교별 통계에 의하면 불교는 3.9% 증가로 40만 5천 명이 늘어 총 1,072만 명, 천주교는 무려 74%, 219만 5천이 증가하여 총 516만 명, 원불교는 두 배로 늘어 13만 명인데 반해 개신교는 1.6% 14만 3천명이 줄어 총 861만 명이다.

이나 대원군의 선친 남연군의 묘소를 파헤쳐 그 유골로 대원군과 협상을 벌이려 했던 페롱(S. Feron) 신부의 작태에서 볼 수 있다.⁵³⁾ 따라서 양적 성장을 이루되 복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2.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장병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음 문제로 떠오른다. 훈련소와 같이 불과 몇 주 있다 다른 곳으로 가는 장병들의 교육이 문제이다. 특히 훈련 기간 중에 주일은 유일하게 쉬는 날이어서 이들이 우선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개인적인 불 일도 보아야 하는 긴요한 시간에 교회에서 이들을 교육시킨다고 장시간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겠다.

또 자 부대에 가서도 우선 신병으로 고참병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에서 신병들을 붙잡아 두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참이 되면 곧 제대 말년이 되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어디에 얽매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옛날과 같이 복무 기간이 3년쯤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2년으로 단축되었고, 또 앞으로는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될 예정이어서 교육 시간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병영 생활 속에서 신앙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

53) 황사영의 백서사건과 남연군 묘소 도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 p. 59, p. 85 이하를 참조할 것.

다. 따라서 군에서의 질적 양육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한 후 일반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들의 고향 교회에 연결시키는 '비전2020운동'을 통해 제대 후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질적 교육은 군목들이나 군중사병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집단은 기독교장교들이다. 장교들, 특히 지휘관이 짬을 내어 자 부대 안의 수세자들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투철한 선교 의식을 가진 장교들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또 다른 단체는 기독교부인회이다. 기독교장교부인회에서 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단 1회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한다면 수세자들의 신앙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3. 일반 교회와의 연계 문제

군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군인 세례를 위해 군목들을 위시한 군중병, 기독교장교, 기독교장교부인회, 군복음화 후원회가 혼연 일체가 되어 어렵고 힘든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여 수많은 병사들에게 세례를 준다. 1년에 약 20만 명에 이르는 세례자 숫자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인간 노력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례를 주었어도 이들이 제대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군에서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2020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수세 장병이 군대에 있을 동안 고향 교회와 연계하여 계속 관계를 갖게 해야 한다. 평소에도 소식과 위문품, 휴가 시 방문, 특히 제대하고 귀가할 때 지역 교

회가 미리 그 집에 가서 그가 돌아올 때 환영해 주고 꽃다발도 안겨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를 안내하여 다음 주일부터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년, 대학부에서 이 일에 소명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일반 청년 대학생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본 이는 다 안다.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에 절반 이상 받을 들여 놓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군선교 관계자들과 일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수십만 수세 장병들의 교회 정착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면 전체 교인의 5%에 불과한 20대 젊은이들로 교회가 가득 찰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초기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을 몰라서 경험 많은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어 선교 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자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중국 산둥지방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했던 네비우스(J. Nevius)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할 때 잠시 한국에 들러 강의하라는 명을 받고 한국에 도착한 것이 1890년이다. 그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 방법론을 강의했는데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The Nevius Principles)'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을 기본으로 한국 선교 원칙 10개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둘째 번 항목이다. 그 내용은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 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이 향후 한국 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⁵⁴⁾

선교사들은 소녀들을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만들면 그들이 후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앙 지도에 따라 자

54) 김인수, op. cit., p. 198 이하 참조.

동으로 교인이 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이 후에 결혼하게 되면 그 부인과 자녀까지도 교인이 되는, 두 배 혹은 세 배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장병 한 사람의 세례는 본인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내지(內地) 선교는 특별히 신경 쓸 것 없고, 군에서 세례받고 나온 제대군인들만 확실히 확보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비해 경비와 효과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선교이다.

4. 군대 내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부대라는 한계 속에서 전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선 누구나가 인정하고 경험해 본 일이지만 군 생활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다. 엄격한 위계질서 속의 군 생활에서는 하급자보다 상급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의 병사들은 항상 긴장 속에 있게 되고, 긴장은 잘못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목 이외의 다른 장교들이 사병들의 고충을 들어 주고 친절히 상담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 일반 상관들이나 장교들에게 가슴속 깊은 얘기를 털어 놓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군목은 이런 문제 있는 사병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와서 자기 마음의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안은 병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나 사무실은 병사들이 시간이 날 때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설 수 있는 분위기와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런 외적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조용한 음악과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과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한 병사들이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군목실에 찾아오는 병사들이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단 군목실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곁에 스치고 지나가는 병사 한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하기를 바라는 귀한 생명이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5. 민간 교회의 관심 환기

선교는 합동 작전이다. 개인이나 교회, 또는 기관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 그 합동 작전이란 군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늘 가던 교회, 가던 목사들만 초청하지 말고 과거에 가지 않았던 목사들을 폭넓게 초청해서 참관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면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하게 되리라 믿는다.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군선교 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씨 뿌리고 착근(着根)하기까지를 군에서 한다면, 일반 교회에서는 물주고 길러서 결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 즉 유럽 교회나 미주 교회들에 젊은이

들이 없어지고 노인 교인들은 세상을 떠남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당은 모텔과 술집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젊은이 전도요, 젊은이 전도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의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 선교의 길은 바로 군선교에 있다. 군에서 매년 배출하는 세례자들만 확실히 잡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IV.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부흥의 역사를 차례로 훑어보았고, 근년에 일기 시작한 군선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전군신전화운동과 합동세례식, 1990년대의 군복음화운동의 ‘진중세례식’, 그리고 “비전2020운동”의 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범 청년은 모두 군대에 간다. 어떤 사람은 “군에 가서 썩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군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메주에 곰팡이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도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니다. 곰팡이가 퍼야 그것이 나중에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맛있는 발효식품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는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생활 경험을 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군대생활, 감옥생활이라 하였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생활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과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비로소 남자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20대 초반의 청년이 군대에 갔을 때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

여 세례를 받게 하고 기독교 신자로 출발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고 그가 이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면 그의 부대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사고가 줄고, 부대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한 모범적인 군인이 될 것이다.

1년에 20만 명의 수세자들이 제대를 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일반 교회가 이들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한국 교회의 성장, 기독교 인구의 증가, 각종 사회악과 불의가 점점 그 세력을 잃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인구의 감소로 사회에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⁵⁵⁾ 이런 추세라면 한국 교회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전도 또한 극난(極難)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는 매년 20만 명 가까운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성령이 그 영혼을 움직여 세례받으려는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강압적으로 세례를 주던 시대는 지났다. 자발적이 아니면 세례를 주기도 어렵다. 어렵게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사회로 나간 후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세례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임은 말할 것 없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해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과 교회는 일치하여 이 문제를 숙고하고 연계 방안이 착념해야 하겠다.

55) 2007년 3월 2일 KBS 뉴스에 따르면 금년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01개교,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15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하여 군에서 세례를 받은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교회가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에 임해야 하겠다. 우선 이런 소중한 사역에 대해 일반 목회자들이 충분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하겠다. 군목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이런 좋은 일을 일반 교회가 수습하지 못하여 잃는다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군선교의 활성화, 그리고 군에서 배출한 신자들의 확보에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기도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11개의 군종 목사 파송 교단과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모든 군종 목사들이 연합하여 실천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분명히 21세기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에 분명하고, 이 집단세례운동은 과거 기독교 역사에 자주 있었던 일로, 현재 한국 군에서 실시되는 진중 세례운동은 세계적 선교 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좋은, 그리고 풍부한 어장에서 계속 세례를 줌으로써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일은 다시없는 선교의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비켜갈 수 없는 필요 불가결의 선교 방법이다.

주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8-29).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I. 들어가는 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부흥에 관한 고찰을 해 본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별히 그때와 같은 부흥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길 염원하는 마음이 큰 만큼 부흥에 대한 방법론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다.

■ 강웅산 교수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Div.)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Ph.D.)
- 총신대학교 교수(조직신학)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18세기 미동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대각성운동의 대변인격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관심을 기울여 본다. 일련의 부흥 사건들이 후대에 대각성운동이란 이름으로 남기까지는 에드워즈의 공헌이 컸다. 자세한 부흥의 기록과 변론의 글들을 통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명실공히 대각성운동의 신학자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후대의 우리는 약 3세기 전의 부흥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얻었다.

에드워즈를 통해서 특별히 이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부흥을 정립하는 일 이상으로, 부흥을 위해 뛰었던 대표적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없나 하는 점이다. 찰스 피니의 부흥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견지했던 에드워즈에게서 부흥의 방법론을 찾는 것은 이율배반인가?¹⁾ 아니라면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론은 방법론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부흥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이 논문은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토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방법론의 추구가 계속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본 논문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우선 방법론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시도 자체는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에드워즈는 어떤 근거로 기도와 설교를 방법론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론적 제안은 그의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그에 따라 부흥에 대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강웅산,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해", <조직신학연구>, 제8호 (2006, 가을 겨울호): pp. 72-102.

II. 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

칼빈주의 부흥 이론을 견지하는 에드워즈에게서 나타나는 한 중요한 특징은 부흥을 위해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1741년 한창 대각성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성령의 사역의 특징(The Distinguishing Marks)」 설교를 통해 에드워즈는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교한 바 있다.²⁾ 부흥에 대한 그의 입장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결코 바뀌지 않은 듯하다. 자신의 생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던 1756년 그는 스타브리지에서 아모스 8장 11절을 설교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자”고 호소하였다.

에드워즈 부흥 신학의 특징은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임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칼빈주의에 일관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첫째, 방편은 원인(cause)이 아니며, 둘째, 그러므로 수단이나 방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할 것이며, 셋째, 부흥이란 영적인 성질의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들만이 부흥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에는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함께 방법론적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부흥이란 사람의 힘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편의 사용”의 중요성과 함

께 “고도의 주의와 경계”를 강조한다.³⁾ 그 적절한 방법으로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16장 31절 설교에서 설교를 들고 있다. “성령의 경고가 죄인들을 깨우고 회심케 하는 데 최상의 방책”이며, “하나님 말씀의 경고는 죄인들을 일깨우며 회개케 하는 목적을 위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⁴⁾ 에드워즈가 방법론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이야말로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케 하는 방편으로 최상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가 고안해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다.”⁵⁾

에드워즈가 볼 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편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감화를 일으키는 성향이 매우 많은 그런 방편은 추구되어야 한다.” 즉 “설교나 성례, 기도나 찬송을 통한 예배 등은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크게 감화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간절히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⁶⁾ 그러면서도 동시에 에드워즈는 방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방편들이 대체로 감화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감화 또는 은혜로 이어지는 감화가 아닐 수도 있다.”⁷⁾ 부흥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심리적 조작이나 기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달린 것임을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말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은 칼빈주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드워즈의 이와 같은 강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실용주의적 성향에

2) Jonathan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The Great Awakening*, ed. C. C. Goen, *Works of Jonathan Edward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4:270. 이하 에드워즈 인용은 Yale 전집을 우선으로 하겠음. 명기 방법은 Yale 전집의 경우 volume:page 만을, Banner of Truth Trust의 전집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Banner라고 명기하고 volume 번호와 페이지를 명기토록 할 것임.

3) 4:384.

4) Works(Banner), 2:68.

5) Works(Banner), 2:71.

6) 2:121.

7) 2:122.

대한 효과적인 답이 된다. 이미 밝혔듯이 부흥을 논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질문은 “어떻게?”이다. 즉 자칫 하나님보다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 당시에도 이미 그런 성향은 얼마든지 있었다. 소위 반쪽 언약(Half-Way Covenant)이 한 예였다.⁸⁾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는 성찬을 소위 “회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아직 회심하지는 못했지만 건덕상에 문제가 없는 자로, 원한다면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성찬의 근본 취지(언약)보다는 효과(전도의 수단)를 더 중시 여겼던 실용주의적 발상이었다. 에드워즈는 성찬 자격에 관한 논문(An Humble Inquiry)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계속해서 “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다.”⁹⁾ 즉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말이다. 이것은 에드워즈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모순을 예견하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하겠다. 즉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거슬러 자신들의 피와 지혜”를 내세우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¹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실용주의는 성경을 떠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계산과 계획을 더 앞세우는 교만의 소치였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방편

8)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는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성인이 되어도 아직 회심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정교인으로 입교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들의 아기에 대해 유아세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청교도 사회의 존립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감지한 그들은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부모들의 아기에 대해, 즉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는 언약의 모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기에 대해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반쪽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청교도 사회에서 이미 언약백성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실용주의적 타협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이런 실용주의적 대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에게서 회심을 목적으로 수잔자격을 완화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된다.

9) Works(Banner), 1:477.

10) Ibid.

을 더 앞세운 결과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성향에 대한 에드워즈의 경고는 사실상 외면되었고 얼마 안 가 찰스 피니의 실용주의가 현대 부흥을 지배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피니는 고안된 방법을 잘 사용하면 목적인 부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계적 부흥 이론을 수립하여 대중화하였다. 그러나 스토다드나 피니와는 다르게 에드워즈에게는 오직 성경만 그의 실천신학과 부흥신학의 원리였으며, 그 점은 그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실용주의적 방법에 의해 부흥이 만들어지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그의 역사관과도 연관이 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¹¹⁾ 또한 「겸허한 시도, 또는 기도함주회(Humble Attempt)」에서도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한다. “그것은 이 위대한 사건이 점진적인 진행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많은 증거에 위배된다.”¹²⁾ 그는 또한 「구속의 역사(Work of Redemption)」에서, “그러나 이 일은 방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은혜의 보편적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¹³⁾ 즉 방법론적으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에 반하여 에드워즈는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단지 에드워즈는 부흥이 있기까지 성경적인 방편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부흥이 방

11) 9:458.

12) 5:410.

13) 9:459.

편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견지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 강조하면서 동시에 방법론적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부흥의 글 「부흥에 관한 고찰(Some Thoug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그의 저서들 중 부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이 글을 쓰면서 그의 관심이 결코 방법론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 그의 의도는 부흥을 분석하여 부흥을 촉구하는 목적이었고 더 나아가 부흥을 반대하는 쪽과 지나치게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모두 자제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쉽게 말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관심을 갖고 이 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드워즈는 이 논문에서 적극적인 방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3부에서 그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취해져야 할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 열거조차도 그가 말하는 방법론의 전부는 아니다. 이 책의 2부에도 일부가 언급되고 있고, 다른 저서들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나 「겸허한 시도」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1756년에 했던 아모스 8장 11절 설교에서도 대략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도,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 시도록 하나님을 자극하지 않는 삶,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 본분을 다하는 것, 교회의 순결,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등이다.(1756, pp. 39-48).

정리해 보면 에드워즈는 방법론적 가능성과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자신도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부흥을 유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방편들에 대한 강조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부흥에 대한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14) 4:385.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방편들을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심을 견지하고 있다.

III. 기도

에드워즈의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도를 들 수 있다. 아마 이 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될 만큼 에드워즈의 삶은 기도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숲속에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고 동네 꼬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으며, 그것 말고도 혼자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처소를 찾았었다. 기도의 삶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숲이나 들을 찾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졌으며, 기도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탁월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곤 하였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크게 부흥되기를 기도했고, 이왕이면 자신의 때에 자신을 통해 크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도 하였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역량에 있어서 기도만큼 하나님의 일을 증대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확신에서이다.¹⁵⁾ 앞서 말한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 설교에서도 부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가장 먼저 꼽았었다. 기도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도는 인간의 의무인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드워즈는 기도를

15) 4:518.

정의하면서 의존을 핵심적 요소로 꼽았다. “하나님께 대해 기도는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함을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¹⁶⁾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의 충족함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다.”¹⁷⁾

A. 기도의 동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의무라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유도하여 이 자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말씀으로 가득하다.”¹⁸⁾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게 하는 한 위대하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실 때면, 당신의 백성들의 놀라운 기도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¹⁹⁾라고 하며 에드워즈는 에스겔 36장 37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였다.

부흥을 위해 기도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부흥 사건 그 자체의 성격과 효과를 들 수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은 성령을 통해 놀라운 신적인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사건이다. 그 사건의 놀라움과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특별히 이 신령한 것들 중에서도 에드워즈는 성령의 부으심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겸허한 시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중요한 선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모든 영적 축복의 총합

이기 때문이다”²⁰⁾고 하였다. 이어서 “성령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없다”²¹⁾고 하였다.

이 점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이해하는 역사 의식과도 함께한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할 뿐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야 할 그 일들을 위해 그 영광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으로 드러나 있다.”²²⁾ 에스겔 36장 37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바라는 특별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²³⁾라고 한 에드워즈는 또한 주기도문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동기를 찾았다. “주기도문의 이 첫 세 가지 간구는 사실상 이 영광된 날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에 대하여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그것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찾아야 하며,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며, 모든 다른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에 종속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했다.²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으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부흥을 위한 기도란 바로 부흥을 기도의 최대의 성취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결과를 생각할 때 기도가 방편이 된다는

16) 2:116.

17) 2:117.

18) 5:347.

19) 4:516.

20) 5:347.

21) 5:348.

22) Ibid.

23) Ibid.

24) 5:349-50.

것은 더욱 그러했다. 시편 65편 2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부어 주시기 전에 기도가 선행되도록 즐거움으로 정하셨다”²⁵⁾고 하였다. 즉 에드워즈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잘 부합하는 일이었다. 또한 부흥을 위한 기도를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당신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성경은 그런 예로 가득하다.”²⁶⁾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며……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된다”고 호소하였다.²⁷⁾

B. 기도에 대한 방법론적 분석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 강조를 특별히 부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에드워즈는 시편 65편 2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진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진지함(sincerity)을 강조한 바 있다.²⁸⁾ 진지한 기도란 무엇인지 에드워즈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단순히 말보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진지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다.²⁹⁾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부흥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기도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⁰⁾ 둘째로, 진지한 기도란 믿음의 기도이다.³¹⁾ 에드워즈는 강조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즉 기도는 믿음의 소리인 것이다.”³²⁾ 셋째, 기도는 겸손하고 복종의 자세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통해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로 아뢰야 함을 에드워즈는 강조했다.³³⁾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때와 방법을 당신의 지혜로 정하시기” 때문이다.³⁴⁾ 넷째로, 에드워즈는 끈질긴 기도를 말한다. 즉 굽히거나 물러나지 않는 기도이다. 「겸허한 시도」에서 이사야 62장 6~7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굽히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³⁵⁾ 같은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꾸준히 굽힘 없이 소위 ‘기도합주회’라고도 불리는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에드워즈는 시편 27편 14절, 하박국 2장 3절, 미가 7장 7절, 이사야 25장 8~9절 등을 인용하여 기도에 있어서 기다림의 의미를 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영광된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³⁶⁾ 다섯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기도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29) Ibid.

30) 4:517.

31) Works(Banner), 2:117.

32) Works(Banner), 1:641.

33) Works(Banner), 2:117.

34) Ibid.

35) 5:348.

36) 5:436.

25) Works(Banner), 2:116.

26) Works(Banner), 2:114.

27) 5:351.

28) Works(Banner), 2:117.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런 중보자가 있어 길을 예비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상달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하신다.”³⁷⁾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금식기도에 대한 강조이다. 에드워즈는 금식기도는 주님이 모범을 보여 주신 기도라고 하며,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자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³⁸⁾

에드워즈의 기도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이기도 하다. 그가 신앙의 본질로 중요시 여기는 감화(affection)와 연결지어 볼 때, 기도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가 부흥을 염원하는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였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부흥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C. 연합기도

부흥과 관련하여 에드워즈의 기도신학에 독특한 면은 연합기도를 강조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에드워즈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즉 여기에서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가 고안해 낸 새로운 방법은 결코 아니다.³⁹⁾ 에드워즈가 연합기도를 특별히 강조한 것 역시 같은 기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합심하

37) 2:116.
38) 4:515.

여 간절히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소위 “연합기도(united prayer)”를 말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기도합주회라고도 불리는 「결허한 시도」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에드워즈는 「결허한 시도」에서 왜 연합기도가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연합이란 인간 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선호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이다.”⁴⁰⁾ 더 나아가 “연합이란……그리스도의 교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다.”⁴¹⁾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런 연합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즉 식구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정한 기도의 날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다니엘이 세 친구와 연합하여 기도한 예, 에스더가 온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기도한 예를 들며,⁴²⁾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치를 이루는 일을 매우 바라시며 크게 기뻐하시는데, 결국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 설명한다.⁴³⁾ 특별히 성령의 부으심을 갈망하는 연합기도가 더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주장하기를 연합기도는 사람들을 각성케 하는 성향이 많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갖도록 하며,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케 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이다.⁴⁴⁾

에드워즈에게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연합기도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기도 무리들이 많은 필요에 대한 강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집에서나 예배당에서 공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뭉치는 것을

39) 5:428.
40) 5:364.
41) 5:365.
42) 5:366-367.
43) 5:367.
44) 5:366.

말한다. 에드워즈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청년들끼리, 처녀들끼리, 그리고 어린아이들끼리, 따로따로 모여 기도의 무리를 이루도록 권면하였다. 그런 모임을 꺼리는 자들에게 에드워즈는 이런 형태의 기도는 “공적으로 하루 온종일 모이는 것보다도 더 영혼을 움직이며 간절히 매달리게 하기에 유익하다”고 설득하였다.⁴⁵⁾

둘째로, 에드워즈는 목사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지역의 목사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위해 자주 모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때 모여서 주로 대화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말했다.⁴⁶⁾

셋째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된다면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모습이 더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더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⁴⁷⁾ 특히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되면, 그들은 더 큰 은총과 자비를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합하여 같은 목적으로 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과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충하였다(4:520).

넷째로,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들과 연대하는 기도운동을 지지하였다. 이 기도운동은 에드워즈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1745년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스코틀랜드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 주심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합주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⁴⁸⁾ 그는 그 편지에서 “내 힘이 닿는 한 부흥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⁴⁹⁾ 그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신앙의 일(부흥)을 위해 연합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스코틀랜드 목사들에게 이 기도합주회가 7년간 계속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⁵⁰⁾ 에드워즈는 연합기도야말로 “성령의 강한 부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고 피력하였다.⁵¹⁾

D. 기도에 대한 정리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와 성령의 부으심은 뗄 수 없는 관계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령의 부으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도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제외하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에드워즈의 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부흥을 기대케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부흥을 원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부흥을 증대하는 방편에도 중심이고, 부흥의 결과와 효과에도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용기이다.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45) 4:519.

46) 4:507.

47) 4:520.

48) 5:444.

49) 5:446.

50) 5:327, 446.

51) 5:320.

만 의존한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대 사건임을 감안할 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이며, 그리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IV. 설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을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목사로 알았으며 그것은 잔존하는 그의 설교의 양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 모든 설교가 다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어느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자의 사명이 영혼을 깨우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에드워즈에게 설교는 부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은 복음의 설교자에게 가 있으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러한 일(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케 하며 부흥을 격려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런 일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그가 부름을 받고 헌신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⁵²⁾ 에드워즈는 설교가 부흥을 가져 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매우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했다. 영혼을 일깨우는 부흥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진솔한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⁵³⁾ 이사야 62장 4-5절의 설교에서도 “신실한 목사의 노력(설교)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회심(또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편이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⁵⁴⁾

54) Works(Banner), 2:23.

52) 4:374.

53) 2:254.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는 설교를 자주하는 것이 부흥에 유익하다고도 하였다. 때로는 목사들이 연합하여 설교 합주회처럼 연이어 설교를 하며 서로의 설교를 지지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권장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에드워즈는 설교의 효과가 단순히 잦은 횟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임을 빠뜨리지 않았다. 1731년 “인간의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설교에서 “복음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그들의 효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그들의 성공 여부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과 간섭에 달려 있다”⁵⁶⁾고 했다.

A. 부흥 설교에 대한 이론적 분석

설교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흥에 관한 고찰」에서 에드워즈는 설교자의 목표를 “죄인들을 일깨우고 회심케 하며……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⁵⁷⁾ 「신앙의 감화(Religious Affections)」에서도 설교란 “신앙의 중요한 것들과 자신들의 불행과 치료책의 필요성, 제시된 치료책의 영광됨과 충족함을 통해 죄인들을 감화시키며,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을 깨워 신앙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미 아는 것일지라도 바른 인식을 돕고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⁵⁸⁾ 에드워즈에게 부흥설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설교와 그 목표가 다른

55) 4:397-398.

56) Works(Banner), 2:4.

57) 4:374.

58) 2:115.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기도의 특성도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 열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강조는 부흥을 추구하는 것과 불가분적 관계이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달려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은 그의 인간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낳는 것이다. 이 초자연적 변화는 참신앙의 좌소인 심령 깊은 곳(affection)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 이론은 그의 인간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인간론은 「신앙의 감화」에 잘 나타나 있다.⁵⁹⁾

에드워즈가 자신의 인간론적 구도에서 볼 때 설교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설교의 내용, 즉 복음이 이해(understanding)되어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마음을 움직이는, 즉 감화(affections) [또는 성향(habitus)이라고도 불리는데]의 부분이다.⁶⁰⁾ 이 두 기관은 구분되면서 동시에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드워즈의 인식론적 구도에 의하면 어떤 생각(idea)은 이해라는 기관을 통해 접수(sense)되어 인상(impression)으로 인식 속에 수록된다.⁶¹⁾ 이해와 감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접수되고 수록된 인상은 감화의 영역까지 미쳐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성향(inclination)을 움직이게 되고, 이 성향의 변화에 따라 의지(will)가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기여하는 바는 인간을 총체적인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와 감화와 의지의 표현이 모두 어우러져 나타났다는 뜻이다. 에드워즈가 볼 때 머리로 이해는 하였지만 삶 속에 의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의지로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감화가 빠졌기 때문에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의지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에드워즈가 볼 때, 사람은 결코 의지의 나약함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움직이는 마음 바탕, 즉 성향(inclination)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의지는 그 성향의 지배를 받아 자연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동작이 된다. 그리고 성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화(affection)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인식론 구조이다. 즉 이해를 통해 접수(sense)된 것이 감화를 일으키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에 의해 영적이며 신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new sense, 또는 new ability)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데(sense)서 시작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느끼게 되기(new sense)까지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이해(understanding)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화(affection)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화가 일어날 때 의지(will)는 따라오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에드워즈의 인간론적 이해와 인식론에 근거해서 설교의 역할이

59) Samuel T. Logan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이 성경과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에드워즈의 「신앙의 감화」가 이런 면에서 성경과 인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해 설교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The Phenomenology of Preaching" in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ed. Sameul T. Logan, Jr (Phillipsburg, NJ: P & R, 1986), p. 154.

60) 이해(understanding)과 감화(affection)에 대해서 필자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부흥 이해"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조직신학 논문, 참조할 것.

61) 20세기 중반 이후 페리 밀러(Perry Miller)에 의해 에드워즈의 인식론적 구도는 존 로크의 경험론(empiricism)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에드워즈가 로크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인식론 체계(즉 성령의 영적 일과 사람이 속한 자연질서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는)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에드워즈 학계의 통일된 결론이다.

설명된다. “설교를 통해 얻게 되는 주된 유익은 그때 마음에 만들어지는 인상(impression)에 의해서지,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함으로써 오는 효과에 있지 않다. 비록 설교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종종 매우 유익한 경우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기억은 설교를 들었을 당시 말씀이 그 가슴에 형성한 인상에서 오는 것이며, 그 인상을 상기시키고 고조시킬 때 그 기억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⁶²⁾ 여기에서 “인상(impression)”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적이며 영적인 것에 관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감각(new sense)”이라고도 불린다. 에드워즈에게서 “새로운”이란 의미는 성령에 의한 결과물이란 뜻이다. 즉 이전에는 감지, 감각하지 못했던 영적이며 신적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의 인간론은 인간의 기능과 성령의 역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은 보다시피 그의 인간론과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머리에 쌓아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가슴이 움직여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절실히 필요하다”⁶³⁾고 했다. 즉 설교의 방법론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강조하기를 그런 신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특별하고 살아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⁶⁴⁾ 그러므로 “감화를 일으키는 성향이 강한 그런 수단은 갈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⁶⁵⁾ 그런 이유에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감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에드워즈에게 있

62) 4:397.

63) 4:388.

64) 2:115.

65) 2:121.

어서 설교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효과적인 방편이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특별히 효과적이었던 데는 그의 인간론에 근거하여 감화를 강조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남장로교 신학자 로버트 뎀네(Robert L. Dabney)는 “지적인 청중을 고도로 논리적이면서도 심오한 느낌을 주며 감화시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설득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그런 설교였다”⁶⁶⁾고 말했다. 에드워즈 설교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지성의 부분이다. 에드워즈는 설교가 가슴을 감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먼저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화의 부분과 이해의 부분이 불가분의 것임을 강조하였다.⁶⁷⁾ 그는 말하기를 “모든 감화는 이해의 빛을 통해서 일어난다”⁶⁸⁾고 했고, 그래서 「신앙의 감화」에서 진정한 신앙의 감화로써 네 번째 특징으로 “은혜의 감화는 신적인 것을 바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조명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⁶⁹⁾ “거룩한 감화는 빛은 없이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전보다 훨씬 신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전에 감화가 없었을 때보다도 신적인 것들에 대해 훨씬 명확하고 잘 보며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뜨거움과 냉철함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⁷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분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감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은 감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강론하여 청중들이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교리들을

66) Robert L. Dabney, *Sacred Rhetoric or a Course of Lectures on Preaching*(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9, reprint), p. 643.

67) 2:120.

68) 4:386.

69) 2:266.

70) Ibid.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⁷¹⁾고 했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사역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에드워즈는 1749년 목사 안수 설교에서 “그리스도는 목사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 설교에서 그는 “목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행하게 하시고 말하도록 명하신 것만을 따랐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⁷²⁾ 즉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목사가 자기의 설교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오직 성경이 강조된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가 오직 계시만 의지하고 말할 때, “목사의 일은……특별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기능과 많이 유사한 데가 있다. 다른 점은 목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밑에서 그로부터 배운대로 그로부터 오는 빛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을 사수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⁷³⁾고 했다. 에드워즈의 계시의존 사상, 즉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에 대한 강조 사상은 누가복음 16장 31절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하는 것보다 (성경) 이 죄인들을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는 일에 훨씬 더 적합하다.”⁷⁴⁾ 계속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각성케 하고 회심케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말씀 자체 전달의 사명이 중요함을 각인시키고 있다.⁷⁵⁾

바로 이러한 에드워즈의 설교 이론이 그의 부흥 설교에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흥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1734~1735년 노스햄턴과 인근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 이 일어났을 때, 그 시작이 바로 그의 “이신칭의” 설교에 있었다. 이 설교

의 내용을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⁷⁶⁾ 즉 부흥은 새로운 내용이나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것이 청중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에드워즈의 이해(*understanding*)와 감화(*affection*)의 이론이 그의 설교 이론에까지 작용하는 것이다.

B. 설교의 형태 및 딜리버리(Delivery)

계시의 충실한 전달을 위한 에드워즈의 노력은 그의 설교 형태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윌슨 김낙(Wilson Kimnach)이 지적하는 대로 에드워즈는 청교도의 전형적인 설교 형태를 따르고 있다.⁷⁷⁾ 본문, 교리, 적용, 이 세 요소는 그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에드워즈는 “본문(text)”에서 성경본문에 대한 설명을 한다. 물론 크게 발전한 성경신학에 익숙한 우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구속사적 정황에 맞추어 설명하며 어떻게 주제가 되는 교리가 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다. 에드워즈는 “교리(doctrine)” 부분에서 그 교리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인용하며 예리한 논리로 설명해 나간다. 인상적인 것은 가상의 반대이론들을 제시해 놓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해 나가는 논리의 치밀함은 거의 에드워즈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적용(application, 또는 improvement)”에서 에드워즈는 교인들이 입증된 교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

71) 4:386.

72) Works(Banner), 2:961.

73) Works(Banner), 2:963.

74) Works(Banner), 2:68.

75) Ibid.

76) Alister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1500 to the Present Day*(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119-120; 출처,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Jonathan Edward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Light of Union with Christ,”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77) Wilson Kimnach, “Editor’s Introduc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0, *Sermons and Discourses, 1720-172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33.

하며 살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특히 에드워즈의 목회자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때 에드워즈는 교리를 적용하면서 그의 실천적 제안이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에드워즈의 설교 형태는 이해를 통해 청중의 감화를 일으키려는 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본문 말씀에 설교의 권위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 작업으로 삼고 있다. 진리의 내용은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 접수되어 청중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에서부터 유발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부흥의 결과를 낳은 것은 우연한 일치는 아니었다. 에드워즈 전기를 저술한 윈슬로(Winslow)에 따르면, “휘트필드가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위대한 휘트필드를 이야기하며 집에 돌아갔다. 앤필드에서 에드워즈가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며 울며 돌아갔다. 설교가 단지 설교로서가 아니라 선포된 진리만이 남겨진 자국(impression)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⁸⁾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 즉 딜리버리는 해리 스타우트(Harry Stout)의 말처럼 분명히 휘트필드의 “극장식” 설교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나름대로 청중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적 기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에드워즈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연상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달려 있다”⁷⁹⁾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에드워즈 자신도 설교자가 이왕이면 감화를 유발할 수 있는

78) Ola E. Winslow, *Jonathan Edwards, 1703-1758: A Biography*(New York: Macmillan Co., 1940), p. 135.

79) Works(Banner), 2:254.

가능성이 큰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내 생각에 큰 감동적인 설교 스타일이 ……평이하거나 밋밋하거나 무관심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참된 신앙을 이해케 하는 데 유익하다……만약 주제 자체가 상당한 감화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매우 강렬한 감화력을 갖고 전하는 것이 그 주제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⁸⁰⁾ 「성령의 사역의 특징」에서도 “분명히 설교 전달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고 감동 있는 전달은 그 주제의 특성과 중요성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다.”⁸¹⁾ 그리고 에드워즈는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음, 특히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설명하거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설교할 때 특별히 크고 진지한 소리로 설교해야 한다”⁸²⁾고 하였다.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에 대해 그는 청중이 부담스러워 청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설교 원고만 바라보고 읽었다는 등의 정설이 아닌 신화(myth)들이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제자로서 한동안 에드워즈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수학했던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의 전기에 따르면 “그가 쓰는 단어들은 풍부한 의미로 가득했으며 쉬우면서도 충격적인 빛을 발해, 그 만큼 청중을 사로잡을 만한 설교자들이 흔치 않았다…… 그는 몸동작을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마음의 동요를 관찰하는 듯 그의 설교는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키곤 하였다”⁸³⁾고 했다. 이안 머레이(Iain Murray)의 전기도 에드워즈는 결코 설교 원고에 매여 설교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⁸⁴⁾ 에드워즈 설교 연구의 대가인 윌슨 김낙도 에드워즈가 연륜이 들어 가면

80) 4:386-387.

81) 4:248.

82) 4:389.

83) Works(1817; reprint 1968), 1:50.

84) Iain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pp. 188-191.

서 그의 설교 원고는 아웃라인 형식이 많아졌으며 후반기에는 거의 아웃라인만으로 설교하였다고 알리고 있다.⁸⁵⁾ 직접 눈으로 목격한 홉킨스도 에드워즈가 강단에 설교노트를 갖고 올라가긴 하지만, 설교 원고에 매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더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더 강한 감정으로 전달되었고 청중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⁸⁶⁾

C. 회심 설교

에드워즈에게서 죄인의 회심은 부흥과 관련하여 볼 때 설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에드워즈의 회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부흥 설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놀라운 회심 이야기 (Faithful Narrative)」에 나타난 특성을 사무엘 로간(Samuel Logan)이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첫째, 자신의 자연 상태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도록 일깨움;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중보자의 전적인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고취시킴; 셋째, 자력으로는 개선의 노력이 헛됨을 확인; 넷째, 자신들의 엄청난 죄와 행위의 악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정죄가 공의롭다는 확신을 가짐; 다섯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기 시작; 여섯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됨; 일곱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 함; 여덟째, 구원의 확신을 가짐 등이 다.⁸⁷⁾ 처음 다섯 단계는 소위 청교도들이 흔히 말했던 준비단계로 “법적 굴복(legal humiliation)”에 해당되고, 다음 세 단계는 “복음적 굴복(evangelical humiliation)”에 해당된다고 분류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법적 굴

복은 “자연적 원리, 특히 양심을 돕는 성령의 일반적 영향”에 의한 것이고, 복음적 굴복은 “초자연적 신적 원리를 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일반은총과 특별(구원)은총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자는 “자연의 원리를 도와 그 자질과 능력을 최대화하여 신앙의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신적인 것들의 도덕적 성질에 대한 초월적 미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전자를 통해 죄인들은 죄의 참악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나, 아직 구원은총의 결과인 죄를 미워하는 단계는 아니다.⁸⁸⁾ 에드워즈가 볼 때 이 분류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준비단계라고 해서 전적으로 인간 혼자서 다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은혜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모든 단계에 걸쳐 성령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굴복은 일반은총의 범위에서 성령이 자연적 원리/능력을 도우시고, 복음적 굴복은 자연의 능력으로 이를 수 없는 구원의 효과를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이기에, 회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입장이다.⁸⁹⁾

에드워즈의 부흥 설교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일반은총과 구원은총의 구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관여하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범위인지 알아 그에 맞는 방법론적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신인협력의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방법론적 모색은 하나님이 주신 방편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기여하는 역할이 생기는 것이다. 에드워즈가 볼 때 설교는

85) Kinnach, “Editor’s Introduction”, pp. 100-129.

86) Works(1817; reprint 1968), 1:50.

87) Logan, pp. 69-72.

88) 2:311.

89) 에드워즈는 여러 편의 논문에서 성령의 일반은총적 사역과 구원은총적 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신앙의 감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Th.M. 논문에서 에드워즈의 일반은총과 구원은총과의 구분/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Kevin Woongsan Kang, “Jonathan Edward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ommon Grace and Saving Grace” (Th.M.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6).

복음 제시를 통해 이해(understanding)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감화(affections)를 낳을 때 목적인 바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성경을 통해 교리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이해가 가슴 깊은 곳에서 감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설교 구성 형식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D. 설교에 대한 정리

에드워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흥에 대한 그의 방법론적 이해에 있어서도 설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에드워즈가 부흥에 대해 방법론적 제안을 하는 것은 그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에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인간론, 인식론, 회심론과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높은 성경관이 그의 설교 이론과 어우러져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제시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에드워즈가 볼 때 결코 의외적인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에드워즈가 어떻게 설교에 접근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가능성(적어도 방법론적인 면에서)을 훨씬 긍정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다시 부흥이 재연되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각성운동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부흥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

에 기초하면서도 방법론적 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는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와 설교로 국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써 부흥을 위해 기도와 설교를 강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그러나 에드워즈에게서 기도와 설교를 통해 원할 때마다 부흥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일차적 원인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의 활용을 이차적 원인으로 하는 구도이다. 에드워즈는 늘 부흥을 사모했고 그의 목회는 언제나 다시 부흥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기를 염원하는 목회였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영혼들을 일깨우는 설교자의 사명을 다 했고,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

에드워즈의 부흥 기록과 신학을 통해 얻는 지혜는 비록 아무리 부흥을 염원한다고 하여도 부흥이란 것이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부흥은 교회가 암흑기나 영적 침체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깨우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에드워즈 당시의 대각성운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도 영적으로 죽었던 한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제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흥이 재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념의 행사 자체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 역사에 기념할 만한 부흥의 사건이 있었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되, 계속해서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방법(기도와 설교)으로 꾸준히 부흥을 사모하는 것만이 구원의 일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 자세라고 믿어진다.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기원하면서 전 교계의 간절한 소망을 결집시키고 있는 차제에 18세기 미국 교회 대각성운동의 열적 심지를 당긴 에드워즈 부흥운동의 성격을 살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의 논자이신 강운찬 교수님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극동방송 설교가, 육군 3사관학교 총성대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고찰’이라는 논문은 기독교 부흥운동의 본질적 패러다임의 기초를 해명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교회 부흥의 고전적 방법론의 소중성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는 계기를 부여한다. 이에 강운찬 교수님의 연구 열정과 학문적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논자에게서는 에드워즈의 신학적 토양인 칼빈 신학의 스펙트럼에 견주어 에드워즈가 역설한 교회 부흥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험했다. 그 결과, 논자에게서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철저하게 기초함을 규명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과 방편으로써 기도와 설교를 적극적으로 지목하고 활용했음을 밝혔다.

먼저 논자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자 습관으로 강화된 자였다. 특히 에드워즈는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되 ‘그가 생존하는 시기에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렸다. 이는 그의 심비에 새겨진 영적 경험의 진실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논자에 따르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슴 깊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충족한 자비에 대한 한결같은 신뢰이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기도의 성서적 근거를 세밀하게 살핀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현존하는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영광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동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의 기도의 목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최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기도는 교회 부흥의 주요 방법론이다.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실행시키는 성령의 부으심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자이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

자 부흥을 촉진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에드워즈는 교회 부흥의 방법론으로써 설교를 지목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도록 정하신 매우 중요한 방편이 설교라고 에드워즈가 확신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그는 복음에 대한 진솔한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놀랄 만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영혼을 일깨우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 굉장한 정열로 헌신했다.

특히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영적 변화를 낳는 설교에 대해 깊은 신학적 성찰과 인간학적 통찰을 도모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는 복음이 '이해' 되어져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 내지 '성향' 의 상호 순환적 영향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에드워즈는 '법적 굴복' 을 유발시켜 '복음적 굴복' 에 이르게 하는 회심 유발 메시지에 치중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부흥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아는 것' 에서 시작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실존적 요청을 느끼도록 하는 차원의 변화' 를 이루도록 설교를 해야 한다. 에드워즈가 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부흥을 유발하는 설교가 복음에 대해 단순히 지적 순응만을 이루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화' 를 일으켜 자연인의 의지(will)까지 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간론과 인식론적 이해를 동반한 설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에드워즈의 분석적 통찰은 '영성이 동반된 설교를 하라' 는 현대 설교학의 핵심 키워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흥을 이루는 설교에 대한 에드워즈의 탁월한 이론은 그의 시대만이 아니라 작금의 동시대 크리스천이 갖는 '숙변 같은 고민' , 곧 머리에 쌓아 둔 채 가슴이 뛰지 않고 움직임을 상실한, 영적으로 화석화된 현대 교회와 교인을 향한 엄중하면서도 치열한 반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에드워

즈에게 있어서 설교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효과적인 방편이다.

이름하여 동시대에 함께 거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는 것처럼, 에드워즈 또한 교회의 부흥을 늘 사모했고 그의 목회 사역이 언제나 부흥의 불길로써 활활 타오르기를 염원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장려하면서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설교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부흥을 향한 에드워즈의 그 열정과 숨결은 시공을 초월하여 주님의 일의 부흥을 열망하는 후배 된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신선한 도전과 충격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더불어서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신학과 실례(實例)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흥시키시도록 기도할 것과 설교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계심을 일깨우고 자각케 하여 교회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감의 재발견이 참으로 소중함을 명료하게 촉구한다.

한마디로 논자에게서 규명한 에드워즈의 부흥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방법론적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곧 교회 부흥의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적 개입이다. 그리고 이에 응하는 주의 사역자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화에 접속케 하여 회심을 일으키는 기도와 설교라는 방법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부흥에 관한 에드워즈의 고견은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을 희구하는 사역자들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專務)하라"(행 6:4)는 '원 사도' 들의 선언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임을 재인식케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논점은 부흥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방법론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적합성을 가진 것임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임을 해명하고 규명한다. 이런 점에서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고찰' 이라는 논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단초를 제공하신 강운

찬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밝히라면 논자께서 설정한 연구의 범주 설정에 대한 것이다. 앞서 논자께서 피력하신 바, 에드워즈의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 신학을 토대로 함에 틀림없다. 이에 논자께서는 칼빈 신학에 기초한 에드워즈의 부흥 사상에 대한 검증의 잣대로써 칼빈주의라는 스펙트럼을 굳건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비추어 관통시켰다. 그런데 본 논문이 발표되는 주(主) 장(場)이 초교파적 연합과 사랑의 마음의 화합을 이루어 함께 일로 매진해 나가는 군선교 현장에 선 동역자와 동시대의 군인 교회임을 감안할 때, 논자께서 살피신 논의의 폭이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기우(杞憂)로써 사족(蛇足)의 변을 삼는다.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1. 들어가는 말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 실천운동은 군선교의 모토이며, 군선교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을 움직이는 정신적 동력이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개발된 전략 중 심혈을 기울인 전략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여길 만큼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 종교적 안위

■ 윤병국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Equiv. B. D.)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 M.)
- 총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Th. D.)
- 수방사사령부 충성교회 담임목사

도 없이 전쟁터로 나서야 하는 젊은이들을 돕겠다고 시작한 군선교가 대내외를 포함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주류로 자리매김한 데는 지난 55년간의 군선교 역사의 축적된 힘과 비전2020 실천운동의 구호 아래 한국 교회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특성상 교단적 이해와 교리의 상이함 때문에 연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국 교회가 군선교라는 기치 아래 일치를 추구하며 함께하는 모습은 군선교에 매진한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라 할 것이다.

전군신자화운동으로 한국 교회의 관심을 군선교에 갖도록 만들었던 그때의 환희를 상기하며, 한국 교회는 다시 제2의 전군신자화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이것이 소위 집단세례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비전2020 실천운동이다. 1996년 2월에 시작된 이래로 이 운동은 목표 연도의 1/3 시점을 지나고 있다. 매년 20만 명의 세례 소식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라며, 이런 일이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타가 놀라워하며 한껏 고무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비전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선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대위임령을 군대 안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선교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받들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사항이다.¹⁾

그런데 지금 군선교의 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내외적인 요인들은 군선교를 위기로 진단한다. 우선 비전2020 실천운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미 지난 10년간의 통계가 그것을 예측하게 한다. 대외적으로 작년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조사 중 종교별 통계가 기독교

계에 충격을 주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 신자수의 감소와 천주교 신자수의 엄청난 증가는 비전2020 실천운동을 무색게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통계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군선교 현장만의 위기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기독교(개신교) 전체가 위기의식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교회 안과 밖의 정황(contexts)은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교회주의, 낡은 패러다임의 고수, 일인중심 세계, 획일적인 목회, 사회 흐름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등이 하나의 교회와 사회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²⁾

차제에 우리는 비전2020 실천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차분히 군선교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군선교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교 전략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군선교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점에 있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은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급변하는 21세기의 군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본인의 연구가 새로운 군선교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군 환경은 변화의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미래 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군 인력 및 부대 수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군선교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군선교를 선교로 이해하는 선교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군선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슈일 뿐 아니라, 기독교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

1)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p.139.

2) 김두현, 「Church Solution」(경기 성남 : 21C 목회 연구소, 2006), p. 27.

3)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New york : Orbis Books, 1991), p.186.

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기존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에게 자리를 내주지만,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³⁾ 그런 의미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선교 전략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선교학적 반성과 새로운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위해 지평을 열어 준다는 점에 있어서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II. 군 구조 개편

국제적으로 탈 냉전 이후, 동·서 진영 간 대결구도의 종식에 따라 국가들은 안보와 군사 중심의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경제 중심의 하위정치(Low politics)로 국제관계 방식을 바꾸면서⁴⁾ 세계는 세계화 및 개방화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국내 체제의 민주화로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⁵⁾ 이러한 안보·환경적인 변화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우리 국방체계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군 구조 개편이 시행될 경우에 이것이 군선교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 상황 인식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은 미래 한국군을 선진

4) 이선진, "1990년대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세계화 시대와 다자안보』(서울: 지식산업사, 2002), p. 288.

5) 이승철, "21세기 국제 및 한반도 주변정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경기: 나남출판, 2004), pp. 33-34.

형 과학군대로 바꾸어 놓겠다는 혁신안이다. 국방개혁 2020은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문민 통제 체제 발전, 국력에 맞는 군사력 건설, 통합전력 극대화 보장,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과 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⁶⁾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9만 명이라는 병력 위주의 대군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

1) 안보환경의 변화

21세기는 이전의 미·중·소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냉전적 양자안보 환경체제에서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안보 환경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앞으로 지금의 국제관계를 “단일·다극체제”로 묘사하면서 향후 이러한 체제로 10-20년 지속하다가 “다극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보았다.⁸⁾ 동구권의 몰락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은 안보에 있어서 다자안보협력을 주요 안보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⁹⁾ 다수의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늘날 협력안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6) 김강녕, “국방개혁 2020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군사저널』(2006년 9월), p. 55.

7)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군종병과 창설 55주년 기념세미나 강연』, p.2.

8)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9) 한동만, 『다자안보의 이론과 실제』(서울: 서문당, 2003), p.137.

10) 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서울: 진영사 1996), p. 278.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환경·자원·기술 등 비군사적 차원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고, 양자간 외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자협력을 통해 해결되어 가고 있다.¹⁰⁾

안보 문제를 다자간의 협력이 아닌 단독으로 책임질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지볼되어야 할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고립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구도는 아직도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 여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냉전적 요소가 혼합된 다원적인 구도가 될 것이다.¹¹⁾

2)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처럼 경색된 단절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남북은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다.¹²⁾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남북관계는 갈등 조정국면을 거쳐 상호 유무상통하는 화해 체제로 갈 것이다. 향후 25년을 전망해 보건대 우선 체제 경쟁에서 이긴 한국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경제력에 있어서 GNP는 2조억 달러, 1인당 GNP는 약 4만 달러, 세계 7위의 종합경쟁력, 정보화 지수는 세계 5위의 선진국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면서 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타국에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¹³⁾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북한은 군사력으로는 무력에 의한 남침이 무모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11) 여운기 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정책」(서울: 서문당, 2003), p. 68.
 12)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p. 172.
 13) Lloyd Jenson,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서울: 평민사, 1964), p. 262.

3) 국방환경의 변화

미국은 군사혁신(RMA)과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국방개혁을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럽 국가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군사개혁을 통해 두드러질 정도로 그 성과를 이루어 놓았다. 그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군개혁을 지원했고, 경량화·기동화된 군대로 개편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 구조와 비례해서 대군 위주의 저기능·노동집약형 군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의한 미군전력의 지원이 없다면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04년에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자주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국방부가 작성한 정책서에는 202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15년 동안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화, 정밀화, 고속화된 미래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서 선진형 군대를 갖출 것을 밝히고 있다.¹⁴⁾ 2020년을 목표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로의 전환,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표 1〉 선진 외국 육군과의 신분별 구성비 비교(KIDA 연구보고서 2003)¹⁵⁾

국가		합계	장군	장교	부사관	병
미국	인원	484,128	302	64,880	188,908	230,038
	%	100	0.07	13.4	39.0	47.5
독일	인원	240,960	121	19,751	96,368	124,720
	%	100	0.05	8.2	40.0	51.8

14) 강한구,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방향”,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경기: 나남출판, 2004), p. 424.
 15) KIDA에서 산출한 장교 진출률 및 정원 산정. 시행방안 연구보고서(2003)

국가		합계	장군	장교	부사관	병
영국	인원	113,950	243	11,920	33,270	68,517
	%	100	0,22	10,5	29,2	60,1
이태리	인원	137,000	267	13,533	25,299	97,901
	%	100	2,06	9,9	18,5	71,5
프랑스	인원	150,000	184	16,515	50,547	82,754
	%	100	0,13	11,0	33,7	55,2
한국	인원	560,000	320	48,000	56,000	455,000
	%	100	0,06	8,6	10,0	81,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인력 구조는 소위 선진형 군대와 비교할 때, 소위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형 군대로 병력 구조를 바꾸어 나간다면, 간부의 비중은 늘어나고 병의 비중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미군은 군사혁신(RMA)과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병력 규모를 줄여 왔고, 특히 1990년대 초에는 군간부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10% 늘려 갔다.¹⁶⁾ 럼스펠트(Donald H. Rumsfeld)는 미국이 국방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얻어진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 확보로 21세기를 미국 주도의 세기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¹⁷⁾

〈표 1〉에서 보면, 유럽국가의 국방 인력에서는 병과 간부의 비율이 4:1 비율로 병은 줄이고 간부는 늘렸고, 미군 인력은 병과 간부의 비율을 3:1로 반비례해서 줄이고 늘렸다. 한국의 국방 인력 추진 방향도 전투 위주의 군 인력 운영이라는 기치 아래 군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16)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56.
 17) 홍규덕,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p. 7.

4) 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의 증가율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심각한 정도의 저출산 사회로 내려앉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예를 들면, 총 인구 중 청장년 인구가 2000년 34.4%에서 2020년 25.3%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병역자원의 인구가 16%에서 2020년에는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30수준(2000년 기준)에서 76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¹⁸⁾

〈표 2〉우리나라 연도별 출생률

구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출생아수	72.1	63.7	49.5	47.6
1일 평균(명)	1,976	1,745	1,355	1,301
조출생률 (인구 1천 명당 명)	16.0	13.4	10.3	9.8
합계 출생률(명)	1.65	1.47	1.17	1.16

〈표 2〉에서 보면, 이런 감소 추세로 나간다면 2010년 후반 이후에는 산업동력의 약화뿐 아니라 군의 인력 확보 측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장차 군에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는 불안정성과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군 인력으로 간주되어 온 남성 병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시스템의

18) 정원영 외, 「발전적인 예비전력 육성 및 관리방안」,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310.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¹⁹⁾ 이미 대선공약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 온 징병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²⁰⁾

2. 한국군의 인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우리 국방 인력은 현역 69만 명과 300만의 예비 병력, 그리고 민간인력(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 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1) 노동집약적인 병력구조라는 점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대병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효율과 기능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병력 규모로는 세계 6위에 해당하지만 병력 1인당 투자되는 국방비는 세계 62위 수준에 머물 만큼 저기능의 병력체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²¹⁾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우선 1990년대까지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인력 충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미동맹에 의한 비대칭 무기 및 첨단 과학무기들의 의존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병력수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만 대병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²²⁾

2) 단기자원 및 의무복무 자원이 타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병 계급은 전체의 75%를 차지한 반면, 간부의 비율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간부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약 50% 정도가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인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전장(digital battle field)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관리할 수 있는 '고지식·고기술·고능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²³⁾ 현재로는 고기능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전문 군 체제의 인력 구조로는 적절하지 않다.

3) 현역과 민간인력 간의 균형과 활용 체제가 매우 불균형적이다.

현재 양자간의 비율은 95:5인데, 국방업무의 대부분을 현역이 수행하는 불균형적 인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역이 예비역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군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국가가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직업 안정성 차원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직업군인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영관장교인데, 그중에 소령이 차지하는 비율(장군: 0.7%, 대령: 3.4%, 중령: 9.4%, 소령: 15.5%)이 다른 계급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대다수가 직업 전환이 곤란한 40대 중반에 소령으로 전역하게 됨으로써 직업성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수자들이 장기 복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²⁴⁾

19)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2.

20) 조영진, pp. 12-13.

21)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4.

22) 조영진, p. 15.

23) 최광표 외,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래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서울: Kris, 2005), p. 150.

24) 최병순, 「국방인력관리론」(서울: 국방대학교, 2002), p. 82.

3. 「국방개혁 2020(안)」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여러 환경의 변화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대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국방개혁에 대한 동기유발과 대전환의 필요성을 갖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혁안에는 군 구조, 국방정책 및 운영, 병영문화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1) 군 구조 분야

이것은 “병력은 감축하나 능력은 증대시킨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즉, 기술집약형 인력 구조로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성능 무기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²⁵⁾

자연히 병력 조정은 지휘 구조 및 병력을 담고 있는 부대 구조의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의해 유지되어 온 여러 요소들이 변화를 겪을 것이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²⁶⁾ 상비병력은 현재 68만 명에서 2020년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감축 기간 중 간부의 비율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조정되고, 징집제 중심에서 모병제의 개념을 가미한 징모혼합제로 인력을 획득할 전망이다.²⁷⁾

병력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감축하여, 육군의 경우 지금의 5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축소 조정될 것이다. 부대 구조도 역시 개편되어 군단급 부대의 해체 및 감편, 사령부급 부대의 통폐합을 통한 ‘지작사’ 창설로 첨단 정보·과학 기술군의 인력 구조를 설계하고, 고지식·고기능·고능력을

25)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20.

26)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p. 4.

27)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연구〉, 제12권 제 3호(서울: Kris, 2005), p. 44.

갖춘 미래 군대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전쟁을 대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맞춘 선진 정예 군대를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표 3〉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 (국방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구조 개편과 병력의 단계적 축소 및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병력은 현 68.1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 — 육군(54.1만 → 37.1만), 해군(6.8만 → 6.4만), 공군(6.5만 → 6.5만) ○ 국방 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공무원 정원 증대(현재 52% → 1998년 71%) — 군무원 직위 확대(현재 현역의 3.9% → 2020년 6%) ○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병(현 25:75 → 2020년 40:60), 여군: 장교(현 2.7% → 2020년 7%), — 부사관(현 1.7% → 2020년 5%) ○ 징모혼합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병 모집 분야 대폭 확대 — 2단계: 복무기간 조정, 유급원병제 도입 검토 — 3단계: 모병제 시행검토(장기)

〈표 3〉에서는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대한 국방정책 관련 내용들인데, 대략 이런 구도로 우리의 국방 인력 구조가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준다.²⁸⁾

2) 국방정책 및 운영 분야

가) 민간 인력 활용의 극대화

이것은 “국방 운영의 문민 기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국방 운영에 있어서 ‘군 중심’의 틀을 깨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시키

28)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129.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업무를 이루는 두 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투 기능을 담당하는 현역과 다른 하나는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와 같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다.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고 국방업무가 복잡성을 띄게 되면, 민간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²⁹⁾ 전투 분야는 현역이 담당하고, 지원 파트인 행정·기술·교육·연구 등 비전투 부문은 민간 인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민간 인력의 기술적·관리적 역할이 증대되고, “군 직책의 민간화(Civilianization of military billets)” 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³⁰⁾

〈표 4〉 국방 민간 인력 활용 직위³¹⁾

구분	조직	기능 직위(분야)
국방행정 기관	국방본부 및 직할기관	기획·예산·국제협력·정훈·획득·연구개발·군수·인사·복지보건·시설·공보·정보화·조달 등
군 조직	합참, 각군 부대	기술정보·일반행정·문서행정·인사행정·교육행정·재무관리·정보통신·시설유지·법무행정·전문인력·정훈·군중·정비 등
군 교육/연구기관	군 교육기관, 산하 연구기관	교수·교관·파견 연구원

〈표 4〉의 도표는 민간 인력 활용 분야를 비교해서 보여 주는데, KDI에 서는 군중을 민간 인력 분야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전시에 군중의 역할에

29) 조영진, p. 88.

30) 조영진, p. 89.

31) 김종탁 김원배 외, 「합리적인 군무원 정원/인사 관리 방안 연구」(서울: KIDA, 1998) 참조.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미군도 1990년 초에만 해도 군중장교 들을 현역에서 민간인으로 아웃소싱하려다가 걸프 전과 이라크 전을 거치 면서 전시 군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히려 군중장교 수를 증원한 것을 볼 수 있다.

3) 병영 문화 분야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시간대로 전국에 전파되며, 국민들의 관 심거리가 된다.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도 군에서 일어 나면 크게 취급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질타를 당하기도 한다. 전근대 적 병영 문화로 인해 시민사회의 신뢰가 더 이상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으로서는 병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³²⁾ 바로 이러한 병영 내에서 일어 난 각종 사건사고들은 병영 문화 분야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동 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인생의 유익한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복무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병 영생활/복무생활 개선, 복무제도 개선/사고예방 체계 정립, 장병의 자기 계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병영 문화 개선은 군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간부들의 의식개혁과 민과 연계된 실무위탁 교육을 병행 해서 의식 전환을 꾀할 것이다. 장병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 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 보장기구를 설치해서 장병들의 법 적 지위를 보장토록 할 것이다. 그동안 폐쇄되어 왔던 병영 문화를 열린 병영으로 적극 바꾸어 가기 위해 내무생활을 ‘통제’에서 ‘자유’로 전환하 여 일과시간 이후의 자유시간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영단계에서부터 징병검사를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요

32) 심경옥,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 전략”, 〈전략연구〉, 제12권 제 3호(서울: Kris, 2005), p. 63.

인을 갖고 있는 장병들을 분별해서 정도에 따라 관리를 해주고, 현역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³³⁾

III.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사역의 변화

군 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 군선교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력과 부대 수의 변화에 따라 군선교는 그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인력 구조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올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에 속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부정확하지만, 근사치를 구한 인력 구조를 제안할 수밖에 없다. 미래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새로운 환경요인에 의해 정책이 수정되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1. 선교 대상 변화

육군의 경우 인력 구조는 2002년까지를 목표로 간부의 비율을 19%에서 35~45%로 상향 조정하고, 병의 비율은 81.4%에서 55%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간부의 비율은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0%로 상향 조정되고, 병은 현재의 81%에서 40~45%의 비율로 하향 조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33)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p. 6.

34)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p. 56.

지금까지 기독교의 군선교 대상은 간부보다는 젊은이들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가 1996년 설립되면서 선교의 목표를 둔 대상은 논산 훈련소나 신병교육대를 통해 배출되는 장병들이었다.

2020년까지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전국민의 75%를 기독교 신자화시켜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교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을 통해 미래의 군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장병들의 인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선교대상이 일방적으로 병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수정할 이 유도 되는 것이다.

1) 장교 및 부사관

간부의 비율은 현재의 19%에서 최대치 45%, 통일 이후에는 55~6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병 위주의 선교 개념을 전략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육군 간부 대 병의 구성비 변화 예상도

구분	현재	공존기(2020)	통일기(2020 이후)
장교	8.6 %	10 %	10 %
부사관	10.0 %	25~30 %	40~45 %
병	81.4 %	60~65 %	40~45 %

〈표 5〉를 근거해 보면 간부들은 현재의 10만 명 수준에서 약 17만 명 수준으로 인력 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간부에 대한 선교는 병들에 비해 부차적이었고 전략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더욱 고급화, 전문화된 인력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선교 전략과 방법론을 신중하게 고려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2) 병사

지금까지 대군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병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가 생각하는 간부와 병의 비율을 지금의 25:75에서 2020년에는 40:6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³⁵⁾ 그렇다면 병은 지금의 81.4%에서 60%로 조정하는데, 대략 지금의 45만 명에서 22만 명 수준으로 하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20년 목표로 단계별로 감축해 나간다고 보면, 5년 단위로 추정해서 숫자화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6〉병의 인력 구조 단계별 인력 조정 추정안³⁶⁾

연도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병사 숫자	45만 명	40만 명	34만 명	27만 명	22만 명

지금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에서 세운 전략은 미래에도 군이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 국방개혁안과 미래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선교 대상의 비율에 변화가 온다면, 선교 전략도 그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는 세레 숫자의 감소에 따라 선교 전략의 변화로 제시한 것이 몇만 명 하향조정 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세레운동에 의해 수치화된 통계를 미래의 군 인력 구조에 적용시켜 계산해 본다면 목표 성취는 난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부대 활동의 변화

35) 조영진, “미래인력구조 발전 방향”, p. 21.

36) 이 통계는 본연구자의 추정치이다. 실제 국방부가 연구하는 인력 내용과는 오차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단계별로 군부대들이 감축/해체되거나 통합되어 부대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대 구조에 따른 군종장교 편제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해체되는 군부대에 편제된 군종장교를 통합되는 부대로 재조정하거나, 현재 비편제로 되어 있는 부대에 군종장교를 보직해 함으로써 군종장교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 7〉미래 총병력 규모의 구상안³⁷⁾

부대 수 및 병력 규모		현재	대치기	공존기	통일기	
부대 장비	육군	군단	11	7	6	5
		기보사	4	4	4	4
		보병사	18	16	13	7
		향토사	13	4	—	—
		동원사	13	11(7)	11(4)	5(4)
		지역방위사	—	7	4	4
	해군/해병대	전투함	148	116	105	110
		해병사	2	2	2	1
공군	전투기	536	543	452	402	
병력 규모	총 규모	약 69만	약 60만	약 50만	약 35만	
	전략군	—	0.05만	0.32만	0.6만	
	육군	56만	47만	38만	22.2만	
	해군/해병대	6.8만	6.8만	6.8만	6.0만	
	공군	6.3만	6.3만	6.3만	5.4만	

위의 도표에서 보는 대로, 부대 수는 현재보다 약 2/3 정도로 감축되고, 병력 규모도 지금의 1/2 수준으로 감축됨에 따라 군종장교뿐 아니라 현재 군종장교가 미보직되어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지원 민간 성

37)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p. 133.

직자들에게 대한 조정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군부대 수는 가까운 장래에 1·3군사의 통합과 올해부터 군단급 부대의 해체 및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일하는 군종장교 및 군지원 민간 성직자의 사역지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육군 민간 성직자 현황('06년 육군본부 군종실 종합)

부대명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비고
		목사	기타	신부	기타	승려	기타	
1군	120	89	7	8	5	0	11	
2군	176	137	7	6	0	16	10	
3군	398	294	21	2	5	18	58	
육직	115	42	7	0	36	11	117	
총계	809	562	42	16	46	45	98	
		604(75%)		62(7%)		143(18%)		

〈표 8〉에서 보면 육군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가 75%, 천주교가 7%, 불교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군별로 보면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민간인 사역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 사역자의 경제적 요인 및 전담이나 아니면 수시지원이나 하는 사역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육군 민간 성직자 현황('06년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종합)

구분	총계	전담	수시	불명
제출	210(31%)	173(51%)	36(27%)	1
미제출	474	168	98	208
총계	684	341	134	209

〈표 9〉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의 숫자는 군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80명이나 증가된 숫자로 나타난다. 군

선교연합회와 육군에서 종합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민간 성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좀더 정밀하게 파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원 중에 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사역하는 전담 성직자는 51%, 수시 성직자는 27%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31%라는 저조한 비율로, 그만큼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미래 군 구조 개편은 군선교 대상뿐 아니라, 군선교를 수행할 군종장교 및 민간 성직자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은 틀림 없다. 해외 선교에서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면 선교사들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를 주저하지 않고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군선교 현장에서도 전략적 선교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따른 대가는 지불되어야 한다. 즉, 재배치에 따른 민간 인력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누구는 남게 하고, 누구는 선교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IV. 연구설계

이 과정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절차와 연구 과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즉 연구 질문과 연구 대상, 건본 추출, 연구 도구, 자료수집 절차와 제한사항 등이 아래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구 도구로서 설문지를 준비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체를 다 실지 못하고, 상당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는 점에 이해를 구한다.

1. 연구 질문 검토

본 연구는 미래 군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금 군종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자기 이해가 어떠한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사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변화에 군선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질문 1.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연구 질문 2. 효과적인 군선교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연구 질문 3. 미래 군 구조 개편에 군선교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군종장교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현역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군 생활 2-3년차 초임 군목들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간 군사역을 해온 군종목사들을 망라했으며, '06년 9월 29일 이메일로 설문을 보냈고 설문에 응해 준 인원은 64명이었다. 뒤늦게 서너 명이 설문을 보내왔지만 분석과 통계를 마친 후라 참조만 했지 계산에 넣지 못했다. 64명 중 위관급 군종장교는 40명으로 63%를 차지했고, 영관급 군종장교는 24명으로 38%의 비율을 나타냈다. 3:2로 적절한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3. 견본 추출

일반목회나 특수목회를 거의 접해보지 못하고 바로 군대로 들어온 초

임군목들이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와 그보다 군생활을 5년차 이상, 20년 이상 더 많이 한 군종목사들의 군선교에 대한 이해나 정체성 및 미래를 전망하는 견해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나름대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설문지는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옛 방식대로 했더라면 기한 내에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연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13개의 질문 도구가 주어졌고, 선교의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 13개, 미래 군선교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12개의 질문 도구를 준비했다.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38개의 질문 도구들을 주요 연구 도구로 삼았다.

설문지에 대해서는 크론바하 알파테스트(Chronbach's α)로 설문자들의 내적 일관성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실시 결과 연구 질문 1, 2, 3에 대하여 각각 알파값은 0.957, 0.973, 0.976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료 수집 절차

육·해·공군 전군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 200여 명에게 '06년 9월 29일과 10월 1일에 걸쳐서 설문지의 중요성을 인터넷 이메일로 설명하고, 설문지를 정성껏 작성해서 신속하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응답자들은 설문지가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를 걸쳐 30%

의 인원들이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었고, 연구를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 연구 제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설문 요청을 했더라면 더 많은 군종목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간 신분의 성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을 포함시켰다면 좀더 연구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질문 도구들을 통해 수집된 38개의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들을 지면에 전부 실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는 필시 독자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V. 자료 분석

본 연구자는 현역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1. <연구 질문 1>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 질문 1에서는 정체성을 묻는 설문으로 준비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군종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군선교 현장에 적절하게 부름받은 사역자이나 여부는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⁸⁾ 사실 군종목사는 성직자와 군종장교라는 이중직을 갖는다는 육군 규정이나, 입대 전 그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대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7명(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군선교 현장을 문화가 다른 독특한 선교지가 아닌 단순한 목회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군종목사들은 군선교에 있어서 자신이 적임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 목회와 군종 업무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중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었다.³⁹⁾

이것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장에 들어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군선교 현장을 접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군종목사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종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갖추기를 희망한다. 장병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무형전력을 창출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지휘관과 군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군종참모나 사고 예방이나 정신적인 면을 담당해 주는 전문 상담사로 위치를 공고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종목사가 단순히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38) 자신을 목회자로 이해한 사람은 전체의 66%, 군종장교로 이해한 사람은 18%에 불과

39) 정체성의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1%을 차지. 정체성의 약화는 보통 사역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군종목사들이 일반 목회적 시각을 가지고 군대를 농촌이나 어촌처럼 단순하게 목회 사역지로 이해하고 있다. 군대에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군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군종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기에 혼돈을 경험하게 되었다.

입대 전 군선교나 군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군사역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일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좀더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의 자질 면에서는 하나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설교나 사역에서 높은 만족도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그러나 그들이 보람을 느낀다는 사역의 열매는 목회적 측면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에 의한 수직구조를 갖고 있는 군 문화에 대한 적응의 미숙으로 군 사역 전체를 원만하게 다루는 일까지 만족스러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들이 어떤 일을 중심으로 사역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목회 중심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야전 위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람이 25%로 나타났다.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중을 두고 일한다는 응답이 8명(12%)이었다. 이것은 군종목사들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교회라는 시설이나 이미 믿는 신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불신장병이나 야전 중심 사역은 아무래도 서툴고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다루는 일이 서툴고 쉽

40) 사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1명(80%)을 나타냄.

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질문 2> 효과적인 군사역의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준비된 설문을 통해 획득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에서 확인한 것은 군종목사들이 처음 군대라는 환경을 접할 때 이곳이 단순한 일반목회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거리상으로 같은 시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는 독특한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다양성과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일반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 요소가 군대문화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군종목사들은 잦은 전출로 인해 사역에 긴장과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마다 옮겨 다니는 경험이 군종목사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잦은 전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은 직업 보장 차원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함께 가정생활에 있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종목사와 지휘관과의 관계이다.

병영 안에서 지휘관의 위치는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군종목사는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⁴¹⁾ 개인적으로 장병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해도, 지휘관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효과적인 군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41) 지휘관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45%,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27%에 불과. 군종목사에 대한 지휘관들의 몰이해(42.6%)를 가장 힘든 요소로 보았음.

군종목사들이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 요인 중 제일 많은 경우가 성직자에 대한 몰이해라고 답했다. 이것은 지휘관이 성직자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되면 군종목사는 사역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었다면 지휘관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종목사는 이중직의 신분을 갖는다고 했다. 하나는 성직자요, 또 다른 하나는 군 조직의 일원인 군종장교라는 신분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원활히 하는 군종목사는 사역에 있어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휘관 개인이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군종목사와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갈등국면을 군종목사가 촉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성직자이기를 바라지만 군인임을 거부하는 엉거주춤한 태도는 지휘관에게 성직자로서의 존경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종목사가 군종장교라는 신분을 망각할 때 성직자의 위상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군종목사가 타종교 성직자들이나 동역자인 군종목사들과 갖는 갈등의 문제이다.

군종목사는 군대 내에서 좋은, 싫든 타종교 성직자와 자주 접촉을 갖게 된다. 서로 종파는 다르면서도 군에서 요구하는 군종장교의 기능이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군종참모와 보좌관으로서 업무를 함께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관계에서 서로간의 협조 여부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긴다. 대부분이 갈등이 일어나는 주 원인으로 군종 업무를 들었다.⁴²⁾ 타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 본연의 일을 군종 업무보다 우선시한다. 참모 업무를

42)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업무 수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 교리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6%에 불과.

수행하는 군종목사는 업무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타종교 성직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업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종교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일반 지휘관들에게는 군종목사들이 타종교 성직자들과 상생이나 화합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개인의 성취나 진출 문제에 있어서 진급은 군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료와 상하 간에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⁴³⁾ 이것은 군종목사로서 사역의 목적을 진급이나 개인 성취보다는 선교 그 자체에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계급구조 속에 있는 군종목사가 진급에 있어서 비선될 때의 아픔은 대단하다. 그러나 피라밋 구조의 계급사회에서 비선되는 대상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어떤 계급에서든 그것은 군종목사의 아픈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은 군 사역에서 퇴출, 장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심 고민하는 이유이면서도 바깥으로 그것을 드러내 놓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신자들을 양육하는 문제이다.⁴⁴⁾ 군대 교회는 군종목사와 성도들이 갖은 전출을 경험하는 곳이다.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이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목사들이 신자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밝혀졌다.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받은 인원들이 신자로 군인 교회에 정착되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분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 년에 십수만 명이 세례를 받아 자대로 배치를 받지만, 저들이 신앙고백을 하고 신자로 뿌리를 내리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례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이후로 양육이나 제자훈련

43) 진급 문제에 대해서는 11%만이 갈등 요인이라고 응답.

44) 신자 양육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 그 다음 갖은 전출 27%로 나타남.

이란 말이 군선교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양육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군종목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45)

연구질문 2에서는 군종목사들의 정체성 약화 내지는 혼란이 군선교의 장애 요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질문 3>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의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 질문 3은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목표를 갖고 추구해 온 질문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군종목사들이 미래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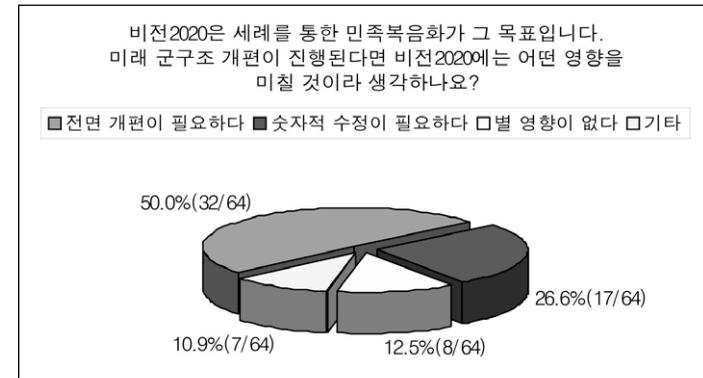
현재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군종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설문 결과 반수 이상이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았다. 46) 이 사실은 지금 국방부나 육본 등 정책 부서에서 심도있게 거론되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저 말단 야전부대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에게는 현실감 있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훗날 우리의 군선교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군선교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군선교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난 다음 군종목사들이 보인 반응은 현재 우리의 군선교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45)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등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사역하는 비율이 69%라고 응답.

46) 43% 정도가 군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인식.

<표 10>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비전2020 실천운동의 변화 여부(설문 29)



전체 중에 50%가 근본적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례 숫자를 약간 하향조정하는 수준 정도로 변화를 가하면 된다는 사람이 27% 응답했다. 아무튼 부분적 수정에서부터 근본적 전략 변화를 포함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본 사람이 전체 중 77%를 차지했다. 지금의 선교 전략을 고수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13%로 소수에 그쳤다. 지금의 군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전략은 신자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타종교의 포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천주교와 불교는 기독교와 방불한 집단세례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단순히 숫자를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미래 군선교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군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군종목사들이 근본적인 선교 전략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 응한 군종목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선교 시스템의 구축

기독교계가 미래의 군선교를 위해 힘써 주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군선교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⁴⁷⁾ 군종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점이 기독교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힘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사역을 놓친다는 점이다. 기독교는 군에 종군하는 교단이 12개 교단으로 가장 많고, 군선교에 대한 열정과 인적 물적 자원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군선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타종교는 군에서 신자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주교나 불교는 군에서 사역하는 법사나 신부들이 포교(전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교 군종교구나 천주교 군종교구청을 설립해서 교단적으로 뒷받침하며, 현역인 군종법사단이나 군종신부단과 일원화된 체제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군대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하면서도, 양질의 군종목사나 민간지원 성직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적절하게 파송하는 선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 군종목사단이 있지만, 현역 군종목사들의 친목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 전문기관을 표방하지만 전문선교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아직도 미비하다. 군종목사들이 소속하고 있는 교단들과 교회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후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군종목사들은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현역 군종목사단이 전향적인 군선교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군종목사들의 요구사항은 선교적 안목으로 군선교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2개 교단에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을 통합하는 선교 현장의 중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들은 깊이 숙고할 만한 내용들이라

47) 군선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 군종실장의 장군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1%, 군종목사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다.

판단된다.

둘째, 군인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체계

군인교회도 양육체계를 갖고 돌보면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형태는 달리하지만 이미 제자훈련으로 군인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산되는 군인교회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군종목사들이 양육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맥가브란(McGavran)은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간운동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인간은 그들의 동류들과 밀착된 유대를 지니는데, 그 동류집단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오는 것을 인간운동이라 할 수 있다.⁴⁸⁾ 군대에서 집단에게 복음을 전해 효과를 보는 이유는 인간운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간운동의 성패는 저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돌봄(Care)을 어떻게 받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⁴⁹⁾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구성원인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선교 역동성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미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군종목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앞에서 기술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은 자질 면에서 탁월한 소명감과 능력을 갖춘 군 사역자들이라는 점이다.

48)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제욱 외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pp. 486-487

49) Donald A. McGavran, p. 526.

둘째, 군대를 선교의 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목회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고 이것이 군사역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군대는 문화권이 다른 선교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대는 문화권이 일반사회와는 다른 폐쇄된 수직사회로, 해외 선교지처럼 선교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학적으로 군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이 야전 중심의 사역보다도 신자 중심 및 교회 시설 중심으로 사역하는 현상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군 문화를 장악함이 없이 단순히 집단적인 세례운동만을 가지고는 군대를 복음화할 수 없다.

넷째, 비전2020 실천운동은 일선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에게 선교학적 관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게 한다. 집단세례를 실시한 지 10년의 중간 결산을 통해 앞으로 15년 후를 예측해 볼 때, 이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대다수 군종목사들이 근본적인 선교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전2020 실천운동을 주도하는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렇다고 군선교 현장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된다. 집단세례를 통해 수십만이 통계에 잡히지만 진실한 신앙고백과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천문학적 숫자가 허수로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이 군인교회를 제자훈련을 통해 양육체계를 바꾸어 나가자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지금 전체 군종목사 중에 신자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군선교의 미래를 밝게 전망해 준다.

여섯째,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체계는 군인교회의 체질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신교대나 훈련소에 편중된 세례 중심의 군선교를 모든 부대, 모든 장병들을 진정한 복음 선교의 대상으로 회복시키는 선교 전략의

대안이 될 것이다.

군대 환경이 갖고 있는 선교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실시하는 군인교회마다 그 결과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모습은 군선교의 전망을 밝게 해 준다.

일곱째, 군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잘 준비된 군 사역자를 갖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은 군에 들어오기 전, 군선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리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군종목사보다도 2-3배나 많은 군지원 민간 성직자들도 군선교를 위해 들어오지만 군대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자질 면에서 뛰어난 군종목사들과 군 사역에 은사가 있는 검증된 민간 성직자들을 엄선해서 양육하고 파송시킨다면 군선교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여덟째, 군선교를 위한 선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종목사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군 내부와 바깥 기독교계를 향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군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선교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실현 가능한 이유는 해외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합리적인 선교 시스템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단일 종단이 아니고 11개 교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교기구들을 가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쉽게 분리하고 갈라서는 속성 때문에 통합된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선교하는 체제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종목사들은 초교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이 순수한 복음 신조에 대한 일치된 고백과 헌신으로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탁월한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아주 독특한 선교를 하고 있는 군선교가 그

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Ⅵ. 제안

비전2020 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토양이 복음을 수용하는 옥토가 되도록 토양을 새롭게 기정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난 지 1세기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빚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한말로부터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민족의 수난사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닌 한민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종교로 고난을 함께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심성은 복음에 대해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로부터 한국 기독교는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불의한 권력에 대해 침묵했고 경제 번영 제일주의에 편승해서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기울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교회로서의 신비감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민들 사이에서 반기독교적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고, 신자수의 정체 내지는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1907년도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위기의식으로 인식하여 바른 신학과 삶에 입각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고,

기독교(개신교) 안의 제교단들이 일치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시대정신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교회 성장 동력에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긍정적인 문화 토양을 조성하고, 우리의 군선교 현장을 올바른 선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군선교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선교 사역을 위한 통합적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군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기관들이 세워져야 한다.

가. 군종목사나 민간 성직자를 군선교사로 선발해서 양육하고 파송하는 전문선교기관(Sending Body)을 두어야 한다.

합동측 교단 선교본부나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 SIM, OMF, WEC 등과 같은 파송선교본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군에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2개 교단과 민간 성직자를 파송하는 교단들은 각 교단이 군에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책임있는 파송기관에 의해 군선교 파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초교파적으로 파송교단들을 통합하고 군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파송기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파송교단들이 합의하면 지금 후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파송선교본부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가 되었든 그 기관들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교단들은 그 파송선교본부에 군선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군 사역자들은 그 권위 아래서 군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군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나. 군 현장에서 군사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지 선교기구(Receiving Body)를 구성해야 한다.

현지 선교기관으로 적절한 단체는 현재 친목단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한국 군종목사단으로, 현지 선교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한국 군종목

사단은 선교지인 군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역자들의 총회로서 효과적인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제와 정보를 제공하고, 군선교라는 절대적인 가치 아래 군종목사들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내외의 선교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최상의 권위체로 나서야 한다. 군선교 현장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적어도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기 위해 매년 총회를 열어야 하며 재정을 공개하고 선교 정책과 시스템 및 방향을 공포해 주어야 한다. 장단기 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고 하부 지향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감찰 기능과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시행 및 진중교회가 따를 규정 수립, 군지원 민간 성직자 통제, 학술팀 운영을 통한 건강한 군진신학 수립, 그리고 모든 군종목사들을 계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사역자로서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 구조의 최고 확장 모델로서의 총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 군종목사들은 자신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Supporting Church)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종목사들은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자신들에게 영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후원교회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종목사들은 개인적으로 능력 여하에 따라 부분적으로 후원교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개인의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군 사역자들은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선교기관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군선교의 성패는 이 선교기관들이 얼마만큼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의사소통이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기관들이 따로 움직인다면, 지리멸렬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면 관계적 역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불교가 불교군종교구로 체제를 개편하고, 천주교가 전교를 위해 군종교구청으로 승격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군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군포교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군 사역자 개인이나 선교단체가 아무리 탁월해도 서로 관계가 단절되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의 역동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은 상호관계가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군선교 현장을 진단해 볼 때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선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각 공회전하고 있는 선교의 요소들을 거룩한 삼각관계 체제로 묶어서 선교적 역동성을 갖는 군선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군 사역자를 중심으로 선교의 중추 조직인 이 세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사역의 성공을 위해 상호간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며 역동적 조화(Holy Triangle Tension Relationships)를 이루어 가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선교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증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군선교의 근본적 해결책은 시스템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군종목사들이 이해하는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의 개선책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살피기에 앞서 선교 요소들이 역동적 관계로 상호간 결속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본 글은 2007년 4월 12일 “제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참 고 도 서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 Orbis Books. 1991.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Kane, Herbert J.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Jenson, Lloyd.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 서울: 평민사. 1964.

Huntington, Samuel P.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_____. “세계 선교의 동향과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 「세계군선교발전세미나」. 서울 : AMCF. 2002.

강한구. “자주 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 방향”,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경기: 나남출판. 2004.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연구」. 제 12권 제 3호. 서울: Kris. 2005.

국방부 군종실. 「군종업무 지침」. 서울 : 국방부.

권현찬. “군선교의 현황과 그 전망”. <기독교 사상> 2월호. 1971.

김강녕. “국방개혁 2020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군사저널>. (2006년 9월).

김두현. 「Church Solution」. 경기성남 21C, 2006.

김종탁·김원배 외. 「합리적인 군무원 정원/인사관리 방안 연구」. 서울 : KIDA. 1998.

남송현. 「군선교 전략으로서의 진중 세례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서정운. 「군선교의 기본 방향」. 「군선교신학」.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심경옥.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 전략”,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여운기 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정책」. 서울 : 서문당, 2003.

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 서울: 진영사, 1996.

이선진. “1990년대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세계화 시대와 다자안보」. 서울: 지식산업사, 2002.

이승철. “21세기 국제 및 한반도 주변정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경기: 나남출판, 2004.

정원영 외. “발전적인 예비 전력 육성 및 관리 방안”, 「미래지향적 인력설계 및 정책」, 서울: Kris, 2005.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차두현. “국방개혁의 비전과 과제”. 군종병과 창설 55주년 기념세미나 강연.

최광표 외.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최병순. 「국방인력관리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한동만. 「다자안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서문당, 2003.

홍규덕. “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1. 두 개의 상충된 2020 프로젝트

발제자의 올바른 지적이 있다. 국방 당국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은 일종의 소수정예 군대라는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국력 신장에 걸맞는 정예 군사력 확보와 통합 전력의 기능 극대화를 핵심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 문민통제 강화 및 신뢰받는 군인상 확립 등이 그것

■ 박종화 목사

-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박사
- W.C.C. 중앙위원
- 경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일 것이다.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짐중하는 다자간 안보체제의 필요성, 특히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이 효율적인 국방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들 교회가 진행시킨 지 10여 년이 되는 ‘비전2020’은 현금의 국방 개혁 구상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주로 ‘22만 군장병 세례와 전국민 75% 기독교신자화’라는 양적 목표 달성을 내걸고 그에 따른 병영 내의 각종 신자화 프로그램이며, 병영 밖의 교회의 동참과 지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숫자에 치중하다 보면 국방 의무를 당연히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보다 단기 일반사병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자화는 직업군인 쪽으로 그 방향을 심각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답은 나와 있다고 본다. ‘국방개혁 2020’이 일종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효율화라 한다면, ‘비전2020’은 “소품종 다량 생산”의 거대화라 할 것이다. 답은 하나이다. 곧 후자는 전자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스스로를 동참된 전자에 따라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발제자의 주장대로 국방 개혁이 군 전반의 “경량화와 기동화”로 진행되는 반면, 군신자화는 “저기능과 노동집약적” 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가비판적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고강도 전투력을 소유한 군대라 해서 군의 정신전력이 정비례하여 증강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신전력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군중 활동의 실질적 비전

첫째로 발표자는 현역 군목의 자기 평가 설문 결과 통상적인 목회직

수행(61%), 야전식 군사활동 참여(25%), 둘 사이의 균형 유지(12%)라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군중 활동의 어려움으로 군목의 잦은 임지 이동으로 인한 가정 생활의 불안정성, 군인사 이동으로 인한 지속적 신자교육의 난관, 특히 지휘관과의 쉽지만은 않은 관계 등을 꼽고 있다.

논찬자의 생각으로는 ‘군중 활동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난관의 편차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군대사회라는 특수사회를 전제로 할때 일반 성직과 특수 군종직이 반반씩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는 별도의 비율이 아니라 상보관계에서 말하는 반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의무복무자는 논외로 치고, 장기 직업군목의 경우 “군복 입은 목사” 또는 “군인인 목사”라 전제하면 많은 난관이 풀리지 않을까 한다.

둘째로 군종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발제자는 “연합 군목 파송기관”의 설립과 현장의 군중 활동을 체계화할 “군종 목사단”의 실질적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는 군체제 내부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전자의 경우, 현재의 군목 파송 교단들의 형편을 볼 때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단, 대안으로 일단 군중후보생이 되면, 입대하기 전에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군종업무 전반에 관한 사전 교육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군종장교 예비학교>(가칭)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경비는 소속교단이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셋째로 신자화 운동의 대상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일반 사병 중심의 신자화 및 수세운동은 군 병력 축소의 경우에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군의 경량화는 필연적으로 군종장교의 경량화

를 낳는다. 따라서 부사관과 장교들을 선교 역군으로, 곧 간접 목회 동역자로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군목의 목회자질 향상은 물론 목회교육의 다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는 각종 “사관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군종이 취급하는 영역이 과목화 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본다.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교수



시작하는 말

2000년 6월 15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보여졌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 통일을 전망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번 만남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있었던 남북한 두 정

■ 강사문 교수

- 히브리 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구약학)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상의 만남으로서 실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각자의 체제 속에서 처절한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자의 한계와 문제점을 절감하고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에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전쟁과 고통 속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경주해 왔으나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 음에서, 우리의 통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 하며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과 태도

1) 북위 38도 선으로의 남북 분단

올바른 통일로 향하는 길은 분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있다. 병이 생 기기는 쉽지만 고치기는 어려운 것처럼 분단은 쉬워도 통일은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반도 분단의 기본 구조는 복잡적이다. 열강 제국의 규정력과 분단지향 세력과 분단항거 세력 등 삼각 구도에서 분단 이 형성되고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왜 한반도는 8·15해방과 함께 북위 38도 선을 마주보고 남북으로 양분되었는가? 분단 고착의 과정 속에서 남 북체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1) 남북 분단의 외인(外因)

8·15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던 광복의 감격은 곧 분단의 비극 으로 전개되었다. 한반도 분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변 강국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제기된 강자들의 판단 결과이다. 특히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3년 휴전협정 때까지 분단선이었던 북위 38도 선은 1896년 러·일협상 때에 일본이 러시아의 한반도 남진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게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양분할 것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운명의 분단선이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기 5일 전인 1945년 8월 10일에 미국이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작전 상의 방편으로 북위 38도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을 분할하여, 38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이남은 미국이 관리하자는 안을 소련에 제안하자 소련이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분단의 한이 맺힌 한(恨)의 38선이다. 이 사건이 한반도 분단 역사의 출발이다. 따라서 분단의 원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 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분단 구도의 시작은 외세(外勢)에 의해 결정되었다.

(2) 남북 분단의 내인(內因)

민족 분단의 내인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부터 대립된 민족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여 해방 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외세에 의존하여 분단 국가 수립을 획책한 일부 정치 세력의 책동에 국민들이 동조한 결과로 분단이 고착되었다. 분단의 내적 요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나,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분단의 문제는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서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체제가 약화되고 반면에 사회주의적 기류가 강해지는 양면성과 상관된다. 더욱이 8·15광복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지만, 특히 하층계급에 속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나 지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는 이중적 자유의 해방이었다.

② 당시 북한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이상과 소련의 사회혁명주의 사

상이 결합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은 급속히 번져 나갔다. 그 이유는 이런 사회주의 맥락에서 우리는 지역 또는 역사적으로 소련과는 오랜 관계를 맺어왔으며 해방 후 이런 사회주의 세력이 햇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 세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의 대결 장소인 한반도에 양대 세력과 관계된 두 체제가 나타났으니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다. 김일성 공산집단은 그들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위해 인민 해방 통일 전선에 매진하였다. 한편 남한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받들어 조국 통일의 길을 모색했다.

④ 그러나 통일 정부의 꿈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에서 좌절되었다. 찬탁과 반탁의 과정에서 남한에서는 좌우익의 충돌로 혼미에 혼미를 거듭했으며 결국 신탁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 북한의 찬탁은 소련의 명령에 따른 결과로 외세에 복종한 것이 되었고, 남한의 우익은 미국의 안에 반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정과 결속한 셈이 된다. 따라서 신탁을 놓고 좌우익의 찬·반탁의 충돌은 남북 분단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었고, 미·소의 신탁통치안은 한반도에 그들의 세력을 부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탁통치에 실패한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유엔 결의에 따라 1948년 2월 한국의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동년 5월 10일에 남한 내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탄생했으며, 그 해 9월에 북한도 인민공화국 정부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기 시작했다.

⑥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인해 인민 해방 통일의 꿈이 좌절된 김일성은 그의 통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하에 인민 해방 통일

전쟁을 행한 것이 곧 6·25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유엔군이 즉각 전쟁에 개입하자 북한군은 퇴각했고 3년 간 지속된 비극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분단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⑦ 한국전쟁 후 남북의 대치상황은 극한 상태로 치닫는다. 북한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지속하였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반공사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고 관민이 합하여 남북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⑧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주변환경도 많이 변화하였고 따라서 남북 모두가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의 민족 번영을 위해 케도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이 핵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민족 통일과 번영의 세기가 되도록 힘을 경주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 분단에 대한 인식 변화

분단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6·25전까지는 민족-반공통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이었다. 북한 역시 무력을 통한 남진통일이었다. 1980년대 후로 우리는 승공통일, 북한은 적화통일을 주장했고, 1990년대 와서는 남한은 흡수통일, 북한은 자주 통일을 자주 이야기했으며, 요즘은 쌍방이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전쟁 전후에는 서로 잇을 수 없는 원수(이승만)로, 그 다음에는 원수에서 동반자(노태우)로, 지금은 동반자에서 한겨레의 형제자매로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과거의 불신과 반목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성경의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다윗-솔로몬 왕국의 분단 역사와 그 통일 노력

위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경에서 분단과 통일 노력을 경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검토하여 성서적 교훈을 얻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줄 순 없어도 이스라엘 분단과 통일 노력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따라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분단의 역사와 통일 노력 속에 나타난 성서적 교훈을 찾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1.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단

다윗 왕에 의하여 통일된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 때까지 1세기에 가까운 통일 왕국이 계속되었으나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다. 그 후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35년 간 남유다는 남쪽 유다의 영토를 보존하다가 주전 586년 신 바빌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2500년 간 이상을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주후 1948년에 비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웠다.

1) 분단의 때와 기간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분단 상태는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인 주전 922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분단의 고통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인 주전 72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 200년 간의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

분단 기간 중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 왕(주전 922-915)으로부터 12번째인 왕인 아하스 왕(주전 735-715) 때까지, 북왕국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주전 922-901)으로부터 19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주전 732-721) 때까지 분단 대치 상태였다.

2) 분단의 원인

왜 남북 왕조는 분단되어야만 했는가?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분단의 원인을 설명하는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에는 분단을 조장한 외세(外勢) 같은 외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내적 요인들은 어떤 것들인가?

(1) 솔로몬의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에 지친 북쪽 이스라엘 대표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그때까지 지속된 강압 정책에 선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왕상 12:10-11).

왕이 북쪽 지파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거절함으로 북쪽 지파 대표들은 실망한 나머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됨으로써 남북은 분단되었다.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열 지파를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왕상 12:16).

(2) 분단의 원인은 분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분단 전에 실로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을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왕상 11:31-34; 대하 9:29).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분단은 우리가 말하는 구조적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메이티 니헤야 핫다바르 핫제, 왕상 12:24; 대하 11:4)라는 말씀이나, 예언자 아히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왕상 11:29-39; 대하 10:15)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3)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분단을 주도할 인물, 즉 솔로몬 왕에 반기를 들었다가 목숨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등장이다. 이런 주도적인 인물이 없었다면 분단이 어려울 것이다.

(4) 분단의 심층적인 원인(遠因)은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들에 의하여 기름부음을 받아(삼하 5:1)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 때에 예루살렘은 유다지파 영역도 아니고 북쪽 베냐민지파 영역도 아닌 여부스 땅이었으므로 정치적으로 남북은 연합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이원화로 구분되었다. 또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도 다윗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남쪽 유다지파의 공인된 왕이지만 북쪽지파로부터는 공인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과 북쪽 지파 간에 이런 군신 간의 신뢰도 없이 북쪽 백성들은 억압만 당하고 강압과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니,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 간에 이런 언약과 요구갱신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결국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자의 길로 간 것이 곧 분단인 것이다.

분단의 결과 우리의 38선과 같은 분단선은 서쪽의 옴바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 방향의 계절로 이어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벨엘로 이어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여리고를 지나 사해를 건너 요단 동편의 디분으로 연결되는 선으로 남북이 분단된다.

3) 분단 시대의 남북관계(주전 922-721)

분단의 결과로 남북의 분단 시대가 시작되어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남북관계는 어떤 상태였으며 양쪽의 갈등과 대치와 협력관계는 어떻게 지속되었는가?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가졌던 북왕조를 중심으로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분단 직후 50년 간의 남북전쟁(주전 922-876, 왕상 12-15; 대하 11-16)

①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자기를 배반한 북쪽의 열 지파를 공격하여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북진 무력통일을 계획하였다(왕상 12:21-24; 대하 11:1-4).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18만의 병력으로 모집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에게 전쟁을 포기할 것을 권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북으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왕상 12:24).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기 때문에 분단 당시 르호보암의 북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종교적 이유(여호와와 말씀)와 윤리적 이유(형제와 싸우지 말라) 때문에 중도에 포기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르호보암의 남왕국을 장악할 능력 부족과 북쪽 지역의 산악전을 해낼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분함으로 평생 북쪽 땅 회복을 위해 북진통일을 의도했으나 애굽 왕 시삭의 침입으로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적을 막기 위해 유다 변방을 축성할 때에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을 축성하였지만 북쪽 분단선에는 축성하지 않은 것은 남북 분단선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대하 11:5-12). 이것은 또 그의 아들 아비얌이 북진통일을 목표로 북진하여 벨엘을 넘어 오브라, 여사나와 에브론 등 베냐민 지파의 북쪽 땅을 다 점령하였다는 데서도 남왕국 르호보암 부자(父子)의 북진통일의 의욕이 엿보인다(대하 13:19).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대치 상태에 있는 상대 이스라엘을 적(敵)으로 또는 악마(惡魔)로 표현하지 않고 너희 형제(兄弟)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같은 동족끼리 분단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만 적개심이 가득찬 상태로 상대편을 적대자(敵對者)로 보기보다는 한 조상의 후손인 형제로 이해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말이다. 또 르호보암 왕의 북진계획을 수포로 돌린 스마야를 왕은 반국가적 이적죄로 처단하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② 분단 시대 다음으로 계속된 전쟁은 북쪽의 바아사와 남쪽의 아사와의 전쟁이다(왕상 15:16-22; 대하 16:1-6). 유다 왕 아사(913-872)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900-877)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왕상 15:16)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0년 이상 전쟁이 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왕국의 2대 왕인 나담을 살해하고 왕이 된 바아사는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남북도로와 동서왕래를 통제하고, 남유다를 통제하기 위해 유다 땅인

라마 성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북의 위협에 놀란 아사 왕은 자체 병력으로 바아사의 침공을 막기 어려워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분단 초기에 특이한 점은 분단 50년 전반기에는 항상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점과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는 점이다. 아사는 시리아의 도움으로 위기는 극복했지만 외세에 의해 영토가 점령되는 비운을 맞본 것이다. 또한 이 기간 중반부터 남북 양국 모두가 외세의 침공에 시달렸으므로 어느 한 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 통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오므리왕조 시대의 남북의 우호관계(876-849, 왕상 22-왕하 8; 대하 18-)

3대에 걸쳐 40여 년 간 지속된 오므리왕조 시대에는 남북 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있었던 평화 공존의 시대였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오므리왕조는 남북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이스라엘 골짜기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도로의 중심지에 있었으므로 국제적으로 팽창하기도 쉽고 제국의 침공을 쉽게 받을 위험성도 있었다. 우선 국제 외교에 있어서 오므리 왕은 두로의 왕 이토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와 두로 왕국과 사돈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게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시리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에돔과 모압을 지배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했으므로 앗수르 비문에는 오므리 집으로 알려졌다.

남유다와의 관계는 아합 왕의 딸(왕하 8:18; 대하 21:6, 혹은 누이)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 남북 왕조 사이도 사돈관계가 되었다. 이런 정략결혼으로 인해 오므리왕조는 국제관계에서 시리아와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동맹관계로 변했고, 남북의 50년 간 적대적 관계도 형제관계로 변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사돈이 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군사 청원을 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왕상 22:4; 대하 18:3).

이런 평화적 우호관계는 최소한 40년 간의 오므리왕조 시대에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다의 여호람은 처남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를 도우러 갔던 것 등은 양국관계가 형제관계 이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평화 공존의 관계는 정략적인 결혼 정책에서도 연유하지만 힘에 우위에서도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북왕조 오므리왕조는 예후에 의해 망하기까지 강성한 국가였으므로 약한 남유다는 우호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다. 오므리왕조 시대에 있었던 남북의 군산 협력관계를 살펴보자.

①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의 공동군사작전(왕상 22:1-36)

2회에 걸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시리아에 빼앗겼던 라못을 되찾기 위해 라못을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군원을 청하자 여호사밧은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은 것이니’ (4절)라고 하면서 쾌히 승낙하고 전쟁에 동참할 것을 수락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신탁은 출전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행한 아합 왕은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운을 맞았다.

② 북왕국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의 모압 공격을 위한 군사연합작전(왕하 3:1-27)

오므리왕조의 봉신이었던 모압은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851-840)은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군 파견을 요청하자 여호사밧은 아합 때처럼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은 것이니’ (7절)라고 하면서 쾌히 승낙하였다. 에돔까지 가세한 삼국동맹군은 에돔 광야길로 모압을 공격하였으나 모압 왕

메사가 그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림으로 모압이 승리한 것으로 메사비문은 전한다.

③ 북왕국 여호람(요람)과 남왕국 아하시야와의 시리아 공격을 위한 연합군사작전(왕하 8:25-29; 대하 22:1-6)

아합과 여호사밧의 패전으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다시 유다 왕 아하시야(842)와 연합군을 편성해 탈환을 재시도하였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외손자요 아합 집의 사위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라가 아합의 딸이요 오므리의 손녀였기 때문이다(왕하 8:27). 여호람의 요청으로 아하시야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유다 왕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귀가했으나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므로 오므리왕조는 막을 내렸다. 동시에 여호람을 병문안하러 갔던 아하시야 왕도 예후의 손에 죽었다(대하 22:8-9).

40여 년 간의 오므리왕조 시대의 평화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국력의 우위에서도 관계 되었다 할지라도, 동족간의 신뢰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본다. 그러나 남쪽의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는 이러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이방신을 유입하여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시대로 단죄받았다.

(3) 예후왕조 시대(842-746, 왕하 9:1-10:36)

북왕국에는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왕조가 약 100년을 지나면서 남왕국의 갈등과 대치 속에서 전쟁도 수행했다. 예후가 왕에 즉위하게 된 배경은 앗수르의 살만에셀 3세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후는 친 앗수르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전 9세기 말부터 8세기에는 앗수르의 전성시대이므로 5대에 걸친 예후왕조 시대 내내 친 앗수르 편에 서지 않으면 왕조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외세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당시는 북쪽의 두 세력 즉 앗수르와 시리아의 틱바구니 속에서 힘의 흐름에 따라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언자의 후원을 받은 예후는 시리아 전투에서 부상한 여호람을 살해하고 아합 가문 70명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왕하 10:1-11) 여호람을 문안하러 왔던 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42명의 그 형제들도 전멸시켰다(왕하 10:12-14).

이런 유다 왕족의 몰살로 유다 왕가에 정치적 공백이 생겼으나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라가 나머지 왕족을 죽이고 섭정을 하였다. 다행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졌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등극하여 왕권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남북의 우호관계는 사라졌고 아마샤(800-783)와의 대결전쟁이 있었다(왕하 14:8-14; 대하 25:17-28).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여호아스)에게 벤세메스에서 대결전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북쪽 요아스 왕은 비유를 들어 거절하지만 예후를 정복하고 자신만만한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을 묵살했다. 그러자 요아스는 벤세메스로 내려와서 아마샤를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헐고 금은과 세간을 빼앗고 사람을 불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전쟁터인 벤세메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가 아니고 유다 영토 안에 있으므로 침략이나 통일전쟁도 아니고 남북의 힘의 우위를 가려볼 대결 전쟁인 것 같지만 어떤 명분 있는 전쟁도 아니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남북을 통일할 의도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후 아마샤는 요아스보다 십오 년을 더 살다가 살해당했다(대하 25:27).

(4) 마지막 외세에 휘말린 마지막 분단시대

약 20년간 지속된 마지막 분단시대에 북왕국은 므니헴의 아들 브가히

야 외에는 4명의 왕위 찬탈이 반복되었던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앗수르가 고대 중동 전역을 석권하는 때이므로 남북 양국은 외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왕국의 베가 왕은 시리아의 세력을 업고 무모한 남침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하였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친 앗수르 편이었지만 애굽을 믿고 반 앗수르운동을 전개하다가 나라의 운명을 끝낸 비극의 주인공이다.

① 북왕국 베가 왕(737-732) 주전 734년에 남유다 침공(왕하 16:5-18; 대하 28:1-27).

이 전쟁은 남북간의 싸움이지만 민족 통일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단지 외세와 함께 후환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었다. 공격 전 이스라엘 왕 베가는 시리아 왕 르신과 연합군을 만들어 앗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남쪽 유다도 이 연합군에 가담할 것을 아하스 왕에게 청원하였다. 그러나 친 앗수르 정책을 폈던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시리아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앞으로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 먼저 유다를 침공하였다. 이것이 소위 주전 734년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Syro-Ephraimite war)이다.

이런 위기에 접한 아하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사 7:8-9). 그러나 아하스는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한 후에 재빨리 성전과 왕실에 있는 금은을 모아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보내고 원병을 청하였다(왕하 16:7-8). 이때 앗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내려와 르신을 죽이고 백성을 기르로 옮겼다. 앗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피폐되었고(왕하 15:29),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는 친 앗수르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

했다. 한편 앗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친 앗수르 정책으로 생존이 보전된 셈이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은 북쪽에 의한 남침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이다. 6·25 한국전쟁처럼 남침한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살해하는 참극을 벌였으며, 부녀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고 엄청난 재물을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런 참극은 유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대하 28:5-8). 개선장군으로 사마리아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선지자 오벳은 이런 참극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반문하며 잡아온 형제 포로들을 귀환시킬 것을 종용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기 때문이다”(10-11절)고 했으며, 그래서 여리고로 데려다가 귀환시켰다(12-15).

이 전쟁의 특징은 남북 양쪽이 모두 외세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점이다. 북쪽의 베가는 시리아를 지원자로, 남쪽의 아하스는 앗수르를 지원자로 삼아 각각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왕들의 무모한 동족상잔으로 인해 백성들은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으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돌보아 주고, 포로들을 조기 귀환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기의 특수 자료이지만 남북 동포들이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소망한 것이며, 적대관계를 청산할 것을 갈구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② 마지막 분단 시대의 북왕국의 운명(722년, 왕하 17:1-41)

1세기 동안 지속된 친 앗수르 정책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출발했지만, 살만에셀 5세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자 호세아는 주변 소국들과 애굽을 믿고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 호세아의 반 앗수르 행동은 자살행위와 같았다. 그 후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외

세에 의존하다가 독립을 꾀하게 되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과 같다. 외세에 안주하느냐 외세를 떠나 독립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로 귀결된 셈이다.

이렇게 200년 간의 남북 분단 시대는 북왕조가 망하므로(주전 722) 남과 북의 국가적 관계는 끝난 셈이다. 북쪽의 지배층은 앗수르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영토는 앗수르의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앗수르 사람들이 이주와 살게 되었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피난 와서 살게 되었으므로 마치 남쪽으로 흡수 통합된 것 같은 상황이었다. 지금 남한에 천만의 북한 동포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

4) 남북 분단 시대의 외세(外勢)와 외교정책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전후뿐만 아니라 분단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에 강한 외국 세력들이 있었고, 분단 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 북쪽에는 앗수르와 아람, 남쪽에는 애굽,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 등이 대표적인 대적들이다. 이 외세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단 양국의 운명은 좌우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친 앗수르 정책에서 왕권을 유지하다가 반 앗수르 정책으로 선회하자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도 친 바빌론자로 등극하여 친 바빌론 정책에서 반 바빌론 정책으로 선회하자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다. 외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 것이므로 분단 시대의 외교정책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다.

(1) 분단 50년 간 양국의 외세와 외교정책

다윗-솔로몬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 북이스라엘은 북쪽 앗수르가 약하기 때문에 앗수르의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한편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으며(917년 왕상 14:25-28; 대하 12:2-12),

유다 3대 아사 왕 때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브엘세바를 거쳐 마레사까지 침공하였다가 아사 왕에 의해 퇴각당했다(대하 14:8-14, 16:8). 이런 외적의 침공이 이어지는 상황에 북왕국 바아사가 남침을 감행하고 라마 성을 축성할 때 아사 왕은 많은 예물을 아람의 벤하닷 1세에게 보내 군원을 요청하자 벤하닷은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의 이온과 단과 긴네렛까지 침략하였다. 결국 바아사는 라마에서 철수하고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했다. 유다는 외세를 이용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한 것이다. 따라서 남유다는 외적의 침공을 받아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세를 이용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2) 오므리왕조 때의 외세와 외교정책

이 기간에도 남유다는 열세한 편이지만 다행히도 당시 외적들의 침공이 없었다. 한편 오므리왕조는 강한 반면 북쪽의 아람과 3차에 걸쳐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왕상 20:1-34, 22:1-40; 대하 18:1-34). 북왕국의 아합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을 격퇴시켰다(855년). 다음 아벡 전투에서 아람을 또 격퇴시켰고(854년), 마지막으로 아합 왕은 라못 길르앗 전투(851년)에서 아람군에 의해 전사했다. 이들 전투를 통해 아합 왕은 바아사 때 잃었던 땅도 찾았으나 자신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큰 위협적인 대적이 나타났으니 앗수르의 남진정책이다. 살만에셀 3세의 비문에 의하면 앗수르를 막기 위하여 아람과 이스라엘과 애굽 등 12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카르카르(Qarqar) 전투에서 앗수르의 남진을 봉쇄하였다(주전 853년). 통상 외교관계에서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가 더 큰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서로 연합군이 되어 친구가 된 것과 같이 아합 왕과 아람이 동맹군이 되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에서는 항상 나라의 이익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적도 되고 친구도 되기 때문

이다.

아합 왕이 죽자 오므리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모압이 봉기를 했다(왕하 3:4-27). 모압의 승리는 성경과 메사비문에 의해 설명된다.

(3) 예후왕조와 앗수르의 남진 정책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의 유혈혁명으로 새 왕조가 탄생하나 예후는 앗수르 살만에셀 3세에 조공을 바치고 왕권을 보장받았다. 님므르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오므리아들 예후가 앗수르 왕에게 봉신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8세기 중엽부터는 계속해서 앗수르가 팽창하여 가나안과 애굽까지 점령하는 등 대(大) 앗수르제국이 건설된다. 이러한 대 제국의 힘 앞에서 살아남는 길은 큰 힘 앞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었다. 홍수가 날 때는 몸을 피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한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남쪽에서는 에돔이 침공하여 오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때 아하스는 앗수르에 군원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다시 남유다는 외세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외세의 여파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반 앗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다. 위기에 직면한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또 애굽의 군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馬)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애굽은 사람이요 신(神)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느니라”(사 31:1-3).

그래서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결과는 처참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자주독립 없이 외세에 의존하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곤 했다는 것이다.

(4) 마지막 분단 시대의 외세와 외교정책(왕하 17:1-41)

8세기 중엽 이후 앗수르의 팽창으로 남북의 운명은 열강들 앞에 풍전 등화 같은 격이 되었다. 특히 북쪽 앗수르의 팽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미 북왕국 베가 왕도 반 앗수르 캠페인을 벌이다가 실패함으로 앗수르를 팔레스타인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어 결국 사마리아 북쪽은 전부 앗수르의 점령지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 속에 북왕국 마지막 왕이 된 호세이는 친 앗수르 정책을 견지해서 왕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호세이는 애굽의 충동을 받아 군원에 확신을 갖고 디글랏 빌레셀 3세(745-722)가 죽자 반 앗수르 정책을 쓰고 앗수르에 반역했다. 그러자 살만에셀 5세(724-722)가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당하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이런 앗수르의 침공은 남유다에도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황폐와 공포 속에서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다윗 성에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대하 32:3-5). 이는 선임 왕 아하스 때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앗수르의 예속이 된 히스기야로서는 앗수르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과 블레셋 등 주변 국가들이 반 앗수르 동맹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여기에 가담하고 자주독립을 찾고자 했다. 그러자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46개성이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되었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사수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다(왕하

18:17-19:37; 대하 32:1-23; 사 36-37). 그 후 남유다는 앗수르의 위협과 신 바빌론의 위협 속에 있다가 시드기야의 반 바빌론 정책으로 호세아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분단 시대에 남북 양국은 외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세를 의지하다가 외세에 의해 종말을 맞은 셈이다.

200년 간의 분단 시대를 보면 처음 50년 간은 피차 전쟁을 하면서 르호보암이나 아비아는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시도했으나 외세에 시달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아사는 외세를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으나 외세로 영토를 잃은 결과가 되었다. 그 다음 40년 간의 오므리왕조-여호사밧 시대는 주위 열강들의 그늘 아래서라도 남북 양국은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었고, 외세와 충돌 혹은 협력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 후 에후왕조 100여 년 간은 외세의 위협 때문에 독자적으로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샤-요아스(8세기 초)의 충돌 외에는 힘을 빌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쟁을 하였으나 뚜렷한 통일 목표나 비전을 제시한 전쟁은 없었다. 동시에 외세에 의존한 결과 분단 양국은 외세의 속주가 되었다가 결국 나라의 종말을 맞았다.

분단 시대를 통해 잠정적으로 국토나 민족 통일을 염두에 둔 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통일 노력에 헌신한 왕이나 예언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일이 국가의 지상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하면 통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이 끝난 이후의 통일 노력은 실질적인 남북의 국토나 민족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또는 이상적(理想的) 통일 노력들이다.

2. 남북 분단 시대 이후의 이상적 통일 노력과 전망

1) 남유다 멸망 전(주전 586)까지의 유다의 통일 노력

북왕국이 망한 후 이스라엘 땅은 앗수르의 속주가 되고 남유다도 앗수르의 위협 속에 친 앗수르 정책으로만 생존이 가능했다. 더욱이 7세기 후반부터는 앗수르의 팽창과 여기에 대응하는 애굽과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주전 7세기 말이 되면서 앗수르 세력이 약화되고 바빌론 세력이 등장하기 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자주 독립 국가를 추구하면서 야웨 종교의 정화를 시도했다. 이 종교개혁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북쪽 사람을 흡수하여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였다.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산당까지 허물면서 야웨 신앙으로 결속되기를 희망했다(대하 31:1). 당시 이스라엘의 국토는 앗수르의 속주로 있기 때문에 국토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종교적·신앙적·민족적 통일을 염원한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도 유다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대하 29:24), 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유다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였다(대하 30:1-27).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과 스블론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대하 30:18).

요시아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앗수르의 힘의 공백을 포착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유다지역은 물론 북쪽의 베엘과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과 제단까지 헐면서 신앙정화운동을 시도하였다(대하 23:15-20). 동시에 므깃도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면서 잃은 북쪽의 국토를 회복하려던 그의 민족과 국토 통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전사함으로써 통일의 꿈은 사라졌다.

2) 바빌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통일 노력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함으로 많은 지배층 사람들이 바빌

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다. 가난한 백성들은 유다 땅에 남았지만 바벨론 지배 아래서는 백성들을 결속시켜 줄 국가나 영토나 종교 의식이 없고 단지 신앙적 이상적 통일 운동이 가능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은 남북의 이상적 통일의 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겔 37:15-22).

이러한 에스겔의 통일 비전은 포로의 신세라 할지라도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었다.

민족 통일의 이상은 역대기에서도 지속된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 왕국 시대에도 ‘온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쓸 뿐 아니라 포로 후 민족 공동체에도 ‘온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써서 통일의 꿈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대기 사가가 처음부터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재통일을 희망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분단 후에도 역대기 사가는 북 이스라엘은 물론 남 유다도 ‘이스라엘’ 또는 ‘온 이스라엘’로 부른다. 이는 유다가 모름지기 참 이스라엘이요 다윗왕국의 대표자란 의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골라(귀환자)들은 이방의 고통을 감수하고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

토에 남아 있던 자들 중에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속과 우상숭배한 족속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격리를 주장했다.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 문제로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기 사가는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이방인으로 배척하지 않았다(대상 12:39, 13:2; 대하 28:8, 11, 15). 이는 집권자들에 의해 나라가 양분되었지만 백성들은 민족 동일성 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역대기 사가는 보여 준다.

따라서 역대기의 통일 신학은 여호와 신앙에 굳게 서서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가 이룬 다윗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역대기서는 여호와와의 신앙으로 주권 회복과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이상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III.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서적 교훈

앞에서 언급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서적 교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 역사에 대한 우리의 참회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가는 분단과 분단에서 파생된 비극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분단과 분단 고착에 대한 죄 된 고백을 함으로만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분단에 대한 인식과 죄책 고백

우리는 종종 ‘분단은 악이고 통일은 선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과연 성서적인가라는 것이다. 분단이 악이고 통일이 선이라면 왜 이스라엘 분단 역사 속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왕도 없

고, 통일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과제나 미래의 희망으로 선포한 예언자도 없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통일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선명기 사가나 역대기 사가는 공히 분단으로 당하는 고통과 비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북왕국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 것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단과 벳엘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왕상 13:33-34). 이는 그도 범죄했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다(왕상 14:15-16). 또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은 것도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기 때문이다(왕상 14:22-23). 그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거의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과 비극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우리의 분단은 이스라엘의 분단과 시공의 차이도 있고 그 경우도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主)로서 해방부터 분단 고착까지의 역사에 간섭하셨다고 할 때, KNCC의 성명처럼 분단을 전적으로 구조적 죄악으로만 속단할 수 없다. 우리의 분단 62년을 광야의 훈련기로 또는 우리 민족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1991년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으로 또는 우리 민족에게 지워진 십자가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분단과 그로 인한 고통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고, 우리도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요청된다. 분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단의 방관자요 분단 고착을 막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 해석에 의한다면 분단의 주역인 미·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6·25같은 민족상잔의 비극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역사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인되어야 살아 있는 역사 의식이 된다.

2. 통일을 향한 화해-용서와 신뢰 회복

지금까지 남북한의 문제는 상호 불신과 적개심을 갖고 군사적 우위의 대결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쌍방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민족의 과제이다. 적개심이란 상호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집권자들은 민족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여 적개심을 북돋우었다. 끝없는 군사적 대결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피차 멸망을 촉진케 된다.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피차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요청된다. 잘못된 자가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사과없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형들을 위로했다(창 45:7-8, 50:20).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용서의 절정이 예수의 십자가 상의 모습이다. 인류 사랑의 힘이 용서로 나타난 것이다.

또 북왕국 예언자 오렛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는 승리자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쪽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승전가를 부르고 포로를 데리고 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없느냐? 너희의 허물이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했다”(대하 28:10-13)는 말에 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시킨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화해와 평화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피차 상대를 형제(아호)로 부르고 있다(왕상 12:24). 이는 체제상, 국토상 서로 분단된 분단 상

황 속에서도 상대를 적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아흐’란 말은 한 조상의 같은 혈육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형제란 뜻에는 형제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갖는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한다. 성경에 기업 무를 자로 번역되는 용어이다. 이 의미에는 형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잇는 일, 친척 중에 가난하여 종이 된 경우 몸 값을 주고 친척을 구해오는 일, 친척의 유산받은 밭이 팔렸을 경우 되사오는 일, 친척 중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원수 갚는 일 등이 형제의 할 일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형제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고려한다면, 북한 동포를 이러한 연대감 속에서 형제로 대하고 형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세는 잠깐이지만 우리 남북의 형제들은 한반도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3. 통일의 소망과 비전

누가 통일을 고대하는가? 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 당사자 모두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배자들은 기존 체제를 전제한 통일을 바라고 백성들은 기존 체제보다 좋은 통일을 소망하는 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을, 남한은 북진통일을 내세웠지만 이 둘은 집권자들의 욕망일 뿐 성취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유다 왕 르호보암이 북진통일을 위해 18만 명을 모집했으나 수포로 끝난 것과 같다(왕상 12:21-24; 대하 11:1-4).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한(주전 722) 후에 남왕국의 히스기야(주전 716-687) 왕과 요시아(주전 640-609) 왕이 잠시 남북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히스기야 왕은 북쪽 사람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

로 먼저 지역 정치의 통일에 앞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방제단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회복하고(대하 29:5-18), 북쪽 지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권고하고(대하 30:10-12), 유다 전역에 아세라 신당을 파괴하는(대하 31:1) 등 종교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요시아 왕도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곧 므릿도에서 전사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력도 주변 강대국들의 재등장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원만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분단 중에는 어떤 실질적 통일도 없었고, 남북 모두가 외세에 의해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했다. 포로로 끌려가 절망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에서 본대로 에스겔은 희망에 찬 상징적 통일 예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에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겔 37:22).

위의 메시지는 포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이 통일을 이루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 벽찬 내용이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꿈과 환상이 그때까지 그들을 존재케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지역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극한 갈등이 있었고(집회서 50:25-26; 요 4:9) 유다 내에서도 남아 있던 자들과 포로로 왔던 자들 간에 깊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다의 신앙 공동체는 지역간, 계층간의 담을 헐기 위해서 먼저 민족 통일을 추구했으나 지

역적, 민족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신학으로 주어졌던 것이 회년법이라고 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과 국내외에는 분단의 상황 하에서 부자유와 억압 속에 삶의 터전을 되찾지 못하고 사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 회년 정신이란 이런 자들에게 희망에 찬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졌던 해방과 자유의 통일 조국을 되찾는 기쁨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단 62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시련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기간은 심판과 구원(호 2:14-15)의 혼련기였다. 이후로는 우리 민족에게서 광야의 십자가 고통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 입주의 기쁨과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광야 시기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절대 의존할 때만이 생존이 보장된다는 신앙을 일깨울 때이다. 나라의 안전이 외세나 무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평화라는 말이다.

4. 평화 공존의 터전 마련-통일의 길

지금 북한은 조국통일을 외치고 있다. 이는 적화통일의 연장선에 서 있는 통일 방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변치 않는 이데올로기 민족해방운동이다. 전 북한 주민이 이런 목표로 도전해 오는데 우리는 어떤 통일 목표와 방안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북진통일에서 승공통일로, 승공통일에서 흡수통일 또는 평화통일로 용어가 변천되었지만 국민적 통일 목표가 분명치 않다. 왜 통일이 지상과제인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부족하다. 단 남쪽이 힘의 우위로서 선점을 했다는 방식은 속단키 어렵다. 역사의 주(主)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증거가 없다. 문제는 하나

님 보시기에 북한의 백성들보다 남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옳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모두 사는 평화 공존의 논리, 즉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공존의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비와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②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화롭게 하신다’ (엡 2:14-15).

③ 산상수훈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 5:5).

④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세운다.

⑤ 이사야가 제시한 이리와 어린양이 같이 어울리며……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평화의 동산을 추구한다(사 11:6-8).

⑥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따라 진행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다.

⑦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겨레 한 민족인 동족 의식을 회복한다.

⑧ 참된 평화통일이란 사랑, 진실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⑨ 인간의 잔인성과 공격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온유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포로, 즉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맺는 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분단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배교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분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단의 직접적 책임자는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한 왕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스마야 같은 예언자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강한 외적들이 침략하고 도전하여 오기 때문에 남북은 자기의 상대를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분단 당사자들이 할 일은 분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백성 모두가 서로 적개심을 버리고 형제애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예언자 오벳의 사건에서처럼 승리자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적대자를 용서해야 한다. 한 조상의 후손인 남북의 형제들은 피차 연대감과 책임감을 갖고 형제애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민족 공동운명체임을 더욱 자각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화 공존의 논리에 따라 정의와 사랑이 깃들인 평화의 통일 동산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통일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가 주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역사공리(Historiosophy)로 삼는다.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미국 침례교회의 보수 신앙가였던 카터(Carter)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976년을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해(Year of the Evangelical)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미국 교회 안에서 거듭난 신자로 자처하는 무리들은 새삼스럽게 세인의

■ 홍치모 장로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 영국 그사스코 성서대학 졸업
-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성경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역사가들은 미국에 있어서 복음주의 운동의 부활 혹은 재기(再起)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각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교회사가들과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운동에 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여 논문과 저서로 계속 발표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어간에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한 많은 논문과 저서 가운데 〈Christianity Today〉는 1992년에 3권의 저서를 선정하여 저술상을 수여하였다.¹⁾

그런데 우리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소위 보수진영에 속한 학자들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과 신학자들도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비록 근본주의 신학사상이나 복음주의 신학사상과 생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선입견을 버리고 근본주의 운동을 연구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있던 마틴 마티(Martin E. Marty) 교수가 “미국 신학의 흐름을 논하면서 근본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자연경관을 살피면서 록키산맥을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1) Michael S. Horton, *Made in America : the Shaping of Modern Evangelicalism*(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eds.,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Downers Grove, IL : IVF Press, 1991).
Hary S. Stout, *The Divine Dramatist :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Grand Rapids : Eerdmans, 1991).
〈Christianity Today〉(April 6, 1992), pp. 41-43.

말이라고 할 수 있다.²⁾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근본주의(根本主義) 운동과 신학사상 그리고 신복음주의 운동과 신학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역시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있는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교회사가 더글라스 스위니(Douglas A. Sweeney)는 소위 진취적 복음주의 역사가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신복음주의 역사서술 : the New Evangelical historiography〉이라고 제목을 붙여 그들의 연구 업적을 소개한 바 있거니와,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 중에는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마크 놀(Mark Noll),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그랜트 워커(Grant Wacker) 등이 포함되어 있다.³⁾

이들의 미국 교회사 연구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이정표(里程碑)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룩한 연구 업적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성결(Holiness)과 진영에 속해있는 복음주의 역사가들 중에서 데이턴(D. W. Dayton), 스미스(T. L. Smith), 콜린(K. J. Collins) 등은 「신복음주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의 복음주의를 방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⁴⁾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을 칼빈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과 웨슬레적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의 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보수적이며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 관해서 역사 서술을 고집하고 있는 역사가들도 없지 않다. 이들은 최근 미국에서 일부 역사가들이

2) Martin E. Marty, *A Notion of Behaves*(Chicago University Press, 1976), p. 80.
3) Douglas A. Sweeney, “the Essential Evangelical Dialectic : the Historiography of the Early Evangelical Movement and the Observer - participant Dilemma” *Church History* 60(Spring, 1991). Sweeney 교수는 복음주의 역사가들 중에서 개혁진영에 속하는 역사가들과 성결교회(Holiness Church)진영에 속하는 역사가들을 구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4) D. A. Sweeney, *Church History* 60(Spring, 1991).

자기성찰적 내지 자기비판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 분야의 연구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II

1970년 이후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은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신학적이고 둘째는 제도적(기관) 혹은 전기적(傳記的)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이다.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보수적 교단 안에서 현대주의자들이 주었던 충격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30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 회고해 볼 때,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사상에 관해서 최초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한 학자는 에른스트 샌덴(Ernest Sandeen) 교수이었다.⁵⁾ 샌덴 교수의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근본주의 운동을 서술할 때 미국 남부 농업 지대의 산물이고 동시에 반지성적(反知性的)인 운동의 결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샌덴 교수는 문화적 배경을 뛰어 넘어서 신학적(神學的)으로 해석하였다. 즉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 운동은 당시 프린스턴신학교가 표방하고 있던 성경무오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사상(dispen-

5) Ernest Sandeen, *The Roots of Fundamentalism: British and American Millenarianism, 1800-1930*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sational Premillennialism)의 연합으로 나타난 운동으로 이해하였다. 샌덴 교수는 주장하기를 미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은 프린스턴의 신학자 워필드(B. B. Warfield) 교수와 하지(A. A. Hodge) 교수가 1881년 〈*Presbyterian Review*〉에 〈영감 : *Inspiration*〉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 내용과 연결시킴으로서 한층 더 강화된 사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⁶⁾

샌덴 교수의 저서는 그 후에 간행된 저서들의 내용을 지지하거나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⁷⁾ 예를 들면 테오도르 보즈먼(Theodore J. Bozeman)이 저술한 「과학시대의 개혁교도들(科學時代의 改革教徒들)(*Protestant in an Age of Science*)」라든가 야곱 로저스(Jacob Rogers)와 도널드 맥킴(Donald Mckim)의 공저인 「권위와 성경의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등이다.⁸⁾

샌덴 교수의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 그의 저서에 대해서 학계의 반응은 적지 않았다. 사망으로부터 찬반의 논의가 야기되었다. 그 중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근본주의자들은 모두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었던가라는 문제였다. 이 문

6) H. R.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meminationalism*(New York, 1929).

Stewart Cole, *The History of Fundamentalism*(New York, 1931).

7) 샌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교수와 로리 무어(Leory Moore Jr.) 교수는 주장하기를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스덴 교수는 샌덴 교수의 주장에 참가하여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과 영국에서 시작한 케직사경회와 신학사상을 첨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Christian Scholars Review* I(Winter, 1971), pp. 141-151. 참조

한편 무어 교수는 지적하기를 현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ory Moor Jr., "Another Look at Fundamentalism: A Response to Ernest B. Sandeen" *Church History* 37(June, 1968), pp. 195-202.

8) Theodore J. Bozeman, *Protestants in an Age of Science: The Baconian Ideal and Ante-Belium Religious Thought*(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7).

Jack Rogers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Historical Approach*(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9)

제에 대해 당시의 학계에 있어서 여론은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들을 가리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歷史的 前千年主義者)」들이라고 불렀다.

둘째, 1881년에 〈Presbyterian Review〉에 발표한 성경 무오설은 당시 돌연히 만들어 낸 학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현재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신학교의 교회사 교수 존 우드브리지(John D. Woodbridge) 교수와 그의 제자인 미국의 랜달 발머(Randall Balmer) 교수는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워필드나 하지 교수가 성경 원전에 입각하여 ‘성경 무오설’ 교리를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1881년 이전부터 프린스턴신학교 안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던 교리라고 하였다.⁹⁾

센텐 교수 다음으로 주목을 끌었던 인물과 저서를 지적할 것 같으면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Denver) 시에 있는 덴버신학교 교수 티모시 웨버(Timothy Weber)의 논문이다. 웨버 교수는 자신이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을 1983년 「재림의 그늘 밑에서의 삶(Living in the shadow of the Second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¹⁰⁾

웨버 교수 저서의 핵심은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발생하고 있던 무렵 소위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을 조심성 있게 분석했다. 웨버는 스승인 마틴 마티(Martin Marty) 교수의 행동모형적(行動模型的) 연구 방법을 인용하여 전천년사상이 어떻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행동(behavior)과 생활양식(Lifestyle)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하였다.¹¹⁾

한편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현재 학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

는 역사가는 조지 마스덴 교수이다. 마스덴 교수의 부친(작고)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운 메이첸 교수의 직계 제자로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사무처장으로 봉직하였다. 마스덴 교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미국 장로교회 안의 Old School과 New School에 관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스덴은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집결되어 출현한 소위 New School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그들의 이상(理想)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 내용의 중심을 보면, New School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교리적 내지 사상적 배경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마스덴 교수는 지적하기를 New School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을 비롯하여 부흥운동가들, 교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던 독립적 선교단체 운영자들, 그리고 도덕적 법칙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던 도덕가들이었다. 그런데 1837년 Old School 과 New School이 분열했던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부적 성격은 거의 양쪽 모두가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다.¹²⁾

근본주의 신학이 어떻다고 언급할 때 주목을 끄는 것은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의 해석이다. 현재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은 북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하고 있는 밥 존스(Bob Jones)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에는 두 사람의 교수가 있는데, 조지 달러(George Dollar)와 데이비드 빌(David O. Beale)이다. 이 두 교수는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 근본주의 신앙과 신학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투쟁적 전사들이다.¹³⁾

9) Randall Balmer and John D. Woodbridge, "The Princetonians Viewpoint of Biblical Authority: An Evaluation of the Ernest Sandeen proposal" in *Scripture and Truth*, ed.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Grand Rapid: Zondervan, 1983), pp. 251-286.

10) Timothy Weber, *Living in the Shadow of the Second Coming: American premillennialism, 1875-1925*(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 251-286.

11) Martin Marty, *A Nation of Behaviors*(Chicago University Press, 1976).

12) George Marsden, "The New School Heritage and Presbyterian Fundamentalism"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2(1970), pp. 129-147.

13) George Dollar, *A history of Fundamentalism in America*(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73).

David O. Beale, *In Pursuit of Parity: American Fundamentalism Since 1850*(Greenville, Unusual publications, 1986) 이 두 교수의 견해 차이는 음성의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뿐이다.

이 두 교수가 표방하고 있는 특징은 성경을 에누리 없이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데 있다. 만약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비난의 공격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본주의 신학과 역사에 관한 연구는 최근 30년 동안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근본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전기(傳記)를 비롯하여 한 교단(교파)의 역사적 혹은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와 서술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텐 교수의 제자인 브래들리 롱필드(Bradly J. Longfield)는 1991년 「장로교인의 논쟁(長老敎人의 論爭) : 근본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간행하였다. 롱필드는 이 책에서 장로교회에서 야기된 신학 논쟁의 시야를 넓혀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 하에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Scottish Common Sense of Realism)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¹⁴⁾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1880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초교파적으로 많은 성경학교(대학 수준)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버지니아 리슨 브레러턴(Virginia Lieson Brereton)은 각 성경학교의 신학적 배경과 설립 목적을 소위 제도사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¹⁵⁾

제도사적 연구와 서술 외에 전기적 연구도 근본주의 운동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기적 연구는 근본주의 운동을 선도하였던 지도적 인물 중에서 선택하여 그들의 개성과 신앙적 인격적 내면세계를 고찰함으로써 근본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과

14)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 Fundamentalist, Modernist and Moderat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5) Virginia Brereton, *Training God's Army : The American Bible School, 1880-1940*(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거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앨런 러셀(C. Allyn Russell)은 1976년 당시까지 개별적으로 서술한 것들을 집약하여 「미국 근본주의의 여러 주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간행하였다.¹⁶⁾ 이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20년에서 1930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근본주의 운동의 여러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이외에도 개인별로 연구한 연구서도 간행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디(D. L. Moody), 빌리 선데이(Billy Sunday), 그레섬 메첸(J. Gresham Machen), 아르노 가벨레인(Arno C. Gabelein), 윌리엄 벨 라일리(William Bell Riley), 어거스터스 스트롱(Augustus H. Strong) 등의 전기적 연구서가 간행되었다.¹⁷⁾

한편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정의(定義)를 내리는 작업도 활발하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분야에 있어서 쉐넨 교수가 시도한 바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마스텐 교수는 「근본주의와 미국문화」라는 제목으로 1981년에 저서를 간행하였다.

마스텐 교수도 쉐넨 교수와 같이 근본주의 운동을 하나의 종교운동(宗敎運動)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주의 운동을 정의할 때 쉐넨 교수가 시도했던 좁은 신학적 정의를 벗어나서 미국 사회의 정치적·문화적·지성적(知性的) 활동의 현상으로 간주하여 분석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근본주의 운동을 현대주의를 반대하는 전투적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이라고

16) C. Allyn Russell, *Voices of American Fundamentalism*(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17) Lyle Dorsett, *Billy Sunday and the Redemption of Urban America*(Grand Rapids : Eerdmans, 1991).

James F. Findlay, *Dwight L. Moody : American Evangelist, 1837-1899*(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Darryl G. Hart, *Doctor Fundamentalist :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J. Gresham Machen, 1881-1937*, Ph. D. Dissertation(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정의를 내린 바 있다.¹⁸⁾

마스덴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메첸 교수라든가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William Jennings Bryan) 같은 사람도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현대주의(現代主義)에 대해서는 전투적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 근본주의 운동에 관한 마스덴 교수의 공헌을 지적할 것 같으면, 현대주의자들이 냉소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을 비과학적 인간들 아니면 과학(科學)을 기피하는 무리들이라고 낙인을 찍어왔는데 반해서 마스덴 교수는 주장하기를 실제에 있어서 반과학적이었거나 반지성적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데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의 귀납법(歸納法)적 사고와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을 이용하여 그들의 교리를 변호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였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교리들을 단지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으로 믿고 있을 뿐, 역사적으로 파수하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이거나 철학적 논리를 통해서 변호하여 왔다는 사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역사가는 마스덴 교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III

18)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sm, 1880-1925*(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마스덴 교수의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견해는 그의 저서 제6장과 제13장을 참조할 것.

19) Ibid.

마스덴 교수의 근본주의 운동 연구를 발판으로 삼고 많은 역사가들은 한 단계 뛰어 넘어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 운동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신복음주의 운동은 1937년 메첸 교수가 사망한 후 극소수의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옥켄거(Ockenger) 목사였다. 그는 본래 회중교회 출신으로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하여 메첸 교수 밑에서 배웠다. 옥켄거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자 한 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메카트니(Macartny)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피츠버그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다.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동안 피츠버그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옥켄거 목사는 자신이 근본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근본주의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편협성과 지나친 배타성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근본주의 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 이미 시작된 좌경화 현상을 저지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 구상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을 총망라하여 개인적으로 총 규합시킴으로써 초교파적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시키기로 하였다.

옥켄거 목사의 꿈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만약 각 교단 안에 있는 지도급 보수주의자들을 불러 내어 복음주의적 연합단체를 결성하기만 할 것 같으면 현대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종전까지 붙었던 좋지 않은 '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주의자들과도 가능한 한 교제하면서 상호간의 대화도 시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0년 옥켄거 목사가 중심이 되어 미국 복음주의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조직하였다. 그러므로 신복음주의 운동이 표면화된 것은 194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교수는 1930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겪고 있던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여 존 홉킨스(John Hopkins)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역사서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미국 근본주의 운동 갱신 : 1930-1945〉이었다.²⁰⁾

복음주의 연합체가 결성되어 7년을 맞이하던 1947년 미국 LA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사데나(Pasadena) 시에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되었다. 마스덴 교수도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은 풀러신학교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²¹⁾

마스덴 교수에 의하면 소위 신복음주의 운동은 풀러신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풀러신학교가 창건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학교 창건 당시의 교수들의 신앙과 신학과는 달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되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을 믿지 않은 교수들을 영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교수들과 믿지 않는 교수들 사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과 갈등은 1962년에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사건은 토요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암흑의 토요일 : Black Saturday’ 이라고 부르고 있다.²²⁾ 이때부터 풀러신학교는 교수들에게 성경의 무오성을

강요하는 ‘서명’을 폐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풀러신학교는 ‘개방된 복음주의 : Open Evangelicalism’ 신학교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근본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신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개방된 신학정신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었다. 신복음주의 신학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저서로는 마크 놀(Mark Noll) 교수의 저서 「신앙과 비평주의의 사이 : *Between Faith and Criticism*」가 있다.²³⁾

마크 놀 교수의 저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최근의 복음주의 신학사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마크 놀 교수의 저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저서가 데이비드 웰(David Well)과 존 우드브리지(John Woodbridge), 그리고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교수에 의해서 간행되었다.²⁴⁾

한 마디로 말하면, 풀러신학교 초기에 있어서 신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는 많지 않았다. 수년 전에 작고한 헨리(C. F. H. Henry) 교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의 고백 : *Confessions of a Theologian*」은 랜돌프 넬슨 교수가 풀러신학교의 설립과 〈*Christianity Today*〉지를 간행하던 무렵 헨리 교수의 내면세계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저서이다.

한편 랜돌프 넬슨(Randolf Nelson) 교수는 칼 헨리(Carl Henry) 교수와 카넬(J. Carnell) 교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를 간행하였다. 이 저서에서 넬슨 교수는 카넬 교수의 죽음을 자살한 것으로 의심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가 사망하기 전 신경쇠약에 걸려 수차 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살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역

20) Joel Carpenter, *The Renewal of American Fundamentalism*(John Hopkins University, 1984).

21) George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Grand Rapids, 1987). 필자가 1983년 칼빈대학교를 방문하여 Marsden 교수의 연구실을 노크했을 때, 마스덴 교수는 말하기를 자기는 곧 풀러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1년간 그곳에 체류하면서 풀러신학교의 역사를 집필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22) op. cit., pp. 208-215.

23) Mark Noll, *Between Faith and Criticism : Evangelicals, Scholarships and the Bible*(San Francisco, 1986).

24) David Well and John Woodbridge, *The Evangelicals : who they are, what they believe, where they are changing*(Nashville, Arlington, 1975).

사서술상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인 추측으로 볼 수밖에 없다.²⁵⁾

IV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주로 개혁교회 진영(Reformed Camp)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의 연구에 관해서이었거니와 개혁교회 진영이 아닌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까지를 포함시켜서 소위 성결교회 진영(Holiness Camp)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도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운동을 조명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교회적 내지 교리적(신학적) 특성을 지적하며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성결 진영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공헌한 업적들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북침례교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도널드 데이튼(Donald W. Dayton)과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은 1991년 「미국 복음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였다.²⁶⁾

이 저서는 알미니안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다양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 각자가 속해 있는 교단과의 역사적인 유기적 연관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데이튼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미국의 종교적(교회적) 풍경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복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하였다. 각 개체교회나 교파의 집합체로서 지니고 있는 미국의 종교적 보수주의적 경향 내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연합운동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 개체교회들이 밀집되어 하나

25) Randolph Nelson,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Evangelical Mind : The case of Edward Carnell*(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6) 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Knoxville :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1).

의 큰 덩어리 모양으로서 미국 교회의 종교적 보수주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데이튼 교수의 가설(hypothesis)로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성경 무오설이 근본주의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웨슬레파와 성결교회파 심지어 루터파(Missouri Synod)와의 상호 연결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도 연구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폴 바셋(Paul M. Basset)은 미국의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Nazarene)가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무오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데이비드 라이펠드(David R. Liefeld)와 밀턴 루드닉(Milton Rudnick)은 강조하기를 루터파와 근본주의 운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²⁷⁾

끝으로 쉐넨 교수와 마스텐 교수가 제기했던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과 근본주의 운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랜달 발머(Randal Balmer)와 대릴 하트(Darryl G. Hart)는 각각 언급하기를, 전자는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은 19세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급조된 성경관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개혁교회의 교리를 재창조한 것 뿐이라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Common Sense Realism)은 근본주의 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그 철학이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사고와 신학에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²⁸⁾

27) Ibid., pp. 245-251.

28) Randal Balmer, "The Princetonians and Scripture : A Reconsider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Fall, 1982), pp. 352-365. 발머(Balmer) 교수는 위의 논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논문을 "The Princetonians, Scripture and Recent Scholarship"이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60)(Fall, 1982), pp. 267-270에 동시에 게재하였다.

Darryl G. Hart, "The Princeton Mind in the Modern world and the Common Sense of J Gresham Mache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6(1984), pp. 1-25.

Darryl G. Hart, "A Reconsideration of Biblical Inerrancy and the Princeton Theology's Alliance with Fundamentalism", *Christian Scholars Review*, 20(March, 1991), pp. 362-375.

Mark Noll, *The Princeton Theology, 1821-1921 : Scripture, and Theological Method from Archibald Alexander to Benjamin Warfield*(Grand Rapids : Eerdmans, 1983).

맺는말

지금까지 최근 30년 간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 연구에 관한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운동에 관한 연구는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간행된 저서 중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학사(史學史) 내지 연구사(研究史)적 고찰을 기술한 저서로는 레오너드 스위트(Leonard I. Sweet) 교수가 쓴 저서 *The Evangelical Tradition in America*(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4)가 있다. 그 저서 첫 머리, 즉 제 1쪽에서 86쪽까지 스위트 교수는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의 연구의 발자취를 기술하였다.

스윗 교수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미국 복음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을 소개한 저서들을 간행하였다.²⁹⁾

현재 미국에 있어서 복음주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은 휘턴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명칭은 'Institute for the Study of American Evangelicals' (ISAE)이다. 이 기관을 'Evangelicalism in Twentieth Century America : A Guide to the Sources' 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관은 또한 빌리 그레이엄센터(Billy Graham Center Archives)와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공급하고 있다. 미국에는 많은 신학교와 선교기관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들 기관들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도서관이나

자료 보관실에 쌓여 있다. 그것들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태반이다. 따라서 미공개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공개될 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풍부한 연구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29) Edith Blumhofer and Joel A. Carpenter, *Evangelic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 A Guide to the Sources*(New York : Garland Publishing, 1990).
Robert D. Shuster, et al., *Researching Modern Evangelicalism : A Guide to the Holdings of the Billy Graham Center Archives with Information on other collections*(Westport, CT : Greenwood Press, 1990).
Norris Magnuson and William G. Travis, ed., *American Evangelicalism : An Annotated Bibliography*(West Cornwall, CT : Locus Hill Press, 1990).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

- 기독교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1. 서론

1. 문제제기

고트홀트 뮐러(Gotthold Müller)가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라는 자신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기독교 교리학에는 기도신학

■ 최석환 목사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Ph. D. cand)
- 육군 제15사단 승리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도에 대한 별도의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¹⁾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제만을 다룬 출간물로는, 메네고즈(Méngoz)의 중요한 저서 「Problème」 외에는 단지 짤막한 논문만 있을 뿐이다.²⁾ 이는 기도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를 위한 최상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기도는 의견상 완전히 고사한 것 같다”;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음이 자주 폭 넓게 유포되어 있다” 등이다.³⁾

그러나 우리는 칼빈을 통하여 확고한 기도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존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칼빈의 명성을 떨치게 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방대한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실로 기도의 열매였다. 하지만 칼빈의 신학적인 저작들은 그토록 높

1)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4-94. Gotthold Müller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기독교적 기도의 교리학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루터(M. Luther)와 칼빈(J. Calvin)(Inst. III, 20.1559)의 신학에서는 기도가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츠빙글리(U. Zwingli)는 많은 경우 기도의 오용에 대하여 논쟁을 전개하였다(CR 90, 851 이하). 멜란히톤(Ph. Melancthon)은 자신의 *Loci communes*의 2판에서야 비로소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CR 21, 536-542), 제 3판에서 *De invocatione Dei seu de precatione*라는 표제의 장을 약간 수정하여 첨가하였다(CR 21, 955-984). 이미 그의 저서에서 루터신학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중심 기능을 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멜란히톤은 비교적 우연한 위치에서, 즉 자신의 체계 끝 부분인 제29장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다. 루터의 믿음과 신학을 “믿음이란 ‘오직 기도’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WA 8, 360, 29)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최소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인식이 특히 교리학의 형성에 효과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스키미드(H. Schmid)의 *Die Dogmatik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hg. V. H. G. Pöhlmann, Gütersloh 1979)와 같은 교리학의 표준서에는 기도에 관한 절이 없으며, 헤퍼와 바이저(H. Heppel/E. Bizer)의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Neukirchen, 1958)의 색인에는 색인어 기도가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교리학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는 고트홀트 뮐러(Gotthold Müller)의 주장에 필자는 동감한다. “기도는 교리학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학은 기도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기도는 교리학 내에 속하는 어떤 구체적인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교리학의 모든 명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도라는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Ebd., S.85. 메네고즈(Méngoz)는 모든 신학, 교리학 및 종교 철학은 이들이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고 설교했다(Problème 530).

3) Ebd.

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칼빈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필자는 서론에서 기도의 정의를 내릴 것이다. 본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기도의 역사적 배경,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의 실제,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독일개혁신교회의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의 기도의 실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신학을 정립하며, 기도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 기도 모범서를 소개할 것이다.

3. 기도의 정의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⁴⁾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기본 구조는 기독교적 기도의 특성이며, 기독교적인 모

4)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6, 88.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는 예배 구절은 모든 기독교적 기도의 진정한 원천이고 또 고유한 근원이다. 예전과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을 단지 여러 방식으로 전개할 뿐이다. 예전은 예배에 따라 기도되어지는 교리이며 교리는 예전의 체계적 사고 이행이다. 고트홀트 빌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구원의 경제적인(heilsökonomischen) 삼위일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셋이며 하나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기억(Anamnese), 설교(Prädikation), 간구(Epiklese) 속에서 완료된 것, 현재인 것 그리고 미래인 것을 전개시키는 것이다(Ebd. 88).

든 기도에 관한 학설과 그 실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⁵⁾ 기도는 신학의 심장(das Herz der Theologie)이다.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이며 기도신학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⁶⁾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⁷⁾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한다고 말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요컨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상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궁핍함을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돌보시려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불행도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함으로 마음이 폭 놓이기 때문이다”⁸⁾

II. 기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기도의 역사적 배경

정일웅 교수는 그의 책 「기독교 예배학 개론」에서 예배와 기도라는 독립된 장을 만들어서 기도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⁹⁾ 초대교회, 중

5) E.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llsorge*(München, 1948), S.168.

6)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6.

7) Ebd, S.87.

8)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풍만, 1985), p.12; John Calvin, 「한·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서울: 성문, 1990), III, Ch.20. 2, pp. 637.

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 순으로 기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1) 초대교회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습관은 벌써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 발견된다. 이는 이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에서 쉽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단 6:11). 이러한 관습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던 40일간의 금식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셨다(마 6:9-13).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으며, 그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유대교의 기도생활은 초대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었다.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시, 6시, 9시로 정하여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행 2:15, 10:9, 3:1).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간청과 권고는 지금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 예배와 관련하여 기도하는 일은 사도 시대 이후 초기 교회의 예전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디다케의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에 세 번씩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세기경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시편 119편 6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7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 7번 기도하는 일을 행했다.¹⁰⁾

9)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서울 : 이레서원, 2000), pp. 291-296.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hung, Il-Ung, *Die Theologisch und Didaktische Bedeutung des Evangelischen Erwachsenenkatechismus für die kirchliche Erwachsenen Idung in Korea*(Bonn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 Universität zu Bonn, 1984).

10) 일곱 번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새벽 3시(Matutin), 6시(Prim), 9시(Terz), 12시(Sext), 15시(Non), 18시(Vesper), 21시(Compleat) 등이다. 이러한 기도를 서구 교회는 호렌(Horen)이라고 부른다. Ibid., p. 294.

2) 중세시대

중세 로마 교회로 와서는 매일 하는 여러 차례의 기도를 돕기 위해 브레비아리움(Breviarium)이란 책을 만들게 되었다.¹¹⁾ 이 책은 1568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 근거하여 전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성직자들과 사제들의 매일의 기도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서의 사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메커니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훈련은 누시아(Nusia)의 베네딕트(Benedict) 수도원의 기도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종교개혁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는 그의 글 “Von Ordnung Gottesdienste in der Gemeinde” (1523)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브레비어(Brevier)에 의존된 기도를 반대하고, 그 가운데서 아침 기도(Mette, Matutin-새벽 3시)와 저녁기도(Vesper-18시)를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루터의 기도에 대한 권장은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경건주의 시대에 와서는 가정에서 자유로이 기도하도록 권장했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일일 성경 읽기 책이 만들어져서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현대

20세기에 이르러 루터 교회는 아침 기도(Mette)와 저녁기도(Vesper-

11) 브레비아리움(Breviarium)의 내용은 쉽게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편을 중심으로 하여 표본적인 중보의 기도 내용과 찬송들과 성경 학습을 위한 것, 교부들의 글과 전설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여행 중에도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히 기도할 때 사용되었다. Ibid., p. 294.

18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교회의 공적인 행사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근래에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 금요 기도모임(철야 기도회), 명상의 시간(Quiet Time: 큐티) 등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방편들이 생겨났다.

2.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

필자는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라는 고트홀드 뮐러(Gotthold Müller)의 글을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 칭의와 기도, 교회론과 기도, 성례와 기도, 중말론과 기도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믿음과 기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의 한 기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믿음은 곧 기도라는 ‘동일물’은 직선적이지 않다. 즉, ‘믿음이 강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다. 믿음과 기도는 변증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믿음은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기도는 믿음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기도 속에서만 구체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기도는 실현된 믿음이다

2) 칭의와 기도

칭의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죄속함이 이루어진다. 이 두 행위는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죄인은

기도 속에서 이러한 공의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의로 평가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르면 칭의와 기도는 시간적으로 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칭의는 인간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는다. 칭의는 기도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칼빈(Inst. III, 20, 1)과 루터(WA 42, 662, 1-4)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버지(abba)’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즉 칭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넘어서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기도는 칭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칭의의 고유한 장소 또는 이러한 칭의가 실현되는 고유한 방식이다.

3) 교회론과 기도

기독교적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기도 의식이다. 기독교적 예배를 설교와 성례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의 집례 중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기도가 설교 및 성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어난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하는’ 기도가 설교와 성례 다음에 온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에 대한 단순히 우연한 추가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불가결한 매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예배 중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모든 세계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볼 때, 교회의 기도는 성찬식,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된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기본적인 교회의 고백이다.

4) 성례와 기도

우리는 복음주의 교리학에서 설교, 성례와 함께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은혜의 수단이 은혜를 전달하는 기구인 한, 기도는 그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도 또한 성례로 여겨야 한다. 기도에는 세례 때에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 즉 인간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원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된다. 기도에서는 옛 영원이 거부된다. 기도에서는 세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자리를 잡는다. 또한 기도에서는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교회의 ‘원-성례(Ur-Sakrament)’ 라면, 기도는 모든 다른 성례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선행하고 소속된 ‘동반 성례(Begleit-Sakrament)’ 이다.¹²⁾

5) 종말론과 기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단지 두 가지뿐이다. 인간 속에서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날을 예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소명을 받으며, 인간의 세계가 변화하고 갱신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날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인이

12) 고트홀드 뮐러는 동반 성례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행위(예전, 좁은 의미에서의 성례, 하나님의 말씀 전달 및 그의 다른 모든 행동)는 그 기원에 따라(하나님의 ‘명령’ 으로서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하여 내린 ‘명령’ 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하여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한편으로는 그의 위임과 합법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및 이스라엘, 기독교인 그리고 인류 전체에 행하신 그분의 구원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91.

할 일은 조용하고 은밀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의 예배(송영)는 구약(출 15:18; 시 5:12, 93:1~2, 96:10, 145:1 등)과 신약(마 6:13b; 롬 1:25, 11:36, 16:27; 갈 1:15; 딤후 1:17; 유 25; 계 7:12 등)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속되는 유일한 기도 형태이다. 믿음이나 소망과 같이 모든 형태의 기도도 그것들 외에 (간구, 代願 등) 언젠가는 종말론적 ‘응답’ 을 받아 충족되며, 이러한 것의 내세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바, 이것은 동시에 인간과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참된 구원이다. 칼빈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주기도문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Inst. III, 20, 35).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 에서 기도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말이다.

III.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보면 칼빈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¹³⁾ 필자는 이것을 중심으로 칼빈의 기도신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13)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풍만, 1985). 이 책은 한글 번역이 원본에 가깝게 되어 있기에 필자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다음의 책은 한글 번역상에 오류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John Calvin, 「한·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서울: 성문, 1990), pp. 634-775.

14) J. Calvin, 「칼빈의 기도론」, op.cit., pp. 9-15; J. Calvin, 「한·영 기독교 강요」, III. Ch.20, 1-3.

1. 칼빈에서의 기도

1) 기도의 성격과 가치¹⁴⁾

복음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롬 10: 14-17).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양자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시며(롬 8:16), 우리의 영혼을 부추기셔서 감히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시고(롬 8:26),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롬 8:15).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하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으로써 그것을 이미 보았다. 이제 기도으로써 그 보화를 캐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첫째,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늘 신성한 닻이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게 된다. 둘째, 우리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어 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알리기 부끄러운 소원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게 된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기도함으로써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시 145:15-16). 넷째,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뜨겁게 목상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이미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기꺼이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시적절한 도움을 주어 보호하심으로써 백성을 도우시는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한, 우리가 연약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2) 기도의 원칙¹⁵⁾

첫째 원칙은 경외심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성령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둘째 원칙은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비현실성을 추방할 수 있다. 셋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자비를 구해야 한다.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원칙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소망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동기가 된다.

3) 불완전한 기도¹⁶⁾

하나님께서 공허히 여기셔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앙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신자들의 기도는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서 얼룩져 있는 결점들을 간과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을 기도란 없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의 중보¹⁷⁾

15) Ibid., pp. 16-45; J. Calvin, III, Ch.20, 4-14.
16) Ibid., pp. 46-54; J. Calvin, III, Ch.20, 15-16.
17) Ibid., pp. 55-62; J. Calvin, III, Ch. 20, 17-20.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서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단 번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요일 2:1)요, 중보자(딤후전 2:5)로 주셨다. 신자들 사이의 중보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요 14:6). 그리스도는 영원 영존 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5) 성자의 중보에 대한 반박¹⁸⁾

성자(聖者)의 중보에서 위로를 찾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예를 박탈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바보 중의 바보짓이다. 중보직은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그분 고유의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 곳은 없다.

6) 기도의 종류¹⁹⁾

개인기도와 공중기도가 있다. 기도와 감사는 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개인기도와 교회의 공중기도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언부언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롬 8:27) 앞에 쏟아 놓은 바로 그 속마음이 느끼고 있는 감

18) Ibid., pp. 63-80; J. Calvin, III, Ch. 20, 21-27.

19) Ibid., pp. 81-91; J. Calvin, III, Ch. 20, 28-30.

정이다(마 6:6).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7) 찬송과 언어의 사용²⁰⁾

기도나 찬송이 마음의 감동에서 솟아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 중에 찬송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며 집중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중기도는 전체 회중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언어로 해야만 한다.

8) 주기도문 설명²¹⁾

주기도문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기도문은 여섯 가지 간구로 되

20) Ibid., pp. 92-97; J. Calvin, III, Ch. 20, 31-33.

21) Ibid., pp. 98-117; J. Calvin, III, Ch. 20, 34-43. 칼빈은 1537년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과 인간, 주님의 율법, 신앙, 기도, 성례, 교회와 국가의 질서 등이다. 칼빈은 1542년 두 번째 신앙교육서(Genfer Katechismus)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사도신경(Credo: 1-130문), 십계명(Dekalog: 131-232문), 기도(Vater-Unser: 233-295문), 성례의 가르침(Sakramente: 296-373문) 등이다. 이 책에서 칼빈은 질문과 대답의 교수법적 관계를 이용했는데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73개의 질문과 대담을 총 55과로 다시 나누었는데, 이것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1년 52주간과 그 외의 축성일(성탄, 부활, 성령강림) 셋을 합하여 매주 매과를 배우고 축성일에 한 과목씩 더 배우게 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성인의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를 대신하여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정일용,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pp. 49-138; 특히 기도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기도의 뜻, 기도와 응답관계,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등을 다루고 있다(Ibid., pp 107-121).

22) 김세윤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마 5-7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앙이 다루는 주제는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마 6:1-18)이며, 그 내용은 자선, 기도(마 6:5-15), 금식이다. 이러한 유대교의 종교 행위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부분인 기도 중에 주기도문(마 6: 9b-10)이 위치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 일부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에 위치하도록 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근본 도리이다. 필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윤 교수는 주기도문이 여섯 개의 청원이 아니라 네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첫 세 개의 '당신' 청원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청원이다. 또한 김세윤 교수는 마태복음 6장 33 절을 주기도문의 요약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서울: 두란노, 2000), pp.24-56.

어 있다.²²⁾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해 주는 칭호이며, 형제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칭호이다. 첫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기꺼이 맞아들일 때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마 6:10).²³⁾ 이는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부패에서 우리를 물러서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마 6:10).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통치하실 수 있게 하는 자기부인(self-denial)이 가능해진다.

9) 주기도문 설명2 ²⁴⁾

넷째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며 보호하시도록, 하

23)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내세의 삶(heavenly life)을 열망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현재의 삶(earthly life)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맹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국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리를 지어 대항해 오는 육체의 욕심을 모두 교정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모든 부패에서 깨끗함을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둘째 간구에 나타나는 합법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 풍만, 1985), pp. 112-113. 다음을 참조하라. J. Calvin, 「한 · 영 기독교 강요」, III, Ch. 3. 19; III, Ch. 6-10.

24) Ibid., pp. 118-133; J. Calvin, III, Ch. 20, 44-47.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일용할’이라는 형용사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무분별한 욕망을 제어하는 말이다. 다섯째 간구는 “우리 죄(빛)를 사하여 주소서”(마 6:12)이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의 선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우리의 약한 신앙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증표로서 이 말씀을 더하신 것이다. 여섯째 간구(마 6:13)는 우리의 약한 육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사단과 죄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로 끝난다(마 6:13). 이것은 앞에서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강화하고 있다.

10) 주기도문 설명3 ²⁵⁾

주기도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기도의 원칙이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여기에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다. 즉 간단히 집약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25) Ibid., pp. 134-136; J. Calvin, III, Ch. 20, 48-49.

형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11) 끈기 있는 기도²⁶⁾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 끈기 있는 지속성(constancy)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칼빈의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는 칼빈의 소선지서 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기도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칼빈의 기도의 실제는 참으로 진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쉘(Hans Scholl)의 책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의 부록(Anhang)에는 1557년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한 칼빈의 자유스러운 기도를 인용하고 있다.²⁷⁾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칼빈이 소선지서를 주석하면서 한 기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²⁸⁾ 칼빈의 기도에 특별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Allmächtiger Gott!)”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이라는 말 대신 단순히 아멘으로 기도를 종결한다. 그러나 “아멘” 직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unseres Herrn Jesus Christus)”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필자는 관찰했다. 필자가 칼빈의 기도의 실체를 연구한 결과 칼빈은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라서 기도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주석하며 기도한 칼빈의 기도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 호세아 주석에 나타난 기도

(1) 길 잃은 어린 양(호 4:14-18)²⁹⁾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감사하게도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불러모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의 띠로 우리를 매어 주시고,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올바로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비록 사단이 여기 저기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본성이 유혹에 빠져 죄악으로 기울어져 간다 할지라도 당신께 순종함으로 이를 계속 지켜 나가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띠로 우리를 잡아 매시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소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거하도록 하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당신의 독생자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켜 주시고,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당신의 복음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확고히 살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2) 준엄한 말씀(호 4:19-5:4)³⁰⁾

29)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Zwingli Verlag Zürich, 1968), S.282.

30) Ebd. S. 283.

26) Ibid., pp. 137-142; J. Calvin, III. Ch. 20. 50-52.

27)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Zwingli Verlag Zürich, 1968), S.271-308.

28) 영국의 칼빈번역위원회(Calvin Translation Society)는 52권의 칼빈의 저서들을 방대하게 펴냄으로 영국의 언어를 풍부하게 했다. 그들의 번역은 간단한 편집을 위하여 다시 수정되었다. 이것은 주로 소선지서에 대한 주석이었다. 수백 번이 넘는 그의 강의와 기도들은 모두가 교훈적이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 책을 참고하라. Charles E. Edwards, 「칼빈의 경건 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p.18-16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며,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당신께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오, 당신의 옛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당신의 옛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거절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당신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제 전적으로 당신께 복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역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3) 사랑과 믿음(호 6:5-11)³¹⁾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어떠한 기회만 있으면 쉽사리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되나이다. 오 주여, 이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도움으로 강건하여 순전한 믿음 가운데 지나게 해 주소서. 날마다 당신에게서 배우게 하시며 당신의 성령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되 결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게 인도해 주소서. 당신을 속이려 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봉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당신을 증거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순전하고 거룩한 희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4) 죄악과 징벌(호 9:6-9)³²⁾

31) Ebd., S. 287.

32) Ebd., S. 29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밝히 보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먼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으며, 죄의 어두움을 좇지 않게 하심이며,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최악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더욱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사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며 당신을 위한 희생으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케 해 주소서. 당신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취할 때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5) 그리스도의 신성(호 11:11-12:5)³³⁾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오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당신의 독생자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구하기는 전적으로 당신께 우리 자신을 드러 헌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6) 은혜를 기억함(호 13:1-6)³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드럽고 평온한 음성을 들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니이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사 최악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 하나님,

33) Ebd., S. 301.

34) Ebd., S. 304.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우리 자신을 당신께 복종시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늘 듣게 하소서. 당신을 거역하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만물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사 세상의 으뜸이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7) 참된 왕이 되심(호 13:6-13)³⁵⁾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되, 기쁨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죄악의 위협에서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로 당신의 위엄 가운데 지내게 하심으로 늘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심이었사오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소서. 당신의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지켜주소서. 아멘.

(8) 은혜로운 부르심(호 13:14-14:3)³⁶⁾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너무나도 자주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 하나님, 오직 믿음만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가 부서지는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의 성령의 도움으로

35) Ebd. S. 305.

36) Ebd. S. 306.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지요, 구하나니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눠 갖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2) 요엘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⁷⁾

(1) 경배와 기쁨(율 1:1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육신의 불완전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아실 줄 압니다. 실상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여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로 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하나니, 당신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알게 하시고 당신 말씀의 표준을 따라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저울질하여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 는 일을 행함으로 당신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멘.

(2) 나팔소리(율 2: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날마다 그토록 깊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번에 보여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그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지요, 당신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종이 되어 헌신하여 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남에게도 가르치며, 그들도 또한 당신께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귀한 깨

37) Charles E. Edwards,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p.39-55.

우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항상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곧 깨어 응답도록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아멘.

(3) 성령을 부어주심(골 2:2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로 이 최악의 어둠 가운데서 사는고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당신의 도움이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시어 날마다 하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이 늘 내게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 되어 늘 왕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려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4) 경고(골 2:30-3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만일 당신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온갖 최악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통한 안위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 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일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의 최악과 인내하면서 싸우게 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얻을 때까지 싸우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5)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골 2:3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중보자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로우신 당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인자한 음성을 늘 받아들이면서 기도함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비록 수많은 위험과 압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당신을 더욱 간절히 부르게 하시며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당신께 드리는 기도로 감당케 하소서.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와 연합하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축복을 소유하며 살게 해 주소서. 아멘.

(6) 축복의 체험(골 3:17)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형태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며, 또한 육체와 혈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 간절히 구하나니 이 전 쟁터에서 오직 인내하면서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채찍질 받을 때라도 겸손히 당신의 훈계를 받으며 당신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당신을 슬프게 할 때라도 늘 우리의 마음

이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소망 중에 당신의 독생자를 양망하게 하소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소서. 아멘.

3) 아모스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⁸⁾

(1) 제사를 드림(암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계명을 이루어 놓으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원컨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케 해 주시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칠 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겸손 등 이 모두를 당신께 드리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영적인 헌신을 함으로 주의 이름을 진실로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 엄숙한 교훈(암 4:1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이토록 인자하심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주시는 훈계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어 우둔하게 될 때라도 당신께서는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생활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38) Ibid., pp.56-66.

(3) 목자와 선지자(암 7:1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사단의 고삐를 느슨히 풀어 주시기에,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하사 자신들이 감당할 임무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게 하소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교묘한 음모로 그들을 대적하든지, 혹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든지 간에 종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들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당신께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어둡고 신앙 생활이 익숙지 못한 자에게 사단이 뿌려 놓은 불신앙의 안개를 당신께서 거두어 주시고, 온 세상에 속한 사단을 정복하는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의의 태양이신 당신의 아들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독생자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온갖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4) 하나님의 능력(암 9: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심으로 만물이 당신의 명령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당신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이제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같이, 우리도 당신의 이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당신에게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기게

하소서. 아멘.

4) 오바다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⁹⁾

(1) 지혜있는 자를 멸하심(옵 1: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지켜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도 당신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당신의 뜻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오니 군세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죄악의 힘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 다니지 않도록 권능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순전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나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영혼들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양들이 우리의 목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목자의 보호 가운데 살아나가되, 당신께서 아들의 보혈로 인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기까지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참아가게 하소서. 아멘.

5) 요나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⁰⁾

(1) 담대하게 부르짖음(욘 3: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찬 나머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사오니, 당신의 종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39) Ibid., pp.67-69.

40) Ibid., pp.70-75.

당신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어떤 죄악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보호 속에서, 또한 당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소서. 이것은 이미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약속에서 떨어져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나눌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당신께 복종하며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지켜 주소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욘 4:10-1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도 인간을 향한 당신의 염려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게 하셔서 우리도 당신께서 보여 주신 본을 따라 이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룩하고 축복된 천국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6) 미가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¹⁾

(1) 선지자의 탄식(미 1:9)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기록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

41) Ibid., pp.76-92.

시웁니다. 오, 당신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당신 안에서 즐거워 하면서 살아가도록, 또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바라보오니,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남에게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옳은 길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축복 된 삶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살게 하소서. 아멘.

(2) 성령의 권능(미 3: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말씀에 선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모든 종들이 하늘의 권능을 입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되,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하여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항상 성도들의 생애가 당신의 권능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당신에 의하여 천국의 거룩한 삶에 항상 인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3) 민족들의 친교(미 4: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로 하여금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토록 오래 전에 예언하게 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당신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 우리로 하여금 제각기 흩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당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당신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모든 일 속에서 체험토록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진실로 경배하면서 서로 형제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남의 선한 것을 도모하도록 애쓰게 해 주소서. 우리가 서로 간의 친교를 더욱 나타낼수록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소서. 아멘.

(4) 영원한 믿음(미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연합하였사오나, 우리는 종종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쉽사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불의에 대하여 인내하며 싸울 수 있게 하소서.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일어나는 어려움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눈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비천한 지경에 빠지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 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 영혼이 당신의 영원한 구원을 양망하게 하시고, 그 때에 당신의 아들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얻게 된 무한한 축복을 기쁨으로 맞게 하소서. 아멘.

(5)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미 6: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과 복음을 주심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으사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웁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당신의 계명이나 당신의 자비로우신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에

서나 우리 자신을 당신께 복종시키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을 이루게 하심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들을 굳게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감언이설로 속이려 든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당신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유업을 받아서 즐거움으로 넘치는 생활을 할 때까지 지켜주소서. 아멘.

(6)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기도(미 7:1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공의를 행하사 그 어디에서나 당신의 심판을 이루시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을 당신의 성도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당신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당신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을 사함 받게 하셔서 더욱 회개하고 또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날마다 당신께 기도로써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당신 안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소망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권능으로 도와주소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7) 나훔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²⁾

(1) 니느웨의 멸망(나 2:8)

42) Ibid., pp.93-9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토록 많은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견고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은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당신의 입김에는 다 날라갈 수 밖에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진실로 당신께 겸손히 굴복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영원한 하늘 나라가 되도록 하소서. 아멘.

8) 하박국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³⁾

(1) 파수대(합 2: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됨을 아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높은 성루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비록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며, 더욱 당신께 가까이 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 탐욕에 대한 징벌(합 2: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극히 겸손하시며 낮아지시어 우리의 인생 행로에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

43) Ibid., pp.96-107.

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빈곤함을 참을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당신의 부유하심으로 만족케 하여 주소서. 이러한 것을 당신께서 이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셨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충분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당신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3) 구원의 병거(합 3: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사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염려하고 돌보심을 보이셨나이다.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움 가운데 보여진 당신의 아들을 통한 약속에서 우리가 멀리 나가 방황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겸손해짐으로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살면서 당신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옛 성도들을 지켜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9) 스바냐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⁴⁾

(1) 교만함과 멸망(습 2:1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십자가의 전쟁터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크나큰 권세를 가진 원수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심을 아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되돌

44) Ibid., pp.108-116.

이켜 볼 때에,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 앞에서 압박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 깨끗한 입술(습 3:9)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가는 동안 당신 곁을 떠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면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할 때라도 당신의 성령으로 깨끗케 하사 입술로만 당신께 기도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오직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전생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나누어 갖게 하소서, 아멘.

10) 학개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⁵⁾

(1) 배은 망덕함(학 1: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심인 줄 아오니, 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시련들이 그 얼마나 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적인 성전

45) Ibid., pp.117-125.

을 건축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케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애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소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새로운 삶을 이룰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2) 영광스런 성전(학 2: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얽매어 살아감으로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 나감으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은 것을 바라봄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거룩한 생활의 온전한 열매를 당신께 드리시기까지 영적인 헌신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 스가랴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⁶⁾

(1) 참된 제사장(슌 3: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가운데서 우리를 충성스런 제사장들로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께 영적인 희생을 드리도록 하셨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헌신하도록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덧입고 사단과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46) Ibid., pp.126-157.

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당신께서 힘 주심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늘 당신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있게 해 주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한 몸의 지체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신께서 머리가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2) 인애와 긍휼(슌 7:9)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친절과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행하므로 당신께서 부르신 부름이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뤄나가며 서로의 유익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소서. 그럼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고 당신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 말라기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⁷⁾

(1) 이방인들을 부르심(말 1:1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끌어 주사 딱딱한 계명의 그늘 아래로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고귀한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나이다. 더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셨으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희생으로도 당신께 헌신케 하셨으니, 이는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얻으시는 참된 희생이 되는 것

47) Ibid., pp.158-166.

입니다. 구하오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임함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며, 당신의 선지자가 선포한 바와 같이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을 통하여 들림을 받게 하소서. 이는 마치 독생자의 유일한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2) 그리스도의 선구자(말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게으른 까닭에 비록 당신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도우심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애쓰게 하소서. 그러므로 계명과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음성과 또한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사,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장차 오실 위대한 구원자를 바라는 소망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고 승리와 영광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3.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⁴⁸⁾

칼빈이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예배 모범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회 기원, 죄의 고백, 사면의 선포, 설

48) 칼빈의 예배 모범은 그가 1538-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종교의 박해로 프랑스로부터 피난 온 동족들을 위한 교회의 예배에 사용하던 것이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545년에 다시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예배 모범서에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평상시 목사는 기도에 대하여 늘 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설교할 시간과 대상에 따라 본을 삼아야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서울: 이레서원, 2000), pp. 379-396.

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주기도문과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회 기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2) 죄의 고백

나의 형제여, 당신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중심에서 나의 말을 따라 하십시오.

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 앞에서 거짓됨 없이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고 죄와 더러움에서 태어났으며 악을 즐겨 행하고 모든 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범죄로 끊임없이 거스렸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를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서 우리는 파멸과 부패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막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제거 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비추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사면의 선포

당신들 각자는 진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

하며,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불쌍한 종들에게 가르치
시고 당신의 율법의 의 안에서 그것을 보여 주기를 기뻐하셨나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당신만을 섬기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우리의 마
음판에 쓰시고 새겼나이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날마
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느끼게 하시나이다. 이로 인하
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4) 설교 전 기도⁴⁹⁾

하늘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간구하기 원
합니다. 당신의 자비의 눈길을 불쌍한 종들에게 주옵시고, 너무나 그릇 되
어서 당신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많은 죄악을 계수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우리 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를 바라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빛이 충만하게 거하
십니다. 주는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
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이 그 상전에게, 자녀가
그 아비에게 함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아오며, 그것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49) 회중이 찬양하는 동안에 목사는 단 위로 올라가 설교 전 기도를 한 후 설교를 시작한다고 칼
빈은 제시한다.

여, 이름이 거룩히…….

5)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당신은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
리는 주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언약을 갖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도
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얻도록 당신께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
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당신이 우리 위에 두신 것, 위의 것과 그
나리를 위해 구하고, 그 뒤에 당신의 백성,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약속을 신뢰하며 당신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
으로 당신의 면전에 모였기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신의 무한
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전심으
로 당신께 구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당신의 기뻐하심과 홀로 나타
내신 뜻을 바라게 하소서.

또한 모든 제후와 장들, 즉 당신의 공의와 지도자로 세우신 종들, 특히
이 도시의 장들을 위해 비오니 홀로 선하시며 정말로 소중하신 당신의 영
을 그들에게 전하옵시고 그 안에서 늘 더욱 넘치게 하사, 그들로 진실한 믿
음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
시며 당신이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이 선지자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과 복음 전파를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나라의
충성되고 고귀한 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불쌍하고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양들을 모아 목자장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목표를 늘

갓게 하사, 그들로 매일 자신을 헌신하고 주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의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 뒤에 우리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속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구원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나아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당신이 시련을 주고, 그것이 가난이든, 옥에 갇힘이든, 병이나 추방이나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영적인 시련이나 간에 십자가와 고난으로 별하신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 의탁합니다.……적그리스도인 군주 아래 흩어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의 모든 가련한 형제들을 하나하나 당신께 맡깁니다. 옥에 갇히거나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핍박 당하는 자들까지도 맡입니다.……끝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거룩한 양식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올바르게 그리고 교만함 없이 깨닫게 하소서.……이로써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라 우리의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삶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6) 주기도문과 기도(축도)

여기서 목사는 주기도문을 간단히 낭독하고,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그 뒤에 목사는 집회를 파한다. 그리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며 지켜 주시길, 주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취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당신들에게 돌리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7) 성만찬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단지 그의 피와 살

을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께 바쳤을 뿐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전해 주시려 하시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 주사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대한 타는 열망으로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소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보내사, 더 이상 온전히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성을 좇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롭고 영원한 연합, 즉 은혜의 띠에 참여하는 것이며, 당신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또 친밀히 사랑받는 상속자로 육과 영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당신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행위와 말씀으로 당신의 성호를 찬양케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며, 복된 생각을 기리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의 죽음에 있는 선한 뜻을 알리게 하사, 새롭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며, 모든 자를 영접하며 더욱 큰 믿음으로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4. 칼빈의 기도신학에 기초한 논자의 기도의 실제

필자는 이상에서 살핀 칼빈의 기도신학을 토대로 하여 필자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개회 기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회개에로의 부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떨치시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3) 죄 고백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의식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일을 절대화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맘모니즘에 빠져 돈을 섬겼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여 갈등 속에서 오는 증오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너무 빨랐으며 선을 행하기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를 공허히 여기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우리도 동시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에게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용서의 확증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풀어주신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5) 설교 전 기도

공허함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와 생명수를 주사 영혼을 시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하

나눔께서 주신 양식에 의해 살게 하시며,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소서. 군중 목사님들과 민간 목사님들, 군중병들에게 선교적 열정과 새 힘과 봉사의 마음을 주사 장병들을 섬기게 하소서.

지금도 부대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불안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사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소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외로운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친구가 되어 주사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육신의 욕망으로 범죄하여 헌병대 영창에 수용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재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갈아 입게 하소서.

진급과 보직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주사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며, 공법을 몰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저 북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한반도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게 하시며,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기도(축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아멘.

8) 성만찬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더 이상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성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연합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며,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추수감사절 죄 고백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의식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피조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여 우리 자신의 땀과 힘을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면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일을 절대화하며 조급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여 우리의 곡식 창고만을 지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열매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첫 번째 강림절 죄 고백의 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절대화하여 기도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행복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귀를 스스로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나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첫 번째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기도의 정의를 내린 후 기도의 역사적 배경,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

ologie)라는 고트홀드 뮐리의 글을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 칭의와 기도, 교회론과 기도, 성례와 기도, 종말론과 기도 등을 연구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의 실제,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독일개혁신교회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 기도의 실제 등을 살펴보았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기본 구조는 기독교적 기도의 특성이며, 기독교적인 모든 기도에 관한 학설과 그 실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 기도는 신학의 심장(das Herz der Theologie)이다.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이며 기도신학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 칼빈의 기도에 대한 정의처럼 기도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칼빈의 기도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음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롬 10: 14-17).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양자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시며(롬 8:16), 우리의 영혼을 부추기셔서 감히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시고(롬 8:26), 아바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짖게 하신다(롬 8:15).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하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으로써 그것을 이미 보았다. 이제 기도으로써 그 보화를 캐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2)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첫째,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늘 신성한 뜻이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게 된다. 둘째, 우리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어 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알리기 부끄러운 소원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게 된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기도함으로써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시 145:15-16). 넷째,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뜨겁게 목상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이미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기꺼이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시적절한 도움을 주어 보호하심으로써 백성을 도우시는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한, 우리가 연약한 매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3) 기도의 첫째 원칙은 경외심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성령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둘째 원칙은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비현실성을 추방할 수 있다. 셋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자비를 구해야 한다.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원칙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소망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동기가 된다.

4)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

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단번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요일 2:1)요, 중보자(딤후전 2:5)로 주셨다. 신자들 사이의 중보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요 14:6). 그리스도는 영원 영존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5) 주기도문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기도의 원칙이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여기에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다. 즉 간단히 집약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형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 끈기 있는 지속성(constancy)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기도를 발췌하여 소개했다. 이러한 칼빈의 기도의 실체는 참으로 진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한스 슐(Hans Scholl)의 책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의 부록(Anhang)에는 1557년 호세이를 강의하면서 한 칼빈의 자유스러운 기도를 소개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칼빈이 소신지서를 주석하면서 한 기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했다. 칼빈의 기도예 특별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어!(Allmächtiger Gott!)”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대신 단순히 “아멘”으로 기도를 종결한다. 그러나 아멘 직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unseres Herrn Jesus Christus)”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필자는 관찰했다. 필자가 칼빈의 기도의 실체를 연구한 결과 칼빈은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라서 기도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주석하며 기도한 칼빈의 기도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필자는 칼빈이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예배 모범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를 소개했다. 그것은 개회 기원, 죄의 고백, 사면의 선포,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주기도문과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필자의 기도의 실체를 소개했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기도신학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 특히 군인교회에 올바른 기도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했던 주기도문과 일치한 기도문,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모범서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예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적용으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보다 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부록〉 독일 개혁교회의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이것은 독일 개혁교회의 예전서(Reformierte Liturgie) 중 교회력에 맞춘 감사의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Dankgebete und Fürbitten zum

Kirchenjahr)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⁵⁰⁾

1) 강림절(Advent)⁵¹⁾

하나님, 당신께서는 혼탁해진 세상을 위한 빛이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십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에서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시어 약하고 상처받은 자가 크게 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의 생명 위에 있고, 우리가 그 빛의 수단과 활동을 완성하여 당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강림절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자비심으로 명석함과 용기를 갖게 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께 어두움이 깊은 곳에, 영혼에 상처를 받은 외로운 사람이 어두움을 응시하는 곳, 교도소와 의탁자 시설, 병원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의 빈곤이 감추어진 곳에 당신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어둠을 섬기는 자를,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는 자를, 약한 자를 방관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강한 자를 멈추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평화를 위하여 어디서나 증인이 되는 당신의 교회를 도와 주소서. 이 강림절 주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그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시고, 당신께서 강림하시는 빛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하소서.

2) 성탄절(Weihnachten)⁵²⁾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 주심에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부끄럽

50) *Reformierte Liturgie*, im Auftrag des Moderaments des Reformierten Bundes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 Bukowski, A. Klompemaker, Ch. Nolting, A. Rauhaus, F. Thiele, Neukirchen 1999, S.223-255.

51) Ebd. S. 223.

52) Ebd. S. 226.

없이 당신 앞에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당신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더욱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강한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께 바로 오늘 더욱 약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서 더 이상 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곧 뿌리가 뽑힌 자, 평안을 잃은 자 그리고 회의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혼자 있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께 성탄절의 메시지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마음을 담은 사람을 위하여, 조롱하는 사람과 냉담한 자를 위하여, 실망한 사람과 비뚤어진 사람을 위하여, 사랑 대신 미움을, 평화 대신 죽음을 설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부드러워지고 변하게 그리고 당신과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께 오늘 소박하게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어린이의 기쁨을 지켜 주소서. 그리고 즐거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생명의 기쁨을 보존하여 주소서.

3) 송구영신(Jahreswechsel)⁵³⁾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올해의 마지막 저녁에 선사하여 주신 시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것을 보존하시고 정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소서. 지난 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저녁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세상을 둘러싼 우리의 걱정거리를 조용히 한 번 더 당신 앞에서 펼쳐 놓고

53) Ebd. S. 229.

자 합니다. [침묵] 하나님,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 앞에서 개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께 더 이상 힘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소서.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소서.

4) 고난주간(Passion)⁵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의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비겁함 그리고 모든 거절을 훨씬 넘어서는 당신의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걸치레나 변명을 하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더 진실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과 행위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배신하였던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을 때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절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을 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해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당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죄를, 비록 우리가 원하지만 털어 낼 수는 없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과 훈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내기 위하여 당신의 자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54) Ebd., S. 233.

5) 부활절(Ostern)⁵⁵⁾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죽어야 할 존재에 대하여 생명의 주님이 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게서 권세를 빼앗고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아직 죽음의 힘 앞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늙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도움을 찾고 힘을 얻도록 평화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보내 주소서. 우리는 당신께,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려고 고투하는 모든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 조무사를 위하여, 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사회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의 이해가 용기를 주고 이들의 도움이 희망을 선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창조 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선사하여 주소서.

6) 추수감사절(Erntedankfest)⁵⁶⁾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께서 우리와 당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매일 아침 새로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이 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55) Ebd., S. 237-238.

56) Ebd., S. 249.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지어! 우리에게 오시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지나친 탐욕이 올바른 정도를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지 않고 주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꾸밈 없이 취하고 간구하며 요청하여도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일용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참고 문헌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Reformierte Liturgie, im Auftrag des Moderaments des Reformierten Bundes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 Bukowski, A. Klompaker, Ch. Nolting, A. Rauhaus, F. Thiele, Neukirchen 1999.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 Zwingli Verlag Zürich, 1968.
Chung, Il-Ung. *Die Theologisch und Didaktische Bedeutung des Evangelischen Erwachsenenkatechismus für die kirchliche Erwachsenen Idung in Korea*. Bonn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 Universität zu Bonn, 1984.
Calvin, John. 「깎땀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 경건, 1995.
_____.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 서울 : 풍만, 1985.
_____. 「한·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 서울 : 성문, 1990.

Comenius, J.A.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정일웅 역. 서울 : 여수론, 1996.
_____. 「대교수학」. 정일웅 역. 서울 : 창지사, 2002.
_____.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 정일웅 역, 서울 : 여수론, 1999.
Davies, Horton. 「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Edwards, Charles E.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Großmann, Klaus/ Schröer, Henning(Hg.). 「코메니우스의 발자취」. 정일웅 역 서울: 여수론, 1997.
Twardella, Günter. 「기독교 신앙의 초석」. 정일웅 역. 서울 : 한국로고스 연구원, 1995.
Runia, Klaas/ Stott, John R.W. 「하나님 나라의 신학」, 정일웅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2.
Schröer, Henning(Hg.). 「개신교 신학 연구개론」. 정일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96.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1993.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 솔로몬, 1993.
_____.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 이레서원, 2000.
_____.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_____.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 여수론, 1999.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 두란노, 2000.

- 정일웅. Katechismus 교육에 대한 연구(1)—그 개념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1984 겨울호.
- _____. Katechismus 교육 연구(2)—견신례와 견신례 교육의 의미—. 「신학지남」. 1985 봄호.
- Schaller, Klaus. 인간의 인간성 교육—교육의 현재적인 문제에 대한 코메니우스의 비판적 공헌—. 정일웅 역. 「신학지남」. 1997 여름호.

‘Pontifex Maximus’ 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



이규철 군종목사



I. 들어가는 말

국가 통치와 재흥(再興)이라는 영역을 위해 기독교를 매개로 삼는 것이 유용하다고 깨달은 후 이를 실천에 옮긴 세계 최초의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 the Great)’이다.¹⁾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정적인

■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극동방송설교가, 육군 3사관학교 총성대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막센티우스(Maxentius)’를 물리치고 제국의 지배자로 등정한 이래,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정책은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되었다. 곧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 그동안 지속하여 온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자세에서 용인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그동안 박해의 고난 속에 살던 기독교인에게는 박해의 종식²⁾이요 신앙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쾨팅(B. Kötting)’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가 로마 종교계의 최고 사제를 일컫는 ‘폰티팩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로 일컬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보유하였다.³⁾ ‘곤잘레스

1) 로마군의 장군이었던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Constantinus Chlorus)’와 하류층 출신인 ‘나이두스 헬레나’ 사이에 태어난 콘스탄티누스의 정식 명칭은 ‘Flavius Valerius Constantinus’ (274. 2. 27~337. 5. 22)로서 306~337년에 걸쳐 로마를 다스렸다.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Michigan: Zondervan Pub. Co., 1981), p. 124.

‘쾨팅(B. Kötting)’의 분석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라는 국가와 교회의 화해를 터놓았으며, 이를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 국가의 통치기관과 지도적인 교회 기구 사이의 일치된 거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생시부터 지금까지 서로 다른 판단을 받아 왔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교적 국가들의 박해에 의한 치명적 위협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교회의 해방자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안에 또 다른 위협을 촉발시켰다고 믿는다. 이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가 세운 기관을 마치 해파리의 흡수처럼 끌어안았고, 국가가 교회와 동맹을 맺을 때 보장할 수 있었던 이권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자유를 박탈했으며, 교회의 본래적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인간적 기구들과 권세들과의 거리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을 대하는 이러한 양면은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던 감독들은 콘스탄틴에 의해 국가 권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들을 친구와 형제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지만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같은 감독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교회 정책과 거리를 유지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은 원칙적인 거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황제와 다른 생각을 지닌 감독들 간의 긴밀한 협조의 정치적 영향을 배격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콘스탄티누스의 종교 정책의 핵심인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제휴가 교회를 위해 유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식이 콘스탄티누스의 재임 시에 살아 있었다. B. Kötting, “교회와 국가”, 『고대교회와 동방교회』, 이신건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p. 185.

2) 법치국가라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바로 그 로마의 반(反) 그리스도교적 조치로 인해 초기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실로 어둡고 긴 통로를 순교의 피를 흘리며 걸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한 로마 국가의 정치 체계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박해를 견디었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터툴리안(Terullian)’은 이를 이렇게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당신들의 잔인함이 아무것도 이뤄놓을 수 없다. 우리가 배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기 때문이오.” 더 나아가 터툴리안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담대히 믿으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Tertullian, “Apology, 50”, *The Ante-Nicene Fathers, vol. III*(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1), p. 404.

(Justo L. Gonzalez)’에 의하면, 이는 그 스스로를 폰티팩스 막시무스로 여긴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 로마의 여러 전통적 신들이 올바르게 경배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지당한 방법으로 경배되도록 유의하는 의무를 수행했음을 의미한다.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의 콘스탄티누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호감을 가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⁵⁾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황제에게 보내는 기독교인들의 갈채에 편승하여 국가 통치 차원에서 국가 교회 제정이 라는 그의 정치적 야심에 찬 플랜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 수록 기독교적 성향이 강화된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의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다른 역대 어느 황제보다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기독교를 중흥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치세 하에 있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사안들의 질서에까지 신경을 썼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도나투스파 논쟁과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로

3) B. Kötting, *Ibid.*, p. 188.

4) ‘곤잘레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스스로를 “감독들 중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교회 생활에 간섭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는 개종한 후에도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참여할 수 없는 이교도 제전에 참석하였으며, 감독들 중 아무도 이를 정죄한 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황제가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보다는 오히려 그가 기독교를 선호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술적으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임종 시에야 세례를 받았다. 따라서 기독교를 선호하는 정책이나 칙령들은 기독교에 우호적, 혹은 호감을 가진 인물의 행동이었지, 신앙적 결단을 내린 신자의 그것으로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적, 도덕적 실책들도 같은 의미에서 파악되었다. 즉 신자의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과정에 있는 인물의 불행한 행위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은 비록 교회의 충고나 후회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모호한 상황이 그의 임종 시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서울: 온성, 1993), p. 193.

5) Karl Heussi, 『그리스도교 교회사 편람』, 김창길 역 편(서울: 도서출판 임나무엘, 1988), p. 90. ‘칼 호이시(Karl Heussi)’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312년과 313년 이래 기독교에로의 심적 개종을 한 상태에서, 특별히 324년 리키니우스를 극복한 이래 기독교회를 점진적으로 우대했다. 그리고 325년 이래 점점 더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했으며 자신의 아들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였다.

서 로마 제국 내의 교회 평화를 위해 직접 개입했다.

콘스탄티누스가 보여준 일련의 종교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권력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여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 황제, 한 국가, 한 종교’라는 콘스탄티누스의 모토(Motto)였다. 콘스탄티누스의 모토는 제국의 분열이 배제된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황제의 정치력이 다분히 투사된 것으로서, 기독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와 국가는 양자간 타협점의 공간을 스스로 찾고 추구하여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점도 갖는다.

본 연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국 교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의 콘스탄티누스가 펼친 종교 정책의 실상 파악과 그것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국 통일의 정치적 인자(因子)로서 기독교를 공인한 ‘밀란 칙령(The Edict of Milan)’의 성격과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한다. 나아가 콘스탄티누스가 국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직접 활동한 사례 가운데 하나인 도나투스파 논쟁을 살펴본다.

II. 밀란 칙령

“전부터 우리(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시작되는 밀란 칙령⁶⁾은

6) ‘필립 샤프(Philip Schaff)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밀란 칙령 이전에 이미 기독교와 관련된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다. 곧 콘스탄티누스는 311년에 관용령(The Edict of Toleration)을 발표

312년 10월 28일에 ‘밀비안 다리(Milvian Bridge)’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와⁷⁾ 동방을 다스리던 그의 동료 ‘리키니우스(Licinius)’의 협상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밀란 칙령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결코 아니다.⁸⁾ 또한 이 칙령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우대받게 된

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는 ‘갈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국가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기독교인들의 종교 집회를 허용했다. 이는 약간의 전제가 동반된 관용책이었다. 반면 밀란 칙령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에서 로마 전역에서의 우호적인 변화를 꾀한 ‘결정적인 단계(decisive step)’로서, 기독교가 ‘법적인 인정(legal recognition)’을 취득한 길을 준비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Michigan: Grand Rapids, 1984), pp. 71-74.

7) ‘부르스(F. F. Bruce)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안 다리에서 그의 적수 ‘막센티우스(Maxentius)’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어 서부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였을 때, 교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승리라고 간주하였다. F. F. Bruce, 『初代 教會 歷史』, 서영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376.

‘리처드 토드(Richard A. Todd)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태양’을 숭배하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안 다리에서 그가 거둔 승리가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를 향하여 이탈리아 영내로 침입하기 전 하늘에 걸린 기적의 십자가(the miraculous cross) 환상을 보았다. 그 십자가 위에 “In Hoc Signo Vinces(이 표시로 승리하라)”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또한 밀비안 다리에서의 대전투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의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휘장을 그려놓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헬라 이름의 첫 번째 두 글자인 ‘키(X)와 ‘로’(P)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휘장과 아울러 십자가를 그의 군기(라바룸)로 삼으라는 명령도 받았다. Richard A. Todd,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p. 130-131.

8)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의 정확한 성격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알리스테어 키(Alistair Kee)의 주장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서 종교는 제국 통일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요 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이용물일 따름이다. Alistair Kee, 『콘스탄티누스 대 그리스도』, 이송식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pp. 8-12.

한편 곤잘레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는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여타 기독교 신자들의 경험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가 신자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한 그를 도울 매우 강력한 존재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옹호하는 법률들을 만들고 교회들을 지을 때에도 그가 추구하였던 것은 기독교 신자들로부터의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밀비안 다리와 그 후의 많은 전투들을 통해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이해는 자기 적수의 군기가 가지는 초자연적 능력을 두려워했던 리키니우스의 생각과 흡사한 바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이라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Justo L. Gonzalez, *Ibid.*, p. 194.

것도 아니다. 단지 밀란 칙령은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을 따름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콘스탄티누스는 그 스스로를 폰티팩스 막시무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지는 않았다. 곤잘레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가 전래적으로 숭상하여 온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가 정복되지 않는 신의 상징으로 여긴 태양을 숭배하면서 ‘지존의 존재(The Supreme)’에게 예배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정치 생애 대부분을 통하여 정복되지 않는 태양과 기독교 하나님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듯하다. 즉 어쩌면 동일한 지존의 신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또한 비록 그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신들 역시 진정 존재하였으며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때에 따라 아폴로의 신탁을 구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황제들에게 주어졌던 대사제(high priest)의 칭호를 받아들였으며, 자기에 승리와 권력을 하사해 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배반한다는 생각도 없이 각종 이교 제전에 참여하곤 하였다.⁹⁾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그의 정치 역학과 깊게 관련을 지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밀란 칙령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을 꺾고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전통 종교들과 동등한 위치에 끌어올려서 대우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동시에 밀란 칙령은 로마 제국의 모든 사회적인 수준이 기독교의 도덕률과 정신 수준에 미치도록 사회 정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웰스포드(A. E. Welsford)’의 지적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표명하고 실행한 밀란 칙령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New

9) Ibid.

Era)’를 예고하는 것이었다.¹⁰⁾ 이런 점에서 볼 때 밀란 칙령은 단순히 기독교 공인(公認)만이 아니라 국가 교회 형성의 ‘모멘트’가 된다. 따라서 밀란 칙령은 ‘제국 통일의 정치적 인자(因子)로서의 기독교 공인’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III.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Pontifex Maximus’

‘위커(Williston Walker)’에 따르면, 본래부터 정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던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갖는 의의는 그가 제국 내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통일 과업의 완성에 있었다. 이른바 그의 정치 모토(Motto)는 ‘한 황제(One Emperor), 한 국가(One State), 한 종교(One Religion)’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이 모토는 황제도 하나요 법률도 하나요, 자유민에게 부여되는 시민권도 하나이므로 종교도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낳았다.¹¹⁾ 위커가 지적한 것처럼 콘스탄티누스가 추진하던 ‘하나의 종교’는 기독교이다. 이장식의 분석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유지시킴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종교로써 기독교를 지목했다.¹²⁾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내의 하나의 종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

10) A. E. Welsford, *Life in the Early Church A. D. 33 To 313*, vol. 1, (Greenwich, Connecticut: The Seabury Press, 1953), p. 419.

11) Williston Walker, 「世界基督敎會史」, 강근환 등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101.

12) 이장식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채용한 동기는 공리론(功利論)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세 세력을 무시하거나 박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입장에서 이처럼 강력했던 기독교의 힘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는 마치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의 국가주의적인 가톨릭 교회(Gallican Catholicism)를 이용하여 프랑스의 혁명을 발전시켜 갔고 또 프러시아의 왕 ‘프레드릭 윌리엄(Frederick William)’ 3세가 루터파와 칼빈파의 양 교파를 합함으로써 자기 왕국의 강화를 꾀하였듯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대책도 그러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장식, 「기독교사상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p. 272.

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란센(August Franzen)’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이교적 국가예식의 대사제(大司祭)인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 머무르면서도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¹³⁾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는 312년부터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장려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이교의 제관(祭官)들과 같이 과세(課稅)를 면제하여 주었고(312-313년),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으며(315년), 유언장을 수리할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다(321년). 그리고 같은 해에 주일예배를 국법으로 지정하였다. 319년부터 ‘신의(神意)’와 장례를 접치기 위한 이교적 희생제를 비롯한 부도덕한 예식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범죄자 처벌 수단으로서의 검객(劍客)의 시합도 폐지했다. 또한 화려한 교회 건축이 기독교에 대한 황제의 관심과 신앙의 증거 차원에서 역력히 진행되었다.¹⁴⁾

13) August Franzen, 「교회사」, 서영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p. 83. 프란센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세계 통치자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보여준 일련의 변화는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곧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는 오늘날에도 거의 올바르게 판단되지 못하고 있다. 그때까지 교회는 금지되었고 박해되었으며 수난을 당했다. 그러던 교회가 돌연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특혜를 받고, 국가 앞에 응석을 부리게 되었다. 교회는 아주 새로운 세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교를 극복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교를 국가 영역으로 끌어넣었고, 이로써 공생활을 그리스도교화하기 시작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 앞에 그리스도교 세계의 새로운 개척자로 나타났다. 로마 제국은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황제 밑에서 또 다른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미 초기 교회의 호교가들은 가끔 이런 상상을 표명했다. 즉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바로 그 순간에, 교회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가 그의 구원 사명을 다하도록 그 길을 준비할 섭리적인 사명을 가진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서로 전쟁하는 많은 나라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로마적 평화(Pax Romana)로 통일하였다. 로마는 수많은 민족선들과 종교예식을 세계적인 로마의 국가 예식으로 종합하였고, 이렇게 보편적인 일신론을 받아들일 준비 공작을 끝냈다. 이제 그 목표에 도달된 것 같았다. 즉 콘스탄티누스 제국에서 세계를 기독교화할 수 있는 전제들이 실현되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꿈꾸었던, ‘세계의 그리스도화’를 방해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14) Ibid., pp. 83-84. 콘스탄티누스는 319년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선사하고, 라테라노 대성전의 건축을 계획하게 했다. 또한 그는 320년경 ‘비아 고르넬리아’ 거리, 이교인의 큰 묘지 복판, 바티칸 언덕에 있는 베드로 무덤 위에 비드로 대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어 예루살렘의 성묘(聖廟) 위에 대성전 기초공사를 하였고, 또한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하여 베데레헴의 성탄교회를 건축했고, 트리어의 황제 궁전의 2층 교회 등등 여러 교회의 기초공사를 하였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극히 이교적인 특징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330년에 이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적 차원에서 행한 정책 중 하이라이트는 ‘보스포루스’ 해협(海峽)에 연한 동서양의 교차로에 위치한 비잔티움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전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¹⁵⁾이라고 명한 것이다. 330년 5월 1일,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폴의 성대한 봉헌식에 참석했다.¹⁶⁾ 이후, 콘스탄티누스가 펼친 종교 정책은 이 콘스탄티노

러 그는 콘스탄티노폴을 그의 새로운 기독교적 수도(首都)로 창설하였다.

15) 이승수에 따르면, 오늘날에 ‘이스탄불’로 불리는 콘스탄티노폴의 역사는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바다 서쪽 산기슭에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667년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는 ‘메가르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도시의 이름을 ‘비잔티움’이라고 명명하고 그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기원전 6세기 스파르타의 장군 ‘파우사니아’가 거느리는 그리스 군대에게 이 도시가 점령당하기 전까지 비잔티움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통치를 당하게 된다(B. C. 512~478년). 330년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는 점점 더 커져가는 광대한 로마 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동서양의 교차로인 바로 이곳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이라고 명하였다. 이로부터 약 1,100년간 콘스탄티노폴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1054년 정교회가 분리된 이후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로서 역사의 무대를 지켜왔다. 그러나 1453년 5월 29일, 약관 23세의 나이로 오스만 터키 군사들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폴을 정복한 ‘술탄 모하메트 2세’는 이슬람교가 융성하라는 뜻인 ‘이스탄불’로 도시의 이름을 개명한 이래, 콘스탄티노폴은 약 600년간 이슬람 제국의 중심지가 되도록 초석을 놓았다. 곧 비잔틴 건축의 백미라고 하는 성 소피아 교회의 돔 가운데에는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상징적인 표시를 붙이고, 네 귀퉁이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미나렛(첨탑)’을 세워 제국이 바뀌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약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내부의 예배 장소는 중앙의 강대상이 있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건축물을 구조 변경하였고, 황금색 모자이크로 된 화려한 성화들을 모두 두껍게 회칠하였다.

한편 1204년 4월, 콘스탄티노폴은 십자군 전쟁으로 또 한 번 몸살을 앓게 된다. 곧 기독교 성지를 탈환하고자 성지로 가는 길에 이곳을 방문한 서로마 제국의 4차 십자군들에 의해 성 소피아 교회의 문과 은으로 장식된 설교단이 파괴되고 성전에 소장되었던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도난당하였다. 이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콘스탄티노폴의 주인은 바뀌어 왔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폴은 현재까지 유동 인구 300만을 포함하여 1,500만의 인구가 상주하는 대 도시로서, 골목골목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해 오고 있다. 이승수, 「터키 성지 순례」(서울: 예루살렘, 2006), p. 15-18.

16) 웨딩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폴을 건설할 때 그는 옛 제의(祭儀)를 따랐다. 먼저 콘스탄티누스는 326년 도시 건설에 대한 최종적 결단을 내렸다. 2년 후 ‘성별식’을 가짐으로써 도시가 관례에 따라 수호신 즉 기독교의 하나님의 소유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330년 5월 11일에 ‘봉헌식’을 장엄하게 드렸다. 이 도시는 처음에 ‘새 로마’라고 불리었으나 이 이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모든 면을 옛 수도와 닮도록 했다. 옛 로마도 그랬듯이 새 도시도 원로원을 가졌다. 그는 도시 건설자로서 항상 도시 중심에 인상적으로 입재하길 원했다. 하나의 높은 반암기둥은 황제의 거상(巨商)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를 태양신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 거상은

플에로의 천도(遷都)¹⁷⁾ 이후 대전환을 이룬다. ‘그랜트(R. M. Grant)’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에 있어서의 종교의 통합을 위해 이교(異敎) 신전을 다 파괴했다.¹⁸⁾ 이는 콘스탄티누스가 바라볼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못지않게 제국의 종교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원래 아폴로 신을 나타냈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머리는 7개의 광채로 둘러싸였고, 왼팔은 창을 그리고 오른팔은 세계 통치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로 장식된 지구(地球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났다. 이는 콘스탄티누스의 관심이 그의 눈에 압도적으로 이교적인 것으로 보인 옛 로마와 대칭되는 기독교적인 도시를 새 로마에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는 ‘아우구스투스’와 비슷한 인물이 되었다. 옛 로마가 평화의 제단에 아우구스투스의 위대한 업적을 생생하게 보존하였던 것처럼, 새 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평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영원히 새겨지기를 원했다. 특히 당시 로마는 최상의 기독교적 특징물로서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아무리 콘스탄티누스라 할지라도 이 두 사도의 유품을 콘스탄티누스에게 옮길 수는 없었다. 대신 콘스탄티누스는 열두 사도들을 위해 비잔틴의 옛 도시와 새 도시 사이의 빈 들판(오늘날의 Faith-Moschee)에 대성전을 세우도록 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의 열두 기둥과 기초가 ‘현존함’을 나타내기 위해 ‘비석’을 세우게 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사도들의 기념물 한복판에 자신의 상을 앉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교회를 위한 자신의 의의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게 했다. 이 일은 후세에 그가 ‘사도와 비견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받는 데 기여했다. B. Köting, op. cit., pp. 194-196.

17) 콘스탄티누스가 천도를 한 데에는 몇 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장식에 따르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곧 로마는 전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원로원을 비롯하여 옛 정치 귀족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특히 정치 귀족들은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환영하지 않았다. 황제는 그들의 세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다. 황제는 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구세대의 저항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장소에서 실행하여 로마 제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려 했다. 이장식, op. cit., p. 278.

주재용에 따르면, 이는 다분히 군사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국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이 다뉴브 강 근처였다. 로마는 이 국경 지역에서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 방비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황제는 그 국경에서 보다 가까운 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나아가 종교적인 상황도 주 이슈가 된다. 로마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종교가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다. 400년이 넘는 이교 사원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곧 콘스탄티누스가 아무리 기독교에 호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교도적 문화와 전통을 씻어 버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새로운 종교정책을 실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국 내의 종교의 단일화를 꿈꾸는 콘스탄티누스에게는 천도가 필수적 과제였다. 한 마디로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서의 콘스탄티누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섭렵하는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의 중심지였다. 주재용, 『세계교회사』(서울: 기독교방송, 1985), p. 95.

18) R. M. Grant, 『초기 기독교와 사회』, 김쾌상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p. 161. 그랜트에 의하면, 이는 실제로 옛 수도 로마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천도한 뒤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다.

프란센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집요하게 전개한 이 같은 일들은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그가 ‘외적 영역의 주교’로서, 교회에 대해 전적 연대 책임을 느낀 것이고 그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콘스탄티누스는 이교 예식의 대사제로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역을 맡아왔던 것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기독교회 안에서도 요구하였고 동시에 그는 주교좌의 점유(占有)에 관여하였고 교회 회의의 활동을 규정하였다. 이 같은 일은 콘스탄티누스가 337년 성령강림절에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사망 직전 아리우스 추종자 ‘유세비우스(Eusebius von Nikomedien)’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화려한 옷을 몸에 걸치려 하지 않았고, 흰 세례복을 입고 숨을 거두었다. 동방교회는 이러한 콘스탄티누스를 ‘성인(聖人)’이자 ‘준사도’, 그리고 ‘13번째의 사도’로 공경한다.¹⁹⁾ 한 마디로, 당시 세인들의 눈에 비친 콘스탄티누스는 폰티팩스 막시무스요 교회의 수호자였다.²⁰⁾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을 통치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교회를 이용했다. 종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정책은 그의 정치 모토 구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고리를 제일 우선시한 폰티팩스 막시무스였다.

IV. 도나투스파(Donatist) 논쟁에 간여한 제국 교회의 수장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통치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교회 업무에

19) August Franzen, op. cit., p. 84-85.

20) ‘알리스테어 키(Alistair Kee)’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의 어용 신학자적인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새 메시아이며 세상의 희망이 그에게 달렸다고 판단했다. Alistair Kee, op. cit., p. 56.

도 직간접으로 간여했다. 그 대표적 실례로써, 도나투스파 논쟁²¹⁾이 벌어졌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취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영향력을 가졌던 도나투스파²²⁾는 기독교의 일파이며 순수성과 정통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확보한 거대 집단이었다. ‘로버트 마커스(Robert A. Markus)’에 따르면, 이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로마 정부의 개입까지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²³⁾

A. 도나투스파의 도전

프렌드(W. H. C. Friend)에 따르면, 교회사에서 이슈가 되는 도나투스파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기독교에 대한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A. D. 284~304)’ 황제가 일으킨 박해(303~305년)에 기인한다.²⁴⁾ 필립 샤프의 분석에 따르면, 디오클레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모호하다. 왜냐하

면 디오클레티안의 집정 20년간 교회에 대한 박해 의도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의 아내 ‘프리스카(Prisca)’와 딸 ‘발레리아(Valeria)’를 비롯하여 제국 내의 많은 신하들이 기독교인이었기에, 디오클레티안은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²⁵⁾

하지만 디오클레티안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휘담(A. R. Whitham)’에 따르면, 디오클레티안이 그의 종교 방침을 바꾸어 기독교 박해에 나선 것은 병역(兵役) 복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 표명이 로마의 정책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²⁶⁾ 이리하여 디오클레티안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칙령(A. D. 303)²⁷⁾을 내렸고, 이후 10년에 걸쳐 박해가 진행되었다.²⁸⁾

이 길고 심각한 박해는 밀란 칙령에 의해서 종식되었다. 교회는 이 박해 시 성도들이 견지했던 신앙의 질적 상태를 반성하고 검증하기 시작했다.²⁹⁾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멘슈리우스

21) ‘데인(H. A. Deane)’의 분석에 따르면, 도나투스파들의 주 관심은 도덕적 측면에 있었다. 곧 도나투스파의 기본 인식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이나 순교를 피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박해하는 국가와 타협했다면, 특히 그들이 당국에 성문서를 넘겨준 변절의 죄가 있었다면, 감독이나 신부는 누구라도 유효한 성례전을 집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따라서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들만이 참된 가톨릭 교회이며 배교자를 용납하는 교회는 도리어 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동시에 배교자를 용인하는 다른 모든 교회들 역시 아프리카의 오염된 교회와 친교함으로써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한 더럽혀졌다. 따라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권리를 상실했다. H. A. Deane,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 Press, 1966), p. 81.

‘켈리(J. N. D. Kelly)’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도나투스파의 기본적 입장은 청교도적인 관념의 선상에서 파악된다. 곧 이들에게서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동시에 교회는 실제적으로(de facto) 선남선녀(善男善女)만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J. N. D. Kelly, 「고대기독교교회사, 김광식 역(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2), p. 470.

22) 도나투스파를 이끈 도나투스는 그를 따르는 그룹 내에서 Donatus of Casa Nigra로 불려다가 Donatus the Great라고 칭해진 자이다. 그는 박식하고 유능한 언변을 구사하였으며 영향력 있는 저술가였다. 나아가 그는 금욕주의자로 과도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극단적인 내립생활을 하였다. W. H. C. Friend,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1952), p. 4.

23) Robert A. Markus, “Donatus”, *Augustine through the Ages*, Allen D. Fitzgerald, ed.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9), p. 284.

24) 현역 군인으로서 A. D 284년에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안은 군사적 행정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쇠약해진 로마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어 체제를 개선하고, 정치적, 경제적 구조들을

개혁하였는데, 그는 로마 제국을 4부분으로 분할 통치하였다. 디오클레티안 자신은 로마 제국의 동부를 맡고, 막시미안으로 하여금 제국의 서부를 통치하게 했다. 또한 양 황제는 각각 부제(Caesar)를 두었는데 디오클레티안은 ‘갈레리우스(Galerius)’를 그의 부제로 정하였고, 막시미안은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Constantinus Chlorus)’를 부제로 정하였다. W. H. C. Friend, *The Rise of Christianity*(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p. 452.

25) Philip Schaff, op. cit., p. 65.

26) A. R. Whitham, *The History of christian church to the separation of east and west*(London: Livingston, 1963), p. 164. 이 외에도 휘담은 기독교인의 부와 영향력이 자라는 것을 견제하는 가운데 기존 로마의 이방 사제들의 격심한 적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27) 디오클레티안 칙령의 내용은 상류층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관진과 특권을 박탈할 것이며 제국 법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배반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게 할 것과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고 모든 교회는 파괴하며, 모든 성경은 불태우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8)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당시의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어 감옥에는 주교와 장로 집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죄 지은 사람들을 투옥할 방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Eusebius Pamphilus, *The History of Church*, 성 요셉출판사 역(서울: 성요셉출판사, 1985), p. 403.

29) 당시 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관용파(寬容派)와 엄격파(嚴格派)로 양분되어 대립각을 세웠다. 대부분의 북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은 감독의 교권적 행동은 개인의 순수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 개인이 감독으로서 갖는 직임과 안수례 그 자체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박해 기간 동안에 넘어진 자들은 참회해야 하며, 이들의 직능은 다른 감독을 인수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반면 도나투스(Donatus)를 필두로 한 일부 그룹에서는 박해 시 변절자들, 특히 생명을 부지하

(Mensurius)의 후계자로 '카이킬리아누스(Caecilianus)'가 지명되었을 때 사안은 심각하게 확대되었다.³⁰⁾ 그린슬레이드(S. L. Greenslade)에 의하면, 도나투스파들은 카이킬리아누스의 교회를 전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리고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 주교회의(256년)에서 전폭적으로 재세례를 지지했던 전례를 근거로 하여, 배교자에 의해 베풀어진 세례는 무효한 것이기에 '재세례(rebaptism)'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게다가 '다니엘(J. Daniel)'에 따르면, 도나투스파 과격론자들은 '키르쿰셀리온(circumcellion)'이라고 불리는 방랑성 폭도들과 합세하여 지주들과 교회에 대한 방화까지도 서슴지 않아 공안(公安) 유지에 큰 위협이 되었다.³²⁾

기 위해 성경을 건네준 감독들과 이들 성경을 건네준 자들에 의해서 안수받은 감독들의 권위는 신앙의 정조 상실과 함께 그들 감독들의 권위도 동시에 상실되었기에 모든 것은 무효하고 성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30) 카이킬리아누스의 감독 임명은 순교를 과장하고 순교자의 유해를 미신적으로 공경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타격으로 느껴졌다. 카이킬리아누스는 박해 시 배교의 대열에 섰던 압통가의 펠릭스(Felix of Aptunga)에 의해 서품을 받았는데, 문제는 배교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감독 맨슈리우스의 태도에 카이킬리아누스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 교회가 이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키르타(Cirta)에 있는 열광주의자인 '루실라(Lucilla)' 부인의 후원을 받는 '보트루스(Botrus)'와 '캐레스티우스(Calestius)'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케킬리아누스의 감독 안수를 비토한 그룹은 '마요리누스(Majorinus)'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곧이어 도나투스파 마요리우스의 뒤를 이어 이 분파를 이끌었다. 이에 아프리카의 교회는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Robert A. Markus, op. cit., pp. 284-285.

31) 도나투스파의 재세례 주장에 대해 어거스틴은 강력히 반대했다. 어거스틴은 교회 내의 어떤 문제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테면 '성서의 증언'과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온 교회의 관습'과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종교 회의', 그리고 '실행이나 믿음에 관해 행해졌던 논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에 어거스틴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재세례 주장에 대한 그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도나투스파가 주장한 재세례의 근거가 되는 카르타고 주교회의는 성서적 권위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성서의 관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는 역으로 카르타고 종교 회의의 결과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의 권위로 복귀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 점을 인정한다면 비록 세례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다. F. Dillstone, "The Anti-Donatist Writings", R.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p. 183-184.

32) J. Daniel and H. Marrou, *The Christian Centuries I*, tr., Vincent Cronin(London: Paulist Press, 1983), pp. 246-247. 도나투스파의 과격성은 '데오도시우스 대제'에 의해 진압되기는 했지만(375년) 로마 정부의 불안감은 377년 '반(反)도나투스 법령'의 발표로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도나투스파의 주장과는 달리 여타 지역의 교회는 카이킬리아누스와 친교(親交)를 긴밀히 했다. 그리고 당대의 교회는 도나투스파 논쟁을 통해 교회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갖게 된다.³³⁾ 나아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한 카이킬리아누스의 교회를 정통 교회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³⁴⁾

B. 도나투스파 논의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간여(干與)

이 사안이 발생할 즈음, 콘스탄티누스는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에게 심정적 동정을 보였다. 그러나 특별한 행동이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나 엄격한 경향을 취하는 이들 사이가 화목하여 해결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나투스 입장에서 볼 때, 주위의 여론이나 시선이 자신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아니함을 눈치챈 도나투스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나투스파가 황제의 간섭을 요청하였기에,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로마의 주교 '밀테아테스'가 이끄는 소위원회에게 이를 조사하게 하여 분쟁을 조정하려는 교회 회의를 열게 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직

33) '하르낙(A. Hamack)'에 따르면, 전통 교회와 도나투스파와의 대립은 교회론과 세례를 필두로 한 은총의 효능성(the effectiveness of Grace)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에 어거스틴은 전통적 견해를 기초하여 그의 교회론을 아주 심도 있게 전개했다.

교회에 대한 어거스틴의 관점에 대해 하르낙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에 대해 가진 기본 인식은 권위와 은혜를 동시에 지닌 지상에서의 가시적 천국이다. 따라서 교회는 완성될 이르는 보이지 않는 천국(Heavenly Kingdom)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적어도 지상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신성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창조하는 영혼이 살고 있는 장소이다. 나아가 교회는 삼위(三位)를 일체로 묶는 성령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unity)이다. 이는 사랑에 앞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이 활동하는 적정 영역이기에 모든 사랑이란 성령 안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택한 이단(heretics)이나 분열주의자(schismatics)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통일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며 교회에 속하지도 않는다. A. Hamack, *History of Dogma* (New York: Russel and Russel, 1958), p. 143.

34) S. L. Greenslade, *Schism in the Early Church* (London: S. C. M. Press, 1953), p. 225.

접 이 문제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독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로마의 감독은 황제의 압력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탈리아 감독 15명을 참여케 하였다. 여기에서 도나투스파는 정죄를 받았다.³⁵⁾

그러나 황제를 향한 도나투스파의 호소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파의 호소를 조사시키기 위하여 ‘아레스(Arles)’ 공의회(314년)를 소집하게 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진행³⁶⁾시켰는데, 여기에서도 도나투스파는 정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도나투스파가 다시 황제의 재심을 촉구하자,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임석한 일련의 고위 교직자 중심의 재판(316년)에 회부하였다. 여기에서도 도나투스파는 정죄를 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의 지도자를 추방하였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이 순교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억제 정책이 그리 유효하지 못함을 알고 도나투스파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멈추었다.³⁷⁾

이후에도 도나투스파는 그 세력이 3세기 동안 미미하게 유지하였지만 모슬렘의 정복 이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결국 기독교회는 도나투스파에 대해 사투에 가까운 활약을 결정적으로 펼친 어거스틴에 힘

35) 이때 도나투스파는 황실의 반대에 반발하여 이렇게 외쳤다. ‘quid est imperatori cum ecclesia(황제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36) 토드에 따르면, 콘스탄틴은 비록 이 문제를 주교 공의회에 넘기기는 했지만 재판권의 수락을 주장하지 않았다. 도나투스파가 이러한 권위와 그 뒤에 계속된 공의회 권위를 거절하자 황제는 인내심을 잃고 그의 일을 옮겨 처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황제인 내가 잘못을 포기하고 성급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억제시켜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자 하나님께 참된 종교심과 정직한 일치 마음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는 의무보다 더 큰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겠는가?” Richard A. Todd, op. cit., p. 133.

37) Ibid. p. 133-134. 토드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교회가 왜 황제의 전문적 지식 밖에 있는 일들을 그에게 중재해 주도록 의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한 당파와 다른 당파가 격렬한 싸움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이익을 치하교사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콘스탄티누스는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훗날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 논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나투스파 분쟁을 다룰 때보다 더 치밀하게 행하였고, 궁극적으로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의 승리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 되었다고 토드는 평가한다.

입어 이 거센 도전이 뿔어내는 분열의 광기를 간신히 이겨내었다.³⁸⁾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논의된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 교회에 대해 영향력을 미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일면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대제이자 정치가였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회를 대하였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펼친 세력 확장 노력은 종교적 신앙과 함께 움직였다. 특히 콘스탄티누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적 신앙은 기독교를 드러내는 십자가 표지였다. 이런 점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제국 통치에 정치적 지렛대로 기독교를 활용한 노련한 국가 지도자였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적 성향으로 제국을 통치했다고 해서 그가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를 신봉했다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제국 내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뜨거운 관심과 보살핌으로 교회를 대하는 폰티팩스 막시무스 격의 위치를 자임했고 고수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대했다. 도나투스파 논쟁에 대해 콘스탄티누스가 간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폰티팩스 막시무스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영향 아래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둘째,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어난 교회 문제에 대해서 황제이자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 관심과 역량을 기울였다. 그런데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 도나투스파 논쟁에 개입한 콘스탄티누스에게 도

38)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서울: 쿤란출판사, 2001), p. 384.

나투스파 교회와 정통성을 견지한 보편 교회가 취한 일련의 모습은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혹자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내의 사안에 대해 일일이 개입했던 정치인으로서 세속 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교회를 이용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렇지만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회 간섭은 그다지 혹평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받아서는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의중을 관철시켰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가 교회 문제에 간여할 때 신중하였으며 특히 교리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신학자연(神學者然)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교회 안에 투사시켜 확장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회가 세속 정권에 완전히 종속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게 기대어서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져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나투스파는 비록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였지만 황제의 간섭과 결정을 요청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검토해줄 것을 의뢰했다. 이는 도나투스파가 비록 정통성이 결여된 차원에서 정통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관용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통 교회가 콘스탄티누스에게 도나투스파에 대한 교회의 결정 시행을 요청했을 때도 그는 황제로서의 영향력을 즉각 행사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는 정통 교회의 입지를 세워 주는 노련한 정치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 곧 배교 문제를 둘러싼 도나투스파와 기존 교회의 양립적 대립각의 지향점이 콘스탄티누스 대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의 교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성취를 위해 콘스탄티누스라는 절대 권력을 이용했었고 활용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볼 때, 이는 콘스탄티누스 치세 당시의 교회 또한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교회가 취한 정치 성향은 이제 막 박해의 언덕을 넘은 콘스탄티누스 치하의 교회가 안도의 숨을 쉴 겸 동시에 자신들에게 닥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유효한 세속 능력에 서로 의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마로부터의 박해 종식이라는 은총을 입은 교회가 곧바로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러니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경종을 울린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콘스탄티누스는 폰티팩스 막시무스이자 정치력이 겸비된 구도자의 모습으로 기독교회를 대하는 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을 소망하고 회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강화된다. 그렇지만 폰티팩스 막시무스임을 자임한 콘스탄티누스가 제국 통일의 정치적 인자로서 교회를 대하고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같은 정황을 현실로 인지한 그 시대의 교회는 폰티팩스 막시무스라는 콘스탄티누스의 노련한 정치력 하에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갖는다. 먼저 당시의 교회는 폰티팩스 막시무스 콘스탄티누스의 노련한 정치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간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황제를 중심축으로 한 정치 지평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 교회의 생존 지평을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는 빛의 측면을 지닌다. 더불어서 콘스탄티누스가 살아 있는 동안 신앙의 정통성의 규명은 교회가 하고 그 결정을 실천케 하는 것은 국가에 맡겨졌다는 점에서 어둠의 측면도 지닌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치세 아래의 교회는 교회의 회의를 거쳐 감독들이 만든 교리와 결정들에 대한 최종적 승인과 결행을 황제의 몫으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면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체는 폰티팩스 막시무스였다.

■참고 문헌

-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이승수. 「터키 성지 순례」. 서울: 예루살렘, 2006.
- 주재용. 「세계교회사」. 서울: 기독교방송, 1985.
-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Michigan: Zondervan Pub. Co., 1981.
- Daniel, J. and Marrou, H. *The Christian Centuries I, tr., Vincent Cronin*. London: Paulist Press, 1983.
- Deane, H. A.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 Press, 1966.
- Dillistone, F. “The Anti-Donatist Writings”, R. Battenhous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Franzen, August. 「교회사」. 서영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 Frend, W. H. C.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1952.
- _____.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3.
- Grant, R. M. 「초기 기독교와 사회」.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Greenslade, S. L. *Schism in the Early Church*. London: S. C. M. Press, 1953.
- Harnack, A. *History of Dogma*. New York: Russel and Russel, 1958.
- Heussi, Karl. 「그리스도교 교회사 편람」. 김창길 역 편. 서울: 도서출판 임마누엘, 1988.
- Kelly, J. N. D. 「고대기독교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2.
- Kötting, B. 「교회와 국가」. 「고대교회와 동방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Markus, Robert A. “Donatus”, *Augustine through the Ages*. Allen D. Fitzgerald, ed.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9.
- Pamphilus, Eusebius. *The History of Church*. 성 요셉출판사 역.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Michigan: Grand Rapids, 1984.
- Tertullian. “Apology, 50.” *The Ante-Nicene Fathers*, vol. III.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1.
- Todd, Richard A.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Walker, Williston. 「世界基督敎會史」. 강근환 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Welsford, A. E. *Life in the Early Church A. D. 33 To 313, vol. 1*. Greenwich, Connecticut: The Seabury Press, 1953.
- Whitham, A. R. *The History of christian church to the separation of east and west*. London: Livingstone, 1963.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考察)



박영관 목사



2007년은 한국 기독교회가 1907년 평양(平壤)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현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회의 대부흥운동과 영적 성장의 방편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그동안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게 도둑맞고, 잃어버린 양(羊)들을 찾는 신앙적 신학적 대책이 매우 급선무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기독교회 이단

■ 박영관 목사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졸업(Ph. D.)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곡중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 이단 종파연구소장
- 세계선교신학원 교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종파들에 대한 대책을 소위 한국 기독교회의 장자 교단들로 자부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合同)과 고신(高神), 그리고 통합(統合) 등이 어떻게 취급(取扱)하였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考察)을 하려고 한다.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다음과 같이 연대적(年代的)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첫째, 1885-1930년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발아기(發芽期), 둘째, 1930-1950년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잠복기(潛伏期), 셋째, 1950-1980년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의 포교기(布教期), 넷째, 1980-2000년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발악기(發惡期)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 기독교회의 복음(福音)이 들어온 때를 성경적(聖經的)으로 말하면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17:5, 24), 우리나라 기독교회의 복음의 역사적 연대(年代)는 일반적으로 1885년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그때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宣教師)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감리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내한(來韓)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회 복음 선교(宣敎)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日本)의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갖은 곤욕과 핍박(逼迫)을 당하였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예배당(禮拜堂)을 불사르고, 기독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감옥(監獄)에 가두고, 갖은 행패와 잔인한 박해를 자행했다.

이와 같이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지도되었으며, 일본 사람의 박해에 시달리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解放)과 북한의 6·25동란의 남침(南侵)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역사적 기독교회가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동서남북에서 난무(亂舞)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의 신앙적, 신학

적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1885-1930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발아기(發芽期)

초기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발아기(發芽期)를 1885년에서 1930년으로 본다. 그것은 1910년 전라대리회(장로교)의 보고에 최중진(崔重珍) 목사의 자유교 주창 때문에 부안, 정읍, 흥덕, 임실, 태인 등 여러 군(郡)의 교회가 부화(附和)하여 대 타락(墮落)하였다는 이단 보고가 나타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회에 있어서 최초(最初)의 이단으로 낙인찍힌 자유교(自由教)의 이탈이었다. 물론 그들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적 평가(評價)는 반선교사적 태도와 장로교회의 체제에 대한 자유교적, 회중교회식 독립교회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최중진 목사의 이탈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이고,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으로서 정죄하는 것은 약간의 여운을 남겨 두게 되는 것이다.

1915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주(全州) 서문밖교회당에서 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총회장: 김필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토요일교)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그것은 '예수재강림제칠일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의 교리가 올라고 하던지 그회로 가는 교우에 대하여 처리하는 건은 그 교회 교리가 올라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뜻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중시 뜻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데명하는 것시 율혼줄노 아오며' 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869년 미국에서 발생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대하여 미국 기독교회의 이단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취급하고, 안식교(安息教)에 미혹되거나 빠진 직분자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916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평양신학교에서 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회 총회(총회장: 양전백)에서는 본 교인과 로마 교인의 결혼(結婚) 문제를 다루었다. '박정찬 시가 우리 예수교장로회 교인이 로마 교인으로 더브러 결혼하는 일을 엇지 처리할는지 못느되 되하여 정치위원회에 위임하여 정치를 삼혀 상당하게 의당하여 로회에 보고케하기로 결당하다' 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부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로마 교인과 결혼하는 일은 위퇴한즉 당회가 성혼 안 되도록 권면하고 임의 성혼한거시면 죄에 빠지아니하도록 권면할 일 2. 로마교를 숭배하는 안해를 둔 사람의 장로될 여부에 대하여는 정례(定例)를 서우기란 하오니 각 로회가 그 형편을 작명할 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로마 가톨릭[天主教]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추종자들과의 결혼을 금하며, 그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유대관계를 금해야 한다.

그리고 1916년 6월 30일, 재령 남산현(南山峴) 교회당에서 소집되었던 제10회 황해노회에서 '봉산군(鳳山郡)에 있는 신원교회의 김장호(金庄鎬) 목사의 성경 해석이 불합함을 권면하고 금년 총회 총대는 정지케 하다' 라는 결의가 있었다. 황해노회는 김장호 목사를 휴직 처분한 것이다. 그의 비성경적 해석 때문이다. '모세의 홍해(Red Sea) 도화를 간조(干潮) 현상이나 갈대밭의 도화로 설명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을 먹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을 당시의 청중들이 점심을 지참한 것으로' 합리화

시켰기 때문이다.

김장호 목사는 1918년 신원교회에서 조선기독교교회(朝鮮基督敎會)를 설립하여 이른바 자유교회파(自由敎會派)를 형성하였다. 바로 이 사건을 한국 기독교회 역사에 있어서 소위 최초의 신학적인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장호 목사의 비정통적인 성경 해석이란 모세의 홍해 도하를 간조 현상이나 갈대밭 도하로 설명한 것과 예수님이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것을 그들이 전부 짐승을 싸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김장호 목사의 독자적인 성경 연구의 결과로서 초래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공위량(William C. Kerr) 선교사의 자유주의적 성경해석의 영향을 받은 데 있다. 그는 190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였으나, 구미(歐美)의 자유주의 성경 해석을 도입하여 가르친 장본인인 것이다. 그래서 황해노회는 장로교회 선교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한국 교회에서 추방당한 선교사(宣敎師)가 되었다. 김장호 목사는 1918년 신원(新院)교회에서 조선 기독교회를 발족하였고, 1920년에는 하나의 기독교회 종파로서 나타났다. 김장호 목사는 1923년 경북노회에서 이만집(李萬集) 목사가 자치교(自治敎)를 제창하고 노회에서 이탈하자 그와 친교를 맺기도 했다. 이만집 목사파는 1928년에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에 세력을 퍼뜨려, 당시 대구에 10, 영양에 3, 경주에 1, 도합 14군데의 교회당이 있었고 그의 추종자는 약 400명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2회 총회는 이만집 일파 탈퇴 건을 처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만집 박영조 량인이 본회를 탈퇴하고 자치교파(自治敎派)를 선언하였으니 해로회가 명부에 제명한 거시 헌법대로 덕당히 처리한 일'이라고 했다. 이만집 목사는 1917년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구 남성정교회를 목회하였다. 당시 선교사 어도만(魚塗萬)과 함께 동사하였고, 남성정교회의 당회원들 사이에 불화가 노회로 비하되

고, 노회는 이만집 목사를 제명한 것이다. 이만집 목사는 노회의 처리에 불복하고 소위 자치교(自治敎)를 설립하였다. 당시 언론은 외국 선교사들에 맹종하는 데에서 벗어난 조선교도의 자각(自覺)과 자치(自治)라고 했다.

이만집 목사는 하나의 종파(宗派)운동을 하였고, 여기에 대구 남산교회 박영조(朴永祚) 목사, 서울 북감리교의 이병제(李炳載) 목사, 신원교회 김장호 목사 등이 합세하여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 중에 김장호 목사는 친일파(親日派)에 속하게 되었고, 스스로 신앙적 모순에 빠져 기독교회를 이탈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2회의 총회는 기독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이질성을 가진 교회와 지도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회 안에 소위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 운동이 들어왔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회의 다른 종파를 형성케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한국 기독교회는 무교회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최초의 사람은 김교신(金敎臣)인데, 그는 1920년 일본 유학 당시에 내촌감삼(內村鑑三)의 문하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김교신은 성서를 통한 조선의 구원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적 기독교 신앙을 불리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1927년에 <성서조선(聖書朝鮮)>을 창간, 발행하였고 여기에 동인(同人)으로서 함석헌, 양인수, 유석동, 정상훈, 그리고 송두용제씨 등이 활동했다. 또 김교신 씨와 친분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가 있었다.

또 하나는 최태용(崔泰瑢) 씨의 복음교회 운동이다. 그 역시 내촌감삼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1925년부터 천래지성(天來之聲)과 1928년부터 영과 진리 등을 발행하여 현실 교회의 비판, 한국적 신학 모색,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비판으로 초지일관 무교회주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조선의 구원을 교회에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의지하라"고 했다.

그리고 1935년 12월에 복음교회(福音教會)를 창설하여 하나의 기독교회의 종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한국 기독교회는 그들의 독선적이고 주관적인 성경 해석과 무교회주의적 교회 행정을 비판하고, 기독교회의 이탈자로 본 것이다.

둘째, 1930-1950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잠복기(潛伏期)

한국 기독교회는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잠복기(潛伏期)를 1930년에서 1950년으로 본다. 그것은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안에는 광적 신비주의(狂的神秘主義)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의 근원을 이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민족과 기독교회가 일본의 제국주의 밑에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므로, 일부 기독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들은 산으로 들로 나아가서 신앙운동을 형성케 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엑스터시(Ecstasy), 즉 광적 신비주의 운동인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 신비주의를 말한다. 그 보기를 몇 가지 들면, 그 중에 1927년 원산의 유명화(劉明花)라는 여인의 신비주의 운동을 들 수 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친림(親臨)했다고 하며 입신과 방언, 예언과 신유 등을 자행했다. 유명화는 이용도 목사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으며, 이용도 목사는 원산에서 유명화의 설교를 듣던 중에 그 여자의 말소리에서 예수의 음성(音聲)을 들은 것으로 여기고 유명화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1932년 11월에 한준명(韓俊明) 씨의 강신극(降神劇)이다. 그는 간도에서 평양으로 와서 소위 강신극을 꾸미는 데 주동

역할을 했다. 그 때 한준명은 모신(某神) 모녀(某女)의 탁언이, “한준명은 6월 9일 모녀와 결혼하여 270여 일 후, 1934년 3월 백주(白晝)를 차지할 대성자 광진(光振)을 낳으리라. 박승걸(朴承傑)은 모녀와 결혼하여 석양(夕陽)을 차지할 대성자 광재(光在)를 낳으리라”고 예언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극으로서 혼음(混淫)에 불과한 것이다.

민경배 교수는 이것을 우리나라 이단 종파에 있어서 섹스 모티브의 시발점으로 간주하며, 통일교의 혼음원리와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 평양노회는 비성경적 원리를 유포한 한준명 씨를 기독교회의 이단자로 단정하였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회의 분별력 있는 책벌인 것이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는 신앙적 차이는 무시하고 그와 더불어 손을 잡고 예수교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반기는 1934년 원산 신학산(神學山) 수도원 백남주(白南注) 씨의 비성경적 신비주의 운동이다. 그는 새 생명의 길의 선포자로 나섰고, 예수교회의 헌법 초안자이기도 하며, <예수지> 창간자로서, 이용도 씨, 이종현 씨 등과 예수교회를 세워 군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빙자하여 본처 한인자를 두고도, 여신도 김정일(金貞一)과 동거하여 딸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광적 신비주의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예는, 1935년 봄, 평북 철산에 김성도(金成道)라는 여자의 점신주의이다. 그 여자는 히브리서 9장 25절의 ‘두 번째 나타나리라’는 구절을 ‘새 주님’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새 주님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것이다. 김성도라는 여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여 그의 추종자들에게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며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냉수를 입에 한 모금 머금고 그것을 청중을 향해 내뿜어 받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점신적 행위를 자행했던 김성도는 당시 광적 신비주의에 빠졌던 백남준 씨와 한 그룹이 되어서 더욱 발광을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 안에서 백남주 씨와 김성도를 서로 이단이라 단죄하고, 분열을 초래하여 마침내 그들의 존재는 기독교회에서 사라졌다.

1935년 7월경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황해도 출신의 황국주(黃國柱)라는 사람이다. 그는 간도(間島) 용정(龍井)에서 활동하다가 백일 기도 후에 머리와 수염을 길러 그 풍채를 흡사 예수님의 초상화(肖像畫)처럼 꾸미고, 자신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자기의 목이 잘리고 예수의 목이 그 위에 붙었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이것이 소위 목가름으로서 황국주 씨는 자신의 머리는 예수의 머리로, 피도 예수의 피요, 그리고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때에 예수의 화신(化身)을 구경하고자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0여 명의 남녀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찾아 서울을 향해 긴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황국주 씨는 큰 소리치기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녀간의 성문제는 초월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운산(雲傘)의 유치원 보모와 7계를 범하고 그의 정체가 드러났었다. 황국주 씨는 자기의 행방을 삼각산에 감추었고,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소위 목가름과 피가름의 원리를 실제로 가르쳤다. 이 가름의 과정(過程)이 일종의 혼음(混淫)이요, 영체교환(靈體交換)인 것이다.

그러나 1933년 평안도의 안주노회가 황국주 씨를 비롯해서 유명화 등을 위험한 이단이라고 정죄하였고, 그 해 가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193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회 안에는 광적 신비주의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하고 이념화시킨 사람은 이용도 목사였다. 그는 감리교의 협성(協成)신학교를 졸업한 감리교의 목사였으며, 당시의 전형적인 부흥사였다. 이용도 목사는 민족적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세적(來世的) 비전을 제시했고, 정열에 불타는 그의 메시지는 국

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그는 광적 신비주의에 깊이 빠졌고,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몸부림치는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도 목사는 신(神)과의 영적 합일(合一)을 신랑에 대한 신부의 성애(性愛)로 비유하여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침내 신(神)과 사랑의 융합을 통해서 주님과과의 혈관적 연결을 이룬다고 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同一視)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회는 그의 경건을 의심했고, 황해도회는 1931년 8월 12일 금족령을 내렸고, 평양노회는 1932년 7월에 이용도의 부흥회를 단죄했으며, 1933년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2회 총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930년대의 광적 신비주의는 일부 기독교회들의 신앙적 형식화와 교권주의자들의 횡포, 또한 선교부의 일방적인 정책 등에 대한 하나의 반항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일본의 혹독한 박해로 기인되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은 여기에 뿌리를 박고 자라게 된 것이다. 1930년대에 사회와 기독교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이용도 목사의 예수교회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분별력 있는 신앙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로써 잠적해 버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2회 총회는 평양(平壤)을 중심한 소위 광적 신비주위 집단을 이단(異端)으로 치리하였다.

‘각 로회 지경 내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테(리룡도, 백남주, 한준명, 리호빈, 황국주)에 미혹지 말나고 본총회로서 각 로회에 통첩을 발하여 주의식히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그들은 이용도 목사와 백남주의 예수교회, 한준명의 접신극, 이호빈 목사의 예수교회, 황국주의 목가름 등등이다.

반면에 1931년 8월 12일 황해도회, 1932년 7월 평양노회, 1933년 2월 중순 안주노회, 그리고 1933년 감리교 중부연회 등이 그들을 이단으로 규

정하였다. 황해노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도 목사는 재령교회를 훼방한다. 여신도들과 서신 거래를 자주한다. 불을 끄고 기도를 한다. 교역자를 공격한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선전한다. 무교회주의 자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이다’ 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2회 총회와 각 노회는 광적 신비주의(狂的神秘主義)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4회 총회는 1935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 서문밖교회당에서 열렸고, 총회는 제23회 총회 정치부 보고 건을 처리하였다. 그것은 남대문교회의 김영주 목사가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김춘배 목사가 <기독신보> 977호에 기재한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삼’이란 제하에 ‘녀자의 교권을 줌이 올타는 주장’을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성경의 구약 창세기(創世記) 저자(著者) 문제는 정치부에 위임하여 내년 총회시에 보고케 하였다. 그리고 ‘녀권의 문제, 장노교 총회에 올리는 말삼(<기독신보>, 1934. 8. 22일자)’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안에 신학적(神學的)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존재로 인한 것이었다.

1926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는 캐나다연합교회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함경도(咸慶道)를 선교 구역으로 주었고, 그들의 신학적 입장은 자유주의(自由主義)였다. 그들은 젊은 지도자들을 캐나다에 유학(留學)시켰고, 그들은 신학적 자유주의를 배우고 한국 기독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연구위원의 보고를 받았다. ‘모세의 창세기 저작(著作)을 부인하는 사람은 장로교의 목사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고 했고, ‘여권 신장(女權伸張)의 이론은 세상에 풍미하는 사조(思潮)에 영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계 처함이 옳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4회 총회 회의록의 연구원의 보고를 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신조 제1조에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 하나이다’라고 했다.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라고 했다.

또한 단권성경주석에 대하여, ‘황해로 회장의 헌의중 신생사 발행 성경주석에 대하여는 우리 장로회의 도리에 불합한고로 우리 장로회에서는 구덕지 안교 그 주석에 집필한 본 장로회 사역자의게는 소관된 각 교회에서 살핀 후에 그들로서 집필한 정신태도를 기관지를 통하여 표명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했다.

단권성경주석인 아빙돈(Abingdon) 단권 주석은 감리교가 선교 50주년 기념으로 류형기(柳滢基) 목사가 편집하여 번역 간행된 것이다. 이 번역에 장로교회의 송창근, 채필근, 한경직 목사 등이 참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5회 총회는 삼산노회에서 만국주일공과, 제8공과의 33페이지 하반 제2행에 ‘사귀는 죽은 자의 신이라는 연구는 본 장로회 교리에 위반된 것인즉 해편집자에게 주의식혀 달나는 헌의는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에게 주의식키난 것이 가하오며’라고 했다. 또 적극신앙단에 대한 답변서(答辯書)에서 ‘적극신앙단의 항의서에 홍사단과 수양동우회와 적극신앙단에 교역자가 가입함으로 폐해잇다함에 대하여 적극신앙단은 본장로회교회에 위반이 됨으로 총회 24회가 이단으로 결정하였스니’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는 사귀(邪鬼)는 죽은 자의 신이라는 것이 장로회 교리에 위반됨을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서울 신림동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귀신은 죽은 자의 사후 혼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그의 마귀론에서 귀신(鬼神)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1989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평안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74회 총회(총회장: 이성택)는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결의하였고, 조선총독, 총감, 경무국장, 학무국장, 조선군사령관, 총리대신, 척무대신, 제 각하에게 진보를 발송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의 성명서는 '아등(我等)은 신사(神社)는 종교(宗教)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教理)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本意)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愛國的) 국가의식(國家儀式)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率先) 거행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써 적성(赤誠)을 다리기로 기(期)함' 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일본제국주의 앞에 굴복한 가장 비참한 총회의 결의였고, 소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친일파(親日派)들의 득세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 결의로 인해서 출옥 성도들과 신앙적 마찰을 초래하였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는 총회(總會)와 고려파(高麗派)로 분열되고 말았다.

셋째, 1950-1980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포교기(布教期)

한국 기독교회는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의 포교기(布教期)를 1950년에서 1980년으로 본다. 1930년대의 광적 신비주의는 김백문(金百文) 씨에 의해서 계승되고 형성되었다. 그는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섭전리에 이스라엘수도원을 세워 새 원리를 강론하였는 바, 이것은 이용도 목사의 영적인 신인(神人) 합일주의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백문 씨의 첫 시도는 '성서신학(聖神神學)' 을 쓴 것이며, 이것은 1954년 3월 2일에 발행하였다.

그 내용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를 이용도식으로 풀이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백문 씨는 이용도 목사의 소위 공생애(1930-1933)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집회할 때에 줄곧 따라다녔고,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

또한 1944년 4월 경북 보현산(普賢山) 박동기(朴東基) 씨의 시온산제국이 발생하였고, 그는 그 지역에서 포교에 광분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신앙적 환상(幻想)과 재림주 대망을 갈망한 일종의 민족적인 수난의 부산물로 발생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과대망상(誇大妄想)에 빠진 기독교회의 개인적인 지도자에 의한 이상적인 꿈의 발로로 기인된 것으로 일종의 기독교회 이단 종파로 전락하였다.

물론 그들은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힘으로 일본을 대항하고 자신들을 보호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역사적 기독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기독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독선이다. 그리고 자기 왕국의 실현을 위한 비성경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1950년에 김백문 씨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회의 한국적인 쌍둥이 이단이 생겼으니 곧 문선명(文鮮明) 씨와 박태선(朴泰善) 씨이다. 박태선 씨는 1950년대에 한국 교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고, 그의 전국적인 부흥회는 견잡을 수 없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의 집회에 가세하기도 했었다. 그는 그 여파(餘波)를 몰아 2, 3년간 계속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의 집단을 형성했고, 신앙촌을 건립하여 자칭 동방의 의인으로 군림하여 오늘의 신앙촌 기업주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의 비성경적인 해석과 고도의 수법을 통한 착취와 군중을 미혹하는 최면술(催眠術)과 안찰(按察)을 관찰하였고, 1956년 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는 박태선 집단을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한편 문선명 씨는 국내의 부식(扶植)이 어렵고 포교 활동에 치명적인

사건들을 당하자 국외 포교를 시작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일본에서 온 갖 포교 활동을 하던 중 불과 몇 년 만에 문선명 씨는 미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닦게 되었다. 그는 서서히 미국(美國)의 주요 도시를 순회(巡廻)하면서 '희망의 날' 집회를 하여 자신을 '문 예수' 혹은 '재림주(再臨主)로 부각시켰다. 그는 현대의 마스크를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포교(布教)와 발광적 집회를 하였다.

문선명(文鮮明)은 인도 지나 사태 이후 약간의 긴장과 불안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기독교회에 다시 나타나서 1970년대의 이단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문선명 집단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대에 문선명 교황청(敎皇廳)을 세우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이단 종파의 발생은 하나의 역사적 계보(系譜)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1930년대에 벌써 신학적인 자유주의 영향과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에서 신앙적 돌파구를 찾았던 일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잘못 형성한 신비주의, 곧 광적 신비주의로부터 기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예수교회의 이용도 목사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1950년대 이스라엘수도원의 김백문 씨였으며,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 천부교 혹은 전도관의 박태선 씨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문선명 씨인 것이다.

그밖에 광적 신비주의 영향을 입어 독자적인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를 형성한 용문산의 나운몽 씨, 계룡산의 양도천 씨와 이유성 씨, 보현산의 박동기 씨와 양백마 씨, 일월산의 김한국 씨, 그리고 동방교의 노광공 씨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회는 한 세기 동안 험산준령과 풍랑을 거듭 만났을지라도 이질적인 신앙과 신학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대체로 역사적 기독교회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

였고, 초대 한국 기독교회 선교사들의 청교도적 신앙, 민족의 고유한 전통적인 보수주의 사상적 바탕 위에 기독교회를 이룩한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성경의 완전 영감된 말씀을 개인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적용하여 기독교회의 문화를 모든 분야에서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1980-2000년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발악기(發惡期)

한국 기독교회는 기독교회 이단 종파(異端宗派)들의 발악기(發惡期)를 1980년에서 2000년으로 본다. 현재 한국 기독교회 안에는 약 140종류의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이 있고, 여기에 미혹된 그들의 추종자들은 약 2백만 명이 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회의 소위 장자교단(長子教團)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 고신, 그리고 통합 총회(總會)들의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에 대한 최근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68회 총회는 통일교(統一敎) 호칭 문제를 문선명 집단(文鮮明集團)으로 결의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동서울 노회장 신광호 씨는 '소위 통일교단 문선명 집단의 호칭 문제의 건은 문선명 집단, 문 집단으로 정할지언정 통일교란 호칭을 하지 않음이 가한 줄 아오며' 라고 했다. 왜냐하면 문선명 집단은 기독교회가 아닌 기독교회의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며, 니골당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문선명 집단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교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들은 참가정실천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9회 총회는 문선명 집단 산하 업

체 생신품 불매운동을 추진기로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중부산노회장 옥치상 씨는 '문선명 집단 업체 생신품 불매운동 청원의 건은 정치부로' 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정치부는 '중부산노회장 옥치상 씨가 청원한 문선명 산하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불매운동 추진의 건은 총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추진함이 가한 줄 아오며' 라고 했다. 문선명 집단은 약 40개의 기업체가 있고, 40개의 기관과 단체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4회 총회는 김기동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鬼神論)에 신앙적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기동(金箕東) 목사는 귀신은 불신자(不信者)의 사후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악령(귀신)은 타락한 천사(天使)로서, 사단(Satan) 혹은 마귀(Demon)가(사 14:12-14; 겔 28:15-17; 계 12:7-9) 하늘의 천사들을 유혹하여 된 것으로 믿는다(계 12:3-4).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방신, 점신술자에게 그들의 장래 문제에 관하여 문의한 신앙적 풍습을 꾸짖었는데, 특히 사자(死者)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가장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지옥으로 가고(눅 16:20-25; 창 5:24), 생명 세계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5회 총회는 탁명환 씨를 본 교단 강단(講壇)에 세우지 않기로 가결하였다. 탁명환 씨는 <현대종교> 발행인이며,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문제연구소의 대표로서,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을 열심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탁명환 씨는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과 야합한 일이 있었다. 특별히 기독교회의 성직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십 명을 법정(法庭)에 고소한 일이 있었다. 기독교계 사이비언론에 대한 진정서(陳情書)에서 보면, 탁명환 씨의 비리(非理)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제13대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교 관련 폭로 대가로 황영시에게 3억 원 뇌물 받음, 전경환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오대양 사건을 은폐하여 준 사건, 이단으로 몰아세워 교계인사로부터 금품 갈취한 사건, 무인가 신학교 정비를 내세워 무인가 신학교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사건, 축첩사건 등등이다. 이와 같이 탁명환 씨의 활동은 일부 기독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 임흥천 씨에 의하여 살해(殺害)되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탁명환 씨는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을 척결하는 데 많은 공헌이 있는 반면에 그의 사소한 행적으로 그의 업적이 손상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6회 총회는 이장림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장림의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휴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이 시한부(時限附) 종말론은 기독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는 트레스 디아스를 엄히 경계(警戒)하여 제지하도록 하였다. 트레스 디아스(Tres Dias)는 가톨릭의 꾸르시오(Roman Catholic Cursillo: 스페인어로 기독교 세미나라는 뜻을 가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로마 가톨릭에서 33차례의 훈련을 통해서 1951년 3월에 완성했다. 1966년에 로마 교황이 이 꾸르시오를 전세계의 교구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스페인어로 사흘)로 변형되어 3박 4일 동안 강의, 그룹토의, 찬양, 섬김 등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철저히 비밀(秘密)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회 안에는 15개 이상의 트레스 디아스가 있다. 물론 건전한 트레스 디아스는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것은 일체 참여를 불허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는 무료신학교(無料神學校)를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으로 가치 없는 집단으로 밝혔다. 신천지교회(新天地教會) 이만희 씨의 무료신학교는 박태선과 계통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이탈(離脫)한 집단이다. 그리고 그의 무료신학교는 무인가 불법학원이며,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속한 목자와 성전을 자신과 신천지교회로 풀이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1회 총회는 류광수 씨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자를 각 노회별로 시벌(施罰)하기로 하였다.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은 구원론과 교회론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2회 총회는 빈야드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同調)하는 자를 다락방운동에 참여(參與)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같이 징계(懲戒)하기로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Anaheim California)에 있는 빈야드교회(Vinyard Chrstian Fellowship)를 이끄는 존 워버(John Wimber)를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기독교회의 교단 혹은 교파이다.

반면에 존 아노트(John Amott)가 개척한 토론토 공항교회(Toronto Airport Vinyard)를 중심으로 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빈야드운동이 있다. 전자(前者)는 성령의 권능주의이며, 후자(後者)는 성령 체험주의이다. 그들은 성령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고,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소리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의 성경해석(聖經解釋)은 올바르지 않으며, 또한 예배의 무질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3회 총회는 말씀보전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이유빈의 예수전도협회와 열린예배, 열린교회, 하나님의 칭호와 기독교장래문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1999년 제84회 총회는 이유빈의 예수전도협회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合同)은 약 14개 종파들을 기독교회의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

들은 다음과 같다.

나운동, 박태선, 노광공, 염애경, 문선명 집단, 김기동, 탁명환, 이장림, 트레스 디아스, 무료신학교, 류광수, 빈야드운동, 말씀보존학회, 예수전도협의회 등이다.

반면에 예수교장로회 고신(高神) 총회의 기독교회 이단 종파에 대한 결의는 다음과 같다. 1991년 제41회 총회는 지방교회, 구원파, 다미선교회, 대방주교회, 애천교회, 불건전한 귀신론(김기동, 이초석, 이태화(부활의 교회), 김계화(할렐루야기도원)) 등 10개의 신앙 집단을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1992년 제42회 총회는 레마선교회(이명범)와 트레스 디아스 등 2개 집단을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며 교회와 교역자는 관계를 금지하였다.

1994년 제44회 총회는 할렐루야기도원, 영생교 승리 제단, 트레스 디아스, 기독교 단일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대방주교회, 안수에 관한 것, 전도관, 이삭교회, 만민중앙교회, 스웨덴벨그 신비주의, 여호와와 새일교단, 용문산 기도원, 밤빌리아 교회, 유니테리안주의, 천국간중문제점, 일월산 기도원, 천국 복음전도회, 대순진리회, 암스트롱 이단, 장막성전, 대성교회, E.S.T., 666, 세계일가공회, 레마선교회, 몰문교, 하나님의 자녀, 이슬람, 천주교, 신권도학, 엠마오선교회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바하이선교, 한국기독교에덴성회, 동방교, 엘리야복음선교회, 안식교, 세계성부교회, 지방교회, 다미선교회, 크리스찬 싸이언스, 섹스교, 창가학회, 귀신론, 무료성경신학원 애천교, 뉴에이지운동, 이글레시아 니크리스토, 벨엘기도원 등을 기독교회의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1995년 제45회 총회는 류광수(다락방운동)를 이단적 성격을 띤 불건전 운동으로 규정하여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와 교인들의 참여를 일절

금하였고, 관여자는 권징하였다.

1996년 제46회 총회는 빈야드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하였고, 기독교회의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1997년 제47회 총회는 류광수 집단을 다시 한번 기독교회의 이단 집단으로 재규정하였다. 1998년 제48회 총회는 박무수파에 대한 것을 유사종교 위원에 맡겨 철저히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였다.

1999년 제49회 총회는 박무수, 세계신유복음선교회, 박용기 목사 등을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高神) 총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 가운데 현재 47종류를 연구, 비판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할렐루야기도원, 영생교 승리 제단, 트레스 디아스, 기독교단일파, 통일교, 여호와와의증인, 구원과, 대방주교회, 전도관, 이삭교회, 만민중앙교회, 스웨덴별그신비주의, 여호와 새일교단, 용문산기도원, 밤빌리아교회, 유니테리안주의, 일월산기도원, 천국복음전도회, 대순진리회, 암스트롱이단, 장막성전, 대성교회. E.S.T, 세계일가공회 등이다.

그리고 이명범의 레마선교회,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 하나님의자녀, 이슬람, 천주교, 신권도학, 엠마오선교회, 바하이선교, 한국기독교에덴성회, 노광공의 동방교, 박명호의 엘리야복음선교회, 안식교, 세계성부교회, 워치만 리의 지방교회, 이장림의 다미선교회, 에디 부인의 크리스찬 싸이언스, 섹스교, 창가학회, 김귀동의 귀신론, 이만희의 무료성경신학원, 조희성의 애천교, 뉴에이지운동, 이글레시아 니크리스토 등이다

반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統合)은 약 28종류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나운몽, 박태선, 노광공, 염애경, 단군상, 문선명, 권신찬, 소천섭, 조용기, 귀신론, 밤빌리아추수꾼, 박윤식, 박명호, 이장림, 이초석, 이명범, 이요한, 박옥수, 지방교회, 한사랑선

교회, 강서중앙교회, 김계화, 황금관, 이옥희, 안식교, 트레스 디아스, 빈야드운동, 류광수 등이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회의 주류(主流)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合同), 고신(高神), 그리고 통합(統合) 총회들의 이단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들은 약 89종류를 취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위 문선명 계통(文鮮明 系統)은 문선명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혹은 문선명교, 정명석(鄭明石)의 국제크리스찬연합, 진성화의 생령회, 박윤식의 대성교회, 이창환의 우주신령학회, 변찬리의 성경의 원리파, 김건남의 생수교회, 장영창의 구세영우회, 장문국의 통일원리파 등이다.

그리고 박태선 계통(朴泰善 系統)은 박태선의 천부교, 조희성의 영생교, 이영수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김종규의 대한이삭교회, 유재열의 장막성전, 구인회의 천국복음전도회, 김풍일의 실로동대중앙교회, 이만희의 신천지교회, 이현석의 한국기독교승리제단, 노광공의 동방교, 김순린의 한국중앙교회, 권옥찬의 대한기독교천도관, 제정렬의 산성기도원, 장영실의 백마십자군, 최규원의 찬사마귀교, 최충일의 재림예수교 등이다.

이유성 계통(系統)은 이유성의 여호와 새일교, 유진광의 신탄새일교, 김화복의 서울중앙교회, 김인선의 스톱바벨 등이다.

그리고 김기동 계통(系統)은 김기동의 서울 성락교회, 이초석의 한국예루살렘교회, 한만영의 그레이스 아카데미, 이명범의 레마복음선교회, 이태화의 주산해원 등이다.

그리고 권신찬 계통(系統)은 권신찬의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이복철의 대한예수교침례회, 김갑택의 셋별남원교회 등이다.

토요일교 계통(土曜日教系統)은 화이트의 토요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박명호(朴明鎬)의 엘리야복음선교회 등이다.

또한 시한부종말론 계통(時限附終末論系統)은 이장립의 다미선교회, 권미나의 성화선교회, 하방익의 다베라선교회, 전양금의 다니엘선교회, 이재구의 시온교회, 오덕임의 대방주교회, 유복중의 혜성교회, 임순옥의 중앙예루살렘교회, 공명길의 성령쇄신봉사회, 이현석의 한국기독교승리재단, 공용복의 종말연구회, 양도친의 세계일가공회, 김성복의 일월산기도원, 원인중의 예루살렘교회, 이선아의 밤빌리추수교회, 김은혜의 영복교회, 원경수의 천국중앙교회, 김기업의 혜성교회, 김민석의 에덴문화원, 김백문의 이스라엘 총회, 나운몽의 용문산운동, 김용기의 호생기도원 등이다.

그리고 이교부의 주현교회, 김계화의 할렐루야기도원, 류광수의 다락방전도, 김기순의 아가동산, 박무수의 부산제일교회, 정보화의 대구밀알기도원, 김동열의 그리스도님의교회, 박동기의 시온산성제국, 강제현의 광야교회, 방수원의 세계종교연합 범황청, 박인선의 에덴수도원, 안영숙의 삼광수도원, 김동현의 영생천국본부, 박연룡의 그리스도구원선신생원, 신상철의 조선기독교, 이현래의 대구교회, 임택순의 아텔포스성경원어연구원, 이승오의 말씀보전학회, 한정애의 시해선교회, 김광신의 은혜교회 등이다.

그리고 김교신의 성경조선, 이옥란의 감람산기도원, 황금관의 대복기도원, 이옥희의 태백기도원, 선신유의 에스겔교회, 김옥순의 광복교회, 안병오의 마라나타선교회, 정용근의 서울 그리스도교회, 김정순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소계희의 서초제일교회, 박용우의 명인교회, 김바울의 강북제일교회, 장수진의 한빛대학생선교회, 박영균의 말씀권능복음선교회, 이양원의 에덴공동체 등이다.

그리고 박철수의 기독교영성훈련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배영도의 참예수교회, 유석운의 아기예수모임, 송옥분의 대순진리성도회, 이천성의 한국중앙교회, 서창석의 평택활천교회, 정득은(丁得恩)의 대성심기

도원, 조운성의 오메가 로고스 선교회, 노영체의 예수교감리교, 최우평의 신천지교회, 이성호의 멜기세덱교, 심재용의 예수왕권세계교회, 곽성률의 평강교회, 윤순덕의 광명생수 기도원, 문제선의 예루살렘교회, 황달해의 금빛성전, 김용선의 세계종말복음선교회, 이유빈의 예수전도협회 등이다.

반면에 국외(國外)의 이단 종파들로서 튀주레의 태양의 사원, 츠비군의 위대한 백인형제애, 요셉 스미스의 몰몬교, 화이트의 토요일교, 에디부인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럿셀의 여호와와 증인, 스웨덴벌그의 새 예루살렘교회, 조지 폭스의 퀘이커교, 바하올라의 한국바하이전국정신회, 마라하이 지의 신빛집단, 애플 화이트의 천국의 문, 필모레의 기독교단일파, 알 에머슨의 유니테리안, 요한 폭스의 강신술, 위치만 리의 지방교회, 존 워버의 빈야드운동, 엘리스 배일리의 뉴에이지운동, 테드 파트리크의 이단감별집단(異端鑑別集團) 등이다.

맺는말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考察)을 하였다. 현재 한국 기독교회 안에는 약 140종류의 이단 종파들이 있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약 2백만 명이다. 반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14종류,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는 47종류,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28종류, 총 89종류를 취급하였고, 여기서 반복되는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 약 40종류를 빼면 59종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도 미약한 것이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은 행복한 가정(家庭)들을 파괴하고 있고, 인권(人權)을 유린하며, 재산 등을 탈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집단에

서 이탈자들을 암매장(暗埋葬)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한국 기독교회는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독교회 이단 종파들의 포교 활동을 주시(注視)해야 하고 예방(豫防)해야 한다.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금년은 한국 교회가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도 이번 세미나에서 부흥운동과 합동세례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의미

■ 전호진 목사

-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졸업(D. Miss.)
- 영국 웨일즈대학교 졸업(Ph. D.)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원장 및 고신대학교 학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및 신학회 총무 및 회장 역임
-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 / 군선교연합회 교육원 원장

있게 생각한다. 본 논문은 김인수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논찬을 간략하게 곁하면서 집단개종을 선교 역사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김인수 교수께서는 교회사 교수로서 1907년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아주 잘 설명하였다. 특히 부흥운동을 단순한 교회운동이나 성령운동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까지도 잘 지적하였다. 1907년 부흥운동은 한국을 새롭게 하는 운동으로 보고 싶다. 다만 논찬자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시 부흥운동이 영국 웨일즈, 미국의 아주사, 인도, 일부 태평양 군도 등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부흥운동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사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김인수 교수께서는 당시 부흥운동 때 수십 명이 동시에 세례받는 것을 합동세례의 시작으로 언급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 선교사였던 서명원(Roy E. Shearer)은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에서 부흥운동 때 한국 교회는 가족 중심의 집단개종이 있었다고 하면서 풀러 선교학의 집단개종 이론을 한국 교회 성장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사무엘 마켓 박사는 당시 3만 명이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증거 혹은 자료를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집단개종이나 합동세례보다는 종교 개혁의 원리를 따라 엄격한 개인 단위의 세례를 중시하였다.

김인수 교수의 군대의 합동세례에 대한 생각은 이상하게도 필자와 동일하다고 본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자도 합동세례를 거행하면서도 당시 너무 숫자에 치중하고 부대 분위기에 편승, 강제성이 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합동세례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사후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군대의 합동세례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단정적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와 역사적 고찰을 함께 시도하였다. 대신 후속적 보완으로 신자 병사들을 진

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군인 교회와 사회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합동세례는 신앙생활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으로 간주할 것을 논문에서 제안한다.

한국 군종 역사에 있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군종활동에서 변화의 시기이다. 개인단위의 전도와 세례의식 거행에서 집단개종의 소위 합동세례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한신 장군의 정신전력화라는 슬로건과 합치하여 급상승세를 탔다. 1970년대 초기는 한국 군대 합동세례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와 천주교 역시 합동영세식과 불교의 합동수계식을 하도록 자극하였다. 군대에서 종교가 선교 경쟁을 본격화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군대에서도 종교가 상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른 종교가 기독교 선교 전략을 차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역작용도 발생하였다. 합동세례, 합동수계 등의 명목으로 벌어지는 종교 간의 과다 경쟁으로 한때 국방부는 합동세례 자체 공문까지 내리는 상황이 되었다.

1970년대 초기 처음 시작된 합동세례의 동기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일부 지휘관, 특히 한신 장군의 '정신전력'이라는 용어는 군선교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 합동세례를 처음 시작한 군목은 결코 '도매금' 신자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군목은 부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고, 일부 부대원들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교 신자 연대장은 태도를 바꾸어 연대 병사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그는 사전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이 스토리는 국방부에서 영화로도 제작하였음). 필자가 근무할 때 12사단 사단장님은 사단의 모든 병사들을 "하나님의 새끼"로 만들려는 의욕을 가졌었다.

합동세례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신학적 논리로 찬성, 반대를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고 본다. 우리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서구 기독교회나 아시아 교회에서 집단개종(회심)과 합동세례는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난 역사가 많이 있다. 한국 교회도 부흥운동 때에 3만 명이 개종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고 사무엘 마펫 박사는 증언한다. 그럼으로 합동세례와 집단개종을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필자는 1980년대 초기에는 솔직히 군대의 합동세례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일부 합동세례가 남용되고 너무 경쟁적으로 행해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¹⁾

모든 제도나 실천에는 문제도 있다. 군대에서 종교 간의 선교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성경의 원리를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집단개종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군선교의 방향에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선교 전략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제자를 만드느냐’ 인 것이다. 합동세례가 명목상 신자의 양산이라는 기본 관념은 시정되어야 한다.

1. 합동세례와 집단개종(회심)의 정의

먼저 우리는 집단개종과 합동세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초대 교회에 세례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자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사에서 동시에 일어난 적이 많이 나타난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the Lord and Saviour)로 고백할 때 즉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세례란 기독교의 가

1) 전호진, “한국 교회 성장” 이종윤, 나일선, 전호진, 「교회성장론」(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p. 130.

장 중요한 상징적 행동으로, 물로 뿌리거나 침수를 해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을 선서하는 공적 행동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공적인 선언이다. 이점에서 최근 이슬람 선교에서 말하는 신자됨을 드러내지 않고 모스크에 가서 고개는 숙이지만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3대 표시가 되었다(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2장 1절). 이 과정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하여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²⁾ 즉 축복과 책임이 함께한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즉시 세례를 베푸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한국 교회에는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개종 혹은 회심이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우상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개는 헬라어로도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믿었던 다른 종교나 신앙생활 혹은 이념에서 기독교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신학자 윌리스는 회심을 신앙의 대상인 주인을 바꾸는 것(change of lords)으로 표현하였다.³⁾ 물론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개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서 청년들이 합동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중생의 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을 언제 했느냐에 대하여는 신학과 교파에 따라 다르다. 칼빈의 중생 체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2) Scott Cunningham, “Baptism,”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ed. A. Scott Moreau(Grand Rapids: Baker, 2000), p. 109.

3) Jim Wallis, *The Call to Conversion*(New York: Sojourners, 1981), p. 6.

일어났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 기존 신자들에게 도전하는 집단적 기독교회도 있다. 그러나 중생과 세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이다. 그런데 합동세례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공적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함께한다. 이점에서 합동세례란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는 공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세례식을 합동세례로 불렀다.

세례식 거행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이다. 오순절 때 사도들은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에 대하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준비가 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많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유대교는 기독교의 준비(preparatio evangelica)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유대교는 기독교의 사촌으로, 기독교를 위하여 준비된 종교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유대인 선교가 도리어 이슬람 선교보다 더 어렵다. 브루스(F. F. Bruce)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하루 3천 명 개종의 역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얻은 것에 비하여 더 큰 역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했다. 3천 명은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

풀러 교회성장학파는 이 본문과 다른 성경 본문을 근거로 성경의 회심 사건을 철저히 집단개종으로 해석한다. 그룹 단위의 선교라는 것이다. 개혁주의 선교학자 해리 보어조차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선포의 주도적

이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집단적이다. 성령이 이적과 더불어 교회에 강림하셨을 때 설교가 시작되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천 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었다. 사도행전은 선교 전략과 개종에 있어서 3천 명, 5천 명, 많은 사람, 많은 도시, 큰 무리, 가족 등이 회개하였다”고 말한다.⁴⁾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도 사도행전의 그룹 단위 회심에서 집단개종 운동(people movement)의 이론을 수립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거니와(행 14:21) 세례도 주었다. 선교사로서 바울의 첫 세례는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족들에게(행 16:15), 다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행한 것이다. 간수는 죄수가 도망한 것으로 착각,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즉시 가족들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행 16:33). 그 가족들은 바울 일행을 접대한다. 바울은 세례 전에 사전 교육 없이 다만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의 이러한 세례에 대하여 영국 성공회 선교학자 알렌은 “바울은 세례의 필수조건으로 기독교 지식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빌립보 간수에게 한 세례는 그 간수가 예수를 구세주로 단순 고백하는 것을 기초로 세례를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⁵⁾

사도행전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세례받는 사건은 회심(conversion)의 성격도 있다. 이점에서 세례와 회심은 동시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개종 혹은 회심은 종착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문에 불과하다. 회심은 일개 개인적 존재가 신앙 공동체에 가담하는 시작이다.⁶⁾

4) Harry Boer, *Pentecost and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2), p. 271ff.

5)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 p. 95.

6) Jim Wallis, p. 9.

세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집단개종은 영어로는 mass movement 혹은 people movement라고 한다. 중세 가톨릭은 집단개종의 역사이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 인도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본래 선교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지배 세력이나 계급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전개하는 일종의 사회적 해방운동이다. 만약 공산주의가 당시 인도에서 일어났더라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공산주의가 없었다. 지금 천민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인도 동부 캘커타 주는 공산주의 정부이다. 그러나 종교가 강한 인도에서 공산주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이지만 종교 자체가 계급 차별을 정당화하여 하층계급 사람들은 힌두교 신을 믿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층 계급의 인도인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종교로 해소한 셈이다. 특히 Dalit(하층민들) 계층의 사람들은 인간의 평등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로 집단개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사회적 반발이 종교로 승화된 것이다. 맥가브란은 mass movement 대신 people movement로 표현하는데, 전자가 사회적 운동이라면 후자는 동질집단의 한 종족(언어, 문화, 종교가 같은 집단)이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혼용하기도 한다.⁷⁾

2. 집단개종의역사적 고찰

기독교는 선교적 종교로서 고난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

7) 혼용의 대표적인 글은 Goodwin Shiri, People's Movements - An Introspection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Religion and Society 43: 1&2(March & June 1996): pp. 120-138을 참조할 것.

님의 명령대로 열두 제자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이웃 나라, 심지어 인도에 까지 갔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여 오늘날 말 토마교회(Mar Thomas Church)를 세웠다. 역사적 증거나 자료는 없지만 인도 교회는 철저히 도마의 인도 선교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그는 브라만 계급 6,850명, 크샤트리아 계급 2,590명, 바이샤 계급 3,780명을 개종시켰다고 한다.⁸⁾

밀라노 칙령이 일어난 다음 세기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4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대일의 철저한 개인 위주 세례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기독교는 북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로마의 전 인구는 약 5천만이고, 이중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10%가 된 것으로 본다. 로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확산된 기독교회의 성장은 결코 일대일 개인 전도와 회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세 기독교 이전, 즉 고대 가톨릭교회 때(필자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제도 이전의 초대 기독교를 고대 가톨릭으로 표현함) 이미 집단개종이 있었다. 왕의 종교가 곧 백성의 종교가 되는 첫 번째 선례가 아르메니아에서 나타났다. Gregorius the Enlightener or Illuminator로 불리는 그레고리우스는 카파도키아에서 아르메니아로 가서 왕에게 전도, 왕이 개종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다. 즉 왕인 티리다테스가 스스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귀족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왕의 행동을 따랐으며, 그 다음에는 평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⁹⁾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 집단개종의 역사이다. 유럽에서의 기독교 국가(Christendom)의 등장을 선교적 차원에서 냉철하게 살펴보면 비극이요

8) 사무엘 H. 마켓, 「아시아 기독교회사」(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p. 83.

9) 스티븐 니일,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홍치모, 오만규 역(서울: 성광문화사, 2006), p. 63.

기독교 실패의 역사이다. 첫째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와 종교의 동맹관계이다(unholy alliance). 종교와 정치의 랑데부는 양쪽 다 순수성을 상실하게 한다. 둘째로, 왕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잃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만을 믿을 자유가 있을 뿐이다. 기독교도 다양하다. 가톨릭은 이러한 다원화를 거부한 셈이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에서 다른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종교개혁이 도리어 종교다원화를 권장하고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가 도리어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데, 중세 가톨릭을 예로 든다. 셋째로 집단개종은 명목상 신자를 양산한다.

이상 지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세 기독교는 집단개종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크 왕국(현재의 프랑스)이다. 493년 프랑크 왕 클로비스는 부인이 기독교 신자이지만 신앙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에서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서약을 지켜 크리스마스 날에 3천 명의 전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병사들이 합동 세례를 받을 때 오른팔을 다 머리 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몸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오른팔만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써야 함으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서구에서 많은 야만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야만성은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았다.¹⁰⁾ 사실 서구도 기독교 이전의 사람들은 야만인이었다.

집단개종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중요한 나라는 러시아이다. 10세기 후반 러시아는 130여 부족들이 서로 싸우는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988년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를 통일 국가로 만들면서 종교를 국가 통합의

10) 니일, 「기독교 선교사」, p. 68.

수단으로 하려고 신하들을 아시아, 중동, 유럽에 파견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예술과 언어와 문화가 훌륭한 희랍 문명을 배경으로 하는 희랍의 정교회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세례(침례)를 받은 후 모든 백성들을 강으로 데려가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후 희랍 정교회는 러시아의 국교가 되지만 명칭을 러시아 정교회로 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부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공산화되고 만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식으로 집단개종이 보편적 현상으로 정착한다. 가톨릭은 아시아에서도 집단개종을 실시한다. 인도에서는 하층 계급의 어부들 일반 명에게 세례를 시행하였다. 당시 이들은 북쪽에서 쳐들어온 모슬렘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차에 포르투갈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포르투갈 정부는 그 대가로 집단개종을 요구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후 6년 동안 아무 돌볼도 없이 방치되었다. 사비에르의 인도 선교 역시 집단개종이었다. 이것은 당시 인도는 철저히 종족 사회였기 때문에 추장의 개종은 곧이어 모든 부족인들의 개종으로 이어졌다. 하층민 사람들은 읽고 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사비에르는 불완전한 통역을 통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번역하였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소년들을 불러 모아 번역한 것을 암기시킨 후에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게 했다. 주일에는 이미 배운 것들을 반복하게 하였다.

사비에르는 인도에서 일본으로 선교지를 옮기는데 일본에서도 집단개종을 실시한다. 당시 일본의 혼란한 정치 상황과 더불어 신도(神道)와 불교의 부패는 기독교 선교를 유리하게 하였다. 특히 다이묘들은 현대 무기를 구입하는 수단으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 영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모든 부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1563년에 오무라 수미타라는 다이묘가 처음으로 개종하고 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보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81년경 일본

에는 200개의 교회와 15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집단개종으로 한때 기독교가 번창하였던 일본은 그 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쿠가와 시대 때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수난을 당한다.

집단개종은 한 지역을 자연히 기독교 마을로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문화적으로 충성을 중시하는 정치가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섬기는 복종의 대상이 국가의 임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것이다. 즉 크리스천들은 통치자보다는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정치가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신앙적 충성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일본에서 가톨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19세기 중반까지 지하로 숨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후일 종교의 자유가 선포될 때 숨은 크리스천이 등장하는 데 대하여 세계 기독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 복음주의 선교의 집단개종

서구 복음주의 선교는 집단개종의 폐단을 잘 알고 철저히 개인 회심의 전도를 강조한다. 특히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과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운동은 가톨릭의 집단개종이 가져 온 기독교의 실패를 절감하였다. 한국 교회도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 이전에 학습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 신앙 교육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후일 결코 개인 회심의 선교만 고수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서구의 일부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집단개종을 실시하였다. 인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파푸아 뉴기니,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등에서는 집단개종의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먼저 복음주의 선교운동에서 집단개종의 역사는 남태평양에서 있었다. 영국의 런던선교회 선교사 윌리엄 엘리스(William Ellis)는 태평양의

원주민들에게 집단 세례를 거행한다. 그는 “집단회심을 선교사역의 절정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자”고 했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유아 살해, 카니발리즘, 인간 희생 제사 등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서 선교사 윌리엄 엘리스(1794-1872)는 이들에게 진정한 회심 경험은 어렵다는 것을 발견, 복음적 회심 사건의 조건으로 양심의 기독교화의 수준의 필요성(certain level of Christianization of conscience)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섬에서 회심은 점진적이어서 집단회심은 선교사역의 절정이 아니라 시작으로 본다. 선교사역의 수순은 먼저 저항이 있었고, 다음 하층계급에서 소수의 회심자가 일어났고, 곧 이어서 추장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추장의 개종은 불가피하게 집단개종을 일으키게 된다.¹¹⁾

기독교에서 집단개종 운동은 19세기 후반에 주로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한 와스컴 피케트(J. Wascom Pickett)는 처음으로 ‘mass movement’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후 이 운동에 가담한 맥가브란 선교사는 mass movement를 people movement로 표현하였다. 필자는 이 용어를 대중운동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어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단개종 운동으로 번역하였다. mass movement가 사회학적 용어라면 people movement는 문화인류학적 용어이다.¹²⁾ 맥가브란 선교 이론의 핵심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는 개인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동질집단의 한 종족이나 부족을 집단으로 개종시키자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단위의 전도는 넓은 바다에서 히는 낚시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대는 어망을 던지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개종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11) D. Bruce Hindmarsh, “Patterns of Conversion in Early Evangelical History and Overseas Mission Experience,” in *Christian Missions and the Enlightenment*, ed. Brian Stanley, (Grand Rapids: Eerdmans, 2001), pp. 89-91.

12) 이 주제에 대하여는 Pickett, *Christian Mission Movements in Indi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and Understanding Church Growth*를 참조할 것.

시는 마을이나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주장이나 부족장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주장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모든 부족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된다.

지금도 개인 전도를 하기 어려운 나라는 많다. 이슬람 문화권이나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한 개인이 예수를 영접하면 동네에서 추방당하거나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다. 명예살인이란 개종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면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슬렘이 특히 아랍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을 의미한다. 이슬람 공동체는 그 사람에게 명예살인을 명령하면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개종한 사람은 선교사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선교지에서 개종자는 주로 선교사들의 공동체(missionary compound)에서 보호받는다. 물론 생활을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개종을 하면 그러한 박해에서 해방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세기 독일 복음주의 선교도 집단개종을 실시하였다. 복음주의 선교학의 조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구스타프 바르벡은 유명한 이론인 민족 혹은 국가 기독교화(Volkschristianisierung)를 제안하고 실천하였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개인 단위의 개종이 아니라 먼저 국가 전체를 기독교적 사회로 기초를 닦은 후에 개인을 크리스천으로 양육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택에 근거한다. 바르벡은 족속이라는 헬라어를 이방인으로 보기보다는 동질인종 집단으로 해석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인종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므로 지금도 그것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바르벡은 경건주의 운동의 선교 지도자 파브리가 개인의 회심만을 강조하는 것을 반박하고 인종, 집단을 회심시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강변하였다. 집단개종으로 한 집단을 제자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¹³⁾ 독일의 선교학자 바이엘하우스는 바르벡의 선교론에 대하여 평하기를 '바르벡의 선교론은 택함을 받은 참 회심자(wahrhaft Bekehrter)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제자(Kinder)들'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의 이론에서 교회론이 약하고 좀 모호한 점이 있다.¹⁴⁾ 그러나 핵심은 그 사회 전체를 먼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에 있다.

독일식 집단개종에 의하여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에 있는 교회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쪽의 바탁 루터 교회이다. 이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 부족들이다. 19세기 중반 독일 선교사 뉘넨센은 죽음을 각오하고 홀로 통역을 대동,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 부족을 복음화하고 말았다. 뉘넨센 이전에 미국 침례교 선교사 두 명이 식인종인 이들에게 전도하다가 잡아먹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교회는 지금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강한 지역이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

현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유행어가 된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사실상 집단개종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 인구가 2%도 못 되는 국가나 부족 혹은 인종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상이다. 이점에서 일본도 미전도 종족에 포함된다. 돈 라차드슨의 「화해의 아이(Peace Child)」는 현대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것은 한 부족 전체가 집단개종으로 회심한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초기 캐나다 선교사 리차드슨이 파푸아

13) Gustav Warneck, *Evangelische Missionslehre*, Erste und Zweite Auflage(Gotha: Rieddrich Andreas Perthes, 1903), p. 243ff.

14) Peter Beyerhaus, *Die Selbständigkeit jungen Kirchen als missionarisches Problem* (Wuppertal-Barmen: Verlag der Reinischen Mission Gesellschaft, 1956), pp. 79-80.

뉴기니의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하여 복음화시킨 스토리이다.

4. 집단개종에 대한 반대 견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개종은 물론 문제가 있다. 집단개종은 명목상 신자를 양산한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선교사가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물 뿌리며 세례의식을 거행한 역사가 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여 머리 위에 물을 뿌렸다.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는 19세기 초기 「신학난제선평」에서 인도에서 일어난 집단개종 소식을 듣고 비판한다. “집단개종이 이론으로써의 가치는 있을는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탁상이론에 불과하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더 부연한다.

개인 개인을 회심시켜서 전 사회에 감화를 미치는 것이 기독교의 자초로 시행하여 온 실제적 선교 방법인 것이다. 기독교는 이교제국의 일반적 문화 향상을 위하여서도 다대한 노력을 費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제일선적 본령은 남 여 개인을 권유하여, 그들로 구주에게로 향하는 절대적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며 그들로 그의 교회의 성원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근실이 이행함에 있는 것이다.¹⁵⁾ (위의 인용문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을 뿐 용어는 그대로임).

물론 개인 회심과 세례의 강조는 가톨릭보다 서구 문명에서 개인주의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말한다. 사회학적으로 가톨릭보다는 기독교가 개인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발전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은 정교유착의 밀월관계를 가졌는데, 정치와 종교의 밀착은 양자를 다 부패하게 만든다. 동시에 부패한 성직자들은 헌신적인 신자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합동세례나 집단개종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집단개종의 폐해는 사실상 내적으로 믿지 않는, 외형적 세례였기 때문이다. 사후 교육에 대한 헌신과 책임 정신이 결여되었었다. 그러므로 집단개종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집단개종으로 세워진 교회를 냉정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집단개종에 의한 모든 교회가 다 “세례받은 이방인(baptized heathen)”이 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기에 이미 서구 기독교는 기독교의 중심(중력)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는 것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서구에서 기독교 인구의 급성장은 형식적 신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서구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문화적으로 감정적이고 샤머니즘이 강한 비서구에서 성경적 신앙과 신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세미나까지도 하였다. 집단개종은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서구 기독교의 문제점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도덕성 및 건전하지 못한 성경 해석과 이단에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축복의 신학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5. 합동세례에 대한 보완책 제안

우리는 집단개종으로 세워진 기독교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고찰해야

15) 박형룡, 「신학난제선평」(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35), p. 349.

한다. 집단개종으로 세워진 일부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한다. 인도 기독교회와 수마트라 교회가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 단위로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도 명목상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집단개종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교회들은 많은 시련과 박해에도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 아시아와 터키의 중간에 위치한 알메니아 교회는 20세기 초기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아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당하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참극에 침묵하고 말았다. 그러자 히틀러는 엄청난 인종 학살에도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데에 고무되어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는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¹⁶⁾ 알메니아 기독교회는 알메니아 인종의 아이덴티티이며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인도 남부 지방의 교회들은 집단개종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인도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지역이다. 기독교의 존재를 힌두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우리 군대의 상황은 종교 간의 선교 경쟁이 극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위 “종교적 선점”이 불가피하다. 기독교로 세례를 받으면 다른 종교가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세례 이후 보완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집단개종의 단점만 볼 수 없다. 인도와 수마트라에 지금도 집단개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수십 년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이다. 이들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 정치와 지도자들의 도덕적, 신학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도리어 개인 전도와 개인 단위의 세

16) 이 주제에 대하여는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서울: SFC, 2002), pp. 200-205를 참조할 것.

례로 세워진 교회나 신자 공동체도 형식적 신자 혹은 명목상의 신자가 있을 수 있다.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것 같으나 중동 지역 경우 가톨릭, 회람 정교회, 이집트의 콕트 교회, 알메니아 정교회 등 소위 구 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은 영성, 선교, 신학 등에서 문제가 많다. 복음주의 선교는 이들 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교회의 신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구 교회가 강한 남미, 러시아, 필리핀, 동구권 등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구 교회들이 영적 생명과 신학적 정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주의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미와 필리핀 및 러시아에서 구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남미 가톨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여 많은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죽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1960년대 초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 신자인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출마하자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과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케네디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정치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많은 미국인들이 결국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집단개종이나 합동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바르벡은 집단개종에서 생겨난 소위 인종 단위의 교회(Volkskirche)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신앙 체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 인종이나 부족이 집단으로 개종하여 세워진 교회를 인종 교회 혹은 민족 교회로 부른다. 만약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이 개종하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데, 집단개종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⁷⁾ 맥가브란 교수도 바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다.

17) Horst Bürkle, *Missiontheologie*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8), p. 67.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보완책은 군에서 활동하는 군종장교와 기타 목회자들 및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즉 신자로서의 현존(presenc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종교 간의 선교적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군대에서도 기독교의 우월성(excellency)을 행동으로, 공동체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고 윤 하사의 희생은 한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앞으로 기독교 병사들과 장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도하거나 세례를 유도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배가 더 활력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려운 병사들에게 필요한 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랑의 돌봄이 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나 세계 선교 운동은 소그룹 기독교 운동이 활발하다. 제자화를 위한 스몰 그룹의 성경공부나 양육이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는 군종 사병이나 신자 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군대 목회는 결코 군목 혼자서 할 수 없다. 신자 병사들도 전군 신자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최근 이슬람교나 이단 종파들의 평신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지휘관들의 협조가 중요하거니와 신자 장교들과 지휘관들의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군에서 합동세례는 지휘관의 협조 없이는 너무 어렵다. 현재 군목이 감소되는 군대 상황으로서는 민간 목회자들의 목회가 잘 활용되어야 한다.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군대에서도 부흥운동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대대 단위 혹은 소규모 단위로서 민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병사들에게 상관성(relevance) 있는 메시지 전달과 기도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병사들에게 잘 읽혀질 수 있는 기독교 문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1970년대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집 형식의 소책자는 병사들에

게 인기가 있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나 신앙 교육은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며, 사회와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종교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신자 병사들이 전역할 때 지역 교회에 연락, 민간교회가 이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비전 2020 운동도 중요하다. 최근 사병들의 병영 생활은 과거보다 아주 개선되고 있다. 개인적인 시간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CD, 비디오, 만화 등 청년 문화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도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신자화를 위한 논의나 교재 및 토론도 많이 있기에 다른 제안은 생략하고자 한다

결론

한국 군대의 군종제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군대에서 시행된 합동세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서구 종교로 거부당하는데도 한국은 도리어 기독교가 청년들을 사로잡는 종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인격 지도 교육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기독교가 청년들 속에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합동세례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축복이었다. 다만 다른 종교를 자극한 것이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아시아에서 다른 종교들이 근대화하고 선교적 종교로 탈바꿈한 것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 선교의 영향이다. 문제는 합동세례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시행과 사후 양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군대의 합동세례는 어느 선교학자가 말한 대로 신앙의 종착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군종병과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1. 들어가는 말

고대 및 중세 한국 사회가 특정한 종교 및 이념을 중심축으로 이용하여 국가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고 헌법

■ 우기식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M. Div.)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공군본부교회 담임목사
- 국방부 군종정책팀 선도담당관
- (현)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

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갤럽 옴니버스 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된 종교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57%로 비종교인 4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 이와 같이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많은 현상은 1998년 이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군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 12월 기준 37개의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이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들의 종교생활을 군의 목표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²⁾ 이러한 경향은 군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특수성, 즉 종교에 관계없이 건장한 젊은이들을 군에 입대시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군이 가지는 목표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종교간의 화합을 과기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기독교의 선교운동, 즉 세례운동에 대한 비판이다. 더 나아가 집단세례운동으로 나타나는 선교운동에 대한 폐기론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군선교 현장의 실상인 것이다. 이에 본 소논문은 ‘군선교와 세례운동’이란 주제로 군선교 현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도전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군선교 현장에서의 세례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³⁾과 ‘세례’라는 큰 준거 아래에서 이를 설명해 나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전군 신자화 운동

1)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서울: 두란노서원, 2005), p. 62.
 2) 물론 군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준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3) ‘전군 신자화 운동’에 현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1종교 갖기 운동’ 개념도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2.1. 전군 신자화 운동의 정의

전군 신자화 운동이란 한국군이 낳은 새로운 용어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문자 그대로 한국 군대 내의 모든 군인을 모두 신자화⁴⁾하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 장병의 신앙화를 통한 강력한 군대 양성과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군의 복음화를 통한 한국 전체의 복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운동이다.

2.2. 전군 신자화 운동의 동기

전군 신자화 운동이 시작된 것은 비기독교인 지휘관의 강한 군대 양성에 대한 지휘 철학에 의해서였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청와대 기습시도 사건 및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군 정신무장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정신무장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1969년 한신 대장이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반공을 위한 정신무장 강화 성취는 군 구성원 전원의 신자화를 만드는 데 있다고 판단하여 군 중참모인 한준섭 대령에게 군중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70년 9월 16일에 있는 사단급 이상 군종장교 회의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군종장교들이 신자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⁵⁾

2.3. 전군 신자화 운동의 성과

지휘관의 강력한 후원 하에 시작된 신자화 운동은 당시 군종목사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여겨져서 활발한 선교활동의 계기가 되었고, 이 활동은 '합동세례식'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 신자화 운동의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3년(1971. 11. 25 - 1974. 9. 24) 동안 1회 1천 명 이상의 세례식이 25회에 걸쳐 진행되어 36,289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크고 작은 합동세례식은 103회에 연인원 60,975명의 결신자를 얻게 만들어 주었다.⁶⁾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중요한 세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초기의 주요 합동세례식

날 자	부 대	세례 인원	비 고
1971. 11. 25	육군 26사단	1,460	최초 세례식
1971. 12. 5	육군 5사단	1,005	
1972. 3. 9	육군 28사단	1,009	
1972. 4. 25	육군 20사단	3,473	최대 세례 인원
1973. 4. 26	육군 수도사단	451	장교 36명 포함

이와 같은 신자화 운동은 본래 군이 요구하던 바를 충족시킴으로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즉, 신자화 운동 전개 이후로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크게 감소해 간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내었다는 것이다.⁷⁾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되면서 육군에서는 1973년 말 48%선에 있는 종교인 수를 50%로 증가하는 것을 육군의 정책 사업으로 정하고 전군에 시달함으로 전군 신자화 운동이 육군에서 권장하는 주요 업무로 정식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런 영향은 공군과 해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1955), p. 69.
5) Ibid., pp. 69-70.

6) Ibid., pp. 79-84.
7) 육군본부, 인사보(1985), p. 83.

〈표 2〉 군 신자 증가와 사고 감소표

연도	구분	군 신자 수	군 사고자 수
1970		110,033	19,248
1971		174,354	14,708
1972		243,346	11,200
1973		279,102	9,041
1974		346,377	3,334

2.4. 전군 신자화 운동의 신학적인 배경

전군 신자화 운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 이론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 성장 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이다.

교회 성장 운동이란 목표 중심적인 운동이며, 또한 모든 전도 운동의 결과가 가시적인 개 교회 통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 운동은 모든 복음 전도 운동이나 선교활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에 입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⁸⁾

교회 성장 운동의 주요 전략은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 원리이다. 이 원리는 처음에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가 어떤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 주어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는 전략이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 맥가브란(McGavran)은 이 원리를 1930년대 초기에 피케트(Jarrell Waskom Pickett)가 시작한 인도의 선교 형태에서 배

웠다. 이른바 ‘집단개종운동’이라는 책을 통하여 피케트는 인도의 하위 계층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가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맥가브란은 이 현상이 비단 인도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1950년대 초에 알게 되어 이를 근간으로 1955년에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가장 전달력 있는 전파는 믿을 만한 신자들의 기존 사회망에서 일어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친척들, 친구들, 동료직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이는 성서적으로도 입증된다. 요한 복음 1장 40절에서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안드레가 바로 형 시몬에게 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군대마귀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 사실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고 하시며 이 사람을 보낸 기사가 있다. 그러므로 집단개종이란 ‘하나님의 다리’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집단이란 무엇인가?

맥가브란은 집단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이 집단의 개념이다. 집단은 구성원이 오로지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 사회이다. 그러한 계급이나 종족이 실제로 다른 것들과 인종적으로 구별이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만 아내를 취하는 한 그것은 자신을 정말로 따로 독립된 민족으로 생각할 것이며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생활은 그 자체에 한정될 것이며 씨족 충성

8)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서울 : 성광문화사, 1978), pp. 205-206.

9) D. McGavran & G.G Hunter, *Church Growth*, 박은규 역, 『교회성장학』(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p. 26-27.

심이나 집단 충성심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¹⁰⁾

이처럼 집단개중운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유기적인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며, 이는 교회와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가브란은 집단개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¹⁾

집단개중이란 그들의 비기독교인 친척들과 충분한 접촉을 하며 그 리하여 그 집단의 다른 그룹으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적절한 교훈을 한 뒤에 유사한 결단에 이르도록 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오로지 이루어진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집단에서 나와 사회적 이탈없이 그들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많은 개인들의 공동의 결단에서 생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맥가브란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집단 안에서 가장 잘 역사 하며 기독교가 가장 강력 있게 일어난 때는 집단들 내부에서 일어날 때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단개중운동을 통해서 많은 중 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세계 교회사에서 교회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교회의 성장 이유 중의 가장 큰 요소는 군대, 학원, 산업선교 등의 동질 구성 집단에 대한 집중 선교 수행에 따른 집단개중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¹²⁾

이상과 같은 고찰처럼 전군 신자화 운동이 외형적으로 확연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서의 집단 세례식은 철저한 신앙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모든 회심자의 2/3는 집단개중을 통하여 얻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음 비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모든 사람들의 90%는 집단개중으로 생겼기에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집단개중 회심자들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한국군의 '전군 신자화 운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다리'가 적용된 집단개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세례에 대한 고찰

3.1. 군 교회의 세례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군에서의 선교 활동의 결과는 외형적으로는 주로 집단세례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의 세례는 민간 교회로부터 민간 교회와는 달리 세례자의 사전 교육 기간의 충분하지 않음과 세례 후 성실한 교회 생활의 미흡 및 타종교로의 손쉬운 개종으로 인해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에게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군내에서조차 신병훈련소 교회에서의 집단세례에 대한 회의론 역시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기독교 신도들의 개종과 비종교인화 현상은 비단 군내의 현상만이 아닌 한국 교회 전체의 현상이라는 준거 내에서 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10) 간하베 편, 「교회 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1), p. 141.

11) 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교회성장학」(서울: 보문출판사, 1982), p. 433.

12)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보이스사, 1985), p. 192.

13) D. McGavran, 「교회성장학」, p. 432.

사실은 자명해진다.¹⁴⁾

〈표 3〉 3개 종교 종교인의 개종 현황(1998)

현재종교 \ 과거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비종교	기타	계
기독교	53.9	1.9	9.0	35.1	0.1	100.0
천주교	4.3	60.1	5.3	30.3	0	100.0
불교	8.7	2.7	70.6	17.9	0.1	100.0

〈표 4〉 3개 종교 종교인의 개종 현황(2004)

현재종교 \ 과거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비종교	계
기독교	61.8	2.8	9.0	26.4	100.0
천주교	4.5	63.9	10.5	21.1	100.0
불교	7.1	2.4	80.3	10.2	100.0

2004년도 조사 결과는 그 전의 조사 결과보다 자기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아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개종 및 비종교인화는 약 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 아니지만 위의 도표를 본다면 개종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군 신병교육대의 세례를 문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3.2. 기독교 세례의 배경

기독교 세례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¹⁵⁾

14)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 p. 78.

기독교 세례가 행해지기 전 기독교 세례에 영향을 미쳤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유대교와 연관이 없는 고대의 결례의식이다. 플레밍톤(Flemington)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물이 사용되었고, 종교 역사상 각 단계마다 이런 의식이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⁶⁾ 마이어스(Myers)는 정화의식은 거의 모든 원시시대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었고, 정화의식 시 사용되는 물에는 마법적인 힘이 부여해서 육신적인 더러움뿐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도 씻어낸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브라운(Brown)은 많은 원시부족들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의식들 즉, 부족의 일원이 되든지, 제사장이 될 때, 성인이 될 때 등의 의식 시 정결의식으로 물세례를 사용했고, 거기에 더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 자신이나 동물의 피, 불 등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⁸⁾ 둘째로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정화의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물로 씻는 의식은 친숙한 의식이다. 물론 물만이 유일하게 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기 13장부터 15장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물로 씻음 역시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중요한 정화의식의 하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물로 씻음을 통한 외형적인 정화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정화까지 언급하고 있다¹⁹⁾는 면에서 기독교 세례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식이었다는 면에서 단 한번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기독교 세례의식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

15) W.O.E. Oesterly and G.H. Box, *The Religion and Worship of the Synagogue*(New York : Charles Scribners' s Sons, 1907), p. 256.

16) W.F.Flemington,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Baptism*(London : S.P.C.K., 1948), ix.

17) Edward P. Myers, *A Study of Bapti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6), p. 2.

18) Henry F. Brown, *Baptism through the Centuries*(CA: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65), p. 1.

19) 시 24:3-4; 겔 36:25 등.

다.²⁰⁾ 셋째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여진 개종세례이다.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의 개종세례가 기독교의 세례에서부터 모방했다는 주장과 유대교의 개종세례가 기독교 세례 이전에 있었다는 주장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왜 세례를 주느냐?”가 아니라 ‘세례의 권위’를 물었던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유대사회에 친숙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개종자가 유대사회에 받아들여질 때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낫게 되면 두 명의 현자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 현자들은 “이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도록 그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다.²¹⁾ 넷째로 쿨란 공동체의 세례이다. 이 공동체에서는 세례가 기존의 유대사회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정화된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문으로서 의미 있게 사용되었고, 이는 세례 요한에게도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섯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이다. 이사야 40장 3절을 마태복음 3장 3절로 적용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외형적인 의식으로만 사용되던 세례에 대해 그 내면의 의미를 특히 강조하여 실행되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새로운 도덕적 생활에 연결된 세례²²⁾이며 이는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기독교 세례가 행해지기 전 이미 물로 씻는 정화의식과 내면의 정화라는 개념은 통용되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매우 친숙한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 어느 것 하나가 주도적으로 기독교 세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의식

과 기독교 세례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는 이전의 세례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 세례는 한번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전의 세례들은 내면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의식만 정상적으로 행하면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기독교 세례는 내·외면적인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차이도 있다. 셋째는 기독교 세례에서만 삼위일체론이 발견된다는 것이다.²³⁾ 마지막으로 이전의 세례들은 ‘무엇인가를 위한 세례(for something)’이었으나 기독교 세례는 ‘무엇인가 안으로의 세례(into something, into Jesus Christ, into His Name or into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²⁴⁾라는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3. 기독교 세례의 의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등 많은 구절에서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을 꾸짖으신 장면이 발견되고 있으나 유대교의 물을 통한 정결예식을 폐하지는 않으셨다. 대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승인하시고 계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조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정결’이었던 것이다. 기독교 세례와 구약을 포함한 이전의 물로 씻음과의 큰 차이점은 ‘용서(forgiveness)’에 있다. 버나드(Vernard)는 기독교 세례에 대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쌍방관계(two-way relationship)’로 설명하고 있다.²⁵⁾

20) W.F.Flemington,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Baptism*, p. 66.
 21) Henry F. Brown, *Baptism through the Centuries*, p. 2.
 22) W.F.Flemington,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Baptism*, p. 15.

23) Bryan D. Spinks, *Early and Medieval Rituals and Theologies of Baptism*(U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pp. 8-9.
 24) Ibid., p. 5.
 25) Eller Vernard, *In Place of Sacraments : A Study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p. 47.

기독교 세례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세례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²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례에 대해서 신약성서는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해 준다. 첫째는, 용서의 씻음이다.²⁷⁾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와 부활에의 참여와 관계의 재설정이다.²⁸⁾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옷을 입는 것이다.²⁹⁾ 넷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키는 것이다.³⁰⁾ 마지막으로는 중생하는 것이다.³¹⁾ 그래서 기독교의 세례는 기독교 케리그마의 구현(embodiment)이 되는 것이다.³²⁾

인간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인간 자신에게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³³⁾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스펅크스(Spinks)는 세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새로운 언약’ 으로까지 주장하고 있다.³⁴⁾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 땅 위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었던 것이다.³⁵⁾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초대교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세례’ 라는 개념, 즉,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26) Bryan D. Spinks, *Early and Medieval Rituals and Theologies of Baptism*, pp. 8-9.

27) 행 22:16; 고전 6:11; 딤후 3:5.

28) 롬 6:1-4.

29) 갈 3:26-27.

30) 행 2:41; 롬 6:3; 고전 12:13; 갈 3:26-27.

31) 요 3:4-5.

32) W.F. Flemington,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Baptism*, p. 49.

33) R.E.O. White, *The Biblical Doctrine of Initiation*(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p. 102. 행 2:40 참조.

34) Bryan D. Spinks, *Early and Medieval Rituals and Theologies of Baptism*, p. 7.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세례인가, 믿음인가? 바일리(Baillie)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키거나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차원으로로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³⁶⁾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의 확증으로서 세례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었으며, 이는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그래서 초기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은 세례를 구원에 대하여 ‘인치는 것(seal)’ 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³⁸⁾

한국군의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음에 대한 고백은 훈련소 교회에서 하게 하더라도 세례는 신병교육대가 아닌 근무부대에 가서 받게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신약성경이 가르쳐 주는 세례의 근본정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반드시 세례를 통한 확증, 인치심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구원과 더불어 세례가 이어지는 지금의 선교형태는 더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3.4. 세례의 시기

기독교 세례에 대한 수많은 도전 중에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중에는 세례를 집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전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35) Donald M. Baillie, *The Theology of the Sacraments*(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7), p. 80.

36) Ibid., p. 101.

37) 갈 5:6; 약 2:17. 참조 R.E.O. White, *The Biblical Doctrine of Initiation*, pp. 263-264.

38) Hendrick F. Stander and Johannes P. Louw, *Baptism in the Early Church*(Leeds: Carey Publications, 2004), p. 66.

것에 대해서 존슨(Johnson)과 부트릭(Buttrick)은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심³⁹⁾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르웨함비자(Rwehumbiza) 역시 전자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으셨다고 설명⁴⁰⁾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선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에 대해서는 초기 교부 중 한 사람인 터툴리안(Tertullian)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예수님 당대에는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님의 영광이 아직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기에 직접 혹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세례가 없다는 것이다.⁴¹⁾

그러면 세례는 언제 행하여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로서의 물을 사용한 세례의식은 오순절 이후로 시작되었다.⁴²⁾ 이 시기의 세례는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는 일과 그 말씀을 믿는 데 이어서 행해졌으며, 그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구체화하고 이 메시지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과 수용을 나타내었다.⁴³⁾ 이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세례는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용한 후 ‘즉시로’ 행해진 세례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과 관련된 일련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첫 번째는 9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세례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소경이 되어 직가라는

거리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된다. 바울이 세례를 받기 전 특정한 기간 동안 신앙과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록은 성경에 없다. 오히려 세례 후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은 묵상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기사이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바울의 시도가 성령에 의하여 제지되고 대신 빌립보로 가게 된다. 바울은 그곳 강가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은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트(Tate)는 루디아와 그의 집안은 즉시로 세례를 받았고 거기에는 지체됨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루디아의 세례에는 오늘날 흔히 요구되는 것처럼 교리교육이나 교회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모임에 대한 참석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⁴⁴⁾ 브로우(Brow) 역시 루디아가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재빨리 그녀의 집안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⁴⁵⁾

세 번째로는 16장 25절에서 34절에 나타나고 있는 간수와 그의 권속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큰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 간수는 바울을 만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되고,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16:31)는 답을 듣게 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을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며 그들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맥가비(McGarvey)는 이들에 대한 세례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

39) 마 3:15.

40) Rulange K.P. Rwehumbiza, *Jesus' Baptism :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for Christian Today*(Eldoret : AMCEA Gaba Publications, 1994), pp. 6-7.

41)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 -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the St. Clement of Rome to St. Athanasius*, 박경수 역, 「초기 기독교 교부」(경기도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pp. 198-199.

42)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IX(서울 : 기독교문사, 1983), p. 419.

43) Ibid. 행 2:37-38, 41, 8:12, 16:14-15 등 참조.

44) Van Tate, “Acts”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in Simple English*, Vol. I, Matthew-Acts(Arkansas : Resource Publications, 1987), p. 630.

45) Robert Brow, “Go Make Learners” : *A New Model for Discipleship in the Church*(Illinois : Harold Shaw Publishers, 1981), p. 36.

없었고 그날 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⁴⁶⁾ 브로우(Brow)는 이들에 대한 세례는 늦은 밤과 새벽 사이에 베풀어졌고 여기에는 그들의 성격에 대한 조사, 세례받는 의도, 그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겠다는 확신받는 것을 확인하는 일조차 없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⁴⁷⁾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브로우(Brow)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세례는 즉시 행해졌고, 세례받는 자에게서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2세기 이후 교회의 세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후보자들을 제외⁴⁸⁾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⁴⁹⁾

마지막으로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의 세례이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18:8). 맥가비(McGarvey)는 복음이 선포되어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이 장면이 세례의 전 과정을 잘 요약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⁰⁾ 이 외에 성경의 세례 사건 속에서도 사도행전 18장에 요약되어 있는 세례의 과정을 벗어난 도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세례의 시기는 ‘즉시로’의 세례이다. 세례에 있어서 지체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례의 전 단계로서 현재의 교

46) J. W. McGarvey,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tles* : Vol. 2(Cincinnati :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2), p. 103.

47) Robert Brow, "Go Make Learners" : A New Model for Discipleship in the Church, p. 36.

48) 2세기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세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직업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직업군에는 조각가, 화가, 배우, 전자를 모는 전사, 검투사, 매춘부, 마술사 등이 있고, 군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Burton Scott Easton, *The Apostolic Tradition of Hippolytus*(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34), pp. 41-49를 참조.

49) Robert Brow, "Go Make Learners" : A New Model for Discipleship in the Church, p. 33, 35. 참조.

50) J. W. McGarvey,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tles* : Vol. 2, p. 136.

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었다. 단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선포와 그에 대한 반응,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회개이다. 그리고는 즉시로 세례가 베풀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되는 회개는 무엇인가? 브로우(Brow)는 초대교회에서 요구되는 회개란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는 것’ 이고, 이것만으로도 세례 전에 요구되는 것으로서의 회개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이처럼 단순한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주변 풍조에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다양한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복잡한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⁵²⁾ 먼저는 성령의 선물을 주는 의식으로서의 안수식이 첨부⁵³⁾되었고 속사도 시대에는 금식을 요구하게 된다. 2세기 중엽에는 처음으로 완전하게 발전된 세례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터툴리안(Tertullian)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⁵⁴⁾ 세례의식은 네 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로 반복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난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고 무릎 꿇고 철야로 기도하게 된다(De Baptismo 20). 두 번째는 ‘물의 정화단계’이다(De Baptismo 4). 세 번째는 ‘부인과 3중 세례의 단계’로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를 부인하고 3번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복음서에서 주님이 정하신 것보다 많은 물음과 답변이 진행된다. 세례 후 후보자는 세례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유와 꿀의 혼합물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며 일주일간 일상적으로 몸을 씻는 것을 금하게 된다(De Corona 3). 마지막 단계는 ‘도유와 안식의 단계’로 완전히 성별된 기름으로 부

51) Robert Brow, "Go Make Learners" : A New Model for Discipleship in the Church, pp. 48-49.

52)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IX., p. 433.

53) 행 8:17, 19:6.

54) Henry Bettenson, 「초기 기독교 교부」, pp. 201-202. 'De Baptismo' 와 'De Corona'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음을 받게 되고(De Baptismo 7) 손이 우리 위에 안수되어 축복의 행위를 통해 성령을 기원하고 초대하게 된다(De Baptimo 8). 터툴리안(Tertullian)의 세례예식이 발견된 것을 기점으로 다른 교부들에게서도 터툴리안(Tertullian)과 같은 면들이 세례예식에서 발견되고 있다.⁵⁵⁾ 이런 예식은 점점 발전하게 되어 동방교회에서는 보다 풍부한 면을 갖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나, 서방에서는 초기의 단순성을 고수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그 형식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⁵⁶⁾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세례는 ‘즉시로’의 세례이다. 즉, 세례가 행해지기 전 복음의 선포와 이에 대한 수용과 믿음이 충족이 됨과 동시에 세례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군 훈련소에서 행해지는 세례 역시 성경의 사상에 위배되지 않는 세례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군 훈련소 교회에서는 훈련병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주일에 세례를 베풀거나 본인이 자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군 훈련소 교회의 세례 역시 진실되고 성경적인 세례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맺는말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기독교 전군 신자화 운동이 세례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경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전 역시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군선교 현장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운동 주체자들의 성경적인 확신이다.

군은 종교를 통하여 강한 군인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강한 군인 양성은 확실한 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사울을 국가에 기여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 확신이 무너졌을 때 사울은 국가를 어렵게 하는 주범이 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성경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군과 국가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강한 군인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고백은 이미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반드시 세례로 확증되어야 한다.

주로 훈련소 교회를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군의 세례는 성경적인 진실된 세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신앙고백’ 위에 베풀어져야 할 것이며 세례받은 자들을 위한 지속적인고도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더욱 발전되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55) Hendrick F. Stander and Johannes P. Louw, *Baptism in the Early Church*, p. 65.

56)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IX., p. 433.

참고문헌

-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이즈사, 1985.
- 육군본부. 「육군 군중사」, 1955.
- 육군본부. 「인사보」, 1985.
-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 서울 : 성광 문화사, 1978.
-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 두란노서원, 2005.
-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IX. 서울: 기독교문사, 1983.
- 간하베 편.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1.
- McGavran, D. & Hunter G. G. *Church Growth*. 박은규 역. 「교회성장학」.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McGavran, 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교회성장학」. 서울 : 보문출판사, 1982.
- Baillie, Donald M. *The Theology of the Sacrament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7.
- Brow, Robert. "Go Make Learners" : *A New Model for Discipleship in the Church*. Illinois : Harold Shaw Publishers, 1981.
- Brown, Henry F. *Baptism through the Centuries*. CA :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65.
- Flemington, W.F.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Baptism*. London : S.P.C.K., 1948.
- McGarvey, J.W.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tles* : Vol. 2. Cincinnati :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2.
- Myers, Edward P. *A Study of Bapti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6.
- Oesterly, W.O.E. and Box, G.H. *The Religion and Worship of the Synagogu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 Sons, 1907.
- Rwehumbiza, Rulange K.P. *Jesus' Baptism :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for Christian Today*. Eldoret : AMECEA Gaba Publications, 1994.
- Spinks, Bryan D. *Early and Medieval Rituals and Theologies of Baptism*. U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 Stander, Hendrick F. and Louw, Johannes P. *Baptism in the Early Church*. Leeds : Carey Publications, 2004.
- Tate, Van. "Acts"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in Simple English*, Vol. I . Matthew-Acts. Arkansas : Resource Publicantions, 1987.
- Vernard, Eller. *In Place of Sacraments : A Study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 White, R.E.O, *The Biblical Doctrine of Initiatio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현택 목사



I. 서론

1. 문제 제기

군대는 조직화된 집단 가운데 가장 규율이 엄하고 개인활동보다는 집단활동이 강조되며, 긴장되고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통제된 군대조직에서 복무하는 일반 사병의 병영생활

■ 김현택 목사

- 공군 준종23기 임관(교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공군방공포병학교, 공군 1,2,3방공포병여단, 155대대 준종참모
-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신학(Ph. D.cand.)
-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상담소 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외래교수

은 항상 긴장, 구속, 임무, 책임, 강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규격화되어 있으며 제한됨으로써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환과 스트레스, 욕구불만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병영 문화에 비해 최근 신세대들의 특징¹⁾은 “나홀로 주의”가 팽배하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엄청 약해져 있다. 그래서 신세대들에게 군은 상당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들에게 군은 사회와 격리된 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생활 자체가 무서움으로 다가온다.

2005년 6월 19일 연천 최전방부대 전방감시초소(GP) 내무반에서 평소 선임병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던 한 사병이 한밤중에 수류탄을 던진 뒤 소총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신세대 병영과 구 병영문화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한 신세대들이 통제된 군대 문화라는 상반된 환경에 맞닥뜨리면서 겪는 고립감과 스트레스에 폭력과 폭언이 더해지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 결국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는 신세대장병들에게 있어서 군 적응의 실패라는 부정적 경험은 그 일생에 있어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군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세대 장병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것에 있다. 그러므로 신세대 장병들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에

1) 신세대 장병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열정적이고 혁신적이며,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다. 또한 쌍방향 의사 소통과 정보의 공유에 익숙하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지시일변도의 종전 지휘방식으로는 군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충렬, “N세대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육군> 2005년 11/12월호, p. 65.

게 잘못 양육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신세대의 인성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신세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인간관²⁾을 기본으로 한 참된 자아 회복의 필요성을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군과 신세대 장병 간의 그리고 동료 전우 간의 갈등관계 및 의사소통의 차이 등 부정적 측면을 파악한 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환경 변화와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신병영 문화를 조성하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기독교적으로 돕는데 집필 목적이 있다.

3. 연구 방법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심리검사법 중 성격유형 검사 도구인 MBTI와 교류 분석의 마음그림검사(자아 상태)인 Ego-gram으로 신세대 장병(공군 방공포병 장병)들의 인성 부분을 집단상담³⁾ 측면에서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 비교하여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느끼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합리적이고 의지적이며 정서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통합된 전체이기 때문에 어느 차원에 문제가 생기든 전인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서울: 요단출판사, 1996), pp. 15-16.
3) 집단상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상담에서는 동료(전우)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이나 타인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김옥자,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활용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및 효과』(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2), p. 17.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과제 설정

- 1) 최근에 입대하는 신세대 장병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 2) 심리 상태에 따른 군 적응도는 어떠한가?
- 3) 신세대 장병의 심리 성향에 따른 기독교적 방안은?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군 방공포병 장병들 중 가장 최근에 입대하여 일정 기간을 자대에서 군생활하고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적응도가 있는 이등병 4명, 일등병 55명, 총 59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9월 22일과 2005년 9월 29일에 각각 집단으로 이루어졌다.⁵⁾

장병들에게 검사도구로 MBTI GS형 질문지와 공군 군종 병과에서 군 실정에 적합하게 만든 이고그램, 두 가지의 집단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더불어서 군 생활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의 분포

4)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장병의 대상 범위를 공군 방공포병 입대 장병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장병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2005년 9월 22일 29명, 2005년 9월 29일 30명 두 번에 나누어서 부대 내의 종교시설인 공군성군교회에서 실시하였다. 대상 장병은 포항, 벌교, 대구의 공군 방공포병 장병이다. 참고로 공군 장병은 소수정예로 육군 장병과는 달리 철저히 지원제에 의해서 선발된 장병들이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실험군은 2005년 9월 22일과 9월 29일에 ○○공군 방공포병여단 예하 ○○○대대의 대구, 포항, 벌교 부대 소속 장병 이등병, 일등병 특별 인성교육프로그램⁶⁾에 참여한 장병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로 다른 부대에서 일정 기간 군생활을 한 이등병, 일병 장병들 각각 29명(1차)과 30명(2차)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성격에 대한 이론 설명과 함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Ego-gram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검사 실시 후에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군 생활과 종교 참석에 대한 것 등의 간단한 설문지를 조사하는 순으로 실시되었다. 총 소요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약 4시간 정도였다.

집단 심리 검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교회)를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 장병들에게 진행하는 중에 간단한 간식도 제공하였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장병들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Ego-gram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설문지를 통해서 군 생활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 종교 참석과 군생활에 대한 생각, 군생활에 대한 현재의 심정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자료 분석

(1)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 결과 분석

〈표1〉 공군 방공포병 장병 성격 유형 분포(총 59명 조사 대상)

ISTJ (3명) 5.1%	ISFJ (1명) 1.7%	INFJ (1명) 1.7%	INTJ (3명) 5.1%
ISTP (8명) 13.6%	ISFP (3명) 5.1%	INFP (5명) 8.5%	INTP (3명) 5.1%

6) 총 2박 3일 간 각각 진행된 이등병/일병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4시간 정도를 군종실 군종장교(목사)의 특별 정신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조사되었다.

ESTP (6명) 10.2%	ESFP (5명) 8.5%	ENFP (5명) 8.5%	ENTP (2명) 3.4%
ESTJ (5명) 8.5%	ESFJ (6명) 10.2%	ENFJ (2명) 3.4%	ENTJ (1명) 1.7%

전체 16가지 유형 중에서 ISTP(13.6%)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은 ESTP(10.2%) 유형과 ESFJ(10.2%) 유형이 많이 나왔다.

한국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유형 ISTJ는 얼마 나오지 않았다.

E(외향형), I(내향형)의 비율은 45.8%, 54.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S(감각형)와 N(직관형)은 각각 62.7%, 37.3%로 S(감각형)가 25.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사고형)유형과 F(감정형)유형의 경우 각각 52.5%와 47.5%로 T(사고형)유형이 F(감정형)유형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J(판단형)는 37.3%, P(인식형)는 62.7%로 나타나 P(인식형)가 25.4%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성격 유형 기질 분포

성격유형 기질	SJ	SP	NF	NT
N(총계) 59명	15명 (24.4%)	22명 (37.3%)	13명 (22%)	9명 (15.3%)

재미있는 일에 흥미가 많은 SP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열성적인 NT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Ego-gram (마음 그림 검사) 결과 분석

공군 군종병과에서는 Ego-gram 자아 상태 유형⁷⁾을 군에 맞게 재분류해서 정상유형, 군탈 가능형, 구타 가능형, 자살 가능형(염세형)으로 나누어서 장병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군에서 분류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Ego-gram 자아 상태 실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3〉 Ego-gram 자아 상태 유형 분포

Ego-gram 자아 상태 유형들		인원(총 59명)
정상 유형		43명(72.9%)
군탈 가능형	V형	1명(1.7%)
	FC주도형	1명(1.7%)
구타 가능형	AC결핍형	7명(11.9%)
	A결핍형	2명(3.4%)
	역N형	1명(1.7%)
자살 가능형 (염세형)	W자형	0명
	AC형	4명(6.7%)

자아 상태 유형의 결과를 분석하면⁸⁾ 총 59명의 장병들 중 정상 유형이 43명(72.9%), 관심⁹⁾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군탈¹⁰⁾, 구타¹¹⁾ 자살¹²⁾이 16명

7) Ego-gram 검사지는 5개의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CP(Controlling Parent), NP(Nurturing Parent), A(Adult), FC(Free Child), AC(Adapted Child) 등의 5가지 유형의 자아 상태로 분류하여서 그 결과를 그래프에 점수화하여 연결하여 그래프에 나타난 선의 모양에 따라 유형을 체크한다. 예로, 우울형(W형), 낙천형(M형), 우유부단형(N형), 출세지향형(역N형), 내리막형, 오르막형(정서불안형), 일중독형, 과잉적응형, 중간형 등이 있다.

8) 이고그램 읽는 법: 먼저 어느 자아 상태가 제일 우위의 이고그램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각 우위의 기본적 성질을 생각한다. 높은 자아 상태와 낮은 자아 상태의 성질을 합쳐서 생각한다. 기타 자아 상태의 고저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9) 관심사병 이고그램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군 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장병들보다 부적응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공군본부 군중감실, 「장병 선도를 위한 이고-오케이 그래프 활용 방안」 2004, 9.

10) 군탈자, 휴가 미복귀자는 A(어른 자아 상태)가 낮아서 이성적으로 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FC(자유로운 어린이)는 높아져서 군대의 통제된 집단 속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11) 구타(폭행)자는 CP(비판적 어머니)와 FC(자유로운 어린이)가 높아서, 구타 대상자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못마땅하게 생각함)을 가짐과 동시에 자기 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수

(27.1%)으로 나타났다.

관심과 상담¹³⁾이 필요한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탈 가능형 2명(3.4%), 구타 가능형 10명(17%), 자살 가능형 4명(6.7%)으로 드러났다.

2. 신세대 장병들의 심리 유형 분석

(MBTI 성격 유형 검사로 분석)

(1) 심리 유형에 따른 공군 방공포병 장병의 특성

공군 방공포병(일명: 미사일부대) 부대¹⁴⁾는 중·장거리 대공방어 임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지대공 무기로 적 항공기나 유도탄 등 이륙한 비행물체를 파괴, 무력화하거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방공작전을 수행하고, 전방지역 지상군의 방공 기능을 지원하며 지대지 무기로 전략 및 전술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공 감시 및 전군 방공 정보 전파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군 비행단에 비해 복지시설 면이 미흡하는 등의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공군에 입대하는 많은 신세대 장병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난 1991년 7월,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부대이므로 아직도 육군의 문화와 공군의 문화가 공존하는 부대이다.

있다. AC(순응하는 어린이)는 낮아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즉, 구타를 할 가능성이 많은 이고그램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다른 자아 상태(CP, FC, AC)보다 특히 A(어른의 자아 상태)가 더 낮으면 구타의 가능성이 있다.

12) 자살 시도자(염세형)는 일반적으로 CP와 AC가 높게 나타나고, NP와 FC가 낮게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양으로 W자형을 나타낸다.

13) 관심사병 파악을 위한 심리 검사 종류에는 이고그램 검사, KHTP(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 문장 완성 검사, 우울증 검사, 분노 척도 검사 등이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고그램 검사는 사람의 마음 구조를 세 가지(어머니, 어른, 어린이)로 나누어서 피검사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검사이다.

14)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irforce.mil.kr/PC/PCA/PCA_0100.html의 공군 병과 소개에서 참조함.

보통 공군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중심이 조종사(비행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공포병 부대의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MBTI와 Ego-gram 심리 유형에 따른 군 적응도 분석)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공군 사병이 아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육군 문화가 잔재하고 있는 방공포병의 부대에서 군생활 중인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일반적인 공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성향¹⁵⁾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첫째로 이등병 시기로서 이 시기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하며 혼돈해하다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며 체력이 점차 강화되는 시기이다.

둘째로 일병 시기로서 이 시기는 점차 적응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며, 소속감을 지향하게 되는 시기이다.

셋째로 상병 시기로서 이 시기는 요령을 터득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며 기본 욕구들을 자유로이 해결할 수 있는 시기이다.

넷째로 병장 시기로서 자기를 관찰할 여유를 가지게 되며 사회 진출을 구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군의 입대하는 사병들의 성향은 목적 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진출을 고려하는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이다.

(2) MBTI¹⁶⁾의 성격 유형별 군 적응도(공군 방공포병 장병 대상)

15) 우기식, 「문화와 청년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1), p. 114.

16) MBTI(성격 유형 검사) 검사는 검사자의 성격 및 기질을 검사하여 자아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먼저 개인의 자아 성장 및 부대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명랑하고 활기찬 부대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지휘관들의 지휘 기법 향상 및 팀 빌딩에 도움을 주며, 장병 개개인에 대한 신상 관리 및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면담 시 상호 이해 및 임무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성격과 기

16가지 성격 유형¹⁷⁾에 따른 특성(집단 분석¹⁸⁾)

① ISTJ(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조용하고 진지하고 정확하며 근면하다.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한다.

② ISFJ(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조용하면서 다정 다감하며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돕는 형이다.

③ INFJ(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부드럽고 조용하며 양심적이고 끈기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원칙과 이상에 대하여 조용하게 밀어붙인다.

④ INTJ(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매우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개인주의적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몰아낸다.

⑤ ISTP(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조용하고 말이 없고 독립적이고 초연하며 가끔은 호기심을 가진 방관자이다. 본 연구에서 MBTI 검사를 통해서 공군 방공포병 신세대 장병¹⁹⁾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성격 유형(전체 59명 중에

질에 따른 임무 부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병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에 전입 신병들에 대하여 전입 시마다 실시하여 자료를 유지하고, 1년 단위로 검사를 재실시하여 구성원의 분포 변화 및 지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국방부 군공실 편집, 「선도 및 상담백과 2001」, 370. 참조).

17) 정상문, 「자기 성격 알기」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0), pp. 144-149.

18) MBTI 검사를 통하여 집단의 특성 및 방향에 분석하는 방법 중에 조직유엔 렌즈 분석이 있다. 이 집단분석 방법은 팀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수행문제들을 알아보고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직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팀원들의 선호 지표의 평균을 설정하여 조직 유형을 찾게 된다.

국방부 군공실 편찬,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2001, pp. 367-368.

서 8명으로 13.6%)이다. 공군 방공포병(대구, 포항, 벌교) 장병들의 조직 유형은 ISTP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평균적인 조직 유형은 ISTJ인 것과 달리 P(인식)기능이 방공포병 장병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ISTP 유형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말이 없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다. 사실에 근거를 둔 추리 외에는 잘 믿지 않으며,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고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억제하는 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적응력이 강하며 조용하면서도 정열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많으며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좋아한다. 단점은 열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며 일을 미루거나 결말을 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안내심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 유형은 위기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기술 분야 및 전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중대사를 혼자 간직하거나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노력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안내심을 함양하여 계획을 세우며 팀 단위 행동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함양할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²⁰⁾

⑥ ISFP(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자연스럽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충실하며 연민이 있고 개방적이며 타협적이다.

⑦ INFP(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말이 없고 부드럽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개방적이고 이상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한다.

⑧ INTP(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이론적이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말이

없고 통찰력이 있다. 사고나 언어의 정교성에 가치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⑨ ESTP(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실용적이고 정력적이며 모험이나 도전에 끌린다. 때로는 감정이 무딘 면도 보이고 제멋대로의 유형이기도 하다.

⑩ ESFP(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다정하고 편한 성격이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말이 많다. 즐겁게 남을 돕는다.

⑪ ENFP(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유분방하고 의사소통과 가능성을 생각해 내는 데 능하다. 열정적으로 한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다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⑫ ENTP(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열정적이고 솔직하며 비 동조적이고 혁신적이다. 재능이 많다. 일을 끝까지 마치기가 어렵다.

⑬ ESTJ(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논리적이고 단호하고, 효율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한다. 책임맡기를 원하며 능률을 중요하게 여긴다.

⑭ ESFJ(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열정적이고 따뜻하며 말이 많고 동정적이고 봉사를 중하게 여긴다.

⑮ ENFJ(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열의가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다정하다. 동정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고 양심적이다. 재능있는 연사나 지도자가 된다.

⑯ ENTJ(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

성격 특성과 군 적응도: 혁신적이고 논리적이다. 능률적이고 솔직하

19) 여기에서 제시하는 공군 방공포병 신세대 장병이란 대구, 포항, 벌교 부대에서 군생활 중인 이등병, 일등병 59명을 의미한다.

20) 국방부 군종실 편찬, pp. 367-368.

다. 단호하며 요구가 많다. 지도자가 많다.

(2) MBTI 4가지 기질 유형의 특징과 군 적응도와 스트레스 처리²¹⁾

첫 번째 기질인 SJ(ESTJ, ISTJ, ESFJ, ISFJ)는 에피메테리안 기질(보호자)로서 공군 방공포병 조사 대상(총 59명) 장병 중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과적인 사고 유형이다. 능동적이며 현실 실용도가 기준이며, 이상도 현실도 맞아야 이상이 되는 책임감이 강한 전통주의자형이다. 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를 준비하며,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존재들로 소속감이 강하다. 군에서 이들은 대체로 부대에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며, 위계질서가 뚜렷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스트레스 상황시 행동 특성²²⁾으로 SJ기질은 타인에게 과장된 보호를 하려고 하며, 고통을 호소하며, 잔걱정이 많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기질인 SP(ISTP, ESTP, ISFP, ESFP) 기질은 디오니시우스 기질(장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공군 방공포병 조사 대상(총 59명) 장병 중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적응적인 유형으로 순발력이나 순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상황이나 외부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며 편견이 없다. 손으로 하는 일에 재주가 많은 편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에 뛰어나기 때문에, 장비운용 능력과 유도탄 발사를 위한 순간적인 집중도가 요구되는 공군 방공포병 장병들에게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SP기질은 스트레스 상황시 행동 특성으로 자해, 약물, 가출, 알코올, 도박,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쉽고, 자유롭고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 충동적,

21) 기질 렌즈 분석법이다. 이 분석으로 조직원들이 어떻게 팀 지도자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역할과 책임감을 수렴할 것인가, 또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질은 SJ, SP, NF, NT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22) MBTI연구소 주관의 MBTI교육과정 중 중급과정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자극적, 쾌락적인 것을 찾는다.

세 번째는 NT형(INTJ, INTP, ENTP, ENTJ)으로 공군 방공포병 조사 대상(총 59명) 장병 중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 유형(합리적)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수는 적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비판이 강하고,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성격 유형들은 조직사회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시 행동 특성으로 NT기질은 자기에 몰입하며, 합리적인 듯하면서도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을 취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빈틈없는 정확함을 요구하며 강박증에 시달린다. 약간 미신적(마술, 주술 등) 공백 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네 번째는 NF형(INFJ, INFP, ENFP, ENFJ)으로 공군 방공포병 조사 대상(총 59명) 장병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폴로니안 유형(이상가)으로 불린다. 이들은 한편으로 열정적이고 이상적이지만 끝없는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부대의 사고 유형을 보면 이들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조직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NF 기질은 스트레스 상황시 행동 특성으로 건망증이 심하며, 하나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자신의 이름 또는 자기의 정체감을 바꾸고 싶어하며, 감정의 흐름이 많다. 또한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로 행동하며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주어 혼란케 한다.

3. 심리 유형에 따른 기독교적 접근

(1)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접근 방안

지금까지 집단상담 심리검사 도구(MBTI성격 유형 검사와 Ego-gram

마음 그림 검사)를 통해서 신세대 장병(공군 방공포병 이등병, 일등병)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였고, 심리 유형별로 군 적응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리 유형별 군 적응을 돕는 일반적 접근 방안으로 ① MBTI의 네 가지 기질과 Ego-gram간 차이에 따른 접근, ② MBTI 16가지 유형별 성장할 점들, ③ 자아 상태 수준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용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신세대 장병의 심리 성향에 맞는 군 적응을 돕는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설문지 분석²³⁾

이등병, 일등병 신세대 방공포병 장병들(59명)에게 MBTI와 Ego-gram을 실시한 이후 마지막 시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입대 전 했던 일, 가족사항, 현재의 종교, 군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들, 종교 참석, 종교 활동이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군 생활에 대한 심정 등이다.

먼저 종교 분포도²⁴⁾는 기독교가 30.5%, 불교가 37.3%, 천주교가 6.8%, 무교가 25.4%의 비율로 나타났다.

군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질문에서 현재 부대에서의 임무(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3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19%로 내무생활과 선임병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56%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가 36%로 나왔다.

종교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 '종교 활동²⁵⁾이 군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군 생활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61%로 조사되었다. 더불어서 군 생활 중 종교 참석에 대한 질문에서는 '58%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도 3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에 대한 심정을 묻는 문항에서 '군 생활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는다'가 24%, '군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된다'가 64% 등으로 군 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8%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설문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다면 신세대 장병이 군 생활 중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임무(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내무생활과 선임병과의 갈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장병에게는 군이라는 생소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입대 전 또는 입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신세대의 생각은 군 생활에 있어서 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 종교 참석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종교 참석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 생활에 대한 신세대 장병의 전반적인 생각은 군 생활이 자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신세대 장병에게는 군 적응을 도와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 활동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2) 성인아이(가족 치료)에 대한 치유

Ego-gram은 현재의 마음 상태(자아 상태)를 표시해 주는 데 앞서 59명

23) 설문지는 2005년 9월 22일 29명, 2005년 9월 29일 30명 두 차례 실시되었고 대상 장병은 포항, 벌교, 대구 지역의 공군 방공포병 소속 장병들이다.

24) 대구, 경상도 지역은 통상적으로 불교권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공군은 부대 배치를 집 근처로 배치하므로 대부분의 신세대 장병들이 대구, 경상도 출신이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의 종교 비율에서 불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25)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만이 각 종파별로 종교 시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의 신세대 장병들을 검사했을 때 정상 유형이 43명(72.9%), 관심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군탈, 구타, 자살)이 16명(27.1%)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군탈 가능형 2명(3.4%), 구타 가능형 10명(17%), 자살 가능형 4명(6.7%)로 드러났는데, 즉 전체 관심사병 27.1%(16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성인아이²⁶⁾에 대한 치유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입대하는 신세대 장병들 중 상당수가 정신이상²⁷⁾이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신세대 장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대체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정은 각 개인에게서 생활의 근거지요, 혈연 공동체로서 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생활 능력과 의사 소통, 상호협력 등 적은 기술을 체득하게 해 준다. 그리고 서로서로 위로와 인정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는 곳이다.²⁸⁾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다. 이 중요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인아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성인아이에 대한 정의의 다시 살펴보면 보통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자

녀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또한 역기능적인 자녀들을 지칭할 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유년시절에는 성인처럼 사고하며 행동하며 성인이 되면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유년시절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아이처럼 행동하며 사고하며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가정은 유기체이다. 그래서 개체가 하나만 잘못되어도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가족 체계가 불균형적으로 깨어질 때 성인아이들이 만들어진다.

최근에 들어와서 신세대 장병 사이에 이런 성인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성인아이의 특징은 첫째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둘째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다. 셋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로, 계속해서 사건과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여섯째로, 항상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다. 일곱째로,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직접 착수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룬다. 여덟째로,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홉째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열 번째로 충동적 행동의 문제가 있다. 열한 번째로, 자신을 고립하는 경향이 있다.²⁹⁾

더불어서 성인아이의 문제를 살펴보면³⁰⁾, ①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 ② 일이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③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④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⑤ 자신에 대해 너무 심각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데

26)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어린 시절이 인간의 갖가지 정서적인 문제점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오랫동안 묻혀 있거나 무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연령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할 때인데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린아이의 성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성인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의미있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다. 가정생활 전문가들은 그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른다.

(찰스 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최민희 공역(서울:두란노, 1992), p. 17.
27)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지난 2001년 28명에서, 매년 점점 늘어나 지난해에는 137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병사들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인성검사 강화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이상 전역 병사 5배로 늘어,” 〈YTN〉 2005년 9월 21일자 방송분.
28) 홍지훈,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와 자존감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5), p. 2.

29) Ibid., pp. 35-40.

30) 설은주, 『가정사역론』(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p. 171.

어려움을 겪는다. ⑥ 성인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⑦ 자신의 생활에 통제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데 뜻대로 안 되면 지나친 분노를 느낀다. ⑧ 평생동안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급급하다. ⑨ 다른 사람과 스스로 다르다는 느낌이 있다. ⑩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⑪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자신을 확대하는 부모에게 충성한다. ⑫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이미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이해하고 있다 등이다.

성인아이의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보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성인아이의 치유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라. 둘째로 고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라. 셋째로 과거로 돌아가라. 즉 현재의 문제 행동과 어린시절의 충격적 경험 사이에는 역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진단하고 현재를 치유해야 한다. 넷째로 부모님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다섯째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 여섯째로 치유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야 한다. 일곱째로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여덟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성인아이 문제들은 오랜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성인아이의 증상을 가진 장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유를 해 준다면 신세대 장병들이 군 적응을 보다 더 잘 할 것이다.

3) 기독교 회복 사역(자아 회복)에 따른 전인치유³¹⁾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접근 방안 중 회복 사역에 대해서 제시하고

31) 치유의 의미: 치유는 무질서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타락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치유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는 사회적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며 창조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규율에로의 회복이다(창 1:31). 치유는 인간 또는 사회의 구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는 인간 구원으로 후자는 사회 구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명수, 「치유선교론」 박행렬 역(서울: 나임, 1995), p. 18.

자 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범죄는 총 3만 7천여 건으로 연간 8천400여 건, 하루 평균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처럼 군에서도 매일같이 범죄로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병영 내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병영 문화 개선 대책위원회’³³⁾에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에 대해서도 정밀 관찰해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드러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징병검사할 때도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군입대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군에서도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및 건전한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인간 중심의 인성 교육 강화, 군 기강 확립 조성 및 신고 체계 확립, 입체적 장병 신상 파악, 병영생활 개선 및 동아리 활동 적극지원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병영 내 사건 사고 예방과 병영 명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군은 사회 개방화에 따른 병영 내 성문제의 다양화에 대비해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부대 상담관 역할을 하던 군중, 정훈, 의무 장교 및 주임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인근 지역의 성직자, 전문지도교사, 예비역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상담가(군무원) 인가 및 보직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성군기 위반 사고’³⁴⁾ 대비책의 일환으로 각급 부대에서 성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2) “군(軍)범죄 하루 평균 23건 발생” 〈연합뉴스〉 2005년 9월 25일자.

33) “내년부터 군 ‘야간점호’ 사라진다” 〈굿데이신문〉 2005년 10월 27일자.

34) 군은 군대 내 자살사고와 구타, 가혹행위 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00년 모두 141건이었던 군대 안의 성범죄는 2004년 23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880건에 달한다.

군대 안의 성범죄는 부대 안보다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가서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군대 안의 성범죄의 82%가 영외에서 일어났다. “군대 폭력은 줄었지만

이러한 각종 범죄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원인에는 깨어진 자아³⁵⁾가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도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상호 의존적이다. 말하자면 서로 영향을 주며 또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몸의 상태 여하에 따라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에게 발생한 일이 마음과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³⁶⁾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다.

이 고백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회복 사역³⁷⁾이다. 회복 사역(recovery ministry)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면,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위로로써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성경말씀처럼 자신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같은 어려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소그룹 사역이다(고후 1:4³⁸⁾).

소그룹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초대 교회, 역사상 대부흥을 주도한 존 웨슬리 등이 강조해 온 방법이다. 성경 공부 그룹이나 구역 모임과 달리 '회복 사역'은 철저히 지원 성격을 띠는 소그룹 중심이며 회복 사역은 철

저하게 '지원그룹'이라는 소그룹 원리와 'A.A.(Alcoholic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에 기초한 '12단계 회복 원리'를 따르고 있다.

충고, 권면, 토론, 끼어들기, 해결책 제시 등이 금지되며 비밀보장과 '무비판적인 수용' 나눔과 경청을 강조한다. 그룹원들은 자신의 어두운 비밀과 아픔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를 경험한다. '고백과 나눔'을 통해 요한일서 1장 5-9절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회복 모임의 역할이다.³⁹⁾ 한국회복사역연구소 고병인 소장은 회복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임을 강조한다. 즉 고백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용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회복 사역은 고통을 수반하는 영성 훈련이다.

회복 사역은 약 18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하루하루 내면의 치유와 영성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회복은 혼자 이룰 수 없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매주 모여 실패와 성공, 희망을 나누는 '지원 그룹'⁴⁰⁾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는 자기 충동성, 강박성을 자각하고, 낮은 자존감을 개발하며 정직, 겸손 등을 배우며 참된 자신이 되어 가는 것이다. 회복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오직 나눔과 고백이다. 지원그룹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회복 과정은 전인격을 포함하는데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한다. 회복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성범죄는 늘어"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일자.

35) 이명수, p. 44.

36) 탐 마샬,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서울: 예수전도단, 2000), p. 19.

37) 고병인, "회복 사역이란 무엇인가" <교회성장> 2004년 12월호, pp. 36-37.

중독, 학대, 외상의 회복 사역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회복사역연구소가 2005년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 <http://www.recovery-korea.com> 소장: 고병인 박사

38) 고린도후서 1장 4절(쉬운성경) :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9) 고병인, p. 37.

40) 지원그룹이란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 플러튼의 제일 복음주의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Overcomers Outreach'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와 심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하여 개발된 기독교적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다. '지원그룹'은 1920년대에 알코올 중독 회복자 빌 윌슨에 의해서 시작된 단주 모임의 '12단계 원리'를 기독교적으로 통합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45개 주에서 매주 800개 이상의 '지원그룹'이 모이고 있다.

‘회복 사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다.⁴¹⁾

첫째, 각종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들. 둘째, 분노, 우울감, 수치감, 낮은 자존감, 불안 등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셋째, 죄책감, 정죄감, 율법주의, 하나님과의 친밀감 부족 등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넷째, 이혼, 파산, 성폭력, 깨어진 관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 다섯째,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성인아이들). 여섯째, 강박관념, 충동적인 행동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회복 사역 중에 ‘자아 회복’ 그룹의 실제 진행 순서⁴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강은 서론으로 회복그룹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1부에서는 참자아의 상실과 회복의 주제 안에 2강 참자아의 상실, 3강 참자아의 왜곡, 4강 수동적 성격 유형, 5강 공격적 성격 유형 등이 있으며, 2부에서는 원가족의 이해와 회복의 주제 안에 6강 대를 이어 전수되는 상처, 7강 가계도를 통한 원가족 이해, 8강 가족 규칙, 9강 생존 기제와 가족 역할, 10강 생존 기제와 동반 의존, 11강 삼각관계와 반복되는 패턴, 12강 탈세대 전수와 외상 작업, 13강 외상 작업과 자기 분화 등으로 되어 있다. 기간은 총 13주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진행 방식⁴³⁾을 보면 약 1시간 정도 이론 설명이 있고, 잠깐 휴식시간 이후 약 2시간 정도 지원그룹(10명 내외 소그룹) 안에서 리더자의 지도 하에 자신의 별칭을 만들어서 각 개인이 약 5-10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나눔의 시간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며,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게 된다.

41) 고병인, p. 37.

42) 고병인, 한국회복사역연구소, 「자아 회복 그룹 강의안」 2005.

43) 본 연구자는 2005년 3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매주 토요일) ‘자아 회복 그룹’ 프로그램을(한국회복사역연구소)에 참석하였다.

자신의 수치감과 죄책감을 고백을 통해서 보호와 수용되는 느낌을 발견하게 되며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회복의 길을 스스로 인식한다.

다시 말한다면 지원그룹 안에서 적극적인 공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며, 그와 동시에 수치감과 죄책감을 나누게 되고 비로소 자기 회복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원그룹만의 특징으로는 모든 고백은 오직 모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철저히 비밀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복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회복 사역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군은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위해 회복 사역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자아 회복 그룹’ 프로그램을 신세대 장병에게 적용한다면 병영 생활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진정 신세대들의 마음에 이제는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4) 신세대 장병을 위한 기독교 군중 활동⁴⁴⁾이 나아갈 방향성

지금까지 신세대 장병의 심리와 군 적응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신세대 장병을 위한 군중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에서 신세대 장병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역할이 바로 군중장교일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군중장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기독교 군중장교(군중목사)가 신세대 장병을 위해 해야 일들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44) 보통 군에서 의미하는 군중 활동이란 신앙심을 통한 무형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 등이 있다.

국방부 군중실 편, 「군중업무지침」(서울: 국방부, 1999), p. 17.

첫째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⁴⁵⁾의 군중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군중 활동⁴⁶⁾을 보면 단순히 군인 교회를 신, 증축한다든지, 장병들을 위문 방문한다든지, 시대에 뒤떨어진 인격 지도를 한다든지 등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대 장병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둘째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시대이다. 군중 활동 분야에서도 부분별로 전문가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⁴⁷⁾에 문제가 있는 장병들을 도와주어야 할 상담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셋째로 예배의 갱신⁴⁸⁾이 필요한 때이다.

신세대 장병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장병들이 종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참석률은 매우 낮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세대 장병에 맞는 예배와 설교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45) “군 복무 패러다임의 전환” 많은 장병들이 피동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역 후에도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장병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리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병들이 군 복무가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충렬, “N세대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육군> 2005년 11/12월호, p. 63.

46) 공군의 경우 41명의 군중목사가 비행단, 싸이트, 방공포병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하는 일은 예배, 심방, 위문활동, 상담 등이다.

47)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즉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고 있으며, 인간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어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불활성화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빈곤 및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심수명,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서울: 서로서랑, 2001), p. 1.

48)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군중참모 중령 이재은 목사의 “파병 지역에서 종교 활동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파병 장병의 과반수 이상이 파병 중에 종교생활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조사되었다고 함. 하지만 장기간의 파병생활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활동에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월간지인 <육군> 11, 12월호 “작지만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군 인적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 의하면 군복무 중에 자기 계발 학습 시간⁴⁹⁾을 지정하여서 외국어 능력 향상, 자격 취득 등을 하게 하며,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연계를 위한 대학 학점 취득과 군 교육 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복무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군 인적 자원 개발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이처럼 군대의 병영 문화도 새롭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독교 군중 활동도 교회를 위한, 세계를 위한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IV. 결 론

1.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열정적이고 혁신적이며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신세대 장병의 심리 상태를 심리 검사 도구인 MBTI(성격 유형 검사)와 Ego-gram(마음그림 검사)으로 파악한 후, 그 자료를 분석, 비교하

49) 육군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육군 8개 중대를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중대 당 인터넷 PC 16대를 설치하고, 어학, 자격 취득,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한 결과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 개인별 PC 사용시간은 일일 평균 1.7시간이었으며, 어학(45%), 자격과실(38%), 교양과정(17%) 순으로 선호하였고, 참여 장병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었으며, 시범부대의 병영문화도 단순 반복적인 일상에서 자기 계발 목표를 지닌 새로운 병영 문화로 정착되었다.

박호선 “작지만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군 인적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육군> 2005년 11/12월호, p. 26.

여 심리 유형별로 기독교적인 접근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공군 ○○방공포병 부대에서 군 생활 중인 이등병, 일등병 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입대하여 어느 정도 군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에 가졌던 군에 대한 생각과 지금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과 종교 생활이 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Ego-gram(마음 그림 검사)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정상 유형이 43명(72.9%), 관심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군탈 가능형 3.4%, 구타 가능형 17%, 자살 가능형 6.7%)이 16명(27.1%)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Ego-gram은 현재의 마음 상태(자아 상태)를 표시해 주는데 앞서 59명의 신세대 장병들을 검사했을 때 정상 유형이 43명(72.9%), 관심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군탈, 구타, 자살)이 16명(27.1%)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군탈 가능형 2명(3.4%), 구타 가능형 10명(17%), 자살 가능형 4명(6.7%)로 드러났는데, 즉 전체 관심사병 16명(27.1%)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군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군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질문에서 현재 부대에서의 임무(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3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19%로 내무생활과 선임병과의 갈등으로 조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군 생활에 있어서 종교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기독교 종교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파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접근 방안으로 성인아이에 대한 개념의 제시와 회복 사역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를 마치며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세대 장병을 위한 전문적인 인성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신세대 장병 중에서는 이미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입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대 전에 인성을 체크하여 주어서 그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본 연구의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신세대 장병의 군 생활에서 종교에 대한 생각이 매우 긍정적(61%)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58%가 미참석)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代案)이 필요하다. 즉 신세대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예배,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신세대들이 군에 있는 동안 신앙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이미 군 생활 중인 신세대 장병 가운데 성장과정 중에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독교 회복 사역(자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상당수의 신세대 장병이 외부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상처로 어그러진 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장병을 군에서 육성하여 전역 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넷째로 신세대 장병을 위한 기독교 군중 활동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군중 활동이 5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타 종파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문성의 확보와 진정 신세대 장병의

④ 나가지 않는다.

14. 중교 활동이 군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군 생활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③ 별로 영향이 없다.

④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5. 군 생활에 대한 당신의 심정은

① 군 생활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는다.

② 군 생활이 조금 도움이 된다.

③ 기대와 달라서 군 생활에 매우 실망한다.

④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기타 사항()

16. 군중장교(목사)에게 하고(건의하고) 싶은 말:

군선교가 ①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1. 빛으로 갑옷 입은 순결한 젊은이들을 보소서
2. 힘차게 행진하며 노래하는 청년들을 보소서
3.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추수꾼을 부르신다



오 주여 저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것이니 양치림기르옵소서
내게 맡겨 주신 생명과 불질을 다 바쳐



당신의 강한 팔이 저들을 불드시면 -
승리의 대장에 수저들을 통치하시라 -
복음의 햇불되어 아낌없이 타리라 -



민족이 경성하리이다 세계가 진동하리이다
교회를 뜨겁게 하소서 사회를 깨끗케 하소서
주님 다시오시기 전에 인류구원 밀알 되리라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만 드시어



어둠을 몰아내소서 세상을 정복하소서
문화를 정케 하소서 비전을 품게 하소서
군대를 축복 하소서 민족을 구원 하소서



새천년 참된 평화의 방패 삼아 주 소서
통일된 조국 되 빛나는 큰 영광 받으소서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이민족 - 을 향하신 -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
수백만 - 의 생명을 - 우리 통해 살리신 주님 -

청년을 - 살리라는 - 소중한 부르심이 있어 - 선
불타는 - 가슴속에 - 억만민족을 품고서 - 죽

교의 큰 물결이 - 군대를 뒤덮었도다 - 그 -
도록 충성하라 - 심령을 인도하시네 - 성도

역사를 위하여 - 기도가 하늘을 - 질렀도다
여교회들이여 - 영적인 전쟁에 - 너를 부르다

이 귀한 영혼들을 깨워 내음성을 듣게하라 -

저 젊은 영혼들을 살려 내백성이 되게하라 - 오

(남성) 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 가

(여성) 비전 20 - 20을 이루라 -

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

비전 20 - 20을 향하여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나라와민 - 족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안고 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미래성도를 잉태하면서 빛나

신앙으로 - 필승의 군대를 - 만들어왔네 군과민
청년들 - 수없는 세례로 - 구원하였네 온백성

주인류복음화를 향한 - 비전 2020
이 환웃입고 두손드는 - 이 - 천이십년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우리는 달린다
가슴 박찬 그날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는 일한다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담대하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전진하

라 -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신다
라 -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비전 202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걸
비전 2020 위하여 충성하라 생명을 걸

고 아 - 아 비전 2020이여

관 권
소 유

군선교신학 5

•
2007년 4월 10일 인쇄

2007년 4월 16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쿼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이화동184-3

TEL/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3,000원

